Integrated Report of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POSCO REPORT 2014

posco

ABOUT THIS REPORT

통합보고

본 보고서는 2014년 포스코의 경제, 사회, 환경의 성과를 통합하여 수록한 POSCO REPORT(이하 보고서)입니다. 포스코는 1995년부터 환경보고서, 2004년 이후 지속가능성보고서, 2012년부터는 지속가능성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통합한 POSCO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발간해 온 탄소보고서도 올해부터 통합하여 발간합니다.

보고기준

본 보고서는 포스코 고유의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기반으로 다음의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4 가이드라인
- 국제통합보고위원회(The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의 The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Framework
- ISO 26000
-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원칙

재무정보 보고기준

보고서에 기재한 재무정보의 보고기준 및 정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합니다.

보고서 발간주기

포스코는 2004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본 보고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량데이터는 최근 3개년도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일부 정성적인 내용은 2015년 2월까지의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내용은 2015년 3월 13일 개최한 이사회 의결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범위

본 보고서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포항 본사, 서울사무소의 경제, 환경, 사회 성과를 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성과 및 계획 부분은 포스코 계열사의 경제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지속가능성 성과지표는 포스코와 포스코계열사 중 상장기업과 매출액 1조원 이상의 9개 기업의 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품질경영, 안전, 보건 등 일부 정보는 포스코와 국내외 출자사, 외주파트너사 등을 포함하는 포스코패밀리 전체의 정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검증

포스코는 이해관계자가 보고서의 작성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검증기관인 삼일PwC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기준은 ISAE3000, AA1000AS Type II를 적용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와 관련된 검증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된 검증인의 검증보고서 136 page
- 독립된 검증인의 탄소보고 검증보고서 138 page

보고서 배포 및 의견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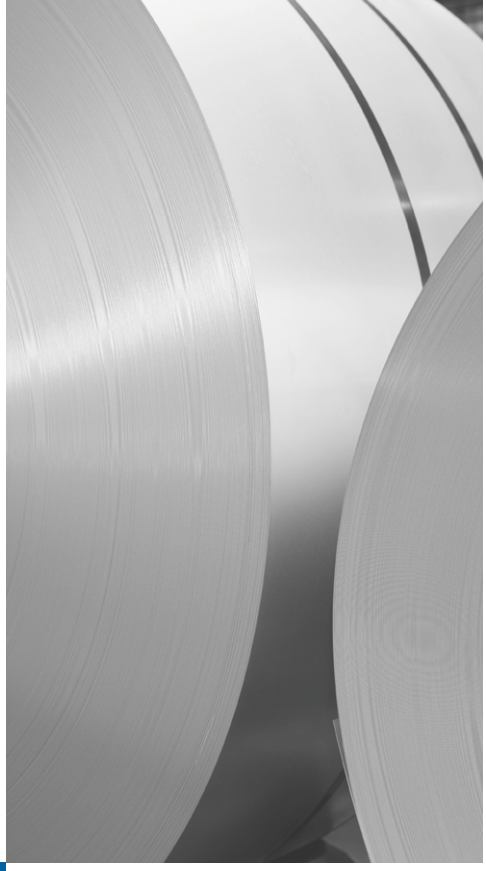
본 보고서는 한글, 영문, 중문으로 발간되었으며 포스코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은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주소_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괴동동)
대표전화_ 054-220-0114
보고서 관련 문의_ 환경사회공헌실 02-3457-0198
홈페이지_ http://www.posco.com
이메일_ 지속가능경영: sustainability@posco.com
IR: ir@posco.com
PR: webmaster@posco.co.kr

커버사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생산중인 고장력 자동차 강판[주]. 일반 강판에 비하여 두께가 얇지만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짐. 차체무게가 가벼운 차량 제작이 가능하여 연비가 향상됨. 고장력 자동차강판으로 제조한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연간 약 185kg의 CO_2 감축효과가 있음. (연간 1만9천Km 주행 가정)

[주]고장력 자동차강판: 인장강도가 340MPa이상인 강판



Integrated Report of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POSCO REPORT 2014

CONTENTS

01 Overview

CEO메시지	04
이사회구성	06
기업지배구조	08
투자자 정보	09
회사소개	11
2014 성과 및 2015 계획	12
Performance Highlights	19

02 Management Report

비전 및 전략	22
2015 전략, 기회 및 위협요인	22
지속가능경영 정책	24
중요성분석	26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참여	28
이해관계자 인터뷰	31
환경대담	33
마케팅	
솔루션마케팅	36
제품	
포스코 제품	38
친환경 신제품	39
품질경영	42
혁신	
World Premium 기술개발	44
신성장 기술개발	45
업무혁신	47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체계	50
직원	
기업문화	53
포스코인재상	58
글로벌 인재 육성	60

03 Responsibility Management

기업윤리 66
글로벌 인권경영 69
안전 및 보건
- 안전 72
- 보건 78

공급사슬관리
- 공정거래 81
- 동반성장 정책 및 프로그램 84
- 벤처지원프로그램 90
- 공급사슬 CSR 경쟁력 향상 92

환경
- 환경경영 94
- 환경성과 96
- 생물 다양성 정책 및 활동 100
- 환경 커뮤니케이션 101

기후변화
- 탄소경영 102
- 기후변화 대응활동 110
- 기후변화 파트너십 활동 117

사회공헌
- 지역사회 121
- 글로벌 인재 124
- 지구환경 126
- 다문화 127
- 문화유산 128

04 Financial Statements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30
연결재무상태표 131
연결포괄손익계산서 132
연결자본변동표 133
연결현금흐름표 134

05 Assurance Report

독립된 검증인의 검증보고서 136
독립된 검증인의 탄소보고 검증보고서 138

06 Appendix

GRI Index 140
UN Global Compact Index 143
포스코 윤리규범 144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 148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150
기업지배구조헌장 157
사외이사윤리강령 159
이사회운영규정 160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164

포스코 지속가능성 보고서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jsp/sustain/customer/s91d7000020l.jsp

포스코 사회공헌홈페이지
http://poscolove.co.kr

CEO MESSAGE

"2015년에도 포스코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포스코'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저는 포스코의 CEO로서 지난해 'POSCO the Great'라는 새로운 Vision을 만들어 선포했습니다. 이는 창조·화목·일류 경영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 세계인으로부터 존경 받는 기업으로 거듭남으로써 위대한 포스코를 재창조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비전 아래 고객 서비스 강화, 안전경영, 인재경영, 사회공헌, 환경경영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활동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이 심화되는 시장상황에서, 저는 회사가 가장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은 '철강사업의 본원경쟁력 강화'라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철강제품의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고객이 필요로 하거나 필요가 예상되는 것을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로 제공하는 '솔루션마케팅'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고부가가치강인 WP(World Premium)제품과 솔루션마케팅 연계 판매량을 재작년 대비 각각 13%, 186% 늘리고, WP제품 점유비를 33.3%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수익성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회사는 창업 초기부터 '기업은 곧 사람'이라는 인재존중의 신념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저는 경제불황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이겨내고 위대한 포스코를 재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인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품질의 교육으로 체계적인 인재육성과 조직의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월 포스코 인재창조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지난해 '프로젝트 기반의 일하는 방식'을 정착하여 전문가 육성 및 성과주의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for a better world)'라는 포스코의 사회공헌 슬로건이 말해 주듯, 저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회사차원의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월 급여의 1%를 기부하고, 회사는 매칭 기부금을 출연하는 '포스코1%나눔재단'이 작년 11월에 1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약 2만9천여명의 그룹 임직원이 1%나눔에 참여하고 있으며, 복지지원이 필요한 국내외 가정을 위한 '스틸 빌리지(Steel Village)'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제철소에서는 종합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그룹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리스크를 점검토록 하고, 사업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염사고 등 환경 리스크를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신규사업 및 그룹사 사업장의 환경리스크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환경경영위원회에서 그룹사 대표들과 논의할 계획입니다.

2014년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포스코는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월드스틸다이내믹스(WSD)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5년 연속 1위, 글로벌 지속가능성 지수인 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에 10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에도 포스코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해서 국민에게 사랑 받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포스코'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회장 **권오준**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구성

포스코는 기업지배구조의 비전과 원칙을 표명한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속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이사회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7인과 사내이사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및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 되는 등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를 운영해 이사회 의제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독립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채택하여 주주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였으며,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과 경영진을 대표하는 CEO를 분리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진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CEO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CEO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규정을 신설, 준수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사외이사 활동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외이사 윤리 규범을 제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내부거래 안건에 대해 복수의 전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전문위원회 및 사외이사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재정 및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전문위원회별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사외이사

1	2	3
	4	5
	6	7

1 신재철 (의장)
- 전 LG CNS 대표이사 사장
- 전 로고스시스템 회장
- 전 한국IBM 대표이사 사장
- 서울대 전기

2 이명우
- 현 동원산업 대표이사 사장
- 전 한양대 경영대학 특임교수
- 전 소니코리아 대표이사 회장
- 서울대 철학, 펜실베니아대 경영/석사

3 김일섭
- 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 전 안진회계법인 회장
- 전 삼일회계법인 부회장
- 서울대 경영, 서울대 경영/석,박사

4 선우영
- 현 법무법인 세아 대표변호사
-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서울대 법학

5 안동현
-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전 스코틀랜드왕립은행, Head of Quant Strategy
- 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교수
- 고려대 경영, 뉴욕대 경영학박사

6 박병원
- 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 전 재정경제부 차관
- 서울대 법학, 워싱턴대 경제/석사

7 김주현
- 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 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전 고려종합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서강대 영문, 애리조나대 재무/박사

Interview

김진일 대표이사 사장 _철강생산본부장

철강생산본부는 2015년 목표 달성을 위해 품질과 고객만족 증진을 전제로 한 원가절감, 기술개발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고객의 혼(魂)까지 감동시키는 초일류 품질'의 의미를 담은 The POSCO Quality 품질비전의 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도 품질향상과 고객만족 증진이 전제된 원가절감, 기술개발활동에 선택과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안전부분 중점 추진사항을 자기주도의 안전 활동 확산(안전 SSS 활동, Self-directed Safety Spread)과 기본의 실천 준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모든 일터가 안전하고 삶이 행복한 포스코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영훈 부사장 _재무투자본부장

2014년 포스코는 경영목표를 본원경쟁력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에 두었으며, 이를 위해 재무투자본부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포스코와 시너지가 미흡한 사업 매각과 비핵심 자산 정리를 통한 비부채성자금 조달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사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활동 지속추진을 위해 이익 증대를 통한 영업현금 흐름 개선, 비핵심 자산 매각 등 비부채성 자금조달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포스코 본업에 있어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지만, 임직원 모두가 창업정신, 희생정신, 윤리의식을 고취하려는 노력을 경주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동준 대표이사 부사장 _경영인프라본부장

포스코는 올해 인재창조원을 설립하여, '교육'이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해나갈 예정입니다. 2015년 직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나눔활동을 정착시키고, 불필요한 관행이나 낭비성 업무 폐지, 공정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둔 제도개선 등을 전개하여 직원 모두가 회사에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사업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포스코 그룹 Global HR 포털'을 새롭게 구축하여 해외에 근무 중인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해외근무 직원간에도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오인환 부사장 _철강사업본부장

포스코는 2014년 솔루션마케팅(Solution Marketing) 원년으로 고객 이용기술 중심의 솔루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2015년에는 기존 이용기술을 고도화하고, 전사 차원의 상업적 지원을 통해 타사와는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가치향상을 위해 고장력강, 고망간(Mn)강 등 고효율 제품을 개발 판매하여 고객이 사용단계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철강사업본부의 영업사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경영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1	2	3
4	5	

1 권오준
- 현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 전 포스코 사장
- 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원장
- 서울대 금속, 윈저대 금속/석사, 피츠버그대 금속/박사

2 김진일
- 현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철강생산본부장)
- 전 포스코켐텍 대표이사 사장
- 서울대 금속

3 윤동준
- 현 포스코 대표이사 부사장 (경영인프라본부장)
-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
- 숭실대 산업공학, 조지워싱턴대 MBA

4 이영훈
- 현 포스코 부사장(재무투자본부장)
-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
- 서울대 경제, 런던대 경제/박사

5 오인환
- 현 포스코 부사장(철강사업본부장)
- 전 포스코P&S 전무
- 경북대 사회, 연세대 경제/석사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포스코 사내이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자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이사회가 최종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외이사는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각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자문단으로부터 선임 예정 이사의 3배수를 제안 받고, 이후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자격을 심사하여 후보를 추천하며,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2015년 3월 13일에 개최된 제4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는 신재철 전 LG CNS 사장이 재선임되었고, 박병원 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주현 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사내이사에는 김진일 사장, 이영훈 부사장이 재선임되었고, 오인환 부사장이 신규 선임되었으며,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신재철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14년 포스코 이사회는 총 10회 개최되었으며, 2014년 이사회 전체 참석률은 97.4%입니다. (사내이사출석률: 100%, 사외이사 출석률 95%)

2014년 이사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안은 2015년 경영계획, 포스코특수강 지분 매각, 세월호 관련 '안전 대한민국 구축'을 위한 성금 출연, 연말 이웃 돕기 성금 출연 등이었습니다.

이사회 주요 논의 안건

01.29	제46기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승인과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사외이사 보수체계 변경(안)
02.24	사내이사 후보 추천
	제46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03.14	이사회 의장 선임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대표이사 회장 선임
	대표이사 선임 및 사내이사 직위 부여
05.16	중기 경영전략
	포스코교육재단 출연
	카드 마일리지 기금 포스코1%나눔재단 출연 등
08.08	2014 회계연도 중간배당 실시(안)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주식현물 출자
	강릉 마그네슘제련사업 지역 발전기금 출연
	세월호 관련 '안전 대한민국 구축'을 위한 성금출연 등
11.07	포스화인 지분 매각
	2014년 ESOP 시행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등
12.12	2015년도 경영계획
	포스코특수강 지분 매각
	연말 이웃돕기 성금 출연 등

이사 총 보수

보수 한도	총 지급 보수
70억 원	64억 원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총 6개가 있으며, 철강투자의 검토와 심의를 담당하는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전문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이사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합니다.

전문위원회 주요 역할 및 구성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1인/ 위원장 안동현)
2014 개최 수 : 4회
주요 심의/의결 : 사외이사 후보 자격심사 및 추천, 사내이사 후보자격 심사,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대표이사 선임 및 사내이사 직위 부여 등

▶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 4인/ 위원장 선우영)
2014 개최 수 : 2회
주요 심의/의결 : 2013년도 경영성과 평가, 2014년도 전사 경영성과 평가계획 등

▶ 재정및운영위원회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2인/ 위원장 이명우)
2014 개최 수 : 5회
주요 심의/의결 : 카드 마일리지 기금 포스코1%나눔재단 출연, 포스화인 지분 매각, 2015년 단기차입한도 승인 등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인/ 위원장 김일섭)
2014 개최 수 : 8회
주요 심의/의결 : '1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제46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등

▶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3인/ 위원장 김일섭)
2014 개최 수 : 7회
주요 심의/의결 : 포스코 교육재단 출연, 포스코특수강 지분 매각 등

▶ 경영위원회
(사내이사 5인/ 위원장 권오준)
2014 개최 수 : 15회
주요 심의/의결 : 포상 연계 자사주 처분, 광양 3CGL 노후 설비 교체, 포항 1열연 노후 제어시스템 교체, 광양 5고로 1차 개수 등

* 전문위원회의 인원 구성 및 위원장은 2015년 3월 13일 기준임.

INVESTOR INFORMATION
투자자 정보

신용등급

최근 수년간 철강산업의 저성장, 저수익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는 글로벌 주요 철강사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2013년 11월 Moody's는 포스코의 등급을 Baa2로 하향조정했으며, S&P는 BBB+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는 포스코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원가 및 기술 경쟁력에 대해 글로벌 주요 경쟁사와 대비해 독자등급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변동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S&P	A (Stable)	A- (Negative)	BBB+ (Stable)	BBB+ (Negative)	BBB+ (Negative)
Moody's	A2 (Negative)	A3 (Negative)	Baa1 (Negative)	Baa2 (Stable)	Baa2 (Stable)

배당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업황 부진에 따른 수익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안정적 배당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간 20% 이상의 배당성향과 2% 이상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1988년 포항제철(주) 주식이 상장된 이래로 포스코 주권(국민주)을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명부주주 중 배당금 이체계좌 해지 등의 사유로 배당금 이체를 받지 못하는 주주들을 찾아 미지급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지급 배당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2	2013	2014
주당	현금배당금(원)	8,000	8,000	8,000
	중간배당금(원)	2,000	2,000	2,000
배당금총액(10억원)		618	633	640
배당성향(%)		24.7	40.0	56.2
배당수익률(%)		2.3	2.5	2.8

2015 POSCO Investor Forum

NYSE ADR 상장 20주년 기념 타종행사

기업가치 및 대외평가

2014년에도 세계적 경기불황이 지속된 가운데 포스코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14년 매출액은 29조 2,189억원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2조 3,500억원으로 전년대비 6.1%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원료 배합 단가 절감, 설비자재 최적화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세계 최상급 제품 판매 확대 및 솔루션마케팅활동을 강화하여 단독 영업이익률 8.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스코특수강 매각 등 사업 구조조정 및 비핵심자산 정리 등의 활동에 박차를 가하여 재무건전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강경기 및 수요산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2013년말 326,500원이던 주가는 2014년말 275,5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철강경기의 구조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당사는 고부가가치제품 확대를 통한 철강 본원경쟁력 강화 및 비핵심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가 2014년 6월 17일 제29차 글로벌 철강전략회의(SSS: Steel Success Strategies)를 개최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World-Class Steelmaker Rankings)' 선정결과 포스코가 세계 36개 철강사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5년간 연속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WSD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5년연속 1위

로베코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

ROBECOSAM Sustainability Award Gold Class 2015 | ROBECOSAM Sustainability Award Industry Leader 2015 | ROBECOSAM Sustainability Award Industry Mover 2015

다보스포럼 2015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36위

GLOBAL100

WSD(World Steel Dynamics)는 2014년 6월 기준, 전 세계 36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생산 규모·수익성·기술혁신·가격 결정력·원가 절감·재무 건전성·원료 확보 등 23개 항목을 평가하였고, 포스코는 기술혁신, 인적자원 등 4개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는 등 7.91(10점 만점)의 점수를 받아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포스코는 로베코 샘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SAM-DJSI : SAM-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평가에서 철강업계 최초로 10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최우수 철강기업(Industry Leader)'을 비롯해 전년 대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인더스트리 무버(Industry Mover)', 산업계 1% 리더들로 구성된 '골드 클래스(Gold Class)' 등 3개 부문에 걸쳐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포스코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2015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에서 국내 기업 중 최고 순위인 36위에 올라 글로벌 리딩 철강사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2014 SAM DJSI평가결과

(단위: 점)

구분		경제/사업현황	환경	사회	합계
포스코점수(점)		81	88	85	85
철강업계	평균	54	38	46	45
	최고	81	88	85	85

철강사 경쟁력 순위 (2012~2014)

순위	2014.06	2013.06	2013.02	2012.06
1위	POSCO (한국)	POSCO (한국)	POSCO (한국)	POSCO (한국)
2위	Nucor (미국)	Severstal (러시아)	NLMK (러시아)	NLMK (러시아)
3위	NSSMC (일본)	Nucor (미국)	Severstal (러시아)	CSN (브라질)
4위	Gerdau (브라질)	NLMK (러시아)	JSW (인도)	Severstal (러시아)
5위	Severstal (러시아)	JSW (인도)	NSSMC (일본)	Bao Steel (중국)

2014년 국내외 수상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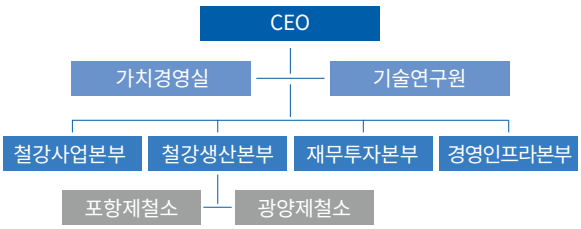
해외	2014.06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5년간 7회 연속 1위 (WSD)
	2014.09	로베코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최우수기업
	2014.10	2014 동아시아 30우수기업(한겨레경제연구소, 아시아사회책임경영전문가위원회)
	2014.12	DPCA(둥펑푸조시트로엥) 최우수 공급사상 2년 연속 수상
	2015.01	다보스포럼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선정 36위 (코퍼레이트나이츠)
	2015.02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World's Most Admired Companies)' 금속3위 (포춘)
	2015.03	'올해의 우수공급사상'(GM)
	2015.03	'올해의 우수공급사상("Excellent" Value Improvement Award)'2년연속 수상 (도요타)
국내	2014.02	'2014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Best Korea Brand), 대한민국대표브랜드2위
	2014.03	'2014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지주사부문 대상
	2014.07	대한민국 상생 콘퍼런스 우수상생기업선정
	2014.10	CDP한국위원회 원자재분야 리더기업 6년 연속
	2014.10	'2014년 제4회 대한민국 SNS 대상' (2년 연속)
	2014.11	'Next Society CSR Summit 2014' 철강부문 대상
	2015.02	2015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5위 (12년 연속)

ABOUT POSCO
회사소개

포스코개요 (2014년 12월 31일 기준)

1968년 설립된 포스코는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등 철강재를 단일 사업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17,8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은 CEO산하 가치경영실, 기술연구원, 그리고 4개본부인 철강사업본부, 철강생산본부, 재무투자본부, 경영인프라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스코조직도



회사명_ 주식회사 포스코(영문명: POSCO)
본사소재지_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괴동동)
사업내용_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
대표이사_ 권오준
설립일_ 1968년 4월 1일
임직원_ 17,877 (2014년 12.31일 기준)

재무성과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용	단위	2012	2013	2014	전년비
조강생산량(연결)	천톤	39,702	38,261	41,428	8.30%
매출액	십억원	63,604	61,865	65,098	5.20%
영업이익	십억원	3,653	2,996	3,214	7.30%
순이익	십억원	2,386	1,355	557	△58.9%
영업이익률	%	5.7	4.8	4.9	2.10%
자산	십억원	79,266	84,455	85,252	0.90%
부채	십억원	36,837	38,633	39,961	3.40%
부채비율	%	86.8	84.3	88.2	4.60%
자본	십억원	42,429	45,822	45,291	△1.20%
ROE	%	5.7	3.1	1.2	△61.3%

통합지속가능성 성과지표[1)]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혁신	연구개발비용[2)]		백만원	618,146	584,994	694,021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3)]		%	0.97	0.95	1.07
직원[4)]	1인당 교육시간		시간	181	162	109
	1인당 교육비용		원	925,607	731,305	649,066
	직원만족도		점	79	81	76
	퇴직률		%	5.05	3.04	6.07
	근속년수		년	11	12	12
	계약직 직원비율		%	6.5	6.1	9.7
	육아휴직 후 복귀율(남)		%	100	100	100
	육아휴직 후 복귀율(여)		%	71.0	96.6	85.2
안전	휴업도수율		백만시간당	0.14	0.14	0.18
	재해건수(평균)		건	4.1	5.0	5.1
사회	1인당봉사시간		시간	35.4	30.3	27.4
	사회공헌비용		백만원	101,783	64,832	65,905
환경	에너지사용량		TJ	941,555	922,548	974,567
	온실가스배출량 SCOPE1(직접배출)		천 톤CO_2e	85,678	82,493	84,413
	온실가스배출량 SCOPE2(간접배출)		천 톤CO_2e	3,682	4,279	4,741
	물사용량	용수 사용량	천m^3/년	140,838	140,497	144,054
		오/폐수 배출량	천m^3/년	95,611	81,794	86,291
	폐기물량	발생량	천 톤/년	24,932	23,342	24,873
		폐기물량(처분)	천 톤/년	583	582	554
		폐기물량(재활용)	천 톤/년	24,349	22,760	24,319

1) 통합지속가능성지표 범위 : 총 8개사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켐텍, 포스코엠텍, 포스코강판)
2)3)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율. 포스코 2014사업보고서 연결기준의 연구개발비용 기재
4) 총직원수는 8개사의 사업보고서의 직원현황데이터를 합산한 자료로 2012년 30,072명, 2013년 29,727명, 2014명 30,912명입니다.

2014 PERFORMANCE AND 2015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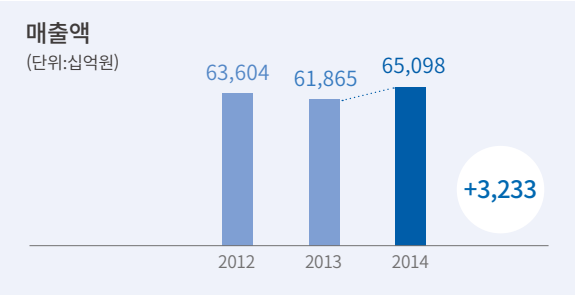
2014년 성과 및 2015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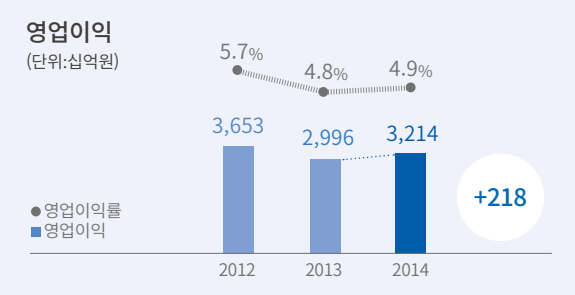
2014년은 세계 경제의 부진 및 자동차, 조선 등 수요산업 부진으로 판매 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철강경기 역시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과잉생산 및 과잉설비 문제가 지속되며, 중국의 철강수출 급증과 엔저 영향, 국내 수요산업 정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포스코는 'POSCO the Great'의 재건을 선언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철강사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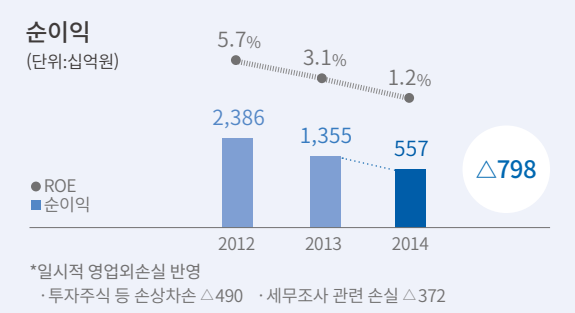
포스코의 2014년 연결기준 경영 실적은, 매출액 65조 984억원, 영업이익 3조 2,135억원을 달성하였고, 영업이익률은 4.9%입니다. 포스코 별도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29조 2,189억원이나, 고부가가치제품 판매 확대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2조 3,500억원, 영업이익률은 8.0%를 기록하였습니다.

연결기준 자산 규모는 포스파워 인수 및 포스코플랜텍 증자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85조 2,522억원이며, 대우인터내셔널 매출증가에 따른 무역금융 영향으로 부채 규모는 3.4% 증가한 39조 9,608억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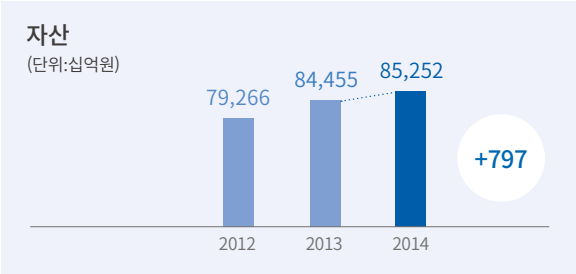
그룹연결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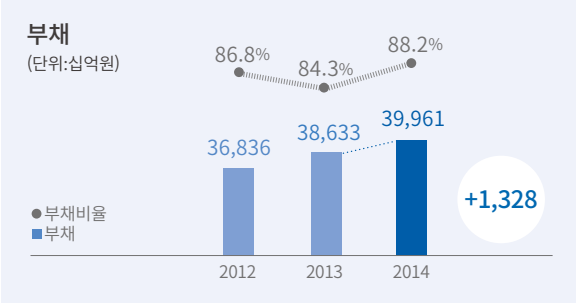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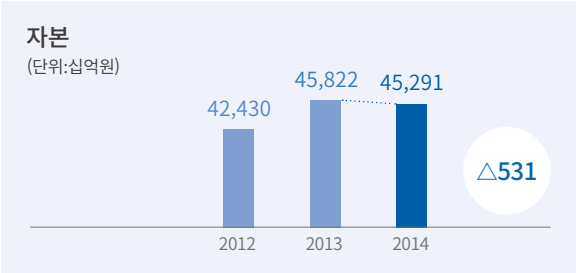




재무 구조







철강부문

포스코는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등 철강재를 단일 사업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강판은 표면처리강판 제조전문기업이며, 포스코피앤에스는 고품질 철강제품을 가공·조립하여 판매하는 글로벌 소재종합 가공전문회사입니다. 이외에 스테인리스 강판 제조·판매사인 중국 장가항스테인리스와 철강재를 가공·판매하는 해외 가공센터 등이 있습니다.

2014년 누적 연결기준 조강 생산량은 4,142만톤입니다. 포스코는 3,765만톤, 포스코특수강 72만톤, Zhangjiagang Pohang Stainless Steel Co., Ltd. 115만톤 그리고 PT. KRAKATAU POSCO 는 190만톤을 생산하였습니다. 포스코 제품 판매량은 해외법인을 본격 가동하며 판매량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41만톤 증가한 3,434만톤을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 포스코의 주요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강 본원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술과 마케팅을 융합한 솔루션마케팅을 통해 고객에게 강재와 이용기술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더 큰 부가가치를 제공하였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 5대 거점지역에도 기술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솔루션마케팅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World Premium 제품 판매 비중은 33.3%로 상승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이익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솔루션마케팅

수요 산업별 맞춤형 제품 및 기술 솔루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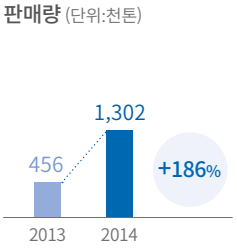
제품 경량화, 고가소재 대체 등 다양한 수요가의 Needs를 충족시키는 기술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차별적 경쟁우위 확보

솔루션마케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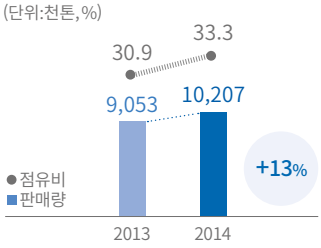
자동차	· Renault : 고장력강판 및 마그네슘판재 적용으로 차량 경량화 · 쌍용자동차 : 소형SUV(티볼리)용 고장력 강판 전량 공급으로 안정성 향상 및 경량화
가전	· LG 전자 : 냉장고용 알루미늄 부품의 PO재 대체로 원가절감 · 삼성전자 : TV용 HGI 부품 개발로 제품 경량화
건설	· UAE 원전 4호기 : 초내식 STS강 국산화로 원가절감
에너지	· LNG 저장탱크용 고망간강 : 극저온용 고망간강 상용화로 고가의 STS 제품 대체

제품 고부가가치화

솔루션마케팅 연계 판매량 (단위:천톤)



WP 제품 판매 점유비 (단위:천톤,%)



2014년 1월부터는 포스코 고유 혁신기술인 파이넥스를 적용하여 연산 200만톤 규모의 제3공장을 성공적으로 가동하였고, 10월에는 자력엔지니어링으로 광양제철소에 연산 330만톤 규모의 4열연 공장을 준공하여 고급 자동차강판용 소재 공급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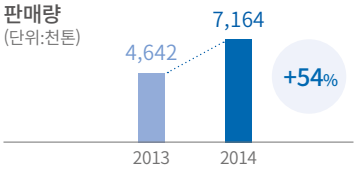
해외 철강법인에서는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포스코가 가동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출발을 하였으며, 북미 멕시코와 중국 광동지역, 인도 마하라스트라 및 태국 등에서 자동차강판 생산 판매 체제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해외 철강사업

신규 가동법인 조기 정상화로 해외철강법인* 의 판매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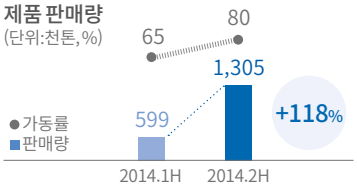
(*경영권보유 해외 철강 생산법인 16개사)

판매량 (단위:천톤)



인도네시아 일관밀 연초 사고 복구 이후 조업 안정화로 흑자 기반 구축

제품 판매량 (단위:천톤,%)



기술경쟁력

고부가가치 제품 기술개발 강화

2014년 기술개발 건수

WF	WB
CEM Premium급 열연 극박재 등 17 종	교량용 선재케이블 기술 등 20종

* WF/WB : World First / World Best

기술리더십 확보로 고유 기술 판매기반 구축

기술	내용
FINEX	중경강철 일관밀 합작사업 중국정부 비준 취득조건 달성(2014년 11월) -생산능력 : 300만톤(150만톤x2기)
	인도 Mesco Steel과 #1 FINEX D/P 이설판매 MOU 체결(2014년 6월)
CEM*	해외 엔지니어링사와 라이센스 계약 진행중 *Compact Endless Cast-rolling Mill

둘째, 신성장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포스코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원천소재에서는 리튬과 니켈을, 청정에너지에서는 연료전지와 청정석탄화학을 후보로 선정하였습니다. 리튬은 지난 12월 아르헨티나에 세계 최초로 '리튬 직접추출기술'을 적용한 실증 플랜트를 준공하였고, 니켈은 습식제련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Demo Plant의 규모와 대상부지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연료전지는 건설중인 포항 Cell 제조공장의 자동화 및 물류 최적 라인을 도입하여 제조원가 절감을 추진하였고 2014년말 공사 진도율은 85% 입니다. 청정석탄화학은 합성천연가스(SNG) 플랜트 건설 및 조업대비 활동을 추진하였고 2014년말 공사 진도율은 94% 입니다.

셋째,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포스코특수강과 포스화인 지분 매각 등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마산백화점과 베트남IBC와 같은 비핵심 자산을 처분하였으며, 매출채권 유동화를 통한 현금 확보 등으로 2조 원의 비부채성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또한 투자비를 적정수준으로 감축하여 현금흐름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으로 연결기준 Debt to EBITDA를 2013년말 4.8배에서 2014년말 4.4배로 축소하였습니다.

넷째, 경영 인프라 쇄신을 추진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기반의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다양한 수익성 향상 활동을 전사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Top Down 방식으로 400여 개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단기간에 경영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정량적 재무성과를 거두었으며, 프로젝트 수행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문 임원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사내전문가 육성을 위한 PCP(POSCO Certified Professional)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과 동반성장 활동에도 앞장섰습니다.
민간 주도로는 최초로 포항 포스텍에 연면적 1,983평방미터 규모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개설하였고, 이를 통해 그 동안 운영해온 대·중소기업 상생과 벤처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합하였습니다.

포스코와 그룹사 임직원이 주도하는 '포스코1%나눔재단'은 참여자가 2013년 2만 명에서 2014년 2만 8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인 포스코휴먼스를 통해 국내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역사회 청년인력 고용을 위해 환경관련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등 국내외에서 사회적 책임과 배려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주요 경영활동의 결과로 회사는 최근에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2015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에서 국내기업 중 최고 순위인 36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WSD(World Steel Dynamics)에서 선정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5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로베코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Dowjones Sustainability Indexes) 평가에서는 철강업계 최초로 10년 연속 우수 철강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철강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무역부문

무역 부문 대표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은 철강·금속, 화학·석유제품, 기계·운송장비, 농축산품 등의 무역부문과 해외 플랜트, 발전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는 해외프로젝트부문, 국내외 석유, 가스, 광물, 식량자원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개발부문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외 제조 및 유통사업, 부동산개발사업 등 신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지점에서 법인, 지사 등 100여개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중 무역부문이 전체 매출·손익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석유가스 자원개발 사업 성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체 수익 중 자원개발부문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과 삼국간 거래를 통한 매출 확대를 기본 전략으로 삼아, 이를 통해 World Top Class Trader, Investor, Developer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경쟁우위 강화를 통한 '스피드 성장체계 구축'에 따른 수출 및 삼국간거래 확대, 장기거래처 거래확대, 신규거래처 개발 등으로 2014년에는 매출액 19조 9,381억원, 영업이익 3,46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 회사의 매출 중 수출(삼국간 거래 포함)은 9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의 지역별 비중은 중국 23.4%를 비롯, 아시아 지역이 전체 수출실적의 6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 지역 7.8%, 기타 지역 2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수출 비중은 철강·비철 58.1%, 화학·물자 25.2%, 자동차부품·기계 13.2%, 광물·에너지 2.7%, 전자·기타 0.8%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개발 및 광물자원개발의 경우 산업의 특성상 회사의 수익이 원자재가격에 밀접하게 연동되며, 최근 상업 생산을 개시한 미얀마 가스전 및 페루 유전, 베트남 11-2 광구의 수익이 자원개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마다가스카르 니켈광, 호주 나라브리 석탄광 등의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경기 변동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이 회사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얀마 가스전은 2013년 7월부터 가스판매가 개시된 이후, 쉐 가스전에서 시추 및 완결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는 최종 목표 생산량인 일일 생산량 5억 입방피트의 가스 생산에 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자원개발 성과를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탐사1기가 발효된 동해 대륙붕 6-1남부광구 탐사사업은 2013년 시추대상구조 확정 및 시추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4분기 시추탐사를 통해 가스 분출 생산시험에 성공하였습니다. 쉐 가스전 인근 AD-7광구 탐사사업은 2013년 3월 호주 석유회사인 우드사이드사를 파트너로 영입하여 지분투자를 유치하였고, 2013년 7월 탐사1기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캐나다 Bellatrix사가 보유한 뱁티스트 광구 지분 50%를 인수하는 계약 체결을 통해 캐나다 타이트오일가스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석유, 가스 탐사 및 개발 기술력을 더욱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근 에너지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북미 지역의 비전통 석유가스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 투자한 페루 유전, 베트남 가스전 외에도 오만LNG 플랜트 등에 지분참여를 계속하고 있으며, 미얀마 육상 비전통 자원 탐사조사사업에 진출하였고 향후 석유·가스개발사업을 주력 성장동력으로 삼아 세계적인 자원개발회사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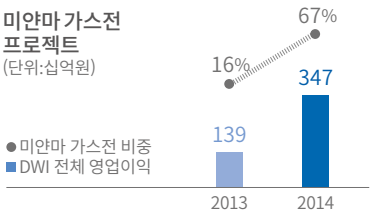
광물자원개발사업 분야에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호주 나라브리 석탄광 등 생산사업 및 구리·우라늄·주석 광산 탐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4% 지분 참여한 암바토비 니켈광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위치한 세계 3대 라테라이트 니켈광산 중 하나로, 2012년 7월 니켈 완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향후 29년 동안 연간 6만톤의 니켈과 5,600톤의 코발트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호주 나라브리 석탄광의 경우 5%의 지분을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 시범생산 후 2012년 10월 대량생산이 개시되었고, 향후 연간 6백만톤의 석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도 아프리카·미주·동남아시아·호주 지역 등에서 구리·우라늄·주석 광산 탐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전략국가인 미얀마에서 호텔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를 비롯해 송도 상업부동산 운영사업 등 복합부동산 개발사업과 선박용 대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가스전 프로젝트

미얀마 가스전 본격 생산체제 진입으로 이익기여도 증가



건설부문

건설 부문의 대표 회사인 **포스코건설**은 제철소 건설 경험을 토대로 토목, 건축, 에너지, 도시개발 등으로 영역을 넓히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와 도심재생사업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의 2014년 누계 수주실적은 국내 4.8조 원, 해외 5.2조 원으로 총 10.0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4/4분기 주요 신규수주로 국내는 대전 용문 1,2,3구역 재건축(3,454억 원), 청주 복대 재개발(1,583억 원), 개포 대청 리모델링(1,580억 원) 등 주택·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하였고 석문 집단에너지 건설사업(1,676억 원), 진접선 복선전철 4공구(882억 원) 등을 수주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인도 Uttam 제철소(16,661억 원)를 수주하여 철강플랜트의 글로벌 강자임을 입증하였고 세계1위의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로부터 최초로 수주하였으며(유황이송 설비, 4,038억 원), 베네주엘라 APU 원료재생사업(2,683억 원)을 수주하여 회사 최초로 화공사업에서 해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익성이 담보된 수의 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 철도, Mining 등 다양한 PJT에서 사업기획단계부터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국내 대형건설사와 달리 그룹사의 투자축소로 발주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14년 수주액은 10조 131억 원으로 계획에 미달하였지만, 10조 원 이상을 지속 달성했으며, 매출은 7조 5,147억 원, 영업이익은 2,773억 원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시공능력평가 3위에 올라 국내 Big3에 진입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주요 경영활동 및 성과를 보면, 먼저 인도 Uttam 제철소를 수주하여 철강플랜트의 글로벌 강자임을 입증하였으며, 1만 3천세대의 더샵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분양하여 브랜드 파워를 올렸고, 신기술 9건을 추가 인증받아 건설사 최다 신기술(20건)을 유지하는 등 핵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위해 나이지리아 Ebonyi 가스화력, 과테말라 Jaguar 화력발전, 오만 Sun Metal, 태국 포스코CGL 등을 수주하여 해당국가에 최초 진출하였고, 세계 1위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에서 최초로 수주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주 자원개발 인프라사업 (Adani사)의 MOU를 체결하여 자원개발 분야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건축사업본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선도하여 분당 매화마을 등을 수주하여 향후 15년간 68조 원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토목환경사업본부는 광양 동호안 해수담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여 해수담수 레퍼런스를 확보하였으며, 에너지사업본부는 베네수엘라의 APU 원료재생사업을 수주하여 최초로 해외 화공 사업에 진출하는 등 회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4년 재해율은 0.07%로 최근 3년간 최저 수준이며 국내 동종사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매출액 대비로 본다면 국내 대형건설사는 매출 600억 원당 1명의 재해자 수가 발생한 데 반해 당사는 2,500억 원당 1명의 재해자 수가 발생하여 동종사를 압도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Global 건설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생명사랑의 안전한 현장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시스템적인 활동 정착으로 안전관리 체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 재해예방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전원참여 안전문화를 주도하며 현장 안전진단과 지원을 고도화하여 2014년과 같은 최고수준의 안전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해외 신시장 수주 확대

주요 프로젝트

	수주금액(십억원)	수주 시기
나이지리아 석탄화력발전소	1,162	2014.09
사우디 Aramco 유황이송 설비	404	2014.09
인도 Uttam 제철소	1,666	2014.12

에너지

포스코에너지는 1972년 2월에 국내 유일의 민간화력발전소로서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 90년대 초반 급속한 전력수요증가에 따른 정부의 전력안정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복합화력 증설사업과 신뢰성 있는 발전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소는 수도권 발전량의 약 12.4%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어 수도권의 전력공급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에너지 발전소는 전력수요가 높은 상태인 최대부하를 담당하는 첨두부하 화력발전소로서 기동특성이 좋고 출력조정이 용이하여 전력부하 변동에 순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수도권의 전력계통 안정에 필수적이며, 수요처에 직결되어 있어 전력손실율이 매우 낮은 (1%) 경제적인 발전소입니다.

또한, 2007년부터 연료전지사업부문을 신설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으며, 주요 사업영역은 연료전지설비 제조, 판매 및 설치공사, 장기 O&M서비스 판매, 직영 연료전지발전소 운영, 연구개발입니다.

2014년 전력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전력수요 정책 아래 신규발전기 공급증가와 수요증가 둔화로 전년대비 예비율이 상승한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화된 여건 하에서도 회사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부생발전의 전력판매단가 개선 및 다양한 내부 개선활동을 통해 별도기준 매출 2조 5,337억 원, 영업이익 1,043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의 주요 경영성과로는 첫째, 전력판매단가 개선과 전략적 설비운영을 통해 매출을 신장하였습니다. 전력판매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 외부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생발전 판매단가 기준을 총괄원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부생발전사업의 영업이익을 신장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LNG 복합발전소는 기존 발전기 가용률 증대와 효율 향상 활동 외에 국내 최고 효율의 인천 7,8호기의 조기 상업운전을 통해 매출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연료전지사업에 있어 Cell 기술인수와 공장건설을 통해 자립생산기반 마련과 내실을 다졌습니다. LNG 가격상승 및 계통한계가격(SMP) 하락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수요처를 개발하였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시장기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Cell 기술인수 및 품질개선에 주력하여 85%의 진도율 및 MBOP 및 스택의 생산계획을 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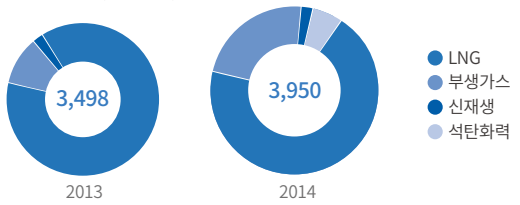
셋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삼척 동양파워 인수 후 포스파워를 출범시켜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신안 태양광, 탄천하수열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영역 확대 및 국내 RPS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외 사업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의 부생발전 적기 준공과 몽골 CHP-5 사업권을 확보하여 글로벌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및 모두에게 사랑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하였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비전 수립 및 CEO가 참여하는 지역별 간담회 및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신뢰소통 활성화에 힘썼고, 그 결과 포스코패밀리사 행복지수 1위를 거두는 등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 나눔기금활동과 희망에너지 사랑 나눔사업 및 재능기부활동 등 지역사회에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대내외적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포스코 에너지

철강 부생가스를 활용한 발전설비 준공, 동양파워 인수를 통한 화력발전 진출 등 사업영역 다변화

발전설비용량 (단위:MW)



신규발전 사업

구분	프로젝트	생산능력	진행단계
석탄화력	베트남 몽중 II	600MW	· 1호기 건설완료(2014.12)
	포스파워	2,100MW	· 동양파워 인수(2014.06)
부생가스	포항 2호기	145MW	· 준공(2014.07)
	인도네시아	200MW	· 준공(2014.04)
LNG	인천 7,8호기	840MW	· 준공(2014.10)

ICT

포스코아이씨티는 2014년 국내외 시장의 불확실성 지속과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가치 중심의 내실 경영을 추진하여 사업구조 개선과 재무 건전성 강화에 주력하였으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9,215억 원과 478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경영성과로는 먼저, 내실 경영과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차세대 IT서비스인 POSPIA 3.0시스템을 조기 안정화시키고 그룹의 일하는 방식인 SWP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으며, 포스코에너지 PI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핵심 전략사업인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서 두산중공업 및 포스하이메탈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적인 레퍼런스 사이트를 확보하고 대기환경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하는 중국시장에서 발전사업자인 대당그룹에 MPS(펄스방식 전기집진기 전원장치) 116대를 공급하는 등 환경 솔루션사업의 대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중기 전략 방향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성장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포스코의 본원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내외 제조 혁신을 리드할 수 있는 Industry 4.0기반의 'Smart Factory사업'과 고객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리딩하는 'Smart IT 사업', 그리고 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발전부터 공급·소비의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Total Energy Optimization 사업'의 실행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VA 기반 가치중심의 경영활동 전개 및 기업가치 제고에 총력을 다해 자체 역량이 부족한 저수익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하였으며,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주부터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고도화 함으로써 Invisible Cost 축소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세계경제의 L자형 저성장과 함께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기 성장 방향에 맞춰 전략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포스코 제품의 생산, 설비, 품질 향상을 위한 제어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Industry4.0 Pilot을 추진하고, 포스코 및 그룹사에 대한 IT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내에서 개발/검증된 결과물을 솔루션화 하여 대외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환경솔루션 사업은 중국을 대상으로 5대 발전소와 제철소로 사업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NOx, SOx 등을 제거하는 대기 환경 Total Solution 공급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회사가 집중하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 포스코의 양 제철소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노후 산단사업 등 대외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포스코 그룹사를 대상으로 사업 제안 활동을 확대하고 그룹사 업종별로 표준화 및 전문화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협력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철강 EIC 구축 역량을 기반으로 포스코에너지가 추진하는 국내외 발전 Plant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발전 EIC사업을 발굴하고, 포스코건설과는 스마트 빌딩 및 해외 신도시 개발사업을, 대우인터내셔널과는 해외 공항사업 등을 협력하여 패밀리 시너지 창출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재

포스코켐텍은 1963년 1월 염기성내화물의 생산,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삼화화성(주)과 1975년 5월 각종 산업로 보수 및 축로 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축로(주)가 1994년 합병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후 내화물 제조에서 시공까지 일관체제를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소재 회사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종합 내화물 회사로 명성을 다진 후, 2008년 제철소 석회소성설비 위탁운영, 2010~2011년 제철소 화성공장위탁운영 및 화성품 판매사업을 실시하며 외형성장을 이룸과 동시에 Global Top-tier 석탄화학 및 탄소소재 전문 메이커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2차전지 음극재, 침상코크스 등의 케미칼 사업으로의 진출을 통해 회사의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라임(LIME)사업은 2008년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의 석회 소성공장 설비를 운영중으로 국내 최대 생석회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세계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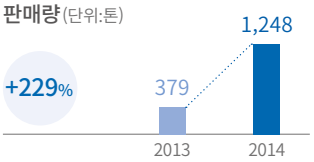
케미칼사업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의 COG(Coke Oven Gas)가스를 정제하는 화성공장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동 공정중 발생되는 화성품을 매입,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던 2차전지 음극재의 국산화를 위해 2010년 8월에 LS엠트론의 음극재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음극재 사업에 진출하여 현재 제품생산 중에 있습니다.

해외사업으로는 포스코 인도네시아 제철소사업에 동반진출하여 현재 제철소 생석회 공급 및 부산물의 가공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켐텍

IT·모바일용 2차전지 음극재 판매 증가
- 국내 대형 2차전지 메이커로 납품 확대

판매량(단위:톤)



음극재 제조설비 신설로 수요 증가 대응
- 천연흑연 코팅라인 구축 (2015년 2월)

천연흑연 코팅라인 **1,200** 톤/년

2014년은 글로벌 저성장, 엔저(低) 심화 등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고민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며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열정을 다해 추진한 결과, 별도기준 매출액 1조 3,306억 원, 영업이익 882억 원의 실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2015년에도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Global Top-tier 석탄화학·탄소소재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운영목표와 실천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포스코엠텍은 1973년에 철강원료 및 철강포장 전문기업으로 시작하여 지난 40여년간 철강부원료(알미늄 탈산제 및 몰리브덴)의 공급과 철강포장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포스코 마그네슘공장, 고순도 페로실리콘공장, 철분말 공장 위탁운영을 통해 비철·합금철 제련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철강포장 및 철강부원료 공급기업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불확실한 경영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지만, 2014년 경영실적은 별도기준 매출액 4,322억 원, 영업손실 17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 주요 제품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철금속의 전반적 가격 하락, 도시광산 사업 관련 세무 추징금, 장기 미회수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 부담 등이 수익성 저하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구조개선과 업무혁신활동을 추진하여 효율성 제고에 총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2015년에도 세계 철강산업은 중국의 성장 둔화, 조선 및 건설 등 전방산업의 침체 등의 악재로 인해 2% 안팎의 저성장이 예상되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실 위주의 경영체질 개선을 통해 성공적으로 흑자 체제로 전환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여 안정적 사업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엠텍은 Al 탈산제, 철강 포장 등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의 원가 절감과 기술력 확보가 수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알루미늄 탈산제 공장의 노후 설비를 교체하여 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기존 사업의 원가 절감 및 품질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당사의 주력사업인 철강 포장은 불량과 고장, 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드는 3Zero활동을 전개하고, 재고를 감축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전사적인 구조 합리화를 통해 인력 재배치 및 조직 슬림화의 순차적 시행을 통하여 고정비를 절감하였으며, 특히 Project Based Working System 도입을 통하여 잦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다가올 미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간, 당사는 사업 영역과 규모를 확장하며 발전하였으나 재무 구조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지난 사업연도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도시광산 사업과 고순도 알루미나 공장의 매각을 통해 저수익사업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그 외 사업들의 경제성을 원점 재검토하여 수익성 개선에 성공하겠습니다. 또한 만기 채권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2014년 발생한 세무 추징 이슈의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등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포스코엠텍은 지난해 페로실리콘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 유출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환경경영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관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하여 무재해·친환경 사업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5년에는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PERFORMANCE HIGHLIGHTS

(포스코 별도)

구분	지표명		단위	2012	2013	2014
사회	사회공헌 비용[1]	총합계	십억원	91.9	49.9	59.9
		기부금	십억원		9.3	19.1
		지역사회 투자[2]	십억원		36.6	38.0
		기타(Commercial Initiative)[3]	십억원		4	2.8
	이웃돕기 성금 기탁현황[4]		십억원	8	8	8
	인당 자원 봉사시간		시간	36	31	29.5
	미소금융비용[5]	출연금액(누적)	십억원	20	20	25
		대출금액	십억원	7.3	6.9	4.3
	포스위드-취약계층/고용인원		명	283/466[6]	191/369	195/367
	포스에코하우징-취약계층/고용인원		명	83/110	28/60	32/65
	포스플레이트-취약계층/고용인원		명	106/190	97/184	86/173
	송도SE-취약계층/고용인원		명	246/272	124/138	91/126
	자매결연		개	240	245	211
	법인세비용		십억원	623	403	582
파트너	출자사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현황[7]		개사	25(22)	34(30)	32
	구매 협력 Benefit Sharing을 통한 보상금액		억 원	1,328	536	544
	민·관 공동R&D펀드		건	15	15	3
	테크노 파트너십 기술 자문		회	1,057	595	607
	포스코 인증공급자수		개	39	41	48
	구매비용	원료비	십억원	22,176	17,578	15,893
		재료비	십억원	1,914	1,803	1,846
		외주용역비	십억원	1,997	2,079	2,204
		합계	십억원	26,087	21,460	19,943
		(매출액비중)	%	76.7	70.3	68.3
투자자[8]	조강생산량		천톤	37,986	36,416	37,650
	매출액		십억원	35,665	30,544	29,219
	영업이익		십억원	2,790	2,215	2,350
	당기순이익		십억원	2,500	1,583	1,139
	영업이익률		%	7.8	7.3	8.0
	ROE		%	6.5	3.9	2.7
	자산		십억원	52,320	54,242	52,597
	자본총계		십억원	39,165	42,311	42,475
	부채비율		%	33.6	28.2	23.8
	전체 배당금		십억원	618	633	640
	주당배당금		원	8,000	8,000	8,000
	중간배당금		원	2,000	2,000	2,000
	주당순이익		원	32,359	20,052	13,858
	배당 성향		%	24.7	40	56.2
고객	고객만족도 국내고객사		%	88	88	84
	고객만족도 해외고객사		%	81	79	74
	친환경제품 개발 현황		개	37	30	22
	제품별 판매량	열연	천톤	18,757	17,516	17,969
		냉연	천톤	14,479	14,643	14,685
		스테인리스	천톤	1,812	1,770	1,683
직원	직원만족도지수		점	82	82	77
	직원수		명	17,623	17,832	17,877
	채용		명	818	873	879
	퇴직		명	1,029	520	1,375
	정년퇴직		명	654	0	626
	퇴직률(Turnover)		%	5.85	2.91	7.69
	근속년수		년	18	18.5	18.1
	여직원		명	702	778	842
	과장 이상 여직원		명	146	166	199
	장애인 고용		명	474	485	431
	장애인 고용(포스코)		명	254	255	241
	장애인 고용(포스코휴먼스 위드플러스 부문)		명	220	230	190

구분	지표명		단위	2012	2013	2014
직원	장애인 비율		%	2.7	2.7	2.4
	출산휴가 사용자		명	56	55	67
	출산휴가 후 복직률		%	100	100	100
	육아휴직 사용자		명	61	77	81
		육아휴직 사용자(남)	명			12
		육아휴직 사용자(여)	명			69
	육아휴직 후 복직률		%	86	98	98
	교육인원		명	432,859	523,184	356,133
	인당교육시간		시간	234	205	128
	인당교육비용		만원	101	80	68
	학습자 만족도		점	4.48	4.62	4.65
	직영 재해 건수		건	3	10	12
	직영 사망자		명	1	1	1
	외주 재해 건수		건	4	4	3
	외주 사망자		명	1	1	1
	직영 휴업도수율(100만시간 기준)			0.08	0.26	0.32
	외주 휴업도수율(100만시간 기준)			0.10	0.10	0.08
	(휴업도수율 계)(100만시간 기준)			0.09	0.18	0.20
	인건비 지급	지불성 급여	십억원	1,367	1,401	1,435
		퇴직충당금	십억원	113	135	129
		법정복리비	십억원	102	90	108
	연금 지원	국민연금(회사 부담금)	십억원	35.1	36.5	37.5
		개인연금 보조금	십억원	9.1	9.7	9.7
		개인연금 수혜 인원	명	14,317	14,736	10,473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출연금액	십억원	59.1	57.6	58.9
		출연누계	십억원	816	874	933
환경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황산화물(SOx)	천톤/년	21.9	24.0	21.0
		질소산화물(NOx)	천톤/년	33.3	33.1	33.5
		먼지	천톤/년	4.0	3.8	3.6
	에너지 사용량		TJ	798,111	776,115	837,220
	온실가스 배출량		천톤CO_2e	75,261	72,386	75,240
		SCOPE1(직접 배출)	천톤CO_2e	71,555	68,047	70,432
		SCOPE2(간접 배출)	천톤CO_2e	3,706	4,339	4,808
		조강 톤당CO_2 배출량(직접)	t-CO_2/t-s	1.88	1.87	1.87
		조강 톤당CO_2 배출량(간접)	t-CO_2/t-s	0.10	0.12	0.13
	물사용량	용수사용량	백만m^3/년	135.2	135.1	138.2
		오/폐수 방류량	백만m^3/년	64.2	58.7	60.9
	폐기물량	폐기물 발생량	만톤/년	2,396	2,209	2,411
		폐기물량(재활용)	만톤/년	2,358	2,171	2,366
		폐기물량(처분)	만톤/년	38	38	45
		매립	만톤/년	19	33	39
		소각	만톤/년	19	5	6
	화학물질 배출량		톤/년	73	69	92
	환경설비투자	대기	십억원	480	139	138
		수질	십억원	102	65	135
		자원화 및 기타	십억원	53	90	27
	환경비용	환경설비 운영비/자원화비	십억원	921	986	924
		감가상각비	십억원	146	150	158
		일반관리비	십억원	35	35	36
		환경R&D	십억원	13	17	12
		에너지회수비	십억원	34	33	46
		합계	십억원	1,149	1,221	1,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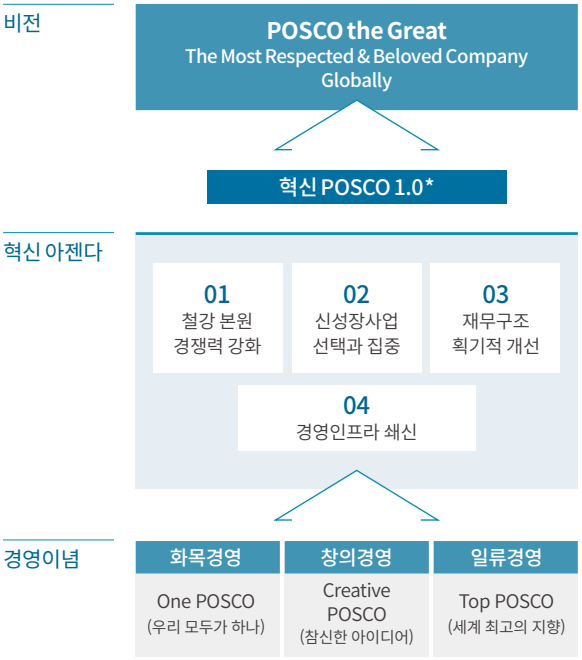
1) 사회공헌비용의 분류기준은 전경련 사회공헌 비용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 체육문화, 인재양성, 자원봉사 비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 부터는 기부금, 지역사회투자, 기타로 구분한 내용도 추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지역사회 투자: 지역사회 투자는 사회공헌 5대 영역의 지역사회 개념과 다름
· 지역사회 투자: 포항, 광양 및 해외사업장에서 사회공헌으로 사용한 비용
· 5대 영역의 지역사회: 5대 영역 구분의 지역 사회 사회공헌프로그램 소요 비용
3) 기타(Commercial initiative) : 광고선전비로 사용된 사회공헌비용
4) 포스코 별도 금액
5) 포스코 기부금 출연 회계기준
6) 2012년 포스위드와 포스에코하우징이 포스코휴먼스로 통합, 합병으로 감소한 회사 반영
7) ( )숫자는 합병으로 감소한 회사반영
8) 재무 Data는 포스코 별도기준임.

02 Management Report

비전 및 전략		022
2015 전략, 기회 및 위협요인		022
지속가능경영 정책		024
중요성 분석		026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참여	028
	이해관계자 인터뷰	031
	환경대담	033
마케팅	솔루션마케팅	036
제품	포스코 제품	038
	친환경 신제품	039
	품질경영	042
혁신	World Premium 기술개발	044
	신성장 기술개발	045
	업무혁신	047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체계	050
직원	기업문화	053
	포스코인재상	058
	글로벌 인재 육성	060

VISION & STRATEGY
비전 및 전략

비전 체계도



*1.0 이란? 기본(Basic), 처음(First), 하나(One), 일등(Top) / 제철보국 정신을 되살려 위대한 기업의 복원

2014년 성과리뷰 - 종합 2014년도에 수립한 중기 전략의 핵심 목표는 4대 혁신 아젠다 추진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로, 2016년까지 EVA 0.1조원, EBITDA 8.5조원, Debt to EBITDA 3배 달성과 메가성장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됐습니다. 중기 전략 추진 1차년도인 2014년 실적은, EVA의 경우 마이너스 0.7조원, EBITDA는 6.5조원으로 전망되며, 투자비 감축을 통한 현금흐름 개선으로 Debt to EBITDA를 2013년말 4.8배에서 2014년말 4.4배로 개선하였습니다.

STRATEGY, OPPORTUNITIES & RISKS
2015 전략, 기회 및 위협요인

2015년 경제 및 산업 전망

2015년 세계 경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견인하는 형태의 불안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구조조정 정책의 지속 추진으로 7.2%의 성장이 예상되고 일본은 아베노믹스 효과 소멸로 1.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내수 부진 속 중국 경기둔화와 엔저 영향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됩니다. 철강산업 환경은 글로벌 저수요 저가격이 지속되어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2015년 중국의 철강수요 증가율이 1.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상 최대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철강가격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사 주요 산업의 경우, 업황이 전반적으로 소폭 개선되나, 경쟁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은 지역과 공종 별로 회복세에 편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전력수요는 소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높은 설비예비율이 예상되어 LNG발전과 같은 첨두발전 수익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재의 경우, 성장세는 양호하나 경쟁강도가 심화될 전망이며 ICT는 에너지 솔루션, IoT 등 고성장 시장 선점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전략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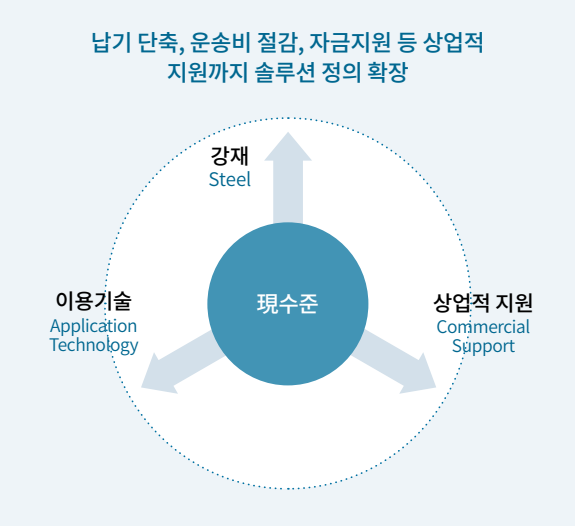
이러한 경영환경 하에서 2015년은 수익성과 경쟁력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하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5년 포스코 그룹의 핵심 키워드인 '재무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3개년 중기계획의 2차 년도를 맞은 2015년에는 4대 핵심 경영 아젠다의 실행력 강화를 통해 재무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 2016년 중기목표 달성에 한 걸음 다가서는 한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5년 그룹 전략 방향은 솔루션 기반의 영업활동 강화로 수익구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재무구조를 건전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기반 업무 방식을 정착 확산함으로써 재무성과를 높이고 핵심 신성장 사업의 상업화 기반을 확립하며 그룹경영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더욱 제고하고자 합니다.

솔루션 기반 수익구조 강건화

포스코는 기술과 판매를 융합한 솔루션마케팅을 통해 프리미엄(Premium)제품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린 전략적 선택입니다. 2015년에도 월드 프리미엄(World Premium)제품 개발과 솔루션마케팅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테크니컬센터(Technical Service Center,

TSC), 솔루션 네트워크 등 글로벌 솔루션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상업적 지원(Commercial Support)까지 확장하는 진화된 솔루션마케팅을 적극 실행할 계획입니다. 수주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사 또한 그룹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고객 맞춤형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솔루션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솔루션기반 수익구조 강건화



*솔루션은 강재에 이용기술까지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강재를 더 쉽게 구매하여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임

사업 구조조정의 가속화

2014년 포스코는 그룹 구조조정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비교적 매각이 용이한 비핵심사업과 자산에 우선순위를 두어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2015년 회사는 현재 또는 미래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 재편을 포함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재고자산 등 운전자본 감축을 통해 투하자본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부외(簿外)자산 등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영역에서도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기반 업무 방식의 정착, 확산

프로젝트 기반 업무 방식은 수익성 향상과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단기간에 경영자원을 집중 지원하여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술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정량적 재무성과의 실현입니다. 실현된 성과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확실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그룹 차원에서 수익 제고형 프로젝트 발굴과 가시적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프로젝트 기반 업무 방식이 그룹 성과창출의 강력한 툴이자, 회사와 직원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선진적인 업무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Project-based Working System

핵심 신성장 사업의 상업화 기반 확립

2014년 신임CEO 권오준 회장 취임과 함께 포스코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성장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속 육성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의미는 포스코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고유기술에 주력하여 신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3단계 파일럿 설비를 완공한 리튬(Li) 추출기술과 포항에서 2단계 파일럿 시험에 성공한 니켈(Ni) 정련기술은 상업화 단계로 진화시킬 계획입니다. 연료전지의 기술은 성능향상 및 경제성을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상업발전 시스템을 구축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양에 건설 중인 SNG플랜트(석탄청정화기술)은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룹경영 효율성 및 시너지 강화

2014년 포스코는 그룹 Corporate Center로써 가치경영실을 발족하고 경제적 부가가치, 즉 EVA를 성과 측정의 KPI로 설정해 포스코와 그룹사의 목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그룹의 경영 효율화와 가치 제고, 시너지 창출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업종별 핵심 그룹사를 주축으로 하는 사업군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군별 대표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협력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지역별, 권역별로 그룹 대표법인을 운영하여 해외사업에 대한 그룹차원의 협업과 코디네이션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SUSTAINABLE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정책

지속가능경영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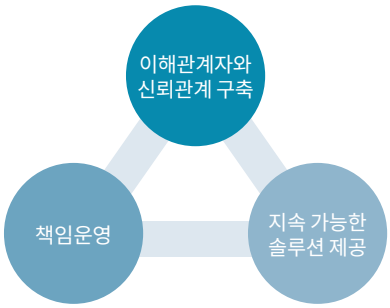
포스코는 지속가능성을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정책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펼치고 고객과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와 신뢰관계 구축 회사의 지속가능성은 사회, 투자자, 파트너, 고객, 직원 등의 이해관계자와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투자본부, 경영인프라본부, 철강사업본부, 철강생산본부에서는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한 결과가 이해관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운영 포스코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경영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의 윤리규범, 안전보건정책, 인권정책 등 지속가능성정책을 엄격히 준수하며 이러한 규정들이 국제적 글로벌표준과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UN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SO 26000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경영 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또한 윤리규범 및 위의 국제기준에 의거하여 국내외 사업장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등의 인권관련 국제규범을 지지합니다.

- UN글로벌콤팩트 The 10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포스코 2012.5.31 가입)
-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United Nations covenants on human rights
-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지속가능성정책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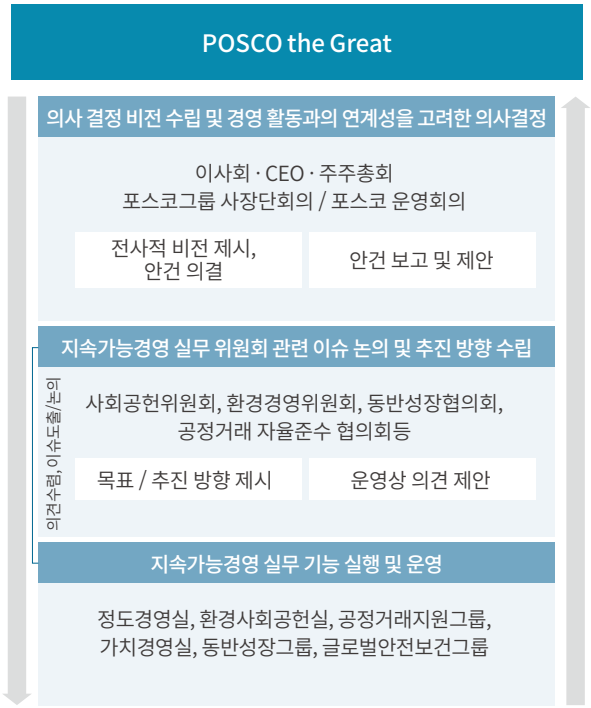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솔루션 제공 포스코는 혁신을 통한 끊임없는 제품개발로 고객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스코는 철강 본원경쟁력 향상을 위한 솔루션마케팅 원년을 선언했습니다. 올해도 포스코는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고객을 위한 고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인 월드프리미엄 제품개발과 진화된 솔루션마케팅 실행을 통해 수익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의 두 가지 성과를 모두 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고에너지효율의 기술 및 제품연구개발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체계

포스코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2003년에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경영활동 전반에 접목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선포하고 CSM(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팀을 조직하였습니다. 현재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 총괄업무는 재무투자본부의 환경사회공헌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사회공헌실은 지속가능경영 평가대응 및 내부 지속가능성 관련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열사의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진단 자문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연1회 포스코그룹 사장단회의나 포스코 운영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CEO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

구분	주기	위원장	참석대상	활동 내용
환경경영 위원회	연 1회	CEO	포스코패밀리 각사 대표	포스코패밀리 환경·에너지 중기경영전략 수립
동반성장 협의회	연 2회	CEO/ 중소기업 대표	포스코 임원 및 포스코 패밀리 각사 대표, 중소기업 대표	동반성장활동 전략 수립, 성과 점검 및 공유
포스코 패밀리 안전위원회	연 2회	철강생산 본부장	포스코 담당 임원, 포스코패밀리 각사 대표	안전 활동 점검과 안전 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 수립
공정거래 자율준수 협의회	연 2회	정도경영 실장	관련부서(마케팅, 구매 등) 임원	CP 활동 보고 및 활동 계획 수립

포스코패밀리 CSR 역량진단

포스코는 포스코패밀리의 CSR 역량 증진과 환경, 사회 등의 비재무적 리스크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포스코패밀리 CSR 진단을 포스코경영연구소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단지는 ISO 26000, 샘다우존스지속가능성 지수 평가 항목, GRI 가이드라인 등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지침을 기반으로 포스코패밀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CSR 동향, 각 회사의 사업 현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진단 지표는 CSR 리더십, CSR 비전과 정책, CSR 체계·문화, 고객, 투자자, 환경 등의 총 10개 분야 61개 항목과 각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지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진단 프로세스는 자가진단, 전문가 실사·피드백을 거쳐 각 회사별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단 결과는 사장단회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패밀리 CSR 진단 지표:10개 분야 61개 항목

2014 포스코패밀리 CSR 진단 결과

연도	진단대상	진단점수(100점만점)
2011	8개사	65점
2012	8개사	71점
2013	12개사	76점
2014	11개사	76점

*2014년 진단실시 패밀리사: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 ICT, 포스코켐텍, 포스코엠텍, 포스코강판

진단 대상은 각 회사의 규모, 산업별 특성, 해외사업진출 여부 등과 회사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014년 진단결과 기존 참여기업의 CSR역량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계획

포스코는 패밀리사CSR진단의 보다 객관적인 추진을 위해 포스코패밀리 환경, 사회 등 지속가능성데이터를 2014년부터 보고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내용은 제3자 검증기관인 삼일PwC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지속가능성데이터 검증과 함께 CSR 역량진단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IDENTIFYING MATERIAL ISSUES

중요성 분석

포스코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사항과 기업 경영의 영향도를 파악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2008년 자체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마련했으며, 매년 보고서 제작 과정의 개선 사항과 피드백을 반영해 보고서 제작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중요성 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경영 활동에서 잠재적 영향도가 높은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요성 평가 전년 대비 개선 사항

환경, 사회부분 상위이슈를 Case Study로 구성

환경, 사회 부분의 중요한 이슈를 Case Study로 구성하여 이해관계자가 알고 싶어하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중요성 평가에 반영

작년과 같이 이해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중요성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속가능성 전문가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분야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균형 있는 의견을 담도록 노력했습니다.

2014 중요성평가 상위 10개 이슈

순위	중분류	순위변동	순위	중분류	순위변동
1	경영실적 (매출,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 성과)	-	6	해외 사업	▲7
2	혁신경영 및 원가 절감	▲10	7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1
3	기업 지배구조 (CEO 선임 등)	▼1	8	직원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
4	안전/보건 (재해사례, 휴업도수율 등)	▼1	9	해외사업장 CSR (인권경영)	▲11
5	기업 윤리/반부패	▲17	10	연구 개발 (R&D 비용, 연구 개발 성과, 신기술 개발 등)	▼5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1 내외부 이슈 확인

사회적 이슈
- 미디어/SNS 분석
- 이해관계자 인터뷰
- 동종 업종 기업(Peer Group) KPI 분석
- 지속가능경영 평가: SAM-DJSI, Global100 등
- 지속가능경영 규범: GRI, ISO 26000 등
- CSR 트렌드, WBCSD 비전 등
- 2014년 검증 기관 의견

비즈니스 이슈
- 운영회의 안건
- 이사회 안건
- 혁신과제
- 전사 KPI
- 사내 정책/지침
- 직원 설문

2 중요성 매트릭스 작성

주요 이슈 도출을 위해 이해관계자 관심도와 비즈니스 중요도에 따라 매트릭스를 작성했습니다.

3 주요 이슈 도출 및 반영

제작한 매트릭스에 따라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주요 이슈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 지속가능경영 성과 보고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내부 이해관계자
- IR그룹, HR실, 환경에너지그룹, 사회공헌그룹, 정도경영실, 가치경영실, 동반성장그룹 등 지속가능경영 실무부서장 및 실무자 의견수렴

외부 이해관계자
- 이해관계자 의견 페이지 참고(p.31)
- 분야별 Case Study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심 이슈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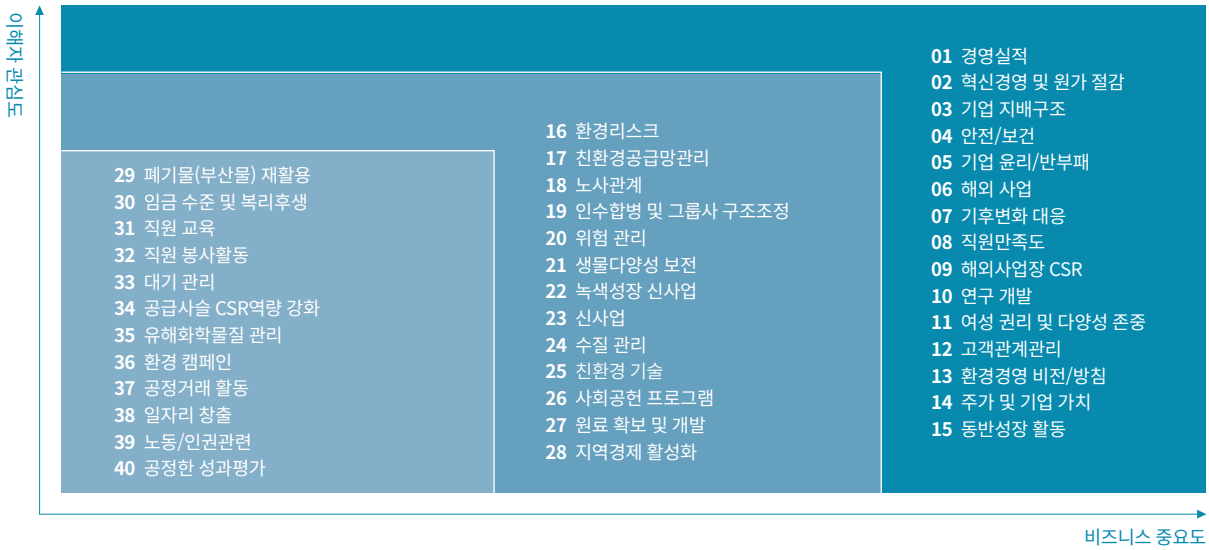
4 검증 및 경영진보고

실무자와 임원 인터뷰를 통해 회계기관의 검증을 마치면 검증에 대한 의견을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이를 경영진에 보고해 기업경영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이해관계자 의견 모니터링

1년간의 보고서 발간 프로세스 및 검증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내년도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내외부 이슈 확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중요성 평가 매트릭스



환경, 사회분야 TOP 5 MATERIAL ISSUES

환경 및 사회분야 중요이슈에 대해서는 본문 또는 Case Study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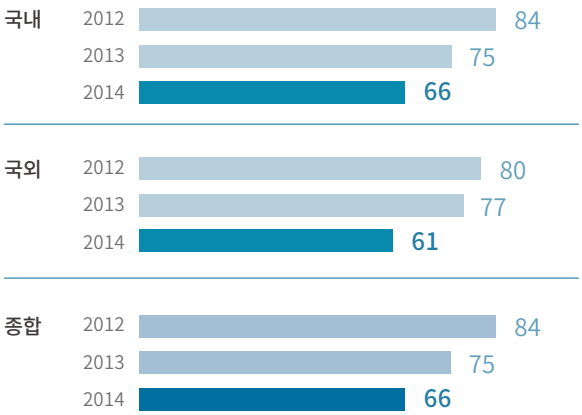
환경분야
Top 5 Material Issues

❶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 및 에너지관리)	102 page
❷	환경경영 비전/방침	94 page
❸	환경리스크관리	95 page
❹	친환경 공급망 관리	95 page
❺	생물다양성보전	100 page

사회분야
Top 5 Material Issues

❶	안전/보건(재해사례, 휴업도수율 등)	72 page
❷	기업 윤리/반부패	66 page
❸	직원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등)	55 page
❹	해외사업장 CSR(인권경영)	69 page
❺	여성권리 및 다양성 존중	54 page

미디어 긍정도 변화 추이 (단위: %)



*긍정도:긍정보고기사건수/전체 기사건수

긍정보도

- 세계 첫 후판전용 RFID기술개발
- TWIP강·에너지강재·파이넥스 공법으로 시장지배력 상승
- 벤처기업 투자, 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
- 2014 DPCA(둥펑푸조시트로엥) 최우수 공급사상 수상
- 4년 연속 글로벌 200대 기업 선정
- 다보포스포럼 글로벌100대기업 선정

부정보도

- 인도네시아 제철소 흑자 지연 우려
- 포항제철소 가스 폭발 5명 중경상
- 페놀 유출사고 정화계획 설명회 개최
- 광양제철소서 폭발사고 3명 부상
-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제철소 폭발사고

STAKEHOLDERS

이해관계자

STAKEHOLDER ENGAGEMENT

이해관계자 참여

회사의 경영활동은 이해관계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해관계자를 '사회·파트너·주주/투자자·고객·직원·환경' 등 6개로 분류하여 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소통 외에 포스코는 보고서 발간 전 중요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위해 매년 사회책임투자자, NGO,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학계 등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해관계자 의견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P.31

이해관계자 대화 2011년부터 포스코 환경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를 모시고 이해관계자 대화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대화에는 포스코 임원이 참여하여 이해관계자분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의 이해관계자 대화를 통해 포스코는 환경이슈와 관련한 포스코의 역할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고견을 들을 수 있으며, 참여한 이해관계자분들은 포스코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자리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해관계자 대화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P.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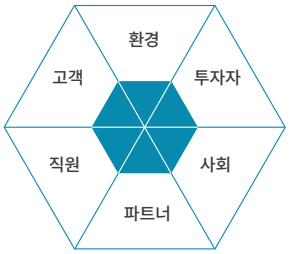
포스코 이해관계자 정책

사랑 받는 기업 헌장

POSCO는 국민기업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하고 튼튼한 기업으로서 위대한 기업을 지향해 왔다. 이제 POSCO는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재도약하여 POSCO의 이념과 가치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인류복지에 공헌할 것이다. POSCO는 사업가치, 인간가치, 사회가치, 환경가치를 균형적으로 추구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된다.

고객	**고객을 성공시킨다.** ·고객중심 마케팅과 신뢰구축으로 고객을 만족시킨다. ·고객사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로 고객가치를 실현시킨다. ·고객과 함께 시장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다.
직원	**인간존중과 자아실현을 이룬다.**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최고의 역량을 지닌 인재가 되게 한다.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과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존중을 실현하며 개인의 성장과 자기실현을 이룬다.
파트너사	**한 가족으로 동반성장한다.** ·소통과 상호 신뢰구축으로 공정한 거래를 한다. ·상생협력으로 협력사의 경쟁력과 성장역량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인다.
환경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이룬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보호와 녹색환경을 발전시킨다. ·자원과 에너지 효율화와 청정기술로 산업녹색화를 선도한다. ·신소재와 에너지 개발로 생태계를 개선하고 녹색생활과 녹색문화를 창달한다.
투자자	**주주임을 자랑스럽게 한다.** ·경영투명성과 적극적 소통으로 주주의 신뢰를 구축한다. ·기업가치 증대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주주의 미래 가치를 증대시킨다.
사회	**사회발전을 위한 기업시민이 된다.**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책임으로 사회에 공헌한다. ·사회단체, 정부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선도한다. ·자유기업시민으로 사회가치와 문화창출에 기여한다.

이해관계자 분류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고객	투자자	사회	직원	파트너	환경
고객은 포스코 성장의 원천입니다.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포스코의 노력으로 고객이 지속 성장할 때 포스코도 지속 성장이 가능합니다.	주주 및 투자자는 포스코의 주인이자 자본의 공급자, 장기적인 파트너입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포스코가 성장할 수 있는 터전으로 지역사회와 상생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 입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출발한 포스코는 인적 자원을 가장 소중한 자원이자 경쟁력의 원천으로 여깁니다.	든든한 동반자로서 파트너(공급사, 외주 파트너사 등 협력사)가 건강해야 기업 생태계가 튼튼해지며,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강산업을 비롯한 소재산업은 에너지집약산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지속 성장은 불가능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CRM) ·고객 만족도 조사 ·공동 연구 (EVI: Early Vendor Involvement) ·교류회(수시)	·CEO 포럼(연 1회) ·기업 설명회 (분기 1회) ·공시(웹 사이트) ·Face to Face Meeting(수시) ·신용 평가 정례협의	·포항/광양 지역협력팀 ·포스코신문 ·기업 이미지 조사 ·NGO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인터뷰	·노경협의회 : 노사 간 협의체 ·영보드 ·직원만족도 조사 ·PI RI (포스코 사내 트위터) ·POSCO&(사내 블로그) ·운영회의	·공급사 ·공급사 관계 관리 시스템(SRM) ·동반성장협의회 ·포스코패밀리 공급사 정보 교류회 ·외주파트너사 ·부서별 간담회 ·정보 교류회	·디지털 환경 감시 시스템 ·환경개선협의회(광양) ·환경 정보 시스템 ·철강 콘퍼런스 ·포스코와 함께하는 그린 스쿨 ·탄소보고서
주요이슈					
·고객만족도 제고	·안정적 지배구조 ·기업가치 제고	·지역사회역량강화 ·지역사회공헌활동 ·지역인재양성	·직원만족도제고 ·우수인재확보 ·공정한 성과평가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 ·품질 향상 등	·법규준수 ·친환경제품개발 ·친환경프로세스 ·온실가스저감

사업장지역 이해관계자 및 참여활동 포항지역 이해관계자 참여활동 주관부서인 행정섭외그룹에서는 지역내 주요 기관/사회단체와 교류 및 유대 강화 활동을 통해 회사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상생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포항지역 주요 이해관계자 분류

- 기관단체: 남/북구 국회의원,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상공회의소, 대구지법 포항지원/지청 등
- 사회단체: 포항뿌리회, 포항향토청년회, 포항청년회의소, 포항지역 발전협의회, 포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포항지역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활동 내용

- 설명회: 회사 관련 이슈 발생시 지역 내 올바른 정보 전파를 위한 활동 (수시)
- 간담회: 회사와 이해관계자 간 간담회 등을 통한 Human Network 구축 확고화 및 상시 관리 (발생 주기: 관리 중요도에 따라 차등 활동)

지역이해관계자 활동 (포항, 광양)

1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임직원 인건비, 포항지역 공사 발주,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역 지역업체 공사발주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발주금액 (*비율)	3,664 (48%)	2,933 (68%)	2,945 (51%)	1,358 (47%)	1,199 (46.4%)

*공사발주총액 중 포항지역에 발주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지역투자현황(포항)	총 10조 7,594억원 (2005~2014)
평균투자금액(포항)	1조 1천억원 투자
2015년 투자예산	2조 9천억원투자 (포항지역 투자액: 9,600억원)

2 인재양성

사업기반 지역인 포항, 광양의 인재양성 및 직원자녀 교육을 위해 1995년 포스코교육 재단을 설립하여 12개의 초, 중, 고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 — 포항제철고, 포항제철공업고, 포항제철중, 포항제철동초, 포항제철서초, 포항제철지곡초, 포항제철유치원

광양 — 광양제철고, 광양제철중, 광양제철초, 광양제철남초, 광양제철유치원

무료한글교실 후원 (1994~)

대상: 포항시내 저소득층 문맹자
교육인원: 4,111명 (1994~2014)
후원단체: 포항 YWCA
지원금: 1.7억원 (1994~2014)

인근지역 독거노인 멘토링 (2009~)

대상: 제철소 인근지역 독거노인 46명
활동내용: 말벗봉사, 장보기, 애로사항 청취 등
방문주기: 주 1회 이상

3 의료지원

무료 간병사업 실시 (2006~)

대상 : 제철소 인근지역 의료취약계층 (노인,장애인 등)
간병도우미 : 9명 (누계 163명)
수혜실적 : 2,946명 (2006~2014)
직접 방문을 통한 간병과 가사서비스 제공
소요비용 : 28.5억원 (2006~2014)

4 문화유산보전

지역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직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 문화재 돌보기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볼런티어위크 중 직원 230명이 광양 지역 문화재 보호활동 실시(2014.6.12)
· 대상 : (광양) 봉강 쌍의사, 옥룡사지, 중흥산성, 봉암산성, 불암산성, 마로산성, 광양향교, 망덕 윤동주 유고 보존가옥 등

5 인프라구축

포스코패밀리 기업공원 조성

포스코는 2008년부터 광양제철소가 위치한 광양시 관내에 기업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개의 포스코패밀리가 참여하여 22개의 기업공원을 조성해 녹색도시 광양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포스코패밀리 기업공원 11개 조성
· 주요참여기관 : 포스코, 포스코패밀리(포스코SNG, 전남드래곤즈, SNNC, 포스코켐텍), 외주파트너사 4개(광양기업, 광양조경, 이레코, 유니테크) 등

태양광발전기 설치 사업

포스코는 광양지역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비용 지출 경감 및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해 소외계층 주택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

· 지자체와 수혜대상 협의 후 태양광 발전기 시공(2015.3월~)

6 환경보전

바다생태계정화활동 클린오션봉사단

클린오션봉사단은 2009년 창단하여 전사 700여명(광양 123명)규모의 포스코 대표 봉사단으로 성장하였으며, 바다 속 폐어망과 폐타이어, 불가사리 등을 제거하는 해양 생태계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클린오션봉사단 인원	활동횟수	수거실적
665명	303회	1,009톤

*포항, 광양, 서울 봉사단 실적

광양제철소, 해수담수화 설비개발로 지역 물 부족 해소 지원

광양제철소는 인근 지역의 부족한 수자원을 감안, 신규 공장에 양질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기술을 대안으로 선택했으며, 2014년 9월 3일 국내 최초로 하루 3만 톤 생산용량의 상용 플랜트를 완공했습니다. 신규 사업장에 공급될 공업용수는 광양지역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하나 공급원인 수어댐 물은 인근 주민의 식수원으로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바닷물에서 담수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STAKEHOLDER INTERVIEW
이해관계자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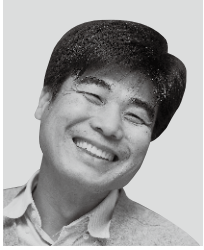
포스코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계획 시 환경, 사회, 사회책임투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이를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 발전 방향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이해관계자 참여활동 2014년은 국내 및 해외 지속가능경영전문가, NGO 등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인터뷰는 개별 인터뷰 방식으로 검증사인 삼일PwC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진행 History

2003~2009	국내 및 해외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2010~2011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대상 이해관계자 인터뷰, 차세대 리더인 대학생 대상 이해관계자 대화 개최
2012	사회, 파트너, 투자자, 고객, 직원, 환경 등 이해관계자별 인터뷰 진행
2013~2014	국내 및 해외 지속가능경영전문가 인터뷰 진행

이해관계자 인터뷰 참여 전문가



1. **류영재 대표** 서스틴베스트
2. **박유경 이사** APG
3. **정무성 부총장** 숭실사이버대학교
4. **염형철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1 2 3 4

Q 포스코는 올해 12번째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보고서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A 박유경 이사 지속가능성보고서가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회사의 중요한 핵심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KPI(핵심성과지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현재 이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A 염형철 사무총장 대부분 기업들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3자 검증 등의 신뢰성 장치가 있기는 하나 실제 내용이 홍보 위주로 보일 수 있어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용에 대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의 경우 시민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부하는 스터디그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환경단체와 기업, 정부의 입장을 자연스레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이해관계자와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NGO 입장에서도 꾸준한 소통으로 기업과의 교류를 증진할 수 있어서 서로간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투자자 측면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A 박유경 이사 APG의 경우, 이해관계자 및 연금투자자의 요구가 많아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자주 찾아보고 있습니다. 투자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면서 수익률을 다양한 형태로 분석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ESG측면을 고려할 때도 케이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도와 같은 개도국의 경우 전력난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소일 때 허용하기도 합니다. APG는 연금을 다루기 때문에 공적인 의의가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A 류영재 대표 SRI(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평가자의 입장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내용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내용 보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2014년 포스코의 주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류영재 대표 온실가스와 경량화 소재개발, 안전(산업안전) 그리고 지배구조가 포스코의 주요 이슈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염형철 사무총장 포스코의 주요한 이슈로는 인도 오디샤 프로젝트 이슈와 환경안전문제가 있습니다.

Q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A 정무성 교수 저의 전문분야는 사회공헌 분야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 측면에서 포스코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기업들이 정부의 요구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공헌에 많이 참여하였는데, 포스코도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 참여하였지만, 포스코의 경우 공장이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벌인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B2B 기업이기에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범위가 애매할 수 있는데, 인재 육성이라는 부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업태를 잘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인력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활동) 또한, 재단 출연의 경우 대부분 기업에서 직접 기금 출연, 대주주 출연, 혼합 형태로 진행되는데 포스코1%나눔재단의 경우 임직원이 직접 기금을 내는 독특하고 바람직한 모델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관련 행사가 많아 출장을 자주 가는데, 포스코는 베트남 내에서 좋은 사례입니다. 특히 미얀마 지역에서 진행된 스틸하우스는 지역의 명물이 되어 강하고 곧은 한국의 이미지를 잘 심어주었습니다.

Q 최근 비재무 성과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개 사항이 법제화 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정무성 교수 유럽의 경제대국들로부터 규제적 성격의 사회적 책임 요구사항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사회공헌 지출 금액 측면에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금액 측면에서의 신경은 이제 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ISO26000과 같은 가이드도 어떤 측면에서는 제 3국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무역장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마이클 포터 교수의 방한 등 CSV(공유가치창출) 개념에 대해 한국기업의 관심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A 정무성 교수 CSV에만 열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도 언급했듯이 CSV는 CSR의 하위 개념이지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CSV에 크게 반응하는 것은 그 동안의 한국 사회 내 CSR이 잘못 추진 되어온 부분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CSV를 정부의 사회공헌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Q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 커뮤니케이션 측면에 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A 류영재 대표 투자자와 평가자의 질문 범위는 재무적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의 가치와 관련된 모든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IR 부문에 지속가능경영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A 박유경 이사 포스코인디아 오디샤프로젝트의 경우 초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부족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투자자, NGO 등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영진의 진정성 있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측면에서 사내 R&R을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자와 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A 염형철 사무총장 오디샤프로젝트의 경우는 지역 NGO 등과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기업은 이해관계자와 평상시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시민단체의 이슈대응 방식이 다소 자극적일 수 있으나 이는 기업의 액션을 끌어내기 위함이며 이러한 것은 서로간의 소통강화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포스코에 바라시는 점이나 조언 부탁 드립니다.

A 류영재 대표 카이스트의 안병훈 교수말씀에 따르면 "책임투자의 '책임'이라는 말도 향후 없어질 것이다. 당연히 투자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기업경영은 당연히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해야 장기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외형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준이지 진정한 기업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속 가능한 기업은 가치사슬의 본질적인 업을 진실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 정무성 교수 베트남에 자주 가면서 포스코를 비롯하여 다국적 기업의 역할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국 젊은이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지면서 글로벌 인재로 진출해야 하는데, 미리 개도국의 현장을 체험하게 되면 젊은이들의 생각도 함께 살아야겠다라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포스코가 글로벌 인재 양성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NVIRONMENT DIALOGUE

환경대담

포스코는 2011년부터 매년 환경 오피니언 리더(정부, NGO, 학계)를 초청하여 환경이슈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환경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대화 주제]

2011. 6. 24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업의 역할
2012. 5. 30. 녹색경제 시대와 기업의 역할
2013. 6. 03 환경복지와 기업의 역할

과거 이해관계자 대화, p48,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dn/sustain/environ/POSCO_2013CarbornReport_kor.pdf

[참석자]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노종환 일신회계법인 부회장
조영탁 한밭대 교수

[사회]

포스코 이영훈 부사장

포스코는 2014년 11월 13일 세계 에너지시장과 국가 전력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2014 포스코 환경대담'을 포스코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환경 오피니언 리더 4인이 참석하여 세계 에너지시장 동향과 국내 전력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Q 이영훈 부사장(이하 사회)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세계 에너지시장 동향과 국가 전력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역할' 입니다. 우선, 셰일가스 등장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에너지 판도 변화와 에너지 공급과 수요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조영탁 교수(이하 조 교수) 국제에너지기구가 셰일가스를 염두에 두고, 한때 21세기를 '가스의 황금시대(Golden Age of Gas)'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셰일가스가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 전세계적 공급확대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량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셰일가스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입니다만 셰일가스가 국제에너지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선 국제적으로 셰일가스는 발전 분야의 변화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후쿠시마 사건 이후 원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원전의 공백을 메우고 석탄을 대신하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풍력이나 태양광의 비연속성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스는 화석 및 원자력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장기계약을 통해서 가스를 들여오기 때문에 셰일가스가 당장 국내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셰일가스로 인해 석유가격이 안정되면 석유가격에 연동되어 있는 가스 도입가격이 낮아지고,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신규 도입이 가능해 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가스를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에너지전략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력수요와 관련하여 미국 등 셰일가스에 기초한 가스화학산업이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축을 유발하고 이것이 국내 전력수요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A 노종환 부회장 (이하 노 부회장) 셰일가스가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셰일가스 개발에는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셰일가스는 1년 정도 시추한 후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순간에 나오고 급격히 줄어드는 특성 때문에 일정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셰일가스로 인해서 이러한 투자들이 보류되거나 지체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10년 혹은 20년이 지나서 "그때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할 수 도 있습니다.

A 한화진 부원장(이하 한 부원장) 셰일가스 개발에 있어 여러 개의 시추공으로 인한 토지 훼손과 지진에 대한 우려, 물을 사용하여 셰일가스를 시추 시 화학물질 약품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환경청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이승훈 위원장(이하 이 위원장) 하나의 에너지가 그 시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모든 생활의 도구가 그 에너지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해당 에너지가 고갈되면 그 동안 일상생활 및 산업에서 활용하던 여러 가지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기존 체제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동안은 재생에너지와 석유가 경쟁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이 크더라도 석유를 완전히 대체하는 사태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겠지만 가스는 재생에너지와 동시에 사용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재생에너지 단가도 낮아진다면 장기적으로 유가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사회 올해 초 정부는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문제는 없겠는지요? 국가 에너지정책의 주요 골자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이 위원장 우리나라는 에너지 측면에서 철저히 해외에 종속된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외국에서 수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은 우리에게도 있는 자원입니다. 쏟아지는 햇빛, 불어오는 바람에서 생활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설치 후에는 변동비가 들지 않아 운영비가 제로에 가깝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비를 낮추는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기적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면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A 조 교수 '제5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했을 때, 풍력발전에 대해 과도한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차 계획수립 시, 5차계획에 대한 추진 결과를 살펴보니 예상했던 것의 1/5밖에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풍력은 유용한 자원이긴 하지만 생태계 파괴와 소음문제로 민원이 많은 에너지원인 것이 사실입니다. 남은 가능성은 해상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은 설치비가 비싸고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만큼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 한 부원장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의 생산, 사용, 개발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나 기후변화, 대기오염, 안전문제, 입지관련 사회적 수용성 등 여러 가지 환경 이슈가 수반됩니다. 에너지와 환경은 따로 분리할 수 없으며, 결국 환경을 상생의 측면 즉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Q 사회 에너지를 이야기 할 때면 항상 환경이란 이슈가 오버랩되어 등장합니다. 원자력, 화력발전은 물론 셰일가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완벽한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와 환경,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경과 에너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서 민간과 기업이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격탄력성이 낮은, 수송이나 건물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A 노 부회장 에너지 정책은 긴 호흡으로 멀리 봐야 합니다. 단기적 성과만 추구하면 솔루션이 나올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꾸준하게 기술개발과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단기간 내에 중단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안보라는 중요한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A 조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신재생에너지 가격과 차이가 많습니다. 독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한 이유는 높은 전기요금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다양한 파이낸싱(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사회 에너지와 환경은 비단 정부만의 숙제가 아니라 기업도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산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야 하는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노 부회장 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국가나 사회의 선순환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도 창출해야 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기업은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즉 기후변화 협약 등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환경이 바뀐 만큼, 그에 맞게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석기시대나 청동기 시대가 돌과 청동이 떨어져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문제에 접근할 때도 동일합니다. 석유시대의 석유가 떨어져서 에너지 시스템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기후변화 문제해결의 유일한 해법은 기술입니다. 기술의 진화와 변화에 따라 근본적인 상황이 바뀌어왔습니다. 문제는 옛날의 청동기시대는 심플해서 잘 보이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분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기업이 어떻게 잘 개발하는가에 따라 차세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A 조교수 우리나라 송전망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는 분산형 자가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과 일본의 자가발전 비율이 비슷했지만 이후 국내의 자가 발전비율은 계속 줄어든 반면(4% 수준), 일본은 오히려 늘었습니다(20% 수준).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일본에 비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자가발전 비율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송전망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가스나 신재생에너지 등을 분산 활용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사회 주제를 전력으로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등 미래 전력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한편,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격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전력문제를 바라보는 각계 입장도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고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A 이 위원장 전기요금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의 전기요금이 계속 유지되면 국가가 감당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산형 전원정책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한전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력수요 예측이 필요했는데, 분산형 전원이 실현되면 에너지 제로 빌딩, 고립된 섬의 마이크로 그리드와 같이 굳이 중앙에서 전력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없는 수요가 크게 늘어납니다. 국가가 통합적으로 공급하기 보다는 소비자가 발전해서 쓰는 분산전원 정책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Q 사회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요즘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고분분투하고 있는데요. 포스코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대표적인 우리나라 철강 제조업체인 포스코에 대해 평소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도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이 위원장 이제는 옛날처럼 사업하면 망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사면초가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포스코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지만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한, 에너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서 에너지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A 한 부원장 포스코는 현재 여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녹색경영을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선언 등 외부 여건의 변화를 잘 분석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파이넥스와 같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노 부회장 포스코는 에너지 집약산업으로 온실가스 배출부하가 큰 업체인 만큼 지속가능보고서나 최근 NGO와 공동으로 발간한 수리부엉이 책자같이 꾸준히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전통적인 에너지나 철강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뭘 추구해야 할 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알려진 답은 절대로 먹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혜안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후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총론적인 이야기입니다.

A 조 교수 포스코가 제철보국의 이념으로 세계적인 제철회사로 발돋움한 것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가 세계경제 침체와 온실가스 규제 등 당면한 위기를 견뎌내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MARKETING

마케팅

SOLUTION MARK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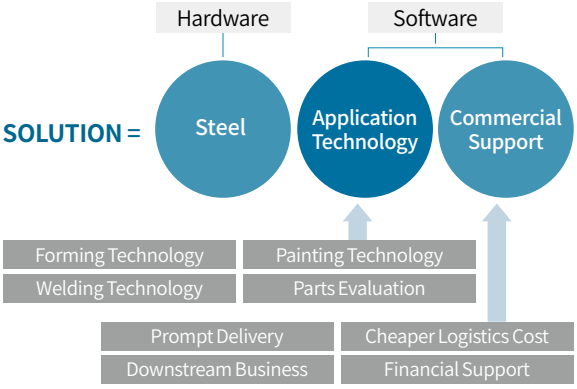
솔루션마케팅

좋은 철강재를 만들더라도 고객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거나 경제적이지 못하다면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스코는 고객에게 '최고 성능의 강재'라는 하드웨어와 '고객 이용기술', '상업적 지원'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하여 고객이 더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포스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루션마케팅 도입 배경 2007년부터 포스코는 고객사의 제품개발 초기 단계에 참여하여 제품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강재의 특성평가와 이용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EVI(Early Vendor Involvement)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장환경 속에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EVI활동의 보다 진화된 개념인 '솔루션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솔루션마케팅은 고객의 잠재적 니즈를 만족시켜 고객에게 차별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가치경쟁 활동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솔루션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강사업본부 산하에 대규모 연구인력으로 구성된 '솔루션센터'를 설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마케팅 포스코는 솔루션마케팅을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포스코와 고객사간의 파트너십을 한단계 더 강화하기 위해 'From Steel Supplier, To Solution Partner'라는 주제로 Global EVI Forum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내 자동차, 조선, 가전업체는 물론 폭스바겐, 닛산 등 500여개의 글로벌 고객사 관계자 1,200명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CEO가 직접 솔루션마케팅을 소개하고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고객의 성공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 주요 고객사들과 100여 건의 기술협력 및 판매협약을 추진하여 솔루션마케팅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솔루션마케팅의 개념



산업별 솔루션마케팅 주요 성과 포스코는 고품질 강재 개발에서부터 이용기술 제공 및 상업적 지원에 이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솔루션마케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회사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객사와의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축분야
메가트러스 구조솔루션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 현장에 포스코는 고강도 HSA800 강재를 적용한 콘크리트 합성 구조와 접합부 용접 시공 기술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후판 및 형강 제품 약 3만5천톤 전량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객사 역시 포스코의 솔루션을 통해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어 상호 win-win하는 솔루션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조선분야
선체 용접부 취성파괴방지 솔루션

최근 컨테이너선 대형화 추세에 따라 국제선급협회에서는 선체의 취성파괴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취성파괴 방지 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제정, 2014년부터 계약되는 모든 컨테이너선에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포스코는 3가지 선체 용접부 취성파괴 방지 솔루션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조선사에 제공함으로써 고강도 극후물 조선용 강재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2015년 이후 본격적인 판매량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분야
차체 경량화 솔루션

2014년 10월, 파리모터쇼에서는 1리터 Car(휘발유 1리터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고효율 친환경 차) '에오랩 (EOLAB)'이 출품되어 많은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오랩은 글로벌 자동차사인 르노가 최고의 연비를 모토로 개발한 차량으로서 차체 경량화를 포함한 다양한 혁신기술이 접목된 차량입니다. 포스코는 철강사로는 유일하게 에오랩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경량화 차체 구현에 필요한 솔루션들을 제공하여 기존 차량 대비 약 30%의 중량 감소를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7대 전략산업 중심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판매 경쟁력 강화 도모

포스코는 제품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객의 의견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 고객가치 향상 활동 제고를 위해 국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매년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POSCO the Great'의 원년인 2014년에는 기존 조사 방식과 설문 문항을 대폭 개선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까지는 조사 대상을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나, 2014년에는 포스코 7대 전략산업인 에너지, 조선해양, 전기전자, 자동차, 경강선재, 강건재, STS 고객사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기존 설문 문항도 고객 중심에 포커스를 맞춰 개선 및 솔루션 마케팅관련 문항을 추가하는 등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였습니다.

2014년 고객만족도 조사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설문지 조사와 방문 인터뷰를 병행하여 실시되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 분석결과, 국내 고객사의 경우, 경쟁사대비 포스코 만족도를 높이 평가하였으나, 해외 고객사의 경우, 경쟁사와 포스코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고객사 공히 고객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스코 솔루션마케팅 활동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는 2014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도출한 180여개 고객 니즈를 과제화하여 집중 개선하고, 이를 통해 판매 경쟁력 강화 및 고객과의 동반성장의 기틀을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5년 고객 만족도 조사도 2014년과 동일하게 7대 전략산업 고객사 중심으로 실시하여,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객 니즈를 발굴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00점 만점, 단위: 점)

구분	2011	2012	2013	2014
종합	86	85	84	79
국내	91	88	88	84
해외	81	81	79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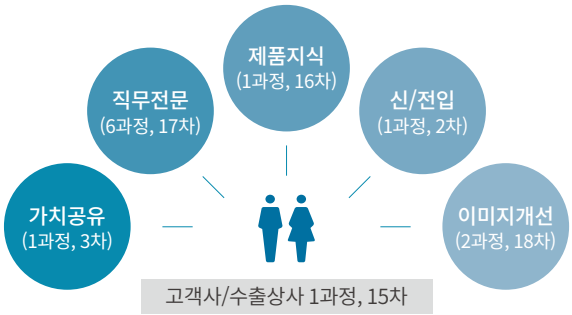
*2014 Target : 80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마케팅 교육

고객만족도와 고객가치의 향상을 위해 포스코는 철강사업본부 내 교육담당 부서를 조직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불황과 치열한 경쟁상황 속에서도 마케팅 담당 직원들이 고객가치 창출과 마켓 인사이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품지식&직무 교육, 가치공유의 임원특강, 이미지 개선&브랜드 가치 제고의 사외교육 등 13개 과정의 다양한 마케팅 역량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고객사 & 수출상사 직원의 영업 경쟁력을 높이고 포스코와의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고객사와 수출상사를 대상으로 제철소 초청 마케팅 집합교육과 e-러닝 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은 직원들의 지식수준 및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통의 일회성 교육을 실시해 직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에는 판매경력 3년 미만의 저근속 직원에게는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지식 교육을 기초 - 심화 - 현장OJT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여 조기에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직책보임자들 대상으로는 전략·전술, 판매노하우 및 사내외 소통 강화 특강 등을 운영하여 경영층부터 일반직원까지 본부의 전략을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판매확대·수익창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2014년 마케팅 교육실적



교육내용

총 13개 과정, 71차수/년

- 제품지식: 관련 제품지식, 주문항목, 기술용어 등
- 직무전문: 수주공정, 판매생산, 물류, 전략 등
- 가치공유: 임원 판매노하우, 솔루션마케팅 이해
- 이미지 개선: 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가치 제고
- 신·전입 직원 교육: 본부 조직구성, 주요 업무 소개 등
- 고객사/수출상사 제철소 초청교육

CASE STUDY

고객정보보호

2014년 9월 포스코는 철강업계 최초로 온라인 철강판매 웹사이트 'e-Sales'의 서비스 운영부문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ISMS는 정보자산의 안전과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인증제도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포스코는 이번 ISMS인증을 통해 회사의 정보보호 수준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한 정보보호대상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인증 취득 이후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POSCO PRODUCTS

포스코 제품

열연제품 주요용도: 파이프, 형강, 자동차 프레임·휠, 컨테이너

열간압연기(Hot Strip Mill)에 의하여 생산된 코일상태의 열연강재와 이를 절판한 열연강판을 말합니다. 포스코는 최신설비와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을 컴퓨터로 제어하며 정밀도와 품질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완전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열연제품 종류 및 용도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product/info/s91e3000010c.jsp

후판제품 주요 용도: 선박, 대형구조물, 교량 등

후판제품은 두루마리 휴지와 같은 코일 형태의 열연·냉연과 달리 평균 두께 6mm 이상의 상대적으로 두꺼운 판자 형태로 생산합니다. 선박이나 대형구조물, 교량, 조선용 후판 등에 주로 사용되며 극저온 저장용기, 산업기계, 군수장비 등 특수 용도에도 폭넓게 쓰입니다. 용접구조용, 해양구조물용, 압력용기용, 혹한지용 후판의 제조기술 개발에 주력해 산업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후판제품 종류 및 용도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product/info/s91e4000010c.jsp

선재제품 주요 용도: 교량용 와이어, 타이어 코드, 스프링, 건축구조물 등

선재제품은 철사와 같이 가늘고 긴 형태로 생산하는 제품이며, 보통강과 특수강으로 구분합니다. 보통강은 나사·못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통 선재와 자동차, 교량, 해저케이블 등에 쓰는 특수 선재로 나뉩니다. 특수강은 자동차용 볼트·너트, 건축용 고장력 볼트, 타이어 코드 등의 제조에 사용됩니다. 고강도화, 경량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재제품 및 용도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product/info/s91e5000010c.jsp

티타늄 제품

포스코는 철강과 스테인리스 분야에서의 세계 최고 제조 기술력을 접목하여 가장 우수한 품질의 티타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티타늄제품 및 용도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product/info/s91e1000010c.jsp

냉연제품 주요용도: 자동차 강판, 고급 가전 제품, 금속기구 등

냉연제품은 열연재를 소재로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압연을 하여 만드는 제품입니다. 표면이 미려하고 가공성이 우수한 고급 철강재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필수 소재입니다.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정용품에서부터 산업기기, 각종 건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며 스틸 캔, 스틸하우스 등 지속적인 신수요 창출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냉연제품 종류 및 용도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product/info/s91e6000010c.jsp

용융아연도금제품 주요용도: 가전제품, 도장강판소재, 파이프 등

냉간 압연된 코일을 표면 세척 및 소둔 후 용융된 아연도금 욕조에 담가서 표면에 아연피막을 입힌 제품입니다. 자동차 및 전기설비, 토목, 건축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내식성, 성형성, 도장성 등이 우수합니다.

용융아연도금제품 종류 및 용도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product/info/s91e9000010c.jsp

전기아연도금제품

주요용도: 평판이나 Roll Forming, 굴곡가공 등 경가공용에 사용

냉간 압연 및 소둔 처리한 제품 표면에 전기화학적 도금을 한 제품으로 Pure Zn외에 Zn-Fe, Zn-Ni 등 합금 도금도 할 수 있으며 인산염 또는 내지문 등 다양한 후처리를 하여 가전기기, 자동차용 등으로 많이 쓰이는 제품입니다.

전기아연도금제품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product/info/s91e2000010c.jsp

전기강판제품 주요 용도 : 변압기, 모터, 발전기 등

뛰어난 전자기적 특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최근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Clean Energy의 필요성 강화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으로, 압연 방향에 따라 방향성 전기강판과 무방향성 전기강판으로 구분됩니다. 제품은 주로 전기/전자 제품의 철심 재료로 쓰입니다.

전기강판제품 및 용도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product/info/s91e7000010c.jsp

자동차소재 제품

포스코는 국내 자동차사뿐만 아니라 일본, 미주, 구주 등 전세계 자동차사에 자동차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자동차소재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파트에 따라 경도, 가공성, 용접성, 내식성, 성형성, 도장성, 선영성 등이 우수하여, 각 파트별 기능과 외관에 부합합니다. 포스코는 엄격한 품질인증 과정을 거쳐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기술개발과 솔루션 제공, 고객 밀착형 관리를 통해 글로벌 Top 자동차 소재 제조사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소재제품 및 용도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product/info/s91e0100010c.jsp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주요용도: 주방용품, 의료기기, 건축 내외장, 자동차 부속 등

표면이 미려하고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특수강으로 별도의 처리 없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철강재입니다. 제품은 주로 자동차 배관, 주방용품, 전자제품 등에 쓰이며 특히 최근 인천 신공항, 상암 월드컵 경기장 등의 건설에 이용되면서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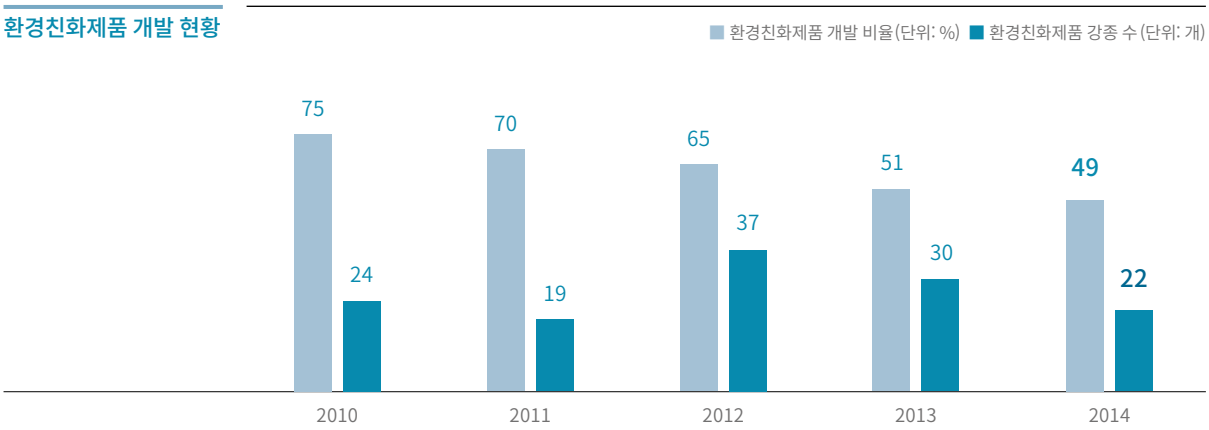
스테인리스스틸제품 및 용도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product/info/s91e8000010c.jsp

ECO-FRIENDLY PRODU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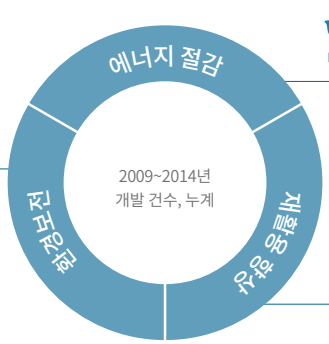
친환경 신제품

2014년 개발된 전체 제품중 환경친화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이며, 환경친화제품의 강종 수는 22종입니다.

환경친화제품 개발 현황



환경친화제품 개발 유형



19건

· 환경유해물질 미함유, 인체 유해요소 차단
· 소음, 진동 감소, 배기가스 정화 성능 향상

90건

· 자동차 경량화, 공정·열처리 생략
· 에너지 효율 제고, 가공성 향상

59건

· 내부식성 강화 및 장수명화, 내구성 향상

환경친화제품 분류

1 고기능 열연재
- 열교환기용 Al 클래드 내열강
- POSEIDON500 내해수강
- API X42급 이하 내 Sour 보증용

2 에너지산업용 후판 제품
- LNG선용 E500-TM(50t)(인증)
- PWHT 내Sour X65(50.4t)

3 선재 제품
- 자동차 조향부품용 8T급(80kg) 비조질강
- 자동차 조향부품용 6T급(60kg) 비조질강(PosNH6)

4 고기능 냉연재
- CR 냉연 특수강종 접합용 FCW 용접봉강
- CR Base PosMAC 고장력강
- CR 재압연용 공정 생략형 Slide Rail용강

5 고효율 전기강판 제품
- 친환경 자동차 구동모터용 35PNT650Y
- 고효율 콤프레셔 50PNH300

6 자동차 경량화
- 자동차 GA외판용 490MPa급 Dual Phase 강판
- 자동차 CR보강재 1,180MPa급 Transfomation Induced Plasticity 강판
- 자동차 GA보강재 1,180MPa급 Transfomation Induced Plasticity 강판
- 자동차 PO Wheel Disk용 인장강도 900MPa급 TWIP 강판
- 자동차 GI 보강재 인장강도 1,300MPa급 Martensite 강판
- 자동차 PO Stabilizer Bar용 PO 1,800MPa급 Post Heat Treatment 강판

7 STS
- 자동차 Bellows용1.4828(poStrip)
- 304 범용 대체 POS-SD
- 열교환기용 S31803

고강도 내해수성강 POSEIDON500

내해수성강은 염분(Cl성분)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강재로서 강널말뚝, 강관말뚝, 항만시설물 등 해양구조물에 주로 사용됩니다. 내해수성강은 Cr(크롬), Cu(구리), Ni(니켈), P(인) 등 합금원소들이 표면에 농화됨으로써 강재의 부식속도를 낮추게 되며, 해수환경 특히 비말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높습니다. POSEIDON500은 내해수성에 따른 부식공제두께 절감과 고강도화 (YS 380MPa 이상)를 통해 두께를 감소시켜 경제성과 내구성을 모두 향상시킨 강재입니다. POSEIDON500은 광양, 포항, 시화 등 3해에서 장기폭로 부식시험을 2010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며, 내식성이 일반강 대비 40% 이상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해수성강은 오염물질인 녹스케일의 해중 유실량이 적어 강재 그 자체로 친환경적이며 용도 또한 오염물질 차폐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POSEIDON500은 U형 및 Z형 강널말뚝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 그 성형성이 이미 검증되었으며 D 3003, D 3300, F4602의 KS 규격에 각각 HSM500, STKM500, SKK500의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후 포스코는 POSEIDON600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강도 내해수성강을 개발하고 저온충격 보증을 한층 강화하여 친환경 내해수성강의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널말뚝

해상교량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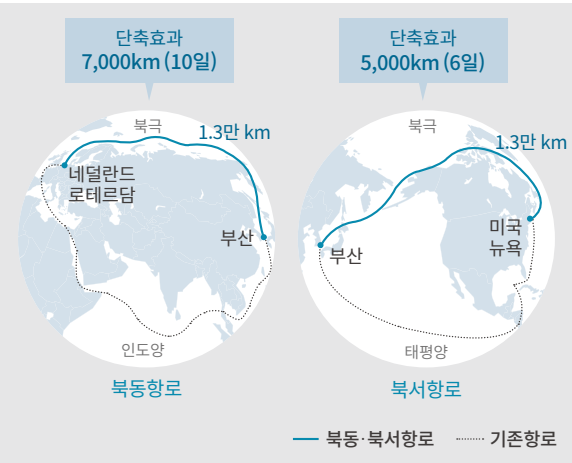
항만시설물

세계 최초 쇄빙LNG선 Ice Belt Zone에 적용되는 E500-TM강재

수송거리 단축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운송기간 단축을 위해 극지항로 개발이 본격화 되는 상황에 발맞추어 러시아 YAMAL지역에서 대규모 LNG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LNG선 총 15척이 건조 예정이며, 한 척당 강재 소요량은 32천톤에 이릅니다. 이중 쇄빙파트에 사용되는 E500 강재는 척당 7천톤이 소요 될 전망입니다.

E500 강재는 극지 쇄빙용으로 2~3m 두께의 얼음을 뚫고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강재 특성이 요구됩니다. 모재부는 -40°C (기준:1/2t, 50J)의 저온 충격인성이 보증되어야 하는데 당사 개발재는 기준대비 9배 이상 우수한 저온인성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재부 CTOD(기준:0.25) 역시 기준대비 10배 이상 우수한 2.85 실적을 갖는 강재를 개발하여 러시아선급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4년 1호 쇄빙 LNG선에 강재를 공급하였으며, 강재공급 Record를 축적하여 나머지 14척에 대한 강재를 일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극지항로 이용시 거리 30%이상 단축



자동차 배기계 벨로우즈용 STS EN1.4828 강재

전세계 자동차 STS 배기계 수요는 200만 톤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보증연한 증가와 함께 엔진 고출력화를 위한 연비 향상과 경량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Euro 6의 배기계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들은 고Cr400계의 사용 증가와 함께 더 높은 엔진 성능을 위한 소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중 포스코가 개발한 EN1.4828강재는 20Cr-11Ni-2Si 성분의 규소(Si)첨가 내열강으로써 내산화성, 내열피로, 내고온염에 우수한 재질특성을 지녔으며 특히 배기계중 배기 매니폴드(Exhaust Manifold)와 컨버터 사이에 위치하여 엔진소음 저감, 진동흡수, 열팽창 흡수 역할을 하는 벨로우즈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EN1.4828강재는 이너슬리브(Inner Sleeve) 부위에 적용되어 고온의 배가스로부터 Flexible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향후 배가스 CO_2 저감을 위하여 DPF, SCR, EGR 등의 강재개발을 통해 환경친화형 부품강재 개발에 적극 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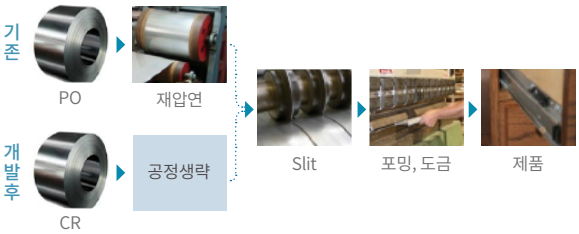
자동차 조향부품용 8T급 (800MPa) 비조질강

21세기 자동차산업의 키워드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자동차업체들은 CO_2 배출 저감을 위해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뿐만 아니라, 각종 부품 소재의 고강도화 등 차량 경량화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의 열처리를 생략할 수 있는 소재 개발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8T급(800MPa)비조질강 선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한 강재로써 자동차 조향부품 제조시 고객사의 Quenching(담금질)과 Tempering(뜨임) 공정을 생략하고도 완제품에서 열처리를 실시한 부품과 동일한 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재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 열처리시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CO_2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코는 이러한 열처리공정 생략형 강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재압연 공정 생략형 Slide Rail용 CR

책상, 세탁기, 오븐 등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구, 가전제품의 서랍에는 철제 슬라이드 레일이 사용됩니다. 서랍을 부드럽게 당기거나 넣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레일은 엄격한 내구성을 위한 '강도', 베어링과의 마찰계수를 낮추기 위한 낮은 '조도(Roughness)' 및 생산을 위한 '가공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 특성을 만족하기 위해 슬라이드 레일용 강재는 기존의 PO제품을 재압연하여 강도와 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공정은 오랜 가공 시간과 잦은 소재 운송으로 비용과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슬라이드 레일용 소재 원가 절감 및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포스코에서는 재압연 공정을 생략할 수 있는 냉연 CR 강재를 개발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원가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슬라이드 레일용 CR은 국내 대표 가전사와 가구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개발 전후 고객사 공정



QUALITY MANAGEMENT
품질경영

포스코패밀리 품질헌장

2010년 포스코는 고객가치 창조를 통한 글로벌 초일류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포스코패밀리 품질헌장을 선포했습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철강 제품과 적용 기술을 제시하여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솔루션마케팅을 기반으로 고객의 혼까지 감동시키는 초일류 품질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포스코패밀리 품질 헌장

The POSCO Quality

고객의 혼까지 감동시키는 초일류 품질

품질 헌장은 품질 비전과 3대 핵심가치로 구성돼 있습니다.
품질 비전인 'The POSCO Quality'는 '포스코는 곧 품질의 상징이며, 고객의 혼까지 감동시키는 초일류 품질 달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대 핵심가치는 Customer Inside, Basic Inside, Synergy Inside이며, 각각의 핵심가치에 따라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Customer Inside	Basic Inside	Synergy Inside
고객의 잠재니즈까지 반영해 고객가치를 창조한다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고 편차와 낭비를 제거한다	신뢰와 소통으로 Supply Chain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계층별 맞춤형 품질교육

포스코는 자사뿐만 아니라 패밀리사, 해외법인, 외주 파트너사 및 공급사까지 직원들의 품질 마인드 향상과 역량 개발을 위해 계층별 맞춤형 품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포스코 및 패밀리사는 물론 해외 법인, 품질 핵심 외주 파트너사, 공급사 등 Supply Chain을 대상으로 품질 교육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와 개선을 주도할 사내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2012년 이후 품질경영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기본, 심화 과정과 인증 심사원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339명의 포스코 패밀리 품질경영 전문가를 양성하였습니다. 이들은 품질경영시스템 개선, 품질경영 진단 및 지도 활동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계층별, 직무별 요구특성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맞춤형 품질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계층별 직무 전문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임직원 품질교육 현황

(단위:명)

구분	집합교육				e-러닝	
	일반과정		전문가 과정			
	과정수	수료인원	과정수	수료인원(누계)	과정수	수료인원
2012	9	3,900	1	66	7	20,800
2013	7	1,700	3	200	10	14,300
2014	6	760	3	339	12	17,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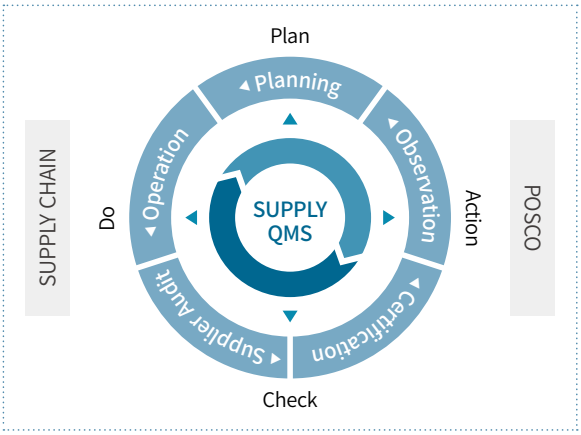
포스코 서플라이어 품질인증제도(PosQC)

포스코는 외주파트너사 및 자재 공급사의 품질불량 유입을 차단하여 원류 품질을 확보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포스코형 서플라이어 품질인증제도(이하 PosQC)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PosQC는 포스코의 품질핵심 외주파트너사, 자재 공급사의 품질경영체계를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Q1~Q5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Q3등급 이상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게는 별도의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 해당기업의 품질보증 능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012년 시범운영 후 2014년 58개 품질핵심 외주파트너사 및 자재 공급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품질인증 심사에서 총 31개사가 Q3등급 이상을 인증 받았으며 특히 외주 파트너사 부문에서 ㈜EG테크, 공급사부문에서는 ㈜범우가 각각 최우수사로 선정되어 품질경영대상 시너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포스코는 2015년 평가 대상을 110개사로 확대 적용하고 서플라이어 품질보증 능력 향상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Q3등급 이상 품질인증률을 80% 수준까지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본 제도를 통해 외주 파트너사 및 공급사가 자주적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 품질혁신을 추진하여 포스코가 파트너사와 동반성장을 통해 최고의 품질 구현과 고객가치 창출을 이뤄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Synergy Inside

신뢰와 소통으로 Supply Chain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Supply Chain 품질인증현황

구분	2012	2013	2014
평가대상사(수)	6	43	58
Q3이상 품질인증률(%)	100	42	53

품질경영 진단

포스코는 프로세스 성과와 품질경영 시스템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포스코패밀리 품질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 진단은 품질헌장의 핵심가치 및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한 50여 개의 진단항목을 설정하고, 품질경영 성숙도를 Beginning ▸ Improving ▸ Succeeding ▸ Controlling ▸ Leading의 5단계로 세분화해 평가합니다. 2014년 포스코패밀리 14개사 대상 품질경영 진단 결과, 포스코의 품질경영 성숙도는 국내 산업 최고 수준인 Leading A+ 단계로 나타났으며 패밀리 전체적으로는 Controlling B++ 단계로 2011년 Succeeding C+ 단계에서 지속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는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서비스 품질 진단을 품질경영 진단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진단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패밀리 자력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상대적으로 품질경영 수준이 낮은 패밀리사를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할 것이며 진단을 통해 패밀리 품질경영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품질경영대상 시상 (PQA, POSCO Quality Awards)

포스코는 매년 품질경영 진단을 통해 포스코패밀리 최우수사를 선정, 포상하는 품질경영대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대상은 품질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품질경영 혁신 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낸 포스코 패밀리사를 선정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상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상의 종류에는 대기업, 중소기업군에 수여되는 대상과 혁신상,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년대비 개선도가 가장 큰 회사에 수여되는 도약상, 공급사와 외주파트너사에 수여되는 시너지상이 있습니다. 특히 시너지상은 포스코 서플라이어 품질인증제도(PosQC)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사가 선정됩니다. 품질경영대상은 포스코패밀리 품질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패밀리 품질경영의 지속적 개선과 패밀리사 간 시너지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대상 수상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대상	광양제철소	포스코E&C	포항제철소	포항제철소
혁신상	포스코TMC	포스코켐텍	포스코강판	포스코플랜텍
도약상	포스코A&C	포스코A&C	포스코플랜텍	포스코에너지
시너지상	스톨베르그&삼일	범우	범우	조선내화
	포롤텍	광희	-	EG테크

해외 생산법인 품질경영 진단

포스코는 해외 생산법인의 품질경영 운영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모사 수준의 품질경영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최초로 해외 생산법인 품질경영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해외 생산법인의 특성을 상세 분석하여 32개 진단항목으로 구성된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2014년 처음으로 멕시코CGL, 포스코베트남, 광동순덕포항강판 3개 해외 생산법인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였고, 해당 생산법인의 현지 품질경영 핵심 역량 조기확보 및 고객가치 구현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생산법인에서 생산하는 포스코 제품은 모사와 동등한 품질을 구비하여 고객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CASE STUDY

해외사업장 품질경영 교육 제공: 태국어 등 7개국어 제공

포스코는 13개 해외 생산법인 주재원과 현지채용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글로벌 품질경영' e러닝을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라카타우포스코(인도네시아)를 비롯해 POSCO-Maharashtra(인도), 장가항포항불수강(중국), 포스코멕시코 등 13개 해외 생산법인 직원들은 사내 e-campus 시스템에서 품질경영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은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통계 기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포스코 품질전문가들이 △글로벌 품질비전 △품질경영 실무교육 △통계적 품질관리 등 각 주제에 대한 이론과 실무 노하우를 전달하는 UCC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현지 언어를 사용하는 현지채용인이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중국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태국어·터키어 등까지 총 7개국어 버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新품질보증시스템

포스코는 2014년 품질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고객지향적 품질보증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Q-CAPS(Quality-Check And Pass System)와 시정조치 통합관리시스템을 신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량은 만들지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품질경영 메시지를 바탕으로 개발된 Q-CAPS는 제품 생산 공정의 모든 조업 실적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공정간 품질 검사, 품질보증, 품질 예측, 품질/조업 모니터링, 품질 해석 등의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불량 검출 및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품질심사나 고객 클레임 등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의 근본원인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통합관리시스템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정조치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동일한 부적합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차원의 품질체계를 강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NNOVATION

혁신

WORLD PREMIUM
기술개발

포스코는 철강기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술전략과 기술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하였습니다. WF(World First), WB(World Best) 고유 제품과 영업이익률이 높은 WM(World Most) 제품 등 WP(World Premium) 제품 기술 개발과 함께 고객 지향의 맞춤형 솔루션 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회사의 수익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 고유의 혁신 철강공정기술과 수익성 극대화 공정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현장 제조 기술력 고도화로 원가절감과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실현하여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CO_2 배출 원단위 저감기술 개발 노력을 지속하였고 창의적인 철강융합 기술 발굴과 효율적인 기술획득을 위하여 개방형 협력개발체계(Open & Collaboration)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기술개발 성과

제선

국내외 제선공정의 저원가, 고효율 조업기술 정착을 통한 경쟁력 향상
- 제철용 철광석 및 석탄 가격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통한 경제적 연원료 사용기술 정립
- 당사 최초 해외 Green Field (인도네시아) 고로 건설 및 조업 경쟁력 확보

저가 고휘발분 석탄 다량 사용 고부가가치형 코크스 제조 기술 개발
- 고가의 화성부산물*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석탄 배합 및 조업 기술 확보
- 저가 고휘발분 석탄 사용시 코크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기술 개발

*화성부산물 : 석탄 Coking시 발생되는 Gas의 정제과정 중 탄화수소 성분을 포집하여 생산된 Oil계 성분

제강

제강공정 조업 제어 자동화율 향상 및 저원가 조업 기술 개발
- 인적 요인에 의한 품질 편차 저감형 전로 조업 모델 개발
- 저가 원료 사용기술 개발 및 제선-제강 전체 최적화를 통한 조강원가 절감기술 확보
- 저급원료 사용 증대 및 정련리드타임 단축을 통한 종점 산화도와 종점 온도 개선으로 고품질 확보

극후물 슬라브 제조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에너지 강재 대량 생산기반 구축
- 포스코형 주편 중압하 기술(PosHARP), 400mmt 슬라브 제조기술 개발로 극후물재 품질 향상
- Ingot소재 대체 포스코형 극후물용 슬라브 연주기 (LICC*) 자력개발로 원가 경쟁력 확보

*LICC : 기존 Ingot 프로세스를 대체하여 직사각형 슬라브 형태로 극후물재를 생산하는 연주공정

압연

광양 4열연공장 준공으로 고급 자동차강판, 고기능강재 제품 개발 및 판매 확대 기반 구축
- 자력 엔지니어링을 통한 고강성 압연기 설계, Level 1 자력설계 등 기술력 향상
- 유압 Looper 제어기술, Variable Crown Work Roll을 활용한 형상제어 기술 등 신기술 적용

에너지 저소비형 전기강판 제조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
- 극저철손 고자속밀도 전기강판 제조기술 개발로 고효율 변압기용 방향성 전기강판 시장 선도
- 고주파 특성이 우수한 전기강판 개발로 자동차 및 산업용 전기강판 시장 선도

후판 가속냉각 기술 향상에 의한 TMCP 강재 경쟁력 강화
- Quick Mask 기능 개발로 선미단, 폭방향 온도 편차 개선에 의한 평탄도 향상
- 가속냉각 설비 진단 기술개발로 TMCP 품질 안정화 기여

스테인리스 400계 용선 사용 기술 확립 및 차별화 제품 개발
- 스테인리스 고온 용선 탈린 기술 및 고속, 고효율 정련기술 개발
- 범용 304강 대체 고성형 Lean Duplex강 개발

TECHNOLOGIES OF NEW BUSINESS 신성장 기술개발

철강소재를 중심으로 이끌어온 지난 50년의 사업에 이어 포스코 패밀리의 또 다른 50년을 이끌어갈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고유기술을 보유한 원천소재와 청정에너지 분야의 신성장 사업에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천소재 분야에서는 포스코가 자체 개발한 리튬 추출과 니켈 습식제련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압도적인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천 소재분야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는 철강인프라를 이용한 청정 석탄화학(Clean Coal Chemical) 사업과 미래 에너지원인 연료전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를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유망 신기술 발굴을 위해 대학/연구소와 차세대전지 소재분야 공동개발 협력, 한국과학기술지주㈜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신사업/기술 발굴 등 국내외 연구기관 및 대형 고객사와의 R&D 협력을 강화하여 신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개방형 협력개발 체제(R&D Open Collaboration)를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창조경제 정책에 발맞춰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 '대기업-벤처기업 M&A 활성화 시범 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대기업-벤처기업 기술협력 정보교류의 장을 기술교류/협력 및 M&A 중개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창업기획사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창업팀 지분투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 (멘토링, IR설명회 등) 운영을 통한 창업초기 기업 성장발판 마련과 글로벌 스타트업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ESS(Energy Storage System), 해수담수화, E-Mobility 등 포스코 패밀리사의 신사업 기술역량 강화 및 시너지 창출에 공동 협력하여 패밀리사 매출에 크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Slim FINEX* 기술을 적용한 200만톤 FINEX 가동으로 투자 및 조업경쟁력 확보

- 200만톤 FINEX 공장 준공 및 정상조업도 달성으로 기존 150만톤 FINEX 프로세스 대비 동일 투자비로 생산성 증대 및 저원가 조업 가능
- 중국 중경지역 FINEX 공법을 적용한 일관밀 투자 MOA 체결

*FINEX : 기존 고로를 대체하여 분광석과 일반탄을 직접 사용하는 혁신적인 제선공정

CEM 고생산성 고품질 박판 제조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프리미엄급 극박재 제조기술 확보

- 저탄/고탄 및 고강도강 연연속 압연기술 개발로 생산가능 강종 및 사이즈 범위 확대
- CEM 직결 연연속 압연기술* 개발로 치수품질이 우수한 박물재 제품 경쟁력 향상

*CEM 직결 연연속 압연기술 : 슬라브를 생산하는 연주 공정부터 최종 코일을 생산하는 압연공정까지 슬라브를 절단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자동차 경량화 및 고강도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고Mn/고Al강 대량 생산기반 구축

- 용융 Mn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고Mn강 대량 생산체제 확보
- POCAST 기술을 통한 고Al강 연연주 기술확보로 원가 경쟁력 확보

*POCAST : 기존 고체 Mold Flux를 대체하여 주조 중 액상 형태의 Mold Flux를 공급하는 기술

초장대 교량용 세계 최고 강도 케이블 개발 (PosCABLE92)

- 고려제강,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국내 기업과 공동으로 기존 최고 강도인 1,860MPa급 보다 강도를 15~30% 높인 세계 최고 강도의 교량용 케이블 제품 개발
- 제품의 성능인증 시스템 구축, Test Bed 현장적용 등 초장대 교량 건설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상용화

프레스 가공성이 우수한 자동차용 초고강도 AHSS강재 개발 및 고객 솔루션 기술 개발

- 세계 최초 고연신 CR 980 MPa급 X-AHSS강, CR/GA 980 MPa급 TRIP강, Al 도금 1,800 & 2,000 MPa급 Hot Press Forming강 개발
- 자동차 차체 small overlap 충돌 성능향상 차체 설계기술 개발

고기능 냉연, 도금제품의 혁신공정 기술 개발 및 차별화 제품 개발

- 세계 최초로 강재에 적용한 잉크 젯 프린팅 기술, SST* 300시간 보증 고내식 EG/GI 제품개발
- Zn-Mg 용융도금 고내식 도금강판 (PosMAC) 제조기술 완성
- Laser 열처리 기술을 이용한 초고강도 Side Trimming 기술 개발

*SST (Salt Spray Test) : 염분을 이용한 내식성 테스트

주요 기술 개발 성과

염수리튬 직접추출 기술 개발 종합소재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포스코는 휴대폰, 태블릿PC,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리튬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염수리튬 직접추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종전의 리튬 생산방식인 자연증발법은 리튬 생산기간이 최소 12개월이나 소요되며, 염수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슘 등의 불순물로 인해 리튬 회수율이 낮았습니다. 이에 비해 포스코의 염수리튬 직접추출 기술은 2개월 이내, 최소 8시간 만에 리튬 생산이 가능하며 리튬 회수율도 종전 30%에서 80%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자연증발법과 달리 기후나 장소에 제약이 적으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어 친환경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튬 자원은 크게 광석과 염수(리튬이 녹아 있는 액상 광물), 해수로 구분됩니다. 이중 현재 가장 원가 경쟁력이 높은 자원은 염수로, 전 세계 리튬화합물 중 70%가 염수로부터 생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2년 12월에 연산 탄산리튬 20톤급 파일럿 플랜트를 칠레 코피아포시 인근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실증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아르헨티나 카우차리 염호에 연산 200톤 규모의 대형 파일럿 플랜트를 준공하여 현재 상용화를 위한 실증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니켈 습식제련 기술 개발 스테인리스강과 2차전지 원료로 각광받는 니켈은 일반적으로 니켈 함량이 높은 황화광 및 산화광에 열을 가해 니켈을 회수하는 건식제련을 통해 생산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품위 광석은 가채년수가 짧아 고갈 위험이 있어, 매장량이 풍부한 저품위 산화광을 니켈 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노력은 고품위 광석 대비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포스코는 저품위 광석에서 니켈을 경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습식제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 150톤 규모의 파일럿 공정을 운영하여 저품위 광석에서 니켈을 90%이상 회수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니켈 이외의 추가 부산물 생산이 어려운 건식제련과 달리, 습식공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부터 고가 희소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을 추가로 개발하여 경제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향후 상용화급 데모공장을 건설, 운용함으로써 상용화 기술을 완성시켜 조기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전지 양·음극재 기술 개발 2차전지 소재 분야는 양·음극재 제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차세대 소재 기술 선점을 위해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협력과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경쟁사 동등 수준의 용량·수명 성능을 가진 LCO 양극재 개발을 완료하여 2015년에 양산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량·고안전성 성능 확보가 가능한 차세대 양극재인 농도구배형 NMC를 2016년 양산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연흑연계 음극재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 제품 개발을 통해 고객군을 넓혀가는 중이며 고용량 인조흑연 음극재의 파일럿 단계 연구와 실리콘-흑연 복합 음극재 상용화를 위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청정 석탄화학 기술 개발 합성천연가스(SNG: Synthetic Natural Gas)는 저가의 석탄을 고온 고압에서 가스화 한 후 정제공정과 메탄 합성공정을 거쳐 천연가스와 동일한 성분으로 만든 청정 연료입니다. 포스코는 주요 공정 중 하나인 메탄 합성 신공정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메탄 합성기술과 비교해 설비가 간단하고 열효율이 우수하며, 메탄 합성의 핵심인 촉매기술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개발된 기술은 기존의 메탄 합성기술과 비교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크며, 광양에 건설중인 SNG 실증플랜트가 완공되면 향후 해외 플랜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중질유분이나 부생가스를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이나 재생연료를 제조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생가스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H_2와 CO를 95%이상 회수할 수 있는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암모니아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및 포집된 이산화탄소 활용이 가능한 DMC(Dimethyl Carbonate: 친환경 화학제품) 생산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포스코의 청정 석탄화학 기술은 폐자원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원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연료전지는 전세계적으로 도심형 분산발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적의 고효율 친환경 분산발전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패밀리는 2003년부터 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사업을 통해 국내 연료전지 산업을 육성하고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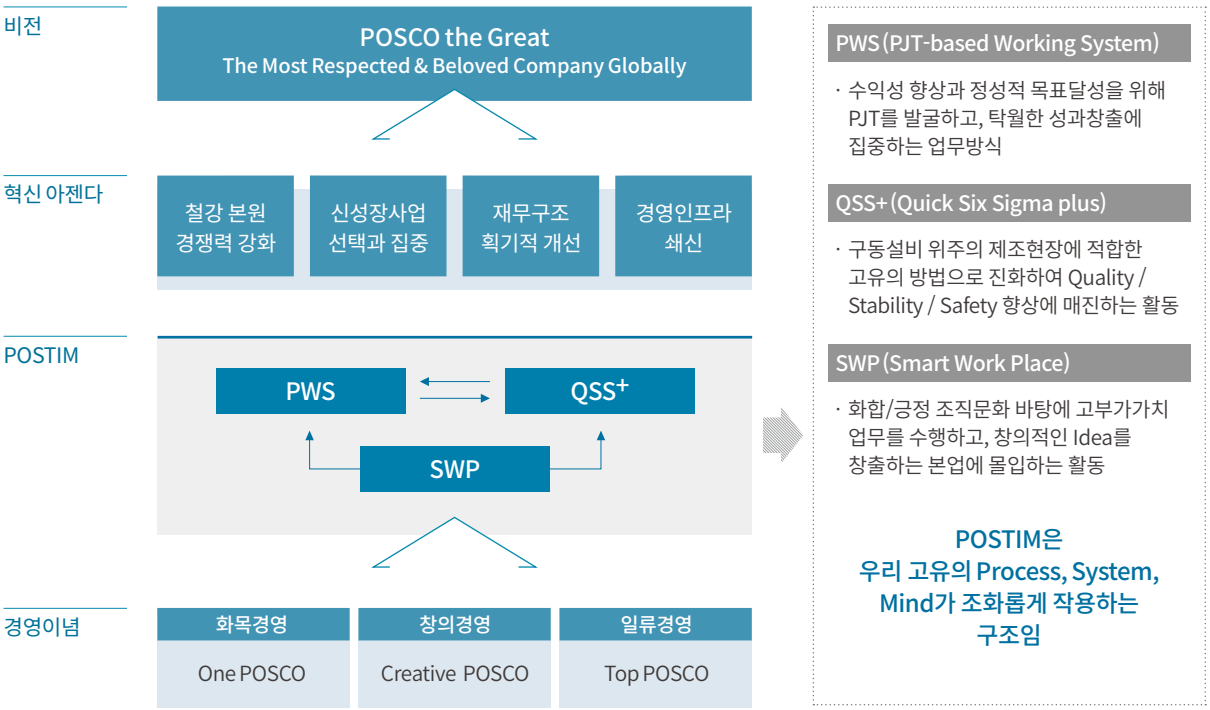
포스코패밀리는 발전용 연료전지(MCFC: Molten Carbonate Fuel Cell) 자체 서비스망 및 시공체계를 수립하여 독자사업기반 구축을 통해 국내에 140MW 이상을 보급하였으며 국내 시장의 90%이상을 점유,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FCE사에서 도입한 MCFC 기술을 순차적으로 국산화하여 2015년 상반기에 국산화율 100%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료전지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연료전지를 차세대 수출 주력 업종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수십 kW급 규모의 건물용 열병합 시스템에서 MW급 규모의 발전용·선박용 시스템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연료전지인 SOFC(Solid Oxide Fuel Cell) 독자기술 개발을 가속화하여 SOFC의 핵심 기술인 셀 제조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10kW급 SOFC 시스템을 상용화하여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을 개척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INNOVATION
업무혁신

'POSCO the Great'라는 포스코의 비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목표, 불굴의 의지와 적합한 방법론 등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혁신 방법론의 도입, 혁신 인재 양성, 스마트한 업무 환경 구축 등 지속적인 역량을 축적해왔고 실효성 낮은 제도 및 보여주기 식 활동의 개선 등을 통해 꾸준히 혁신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포스코 고유의 혁신방법인 POSTIM(POSCO Total Innovation Methodology)을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POSTIM은 'POSCO the Great'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실행엔진으로 일과 혁신의 일체화, 자발적인 참여와 성과에 상응한 보상, 창의적인 활동과 본업 집중도를 높이는 업무 환경 조성, 기술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 양성 및 우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POSTIM은 △수익성 향상과 정성적 목표달성을 위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탁월한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업무 방식인 PWS(Project-based Working System) △구동설비 위주의 제조현장에 적합한 고유의 방법으로 품질불량/조업장애/안전재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인 QSS+(Quick Six Sigma plus) △화합/긍정 조직문화 바탕에 고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에 몰입하는 활동인 SWP(Smart Work Plac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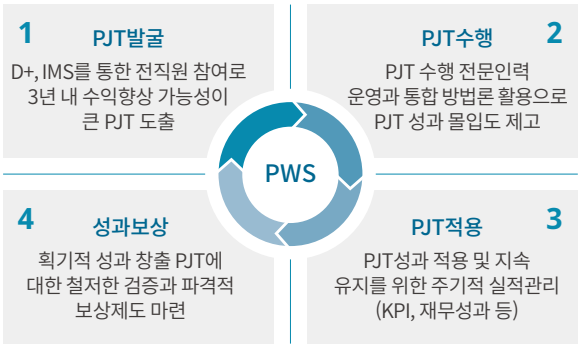
POSTIM의 구성



1 PWS(Project-based Working System)

PWS는 수익성 향상과 정성적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탁월한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업무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PWS의 핵심 성공요소는 Right Project, Right Mgt., Right Reward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PWS 운영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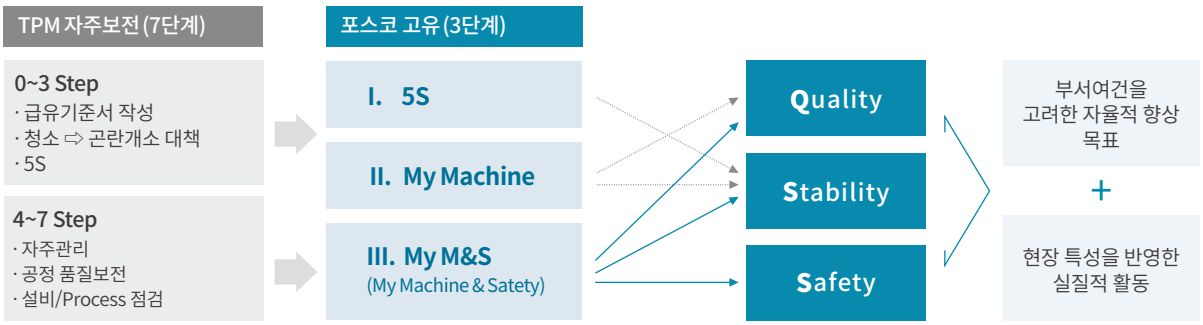


우선 Right Project를 살펴보면 Right Project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Top-down Project 제시와 Bottom up 제안 2가지 방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Top-down Project 제시는 임원/부서단위 D+ 및 연구과제 발굴 프로세스를 통해 경영목표 달성과 직접 연계된 프로젝트를 발굴합니다. Bottom Up 제안은 본부나 실 단위 워크숍을 활용하여 발굴합니다. 아이디어 제안을 촉진하기 위해 본부별 아이디어 공모와 경진대회를 활용하며, 아이디어나 역량이 있는 임직원은 월급이나 연봉과 관계없이 누구나 프로젝트의 리더나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Bottom-up 아이디어 제안은 본부장이나 경영임원이 본부별 특성에 맞는 테마를 제시하여 아이디어 공모를 받은 뒤 경영임원이 IP 프로젝트로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2014년에는 IP 1.0 추진반을 통하여 발굴한 프로젝트와 기존과제를 융복합하여 수익성이 큰 IP 프로젝트 500 여 건을 도출하였습니다.

PWS의 두번째 핵심 성공요소인 Right Mgt.는 People, Method, Communication, Control로 구성됩니다. 우선 People측면에서 살펴보면, 프로젝트 전담인력인 전문임원과 PCP(POSCO Certified Professional)를 선발하여 현업에서 프로젝트에 전념토록 합니다. 2014년에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전담인력 200여명을 선발하고, Kick-Off를 통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여 수익성 향상에 매진하였습니다. 프로젝트팀 조직 신설로 프로젝트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팀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관리 절차 및 혁신방법론 교육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강화하며, 혁신방법론의 로드맵과 툴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방법은 선 프로젝트, 후 방법론을 선택하여 성과중심의 'PWS 혁신방법론'을 실행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프로젝트의 목표, 계획, 이슈관리 등을 위해 Visual Planning을 활용하고, 감사나눔을 통해 활기찬 팀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ontrol측면에서 프로젝트 수행자가 효율적으로 수행과정과 현황정보를 관리하고, 경영임원의 지원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PPMS, 즉 POSCO Project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QSS+의 개념

QSS+ ▶ TPM 사상(설비자주관리)은 따르되, 제철소 특성에 적합한 포스코 고유 방법론으로 진화



PWS의 세번째 핵심 성공요소는 Right Reward입니다. 이는 프로젝트 수행결과로 획기적인 실현이익을 달성한 경우 성과에 상응한 파격적 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실현이익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및 기여도와 역효과를 반영하여 실현이익을 산출합니다. 초과실현이익*이 연 10억원 이상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하며, 아이디어 제안자/ 프로젝트 수행자 등 참여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성과를 배분하고, 모든 직원에게 수익배분제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합니다.

*초과실현이익: Project 투입 직접비용 및 사람과 자산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통상의 이익을 초과하여 실현한 이익

2 QSS+(Quick Six Sigma plus)

포스코에는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설비와 24시간 구동되는 대형설비가 많아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 없이는 현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코는 제철소 특성에 적합한 현장 혁신활동인 QSS+를 개발하여 안전한 작업장을 바탕으로 설비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설비 강건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QSS+ 은 전통의 TPM(설비 자주관리) 활동을 기반으로 제철소 특성에 적합한 포스코 고유 방법을 결합시킨 것입니다. CEO를 비롯한 직원들이 참여하는 QSS+ 선포식을 실시하고, 부서별 활동계획에 대한 리더계층의 멘토링과 직원들의 참여를 통하여 활동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부서 및 공장별 상세계획은 제철소장이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현장 활동 활성화를 위해 양소 26개 부서를 대상으로 부소장 주재 부서별 Kick-off를 실시하여 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QSS+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서 KPI와 연계하여 1/3/5년 단위로 활동목표를 수립한 결과 양소 32개 부서의 200개 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렇듯 포스코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핵심설비와 개선방법을 선택하는 맞춤형 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공장장 주도로 QSS+ 계획을 수립하여 대수리와 연계한 현장 혁신 활동을 조기에 실행하거나 부서 특성에 적합한 자체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등 포스코 고유의 현장 혁신활동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3 SWP(Smart Work Place)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포스코는 편리한 IT 인프라와 선진화된 업무 방식, 감사나눔을 통해 직원들의 긍정적인 몰입을 추구하는 SWP(Smart Work Place)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IT 인프라를 활용한 모바일 결재가 활성화되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으며(2010년 대비 결재승인 시간 74% 단축), 영상 회의 활용 증대를 통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 대비 출장 16% 감소). 또한 스마트 노트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고객 요청 및 불편 사항에 즉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2012년 대비 고객피드백 시간 75% 단축). 선진화된 업무 방식을 통해 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업무 몰입도를 증대하였으며, 본연의 업무 집중을 위해 인사, 교육, 혁신 제도 등을 간소화하였습니다. 감사나눔을 통해서는 리더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를 형성하고 감사 나눔의 대상을 가족, 고객사 및 공급사로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SWP 개요

몰입도가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보다
영업이익률 6배
(글로벌 41개 기업의 임직원 36만명 참여 연구결과)

몰입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것

SWP

❶ 편리한 IT인프라	시간/공간의 제약이 없는 IT 환경 제공
❷ 선진화된 일하는 방식	저 부가가치 개선과 창의 업무 확대
❸ 감사나눔	긍정 마인드 조성 및 회사사랑 고취

RISK MANAGEMENT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 FRAMEWORK 리스크 관리체계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철강산업의 저성장 심화,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 확대 등 위기 요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회사 내외부를 둘러싼 위험을 신속히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해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이해관계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리스크 관리 Overview

포스코는 2010년 상반기부터 성장투자사업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과 규정 제정, 조직체계 정립 등 전사 차원의 통합리스크관리체계 (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다양해지고 상시화, 복합화됨에 따라 불확실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철강, 재무, 마케팅, 원료, 금융, 신흥국 등 포스코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부문별 리스크 선행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습니다. 또 2014년에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포스코 중심에서 그룹 차원으로 확장하여 '그룹사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리 대상 또한 철강 중심에서 비철강 사업 분야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사와 그룹사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그룹 내 리스크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리스크에 대한 조기 인지와 대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는 그룹 경영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중점 위험 요인을 상시 점검하는 체제를 운영하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리스크 저감 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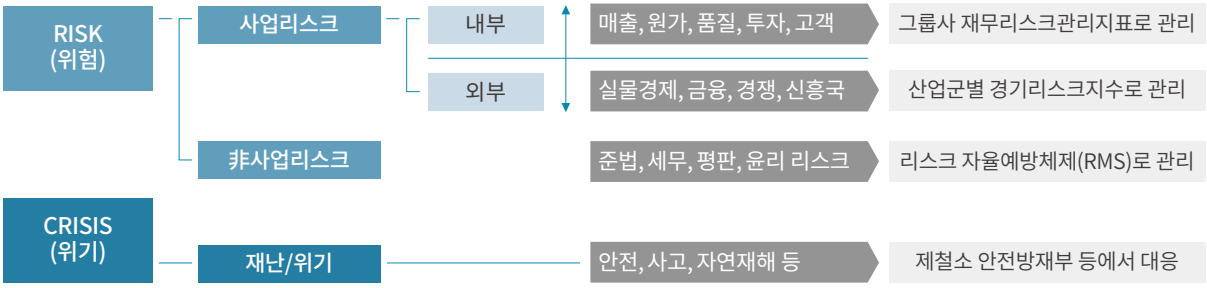
리스크 관리 정책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sustain/riskcontrol/s91d5000010c.jsp
리스크 관리 규정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sustain/riskcontrol/s91d5000030c.jsp

리스크 관리체계 및 거버넌스

일반적으로 위험(Risk)은 측정 및 관리가 용이한 반면 위기(Crisis)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갑자기 발생하고 대응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난 또는 위기 발생에 대해서는 각 제철소의 안전방재부를 중심으로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위험관리체계는 사업리스크와 비사업리스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리스크 중 회사 비즈니스 관점의 내부리스크는 계열사 재무리스크 관리지표를 중심으로, 외부 환경 관점의 외부리스크는 산업군별 경기리스크 지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리스크의 식별/대응 활동은 포스코 가치경영실과 각 계열사가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의 윤리, 준법, 평판 등 비사업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도경영실이 중심이 되어 리스크 자율예방체제(RMS)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리스크관리체계



재무리스크 관리체계

그룹사 리스크 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설계되었습니다. 첫째, 기업가치(EVA) 관점에서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였습니다. 즉 EVA 하락을 야기하는 요인을 핵심리스크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발굴하였습니다. 둘째, 재무리스크 관리지표는 기본적으로 해당사의 '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별로 매출/손익 발생구조와 유형을 도식화하여 실적에 영향을 주는 사업 리스크를 정의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룹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결과 포스코는 주요 17개 계열사에 대하여 총 146개의 리스크 지표를 도출하였고, 리스크 수준이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주의/경보 신호가 발생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17개 리스크 중점관리 대상기업: 포스코, DWI, 건설, 에너지, ICT, 켐텍, 엠텍, 강판, 플랜텍, P&S, PT.KP, 장가항, P-Mexico, P-Maharashtra, 베트남 냉연, Thainox, Assan TST

외부 경기리스크 모니터링

포스코는 재무리스크 관리지표와는 별도로 외부 경기리스크 지수(CRI: Composite Risk Index)를 개발하여 산업별 위험도 측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3개 영역(철강군/비철강군/해외사업군)으로 구분해 총 196개의 산업군별 리스크 지수를 월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즉 포스코를 둘러싼 외부 업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추적하고 이를 경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 외부 리스크 개념도

(총 196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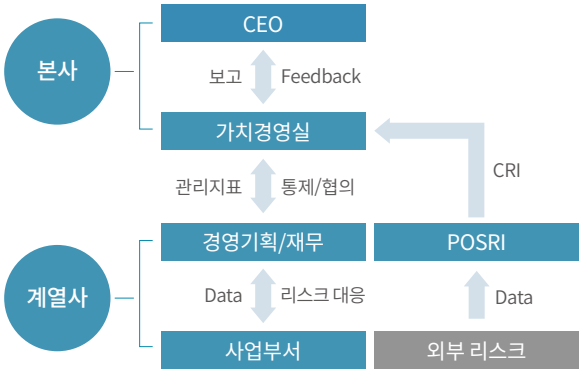
철강군 CRI		비철강군 CRI	해외법인 CRI
철강산업측면	수요산업측면	산업군별	지역별
거시경제 위험	철강	건설	중국
물량 위험	자동차	에너지	인니
가격 위험	조선	ICT	인도
비용 위험	전기/전자	상사	멕시코
수출 위험	기계		베트남
	건설		태국
			터키

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 방안

2015년부터 리스크 관리시스템은 포스코와 계열사, 포스코경영연구소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룹사에서 매월 리스크 지표를 작성하면 주관 부서인 포스코 가치경영실에서 이를 취합하고, 피드백 등 관리통제 활동을 수행합니다.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요인은 전사리스크 관리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으며, 포스코 중장기 전략에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또한 투자사업 의사결정시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리스크가 예상되는 사업은 관련 전문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포스코 투자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경영연구소는 포스코를 둘러싼 외부 경기리스크 모니터링 및 주요 계열사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한 상시 예비점검을 수행합니다. 리스크 관리활동 결과 주요 리스크 이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경영층에 보고하거나 그룹사 경영진 회의에서 논의토록 하여 리스크 관리체계의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향후 그룹 리스크 운영체계가 정착될 경우 ①선제적 리스크 대응을 통한 잠재손실 축소 ②효율적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한 지속성장 추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스크관리 체계



2014년 현재 주요 리스크 추이

철강산업은 2014년에도 높은 수준의 리스크가 지속되었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 악화가 지속되면서 철강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졌고 중국산 철강재의 범람으로 국내 철강재 시장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 가전산업 리스크 지수도 높아지면서 수요산업 리스크가 더욱 커진 한 해였습니다. 다만 철광석 가격이 하반기 들어 빠르게 하락하면서 철강가-원료가 스프레드 증가로 수익성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스코 진출 지역 리스크는 연초 미국 양적완화 종료 우려로 신흥국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하반기 들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4년말 유가 급변동에 따라 러시아를 비롯한 국가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고 있으나 유가 수혜 여부, 정치적 안정 여부에 따라 신흥국 리스크도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룹사 글로벌 무역 위축(상사), 전력 판매가격 하락(에너지), 해외건설 위축(건설) 등 외적인 리스크는 커졌으나, 그룹 차원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가 빠르게 개선돼 불확실성이 대폭 줄어들고 있어 향후 그룹사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한 민감도분석과 Stress Test

포스코의 경영성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환율, 유가, 철광석/석탄 가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각 사에서는 이러한 지표의 변동에 따라 매출액, 원가, 이익의 변화 가능성을 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표의 움직임에 의해 큰 사업위험이 예상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경영계획은 경기전망이 호황일 때부터 최저점일 때까지 5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S1에서 S5의 5가지 버전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S3에서 S5까지의 부정적인 경기환경에 따른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목표를 수립하여 매월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 내부통제

한국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포스코는 2003년 12월에 공시와 내부 통제에 대한 CEO·CFO의 인증 절차 수립, 공시위원회 운영 등 재무보고 과정의 내부통제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4년부터 내부통제 활동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SOX법[1)]상 2006 회계연도부터 외부 감사인의 입증 감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2005년 3월 자회사를 포함한 포스코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평가 시스템도 구축, 완비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외부 감사인의 인증 감사를 실시해 재무보고 산출과 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했습니다. 재무보고 내부통제 시스템은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COSO[2)]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제시하는 'Standard Control Activity Framework'를 이용한 10개 부문의 중요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업무 위험을 평가했으며, 통제 활동을 설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는 현 업무를 이해하는 독립부서의 검증요원이 평가하여 경영진 인증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2009년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1) SOX(Sarbanes-Oxley)법: 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기업회계개혁법. 회계 부정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허용
2)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미국의 5개 기관이 설립한 비정부 기관으로 내부통제의 개념체계를 정립

재무보고 내부통제 프로세스

1 설계평가(Test of Design)	2 설계평가 감사	3 운영평가(Test of Control)	4 운영평가 감사
회사가 갖고 있는 주요한 통제 활동의 설계가 잘 됐는지 (내부통제가 전사의 중요 업무 프로세스에 빠짐없이 구현돼 있는지) 평가	회사가 실시한 설계평가를 감사법인이 감사	설계평가로 검증을 완료한 통제활동들이 설계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는지 평가 (예: 시스템 운영 화면 캡쳐 등 증빙으로 운영의 유효성 여부 판단)	감사법인이 회사가 실시한 운영평가를 감사

EMPLOYEE

직원

CORPORATE CULTURE

기업문화

포스코는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긍정적 조직분위기 형성을 통한 본업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임직원 행동 가이드라인:BASIC 실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BASIC 실천지침'을 제정하고 우월적 지위와 역할을 이용해 편리를 도모하거나 특정계층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갑 의식'을 버리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BASIC 실천지침은 Beautiful(아름다운 언어 사용하기), Abandon(권위, 특권의식 버리기), Serve(고객 섬기기), Improve(잘못된 관행 개선하기), Check(업무원칙 확인하기)의 총 5개 카테고리로 구성된 임직원 행동 가이드입니다. 직원들이 BASIC 실천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갑의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제도와 프로세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의 습관화:감사나눔 추진 일상에서 감사표현을 나누는 '감사나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장작불'처럼 활활 타지만 쉽게 꺼지는 이벤트성 활동에서 벗어나 '화롯불'처럼 은근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는 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리더의 솔선수범과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감사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조직분위기가 유연해져 본업 몰입과 성과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직원간의 열린 소통을 위한 대표적인 기구로는 노경협의회가 있으며 영보드, 주니어보드와 같은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직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쌍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인 'POSCO&'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최고경영층과 직원간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보드 영보드는 젊은 직원들이 회사 전략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경영층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창구로서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는 참여 대상을 출자사 직원들까지 확대했으며, 2009년부터는 해외법인을 포함한 포스코패밀리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직원간담회 실시 최고경영층과 직원간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성 임직원, 경력직 등 특정 계층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정해진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계층별 간담회' 와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 'Luncheon Dialogue'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총 7회) 이를 통해 상호 친밀감 형성 및 회사 전반의 개선 니즈를 발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포스코 일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간담회 http://blog.posco.com/998

해외사업장 HR포럼개최: 포스코는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동·서남아, 북중미, 유럽, 중국, 일본 지역을 대상으로 글로벌HR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 HR 포럼은 포스코그룹의 해외사업 매출이 확대되고 해외근무직원의 수가 국내 직원들의 수를 넘어서면서 해외인력을 육성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공유, 파견 직원들의 HR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외사업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포럼에서는 포스코그룹 구성원 모두가 소속 회사·국적에 관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고, 능력에 따라 최고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는 Universal & Open된 인사기준 구축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글로벌 시장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해외인력 육성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본사와 해외법인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표준화한 직급체계, 글로벌 회사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기준, 해외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 및 강사요원 육성을 주요 인사운영 기준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현지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자 마련한 간담회에서는 포스코그룹의 일원으로서 잠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글로벌 인사정책을 운영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포스코는 글로벌 HR 포럼에서 논의한 의견들이 본사 및 해외법인을 중심으로 실행되어 해외사업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포스코는 2015년부터 거점법인 주도의 권역별 HR 워크숍을 운영해 현지 직원들에게 본사의 글로벌 HR 정책을 전파하고 본사-해외법인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경협의회 노경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997년 11월 17일 출범한 직원 대표 기구로 근로자위원과 경영자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임금, 근무제도,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안전, 보건, 그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 전사적 관심사항을 협의하며 회사 운영회의 참석, 경영진과 근로자위원 간 정기·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경영 현황을 공유하며 경영 전반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분기별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해 기초위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경영 현황과 정책을 설명하고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노경협의회 산하에는 제철소협의회와 부문, 부-실, 과-공장협의회가 있으며 과-공장협의회는 노경협의회의 최소 조직단위로 395명의 기초위원이 있습니다.

노경협의회는 산하 각급 협의회에서 건의한 안건을 바탕으로 매분기말에 정기회의를 실시해 직원과 회사의 공동 발전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직원 대의기구로서의 신뢰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임직원 급여 1%기부 사랑나눔을 주도하여 실천해 오고 있으며 2014년부터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활동인 Great Work Place(GWP) 실천운동을 통해 회사 본원경쟁력 강화, 안전재해 예방 및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섬으로써 회사비전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GWP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자기주도의 안전지키기 확산을 위한 안전SSS활동과 자재사용 시 낭비요인 제거 활동을 전개하는 등 회사와 직원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노경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직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입니다. 2014년에 활동한 6대 위원의 경우, 2012년 10월에 선출되어 2015년 11월에 임기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임직원 고용안정 및 신분보장 포스코는 창업 이후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기반해, 경영정상화 또는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자 주도의 대규모 정리해고나 강제적인 고용종료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취업규칙(제 36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 또는 면직하지 않는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법률 위반 등 해고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전사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원의 해고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해고 최소 30일 전에 해고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해고를 하였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 고용 종료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위한 제반 규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차별금지 및 다양성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포스코는 인적자원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겨 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경영의 기본으로 삼아 왔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내용을 윤리규범으로 제정하여 (윤리규범 행동준칙 7. 인권의 보호와 존중)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행동준칙 7. 인권의 보호와 존중

④ 존중과 평등

-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한다.
-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 근로환경을 유지한다.

취업규칙

제36조(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원을 징계, 해고, 휴직, 면직하지 아니한다.

여성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여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과 보육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 성장비전을 제시하여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보육 문제 해결	**어린이집** 포항, 광양, 서울에 총 430여명 규모의 어린이집 운영으로 육아 부담을 덜고 여성 고용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여유(女幼)공간** 수유실 기능을 갖춘 여직원 휴게실 '여유공간'을 두어 여성인력, 특히 임산부가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제도** 여직원은 출산전후 휴가 90일 외에도 최대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승진/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승인제를 통보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 성장 지원	**'W-Leadership' 프로그램** 출산 및 양육으로 경력 공백을 겪는 여직원들의 성장비전 제시를 위해 회사의 각종 지원 제도를 공유하고, 선배사원으로부터 업무 및 생활에 대한 코칭을 받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2회) **여직원간 소통 채널** 전사 여직원이 가입하는 사내 온라인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여직원 간 자발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정보 공유 및 각종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만족도 제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조직문화와 직원만족도를 진단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70%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직원이 회사에서 느끼는 행복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포스코에서 자체 개발한 '행복지수'라는걸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지수는 직원들이 얼마나 본연의 업무에 몰입하여 성과를 내는지는 측정이 곤란하고, 타사와의 비교 지표로도 활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2014년 'P-GWP(POSCO-Great Work Place)' 지수를 새롭게 개발하였으며, 기존 행복지수를 대체해 새로운 직원 만족도 조사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새롭게 정립한 'P-GWP (POSCO-Great Work Place)'는 조사결과 전직원의 72%가 응답하였으며, 포스코 그룹 직원들은 Global Top 수준의 높은 주인의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POSCO the Great 비전 제시, Project 중심의 일하는 방식 도입, 높은 고용안정성 등을 통한 성장비전 및 업무성취감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P-GWP 조사내용 중 직원만족도와 관련한 조직문화지수는 77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target 70점

회사는 조직문화개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한 직원만족도 점수는 79점, 82점, 82점이었으며, 관련 정보는 2013 지속가능성보고서 8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3년 지속가능성보고서,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dn/sustain/customer/2013_SR_kor.pdf

유연근무제 현황 포스코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근무시간을 업무특성 및 직원 개인별 니즈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여 업무에 몰입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2011년 7월부터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지원대상은 본사 및 제철소의 사무·스텝부서 직원, 만 6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직원으로, 필수근무시간 10~14시를 포함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의 남·녀직원들은 개인적으로는 어학공부 등 자기계발과 자녀양육을 위해, 업무적으로는 심야집중 연구업무 수행 등 효율적인 업무시간관리를 목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CASE STUDY

포스코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제조부문 3위·철강산업군 1위

포스코는 '2014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지수' 조사에서 제조부문 3위, 철강산업군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 지수(K-GWPI: Korea Great Work Place Index)란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일터'의 객관적 기준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개발,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평가 모델입니다.

제조부문 50개·서비스부문 51개 등 총 101개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베스트30 기업 조사에서 포스코는 제조기업 중 1위 삼성전자, 2위 유한킴벌리에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조사에서 포스코는 △기업 성장성(excellent vision) 3위 △인사운영 공정성(fair system) 3위 △행복한 조직문화(happy culture) 5위 △구성원 몰입(commitment) 4위 △전반적 행복 수준(total happiness level) 3위 등 고루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행복한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지난해 9위에서 5위로, '전반적 행복 수준' 측면에서는 4위에서 3위로 올라 포스코가 직원이 행복한 일터로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산업별 1위 기업 조사는 제조업 17개·서비스업 22개·공공부문 8개 등 총 47개 산업군 2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이 평가에서 포스코는 78.1점을 기록, 2008년 지수 조사 시작 이래 7년 연속 철강산업군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포스코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정년퇴직 연령을 만 56세에서 만 58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와 퇴직직원 재채용 등을 실시해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어린이집 운영, 육아휴직 최대 2년 사용, 탄력근무제, 가족돌봄 휴직제도 등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사내 제도를 개선하여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분기별로 열리는 포스코 음악회, 친환경 영농교육센터인 포스코 에코팜, 사내외 휴양시설 등을 제공해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생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포스코는 2014년 6월 동아일보가 주최한 '제1회 한국 100대 행복기업대상'에 선정돼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CASE STUDY

심리상담소 운영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관리는 이제 직원 개인의 행복을 넘어 기업 생산성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직원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고 행복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할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건강검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0년대 중반 국내 최초로 기업 내 심리상담실을 도입하고 2005년부터 포항 및 광양제철소에 심리상담실을 설치하여 임직원 및 직원 가족들에게 다양한 상담활동을 제공해 왔으며, 2014년 9월부터는 서울사무소에도 심리상담실 마음휴(休)를 개소하여 전사 직원 모두의 정신건강관리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심리상담실에서는 직원들의 심리안정 수준별, 연령별 특징을 반영하여 개인상담, 심리검사, 심리교육서비스를 맞춤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위기를 보이는 직원에게는 심층상담을,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들에게는 맞춤형 상담과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정신건강에 관심이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는 심리검사를 활용한 서비스와 예방차원의 심리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심리교육은 월 1회 점심 특강 형태로 구성되어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 스스로 관리 기법, '워킹맘&대디 케어 프로그램(Working Mom & Daddy Care Program)' 등을 운영했으며, 특히 자녀양육관련 교육은 호응도가 높아 자녀의 연령대를 세분화해 시리즈로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심리상담실은 화~금요일 오후 12~6시까지 주4회 운영 중입니다. 2014년의 경우 9~12월간 1일 평균 3.5명의 개인 상담이 이뤄졌으며 총 200여명의 직원들이 상담을 포함한 특강교육에 참여하는 등 상담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표현된 직원들의 고민을 종합하여 2015년도 상담목표를 '건강한 나, 화목한 가정, 행복한 일터'로 잡고 각 목표에 맞춘 세분화된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나'이기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으로는 명상훈련이 제공되며, 삶의 무게에 눌려 상담실 내방을 주저하는 중년층 직원들을 위한 중년 심리케어 프로그램으로 '은퇴 후 마음설계'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워킹맘&대디 케어 프로그램 (Working Mom & Daddy Care Program)을 위한 '화목한 가정' 지원프로그램으로 자녀양육, 부부상담교육이 특강형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서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증진시켜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 포스코가 되기 위해서 팀 힐링프로그램으로서 '효율적 의사소통훈련' 성격심리 검사를 활용한 조직성장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 조직활성화 활동의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서울 심리상담실은 직원들의 마음 속 고민을 내려놓고 휴식과 안정를 취할 수 있는 마음의 쉼터이자 나와 가정, 회사에 활력과 화합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성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포스코 임금체계는 직원별 근속기간 및 개인성과와 및 회사 경영성과 등을 시스템적으로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연령까지는 근속 증가에 따라 임금이 자연상승하게 되어 직원들의 안정적인 가계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차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성과금 제도 통해 원가절감 실적, 생산성 향상 등 회사의 경영성과를 제도적으로 직원들에게 배분하여 별도의 노사간 협의를 통해 성과금 수준을 결정하는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노사간의 갈등요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12년의 경우 기존의 고정성 상여금 연 400%를 변동성 경영성과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집단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보상체계에 있어서는 남,녀 동일한 급여기준(단일 Table)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별 업무성과 및 근속연한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므로, 성별에 따른 급여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스코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마련, 여성인력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포스코는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내 근로 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사내 근로 복지기금으로 출연된 재원은 직원들의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자녀학자금, 선택형 복리후생, 경조금 지급, 장애인 가족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사내외 휴양시설과 직원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등 보건활동 지원을 위한 보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양시설 및 건강시설의 지속적인 신설(2011년 포항/광양 대규모 문화체육시설 건립, 2012년 고흥수련관 개관 등) 및 증축을 통해 직원들의 여가선용 여건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제도 신설(2012년),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및 단체보험 도입(2013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직원대의기구인 노경협의회와 함께 전사 차원의 GWP(Great Work Place)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2014년) 인사, 교육제도 개선, 행정 간소화 등 Over Management를 최소화하여 본연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의 실천 운동 전개 등을 통해 직원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십억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출연금액	62.1	59.1	57.6	58.9
출연누계	757.2	816.3	873.9	932.8

인건비 지급 내역

(단위: 십억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지불성급여[1]	1,277	1,367	1,401	1,435
퇴직충당금[2]	137	113	135	129
법정복리비[3]	100	102	90	108

1) 지불성급여: 월급여, 상여금, 현금성복리비(중식비, 개인연금보조금, 경영성과금, 격려금) 합계
2) 퇴직충당금: 일반직원에 대한 당해 연도 퇴직충당금(임원 제외)
3) 법정복리비: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부담금 합계

연금 지원 금액

(단위: 십억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33.3	35.1	36.5	37.5
개인연금 보조금	9.1	9.1	9.7	9.7
개인연금 수혜 인원(명)	13,970	14,317	14,736	10,473

CASE STUDY

우리사주 할인매입 프로그램

우리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여 일정기간 보유하는 것으로, 종업원들로 하여금 기업 소유자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회사의 이익이 곧 직원의 이익이라는 인식을 형성시켜 근로의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스코는 2008년 종료되었던 우리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2013년에 시행하여 근로자의 세제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직원들의 호응 및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2014년에는 시가대비 30% 할인매입 및 전 조합원 대상 1주 무상배분 등 제도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직원의 근로의식 고취와 POSCO the Great 비전 실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도입한 포스코의 우리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세제혜택과 시가대비 할인 매입을 통해 직원의 재산형성과 나아가 회사의 일원이라는 주인의식 함양에 기여하여 회사와 직원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POSCO PEOPLE

포스코인재상

세계인 + **창조인** + **실행인**

세계인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과 다양성을 갖춘 열린 사고를 가진 인재를 말합니다.

글로벌 역량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국제감각, 비즈니스 매너, 어학 및 IT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방성
열린 사고와 행동으로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자질

창조인은 최고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와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독특한 시각과 접근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말합니다.

도전정신
최고가 되기 위해 스스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추구하고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와 열정

창의력
현상과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적으로 통합하여 독창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

실행인은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및 식견과 건전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인재를 말합니다.

전문역량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및 노하우, 폭넓은 안목과 식견

직업의식
건전한 사고와 윤리의식을 갖추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자신의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을 끝까지 책임짐

채용프로세스

포스코는 기업문화와 인재상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03년부터 '구조적 선발기법(Structured Selection)'을 도입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선발기법이란 체계적 질문과 평가기준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평가자간 차이를 최소화하고 목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도구입니다. 채용 프로세스는 채용 유형에 따라 평가 단계와 절차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본자력평가, 직무역량평가, 가치적합성평가 순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STEP.1

기본자력평가

서류전형 과정으로서 학력, 경력, 어학성적, 전문자격, 사회활동 등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기본자력에 대한 평가와 자기소개서를 통한 지원동기, 성격과 생활신조, 성장비전 등의 심사로 진행됩니다.

STEP.2

직무역량평가

- **AP (Analysis & Presentation)**

문제해결사례 분석발표 제시된 업무과제에 대한 분석,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개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지원자들은 약 1시간 동안 주어진 비즈니스 케이스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 내용을 면접위원 앞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AP에서는 주로 개인의 전략적 사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기획력, 프리젠테이션 능력, 정보분석 및 활용역량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GD (Group Discussion)**

제시주제에 대한 집단토론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5~6명이 집단토론을 실시하며 토론과정을 통해 조직 단위의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팀워크, 리더십, 상황인식, 협상력, 커뮤니케이션, 대외관계 형성능력 등을 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 **ST1 (Specialty Test1)**

조직적합성 평가(Organization Fit) 향후 지원자의 회사 정착 수준이나 적응력,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에 대한 이해도, 지원동기, 성장비전, 입사지원서상 개인의 이력 등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며 지원자의 책임의식, 역량개발, 균형감각, 경영마인드, 경청 등의 역량을 심사합니다.

- **ST2 (Specialty Test2)**

직무적합성 평가(Job Fit) 해당 지원분야에 적합한 지식, 스킬, 태도 등 전문적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현업부서의 면접위원이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전공지식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현업 활용성 등을 심사합니다.

인성검사

검사지를 활용하여 고객지향, 도전추구, 실행중시, 인간존중, 윤리준수 등 포스코의 핵심가치와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경영 이해도 등 직무역량을 평가합니다.

STEP.3

가치적합성 평가(Value Fit)

포스코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얼마나 적합한지 확인하는 단계로 임원진과의 대면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가치적합성 평가에서는 지원자의 가치관, 직업관, 인생관, 인성, 생활방식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원자의 도전정신, 창의력, 조직 적응성, 정직성, 윤리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상기 채용절차는 대졸 신입사원 채용 전형기준이며 채용유형에 따라 2단계 직무역량평가의 평가내용 및 방법이 상이합니다.

기술연구원 채용절차

기술연구원 채용 과정은 기본자력평가인 서류전형, 조직적합성 평가(ST1)와 인터뷰 세미나로 구성된 직무역량 평가,가치적합성 평가로 진행됩니다.

인터뷰 세미나

지원분야에 적합한 전문역량 수준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지원자들은 본인의 연구 분야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분야의 현업 연구원들 앞에서 발표 후 상호토론을 통해 평가가 진행됩니다. 인터뷰 세미나에서는 지원자의 발표력, 전문성 및 현업 활용성 등의 역량을 심사하게 됩니다.

경력사원 채용절차

경력사원은 기본자력평가, 조직적합성 평가(ST1), 상호그룹토의(IGD, Interactive Group Discussion), 가치적합성 평가로 채용이 진행됩니다. IGD는 사전 제공된 현업의 비즈니스 이슈에 대한 지원자의 프리젠테이션, 현업부서 직원과의 상호토론으로 이루어집니다.

포스코채용사이트 http://gorecruit.posco.net/

인력통계

	구분	2012	2013	2014
고용	전체 직원수(명)	17,623	17,832	17,877
	포항	6,521	6,556	7,506
	광양	6,217	6,232	6,337
	본사/기술연구원/사무소/기타	4,885	5,044	4,034
	고용유형별 직원(수)			
	정규직	16,675	17,005	17,017
	계약직*	748	827	860
	연령_50세 이상 직원 수 (전체인력구성 중 비율%)		5,493 (31)	5,748 (32)
	성별 직원 수(남)	16,921	17,045	17,035
	성별 직원 수(여)	702	778	842
	장애인 고용(명)	474	485	431
	(비율 %)	2.7	2.7	2.4
	(포스코)	254	255	241
	(포스코휴먼스 위드플러스부문)	220	230	190
	평균 근속 연수(년)	18	18.5	18.1
채용	채용(명)	818	873	879
	남			800
	여			79
퇴직	퇴직률(%)	5.85	2.91	7.69
	퇴직(명)	1,029	520	1,375
	정년퇴직(명)	654	-	626
여성인력	비율(%)	3.98	4.4	4.5
	매니저(G10)**이상 여직원 비율(%)	21	21	35
	매니저(G10)**이상 여직원 수(명)	146	166	199
출산	출산휴가 사용자(명)	56	55	67
	출산휴가 1인당 평균 사용일 수(일/인)	71.3	61.7	61.6
	출산휴가 후 복직률(%)	100	100	100
	육아휴직 사용자(명)	61	77	81
	남			12
	여			69
	육아휴직 후 복직률(%)	86	98	98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명)	532	518	499

*계약직 직원은 퇴직 후 재채용 인력과 변호사, 간호사 등의 전문계약직 인력을 포함한 인원 수

**G10은 과장을 의미(2011년부터 직급체계 변경)

GLOBAL TALENTS

글로벌 인재 육성

인재육성체계

포스코는 POSCO the Great 비전 달성을 위하여 직원 개개인을 창의적이고 최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필요한 역량을 적기에 갖출 수 있도록 임원, 엔지니어, 사무스탭 및 현장 기술인력 등 전직원에 대한 계층별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역할을 고려한 경영이슈 및 경영철학 전파교육과 직급별 차세대 리더 육성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직무전문가 육성을 위해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 생애설계 관련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그룹사는 물론이고 중소기업 컨소시엄 교육지원을 통해 외주파트너사, 공급사 등 포스코패밀리 직원들의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상생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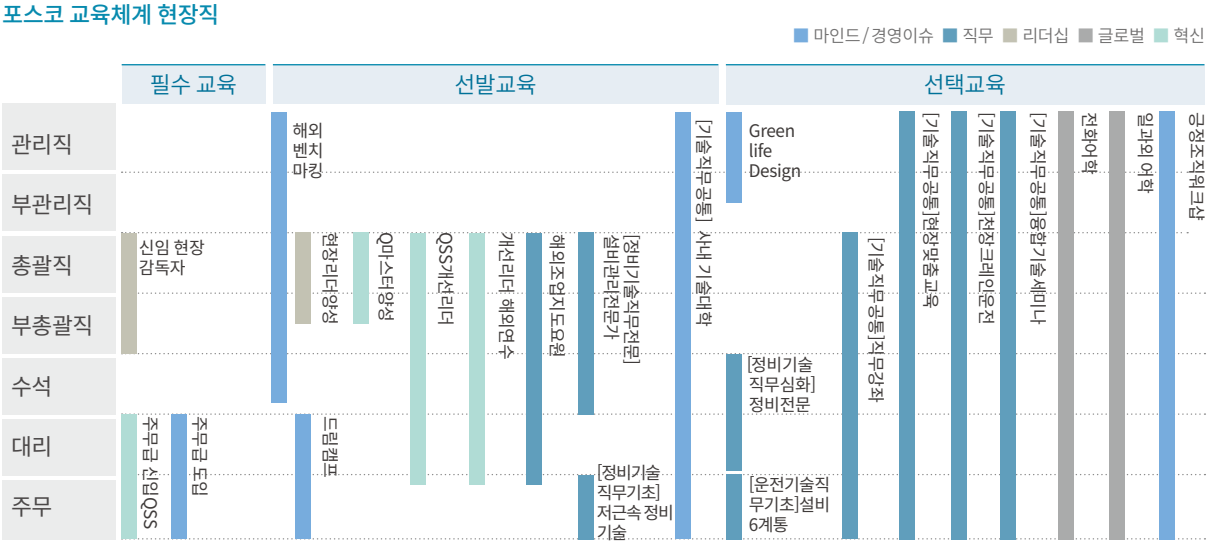
2014년 인재육성 중점추진 분야 및 2015년 중점추진 방향

2014년 포스코는 올바른 경영환경 이해와 직무수행 전문역량을 겸비한 창의적 스마트 인재육성을 위해 신(新)경영철학·정책의 이해, 직책별 육성 로드맵에 기반한 경영리더 양성, 성장과 혁신 기반 확보를 위한 직무역량 교육 강화, 철강 본원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전문인력 육성 및 엔지니어 기술역량 강화, 그룹사 및 중소기업 교육 내실화를 통한 상생경영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성과지향형 창의적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경영철학 및 가치교육을 그룹 차원으로 확대하여 전 그룹사 실행력 강화, 차세대 경영리더 양성 및 5년 미만 근속사원 인성교육 강화, 세계 최고 수준의 직무전문가 육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운영 및 인사연계, 해외법인과 그룹사 지원 강화를 통한 패밀리 사업수행능력 향상 등 4개 중점 분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입사원 역량 개발

포스코 신입사원교육은 핵심가치 공유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에는 e-러닝을 통해, 입사 후부터 3년 차까지는 연차별 교육 로드맵에 따라 포스코 역사, 핵심가치, 철강 제조공정 및 직무교육, 직무훈련(OJT), 현업과제 수행 등을 통해 신입사원의 조직적응력 및 인성·리더십 배양과 조직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 배치 전에는 포스코 패밀리 입문교육, 포스코 자체 도입교육 그리고 4주간의 기초기술교육과 현장순환교육을 받으며 포스코 인(人)으로서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합니다. 부서배치 후에는 신입사원의 업무수행 및 실무 해결력, 인성 및 태도 배양 등을 위해 6개월간 OJT와 멘토링 활동이 진행됩니다. 멘토 직원은 신입사원의 OJT 진행과 지도, 신입사원의 조기적응과 실무향상을 지원하고 고충상담,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육성면담을 실시합니다. 멘토 직원이 OJT 및 멘토링 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하고 멘토링 업무를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MBO)로 등록하여 보다 실질적인 업무활동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입사 1년 차 시점에 OJT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수 멘토 및 신입사원에게 포상하는 등 체계적인 OJT와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 입사 1년차, 2년차, 3년차 총 3회에 걸친 쥬니어 리더십 캠프(집합교육 3일 과정) 운영을 통해 실무역량 배양과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입사원들의 업무수행 역량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교육체계 현장직



차세대 글로벌 경영리더 양성

포스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전략적 사고를 갖춘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해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직책자 필수교육 로드맵'을 구축해 사전에 충분한 학습을 거쳐 리더십이 검증된 인재가 직책에 보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통섭적 지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중장기적 시각을 갖춘 차세대 경영리더를 육성하고자 새롭게 직책을 부여 받은 승진자 대상의 신임자 교육과 상위 직책 수행 전에 선발된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과정 등 두 가지 트랙을 운영중입니다. 그 중 양성과정 학습자에게는 사업발굴형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해결형 액션러닝으로 해결하게 해 경영자 관점에서 제시한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현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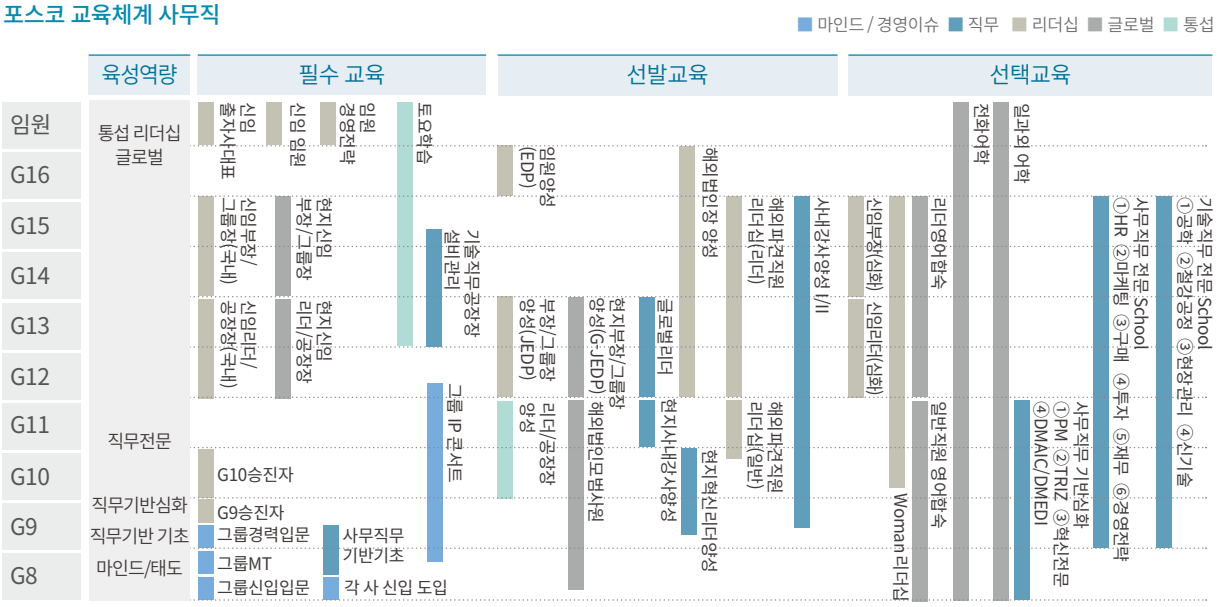
글로벌 사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배양을 위해 리더계층 영어 합숙과정을 운영하며, 부장 및 팀리더급 우수 인재 대상의 Off-Job 글로벌 리더 교육은 핵심 MBA와 소양교육을 통해 글로벌 역량과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성공을 견인해 나갈 주재원들이 상위직 역할과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직무 수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외 주재원 파견 전, 파견 중 교육을 운영하며 파견 직원의 배우자 동반참석 교육을 도입해 주재원 가족의 원활한 현지 조기적응도 돕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법인 현지 직원에게도 비전, 핵심 가치, 혁신활동 등 포스코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해외법인 사원 교육은 법인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 모범사원을 대상으로 포스코 정신 교육과 제철소 견학을 통해 포스코 패밀리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POSCO Values를 전파할 현지 직원의 사내강사 양성과정(Global Traning the Trainer), 현지 교육 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스코 혁신리더과정(POSCO Innovative Innovator)과 현지 인력 풀에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부장 양성과정(G-JEDP: Global Junior Executive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섭형 창의인재 육성

포스코 및 포스코패밀리 직원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향상을 위해 토요학습과 트리즈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학습은 임원에서 부장, 리더급까지 직책자를 대상으로 그룹 경영철학 및 경영이슈를 공유하고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 다양한 인문학 콘텐츠를 통해 통섭역량 제고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매 차수 2교시로 운영되던 콘텐츠를 3교시로 확대하여 사업가적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경영환경·전략', 융합·협업·창조 관점에서 인간본연의 고민을 성찰하는 '인문학', 그룹단위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룹가치 공유' 등 다양한 장르의 테마를 다룰 예정입니다.

포스코 교육체계 사무직



트리즈 대학은 사내대학으로서 엔지니어와 연구원의 창의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초에서 심화까지 수준별 3단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분야 최고 수준의 트리즈 인스트럭터(TRIZ Instructor) 과정과 전략이나 기획 등 사무 분야에 포스코 고유의 전략 트리즈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기술, 기획, 전략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육과정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트리즈 대학 운영을 통해 프로젝트 중심의 일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혁신방법론을 통합하여 그룹사 전체로 확산시켜 프로젝트 수행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창의적 조직문화 확산을 지속시키고자 합니다.

화합과 공감을 위한 교육 강화

POSCO the Great 비전과 혁신방향을 공유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IP(Innovation POSCO)콘서트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한방향 정렬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였습니다. IP 콘서트는 포항, 광양 및 서울에 근무하는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총 19회에 걸쳐 회사 내 아트홀에서 개최했으며, 위대한 포스코의 재창조를 주제로 3대 경영철학과 혁신 아젠다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원들의 진솔한 의견 청취를 위해 리모콘 응답시스템을 활용한 '포스코 100인의 생각' 코너를 운영하여 직원과 경영진간 직접 소통에 기여하였습니다. 콘서트 프로그램은 새로운 경영철학에 대한 미디어 퍼포먼스, 경영진 강연, 직원과의 대화 및 공연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경영진 강연에는 CEO 외 본부장급 임원이 출강하여 직원들의 공감과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2015년에는 변화관리와 열정 고취를 이슈로 교육대상을 포스코 그룹까지 확대하고 그룹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토론형 프로그램과 참여형 공연을 추가하여 POSCO the Great 실행력을 강화하는 변화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독점적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교육 지원

지금까지 운영하던 기술교육의 과정 분류와 과정명 등을 전사적으로 통합하고 표준화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졸 신입사원의 경우 회사에서 필요한 우수인력을 사전에 양성하기 위해 2003년도까지 운영했던 직업훈련교육 제도를 부활시켜 4주간 교양, 인성, 기초기술 등을 교육하고 3개월 간의 현장부서 OJT를 통해 직무능력과 직업의식을 갖춘 인재로 양성합니다. 또한 우수 마이스터고의 뛰어난 인력을 학교 재학 중 우선 선발해 여름·겨울 방학 각 5주씩 현장 기술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졸 신입사원은 입사 후, 문리 통섭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현업부서 배치 이전 18주간 철강기술의 기초가 되는 요소기술, 제철소 공정, 설비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합니다. 대졸 신입 채용의 다른 방식인 '포스코 스칼라십' 채용 예정자는 대학교 재학 3, 4학년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총 8주 동안 현장 기술지식과 조직생활에 필요한 교양과 인성 교육을 받습니다. 향후 신입사원교육 기간을 단축해 현업에 조기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전문지식 위주로 교육하고, 5년 미만 근속사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현장 기술력을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현장 직원의 직무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해 운전요원 대상의 설비기초·심화 교육을 제공하여 일상 정비능력을 보유하게 하고 정비요원을 대상으로 저근속 정비기술, 정비심화, 설비관리 전문가 과정을 통하여 기초 정비 능력부터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한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선택형 직무강좌, 현장맞춤형 교육, 천장 크레인 교육 등을 운영하여 현장 기술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대상 요소 기술 과정은 2014년 상반기에 현장 문제점 개선에 필요한 기계, 전기·계측설비의 요소 기술 22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금속 및 공정 분야의 요소 기술 6개 코스를 추가로 개설하여 총 28개 코스를 통해 엔지니어들의 철강 및 설비역량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전문 기술과정은 철강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공학이론 위주의 전문 기술교육으로 금속, 기계, 전기·제어 분야 12코스를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산학협력체제로 포스텍 교수진 및 현업 기술전문가(PCP: POSCO Certified Professionals)와 연구원이 강사가 되어, 부서별 우수 엔지니어로 선발된 매니저 계층이상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3일간 집중 운영합니다.

2015년에는 엔지니어 교육 분야 및 코스 확대, 교육과 인사의 연계를 통한 동기부여 강화, 교육실적 모니터링 및 피드백이 가능한 역량개발 시스템 개발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엔지니어 기술교육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직원 생애설계 지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체계적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그린 라이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 삶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당해년도 정년퇴직 예정자뿐 아니라 50세 이상 재직직원 및 기존 퇴직자까지 포함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생애설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GLD(Green Life Design)과정을 개설하여, 퇴직 준비와 관련한 13개의 e러닝 과정과 8일간의 집합교육 및 생애설계/재무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2002년부터 총 3,150명의 퇴직자가 수료하였습니다. 50세 이상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그린 라이프 예비과정을 개설하여 일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산관리를 통한 노후대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퇴직자까지 활용 가능한 그린 라이프 포탈을 통해 제

2인생 설계에 관한 다양한 정보 및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확대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퇴직선배의 귀농·귀촌, 재취업, 창업분야 성공 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제공하여 그린 라이프 포탈의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정년퇴직 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직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포스코 그룹 차원의 생애설계 교육 지원을 검토하여 장년친화적 기업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자기주도 e러닝 학습 지원

2014년에는 포스코 직원 16만 6천 여명이 e러닝 학습에 참여하였고, 연 평균 74시간을 학습하였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지원한 e러닝 과정수는 총 844개 과정으로 국내과정 708개, 해외과정 36개이며, 과정 유형별로는 가치공유 52개, 리더십 94개, 직무전무 159개, 인문교양 38개, 어학 501개 입니다. 2014년에 운영한 주요 과정은 경영필수과정, 알기 쉬운 IP 1.0 경영, POSCO-MBA 코스 등 입니다. 전직원 의무학습 과정으로 경영필수과정을 개설하여 기업윤리·정보보호·지적재산 과목을 운영했고, 전 임직원 법정필수 교육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신 경영방침 및 혁신 포스코(Innovation POSCO)1.0 경영전략을 신속히 전파하고 한방향 정렬을 위해 알기 쉬운 IP 1.0경영 과정을 개설하여 혁신, 마케팅, 기술, 재무, 에너지, 소재·E&C·ICT, 환경, 해외투자 9개 분야에 대해 포스코 임원·직책자·파트장·주임 전원이 학습하였습니다.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학습을 혼합한 POSCO-MBA 1년 코스를 개설하여 400여명이 참여했으며 학습성과 우수자는 포상하고 국내외 정규 MBA과정, 해외 투자지역 전문가 선발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인사에 연계하였습니다.

2015년 중점 추진해야 할 업무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확보, 해외 현지직원 역량 향상지원 및 웹기술 발전에 부응한 스마트러닝 환경구축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한 자기주도학습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직무기반 역량 및 직무전문 역량 습득을 위한 사내 외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직무역량 수준에 따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 현지직원의 역량향상 지원을 위해 가치공유·리더십·직무전문·어학 등 표준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웹 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해주는 도구가 늘어나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비공식 학습을 촉진하여 학습 결과가 실질적인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스마트러닝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학습자 스스로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상호학습 하며, 사내외 다양한 학습 리소스를 활용해 모듈 조합 방식으로 개인과 조직에 맞춤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PC·태블릿 PC·스마트폰 등 기기간 제한 없이 학습함으로써 업무와 학습이 통합돼 상시 학습이 이루어지는 포스코형 스마트러닝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회사 비전 달성 가속화를 위한 혁신교육 내실화

포스코는 1999년 PI(Process Innovation)를 시작으로 2002년 6시그마 도입을 통한 혁신 인재 양성과 과제 수행, 2006년 포스코형 6시그마 개발·운영, 2012년 BI(Breakthrough Innovation), CI(Continuous Improvement), PO(Process Optimization) 활동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경영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성공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혁신리더 양성을 목표로 MBB, BB, GB 양성교육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PWS(Project-based Working System)를 도입하여 기존 다양한 혁신방법론 중심의 과제활동을 프로젝트 수행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자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론 과정 개설과 프로젝트 수행 교육을 운영하였고, 프로젝트 유형과 수행자의 혁신교육 수준에 맞추어 편리하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현장 설비 보전 활동인 기존의 QSS 활동에 대한 현장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철소 특성에 맞는 자율적·실질적 활동인 QSS+으로 개선하였습니다. QSS+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최고의 설비 경쟁력(Quality, Stability)을 갖추고 더 나아가 가장 안전한 작업환경(Safety)을 만들기 위해 직원 스스로 단계별 목표를 세워 지속 추진하는 설비 강건화 활동인 My M&S 활동입니다. 부서 KPI 와 연계하여 1년·3년·5년 단위의 활동 목표를 수립하고 핵심설비를 선정하여 비합리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My M&S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직원들의 혁신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 OJT를 통해 현장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QSS 개선리더와 QSS-Facilitator(기존 QSS-Master)를 부서 여건에 맞게 지속 양성하여 현장의 개선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2015년에는 QSS-Facilitator 교재개편 작업과 현장 파트장·주임이 주도적으로 QSS+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QSS+ 이론교육 및 My M&S 실습을 포함한 현장 파트장·주임 대상 QSS+ 교육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상생경영을 위한 HRD컨소시엄 운영

포스코는 2004년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HRD)컨소시엄' 운영기관으로 승인받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1994년부터 외주파트너사의 경쟁력 강화와 포스코 패밀리차원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외주파트너사에 다양한 교육을 지원했으나,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HRD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HRD컨소시엄 교육은 양성교육과정과 향상교육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양성교육과정은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천장 크레인운전, 산업설비 정비 등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상교육과정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국가기술자격, 기계, 전기, IT, 6시그마, QSS,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정을 운영해 직무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RD컨소시엄 사업 실적을 보면 초창기이던 2005년에는 13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총 4,241명의 교육을 실시했으나 2014년에는 4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5개 집합교육과정과 37개 e-러닝과정을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주관 학위가 없는 기업대학으로 승인받아 60명, 3개학과를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컨소시엄사업을 통하여 135개 과정과 제철 마이스터학과 등 5개의 기업대학 학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HRD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 더욱 안정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중소기업은 질 높은 교육의 무료 수강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능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직업훈련 성과평가에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중소기업 직업훈련기관 중 최우수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HRD컨소시엄 교육지원 실적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계획)
회원사수 (개)	418	472	428	407	398
교육인원 (명)	42,436	72,766	71,490	56,304	52,800

*HRD컨소시엄 사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가 우수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체결한 후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교육지표

포스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교육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지표로는 교육인원, 인당 교육시간, 인당 교육비용을 관리하며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을 위해서 전체 교육과정에 대해 학습자 만족도, 직무기반, 리더십, 기술교육 등 주요 교육과정에 대해 학습자의 이해도(성취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리더십 과정은 다면평가를 통해 현업 적용도를 측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지표를 보면 인당 교육시간이 감소했는데 이는 종전 '교육은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사 교육 프로세스 체계화를 통해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자'로 변화된 교육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합교육을 줄이고 e-러닝을 확대해 스스로 학습하는 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시간은 감소한 반면 학습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지표(KPI)

구분	2011	2012	2013	2014
교육인원 (명)	530,086	432,859	523,184	356,133
인당교육시간 (시간)	252	234	205	128
총교육비용 (억원)	253	178	142	122
인당교육비용 (만원)	145	101	80	68
학습자만족도 (점)	4.47	4.48	4.62	4.65

비고_집합교육(미래창조 아카데미, 현업주관, 현장 평생학습, 사외위탁), e-러닝 기준

*2014년 인당교육시간 상세내역: 집합교육 37시간, e러닝 74시간, 현장 평생학습 15시간, 사외위탁 2시간

03 Responsibility Management

기업윤리 066
글로벌 인권경영 069
안전 및 보건 — 안전 072
보건 078
공급사슬관리 — 공정거래 081
동반성장 정책 및 프로그램 084
벤처지원프로그램 090
공급사슬 CSR 경쟁력 향상 092
환경 — 환경경영 094
환경성과 096
생물 다양성 정책 및 활동 100
환경 커뮤니케이션 101
기후변화 — 탄소경영 102
기후변화 대응활동 110
기후변화 파트너십 활동 117
사회공헌 — 지역사회 121
글로벌 인재 124
지구환경 126
다문화 127
문화유산 128

BUSINESS ETHICS
기업윤리

기업윤리

뛰어난 설비, 효율적 프로세스와 더불어 그것을 제어하는 인적 구성원의 올바른 가치관도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포스코는 2003년 6월 2일 글로벌 수준의 기업윤리 실천을 위한 윤리규범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글로벌 초우량기업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윤리규범을 선포한 이후 포스코는 윤리경영에 대한 CEO의 확고한 철학과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 글로벌 기업에 맞는 제도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윤리경영의 핵심은 '임직원의 참여와 이해관계자의 이해에 의한 자율실천 시스템의 구축과 실행'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직책보임자의 솔선수범을 강조,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한 구성원의 윤리적 의식과 판단력 제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기업윤리를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여 피상적인 윤리의식에서 벗어나 실천을 통해 윤리를 경험하게 하고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경험은 포스코의 조직문화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교육과 캠페인 지속 실시

포스코는 윤리실천을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직원의 건전한 윤리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고유의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 왔습니다. 매년 초 전직원의 윤리규범 준수서약을 시작으로 온라인을 통해 전직원이 기업윤리, 성희롱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오프라인에서는 신입 및 경력사원 대상의 교육과 승진, 해외 파견 등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히 오프라인 교육은 다양한 계층과 상황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임원급은 연 1회 임원 윤리 세션을 통해서 최근 기업윤리의 트렌드와 감사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1:1로 받게 되며, 별도의 윤리 교육자료를 학습하여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팀리더, 그룹장 등의 직책보임자로 승진하는 경우 해당 직급에 맞는 윤리의식 배양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리더 양성과정에서도 기업윤리 교육을 필수화했습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직원들의 경우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해외부패방지법)등의 심화 교육을 받고, 신임 해외법인장은 파견 전에 반드시 정도경영실장 및 재무실장으로부터 1:1 면담방식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해외법인 주재원과 현지 채용직원에게도 포스코의 윤리경영과 제도를 소개하는 교육을 진행 중이며 부서 직원들에게 전파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윤리헬퍼를 대상으로 연 2회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기업윤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월 말 기업윤리 뉴스레터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서는 윤리상담 사례나 윤리 딜레마에 대한 해설, 기업윤리와 관련한 출자사의 활동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강사료 기탁이나 경조금 관련 안내, 선물 반송센터 등의 제도에 대해서는 연 2회 홍보를 통해 직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전 사업장의 출입구에 윤리 포스터를 부착하여 직원들이 매일 윤리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윤리실천 인프라의 구축과 확산

포스코는 효과적인 윤리실천을 위해 다양한 선진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 운영해 왔습니다. 비윤리행위 근절을 위해 2011년부터 관리책임 범위를 상위 직급자에서 임원까지 확대했으며,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임직원 징계사항은 사내 인트라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윤리 신고 보상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관련 신고로 회사의 손실이 감소하거나 수익이 증대될 경우 신고보상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 중입니다. 비윤리행위 신고와 윤리상담은 임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사 차원의 윤리 리스크 근절 활동 뿐만 아니라 각 현업부서가 주도적으로 해당 부서 내 윤리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업윤리 교육 수료율

구분	수료율
기업윤리	94.5%
성희롱	96.4%

포스코 3개년 비윤리신고센터 제보접수현황

(단위: 건)

구분	2012	2013	2014
내용	267	253	259

2014년 포스코 제보조치 내역

(단위: %)

구분	징계	경고	주의	계
내용	34.2	39.2	26.6	100

비윤리행위 신고 보상제도

비윤리행위 예방을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윤리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시행합니다.

01 신고대상 행위 (포스코 또는 계열사 직원이 행하는 다음의 비윤리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손을 끼친 행위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

02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가. 보상대상 포스코/계열사 직원 및 외부 일반인

나. 보상기준

⊙최대 보상금액: 10억 원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나 손실감소 효과 발생시 (최대 10억 원 보상금 지급)

-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나 손실감소 효과 발생시

수익증대 or 손실감소액	지급기준
1억 원 이하	20%
1~5억 원 이하	2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0%
5~10억 원 이하	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
10억 원 초과	1.1억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10%

· 보상 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 보상금은 1억 원으로 함.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금액 전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 연간 발생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함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금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중요도에 따라 1백만 원 ~5천만 원 지급

⊙금품수수 등 기타 비윤리 행위 신고시

- 타인의 금품 수수행위 신고시: 수수금액의 10배 (최대 5천만 원)
- 자신의 금품 수수행위 자진 신고시: 수수금액의 5배 (최대 2천만 원)

· 발생시점으로부터 신고시점까지의 기간에 따라 1.5배에서 5배까지 차등지급

· 직원은 인지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신고시 보상하며, 5일이상 경과후 신고시 보상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 기타 타인의 비윤리행위 신고시: 중요도에 따라 5십만 원~2천만 원 지급

⊙정도경영실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 보상금 지급제외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 행위 신고시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보상 가능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정도경영실 직원이 신고한 경우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3.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감사그룹 리더가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 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보상금 실수령자에 대한 사항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음)

나.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신고자 색출작업 금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정도경영실 등에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감사실 직원에 의한 신분누설 금지: 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 처벌

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분노출자 보직관리

⊙신분노출시 노출경로 조사: 신고자 신분노출시 정도경영실 통보, 정도경영실에서는 신분노출 경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직관리: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 명문화, 불이익 예상시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 필요시 일정기간 정도경영실 근무후 타부서 전출토록 조치

04. 신고방법 안내

가. 신고처 정도경영실

나. 신고방법

⊙사이버신고, 모바일신고, 우편, 전화, Fax, 방문, 기타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다. 신고요령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신고 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라. 신고접수처

⊙비윤리신고센터 - 사외에서는 당사 홈페이지(www.posco.co.kr)에 접속하여 비윤리신고센터 → 신고하기 클릭

⊙모바일 신고

⊙전화/FAX 방문

구분	전화	팩스
사외신고	080-390-3366	080-391-3366 (요금 수신자 부담)
사내신고	02-5467-3366(서울)	3457-1991 (포스코센터 16층)
	054-220-3366(포항)	220-2499 (포항본사 9층)
	061-790-3366(광양)	790-4999 (소본관 6층)

⊙우편신고 : (우)135-77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2번지) 포스코센터 정도경영실장

부서 내 고질적인 윤리 리스크는 현업 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현업 부서장 주도로 윤리적 리스크를 제거하는 활동으로 매년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우수 부서 후보를 선발하여 실사 및 성과 발표를 하고 이 모든 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출자사와 우수 부서를 선정하고 포상을 진행합니다.

또한 포스코는 명절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의 일환으로 선물 반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송이 어려운 물품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원 인사가 발표된 후 접수되는 승진 축하 화훼 역시 경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은 포스코 1%나눔재단에 기탁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에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해관계자로부터 과도한 경조금을 받았으나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나 회사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사외강의를 통해 강사료를 취득한 경우의 기탁금도 포스코 1%나눔재단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이렇게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모든 직원이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업윤리를 이해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스스로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스코패밀리와 함께 성장하는 윤리경영

포스코는 출자사, 외주파트너사, 공급사 등 포스코패밀리 차원으로 윤리경영을 확산하고 그 수준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업부서 중심의 윤리 리스크 근절이 목적인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을 출자사 및 해외법인으로 확대 운영중이며 2014년에는 21개 주요 출자사와 4개 해외법인 등 25개사가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동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 2회 출자사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류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 우수운영 출자사를 대상으로 포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출자사별 기업윤리 인프라의 구축 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자체 구축할 수 있도록 패키지 형태의 종합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체 구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포스코가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포스코 윤리경영의 철학을 전파하기 위한 방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법인의 윤리 수준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법인장 세션을 통해 전달하며, 법인장과 주재원 대상의 윤리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현지 채용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차원의 윤리 리스크 예방

포스코는 해외법인과 사무소에 대해서도 글로벌 차원의 윤리 리스크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해외법인 파견 예정인 법인장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 주재원과 현지 채용 직원 대상의 윤리교육과 코칭 활동 등 다양한 윤리경영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포스코패밀리 법인을 직접 방문해 주재원과 현지 채용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해외부패방지법)교육, 윤리실천 코칭 활동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밖에도 포스코는 2011년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 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FCPA를 비롯한 글로벌 차원의 반부패 법령의 준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부패 법령의 준수를 윤리규범에 명문화했으며, 임직원 윤리규범 준수 서약의 항목에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FCPA 전용 신고·상담 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HUMAN RIGHTS MANAGEMENT

글로벌 인권경영

인권경영은 기업이 글로벌화 되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강제노동, 빈부격차, 차별 등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모든 직원이 차별받지 않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가 포스코패밀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윤리규범에 입각한 인권경영

포스코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로서 인권 및 노동에 대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또한 포스코패밀리의 윤리규범에 따라 세계인권선언, 유엔 정책 프레임워크(UN Policy Framework)와 이행 지침(Guiding Principle)을 비롯한 글로벌 인권규범을 준수하며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 여부,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지향합니다.

2014년 6월 2일 포스코는 윤리규범 선포 11주년을 맞아 글로벌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인권존중,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윤리규범에 구체적으로 보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윤리경영의 글로벌 트렌드는 비윤리행위를 하지 않는 반부패 위주에서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와 공존하고 상생하는 적극적 실천이 강조되고 있으며,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도 현지국의 법과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대한 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금품, 접대, 편의제공 등 주로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내용 위주로 되어있던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고객과 투자자 보호, 인권존중, 환경보호, 상생, 사회공헌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사랑받는 기업헌장, 환경경영 방침, 동반성장 규범, 품질헌장 등 사내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포함시키고 GE와 지멘스 등 글로벌기업의 사례, 유엔의 이행지침 등 글로벌 스탠더드도 참조했습니다. 특히 공급사, 외주사, 고객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않는 것으로 윤리기준을 변경하였으며 더욱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모범을 보일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코의 윤리규범 개정은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인권존중에 대한 규정을 별도 항목으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글로벌 기업이라면 일반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글로벌 규약이나 가이드라인, 법규 등에도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기업이 별도 규정으로 윤리규범에 언급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 수준의 인권존중 의지를 강화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포스코 윤리규범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company/ethics/s91a3000050c.jsp

윤리실천을 통한 인권 보장

'POSCO the Great', 위대한 포스코의 재창조라는 비전은 '화목경영·창의경영·일류경영'이라는 새로운 3대 경영이념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일치된 목표를 추구하는 '화목경영'은 모든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와 변화방향을 공감하며 주인의식으로 단결해 정해진 목표를 일사불란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에 바탕을 둔 발전을 추구하고 고객사, 공급사,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지향합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철학을 이념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용적, 효과적인 제도와 연결시켜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 상담센터를 운영해 인권보장과 인간존중에 위배되는 행동, 사례를 접수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성희롱 예방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제7항에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e-러닝 과정과 성희롱 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존중해 국제노동기구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직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취약계층 고용 증진을 위해 국내 최초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를 비롯해 포스플레이트, 송도SE 등 3개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고충처리체계 – 신문고 제도

포스코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경영 활동에 반영해 개선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노력이 신문고 제도(Grievance Mechanism) 운영으로, 이를 통해 인권 이슈를 파악, 개선합니다. 신문고는 이해관계자들의 애로와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공간입니다. 정도경영, 동반성장, 구매·판매 관련 고충상담과 건의사항 등을 접수해 해결합니다.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확실한 신분보장이 밑받침돼야 합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면 처벌하도록 명문화했으며, 신고자가 누구인지 수소문하거나 찾으려는 시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보자 신원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 서류에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도경영실 임직원은 매년 초에 '신고자 신분보호 서약식'을 갖는 등 제보자의 신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비윤리신고제도 운영 및 비윤리신고센터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company/ethics/s91a3000160c.jsp

인권경영에 대한 포스코패밀리 인식 확산

포스코는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모든 포스코패밀리가 인권존중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포스코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권 존중 트렌드를 반영하여 인권경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원칙들을 점검하고 리스크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개발, '해외법인 인권경영 자체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인권경영, 반부패활동, 윤리실천 등 3개 분야(71개 항목)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해외법인들은 자체점검을 통해 인권을 포함한 윤리활동의 전반적 이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체계를 구축해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글로벌 기업에 걸맞는 윤리경영을 실천합니다. 자체점검은 매년 1회 진행되며 결과는 인권경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우즈베키스탄 면화사업 인권이슈 점검 진행

포스코는 최근 대우인터내셔널의 우즈베키스탄 면화사업과 관련해서 NGO, 국제노동기구(ILO), 투자자 등에서 제기한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이슈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2014년 10월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내부전문가로 구성된 실사팀을 현지에 파견, 점검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인사와의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2014년 4월부터 국제노동기구와 향후 3년간 노동환경개선(Decent Work Country Programme, DWCP) 프로그램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노동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불시 방문, 인터뷰 등)을 받아왔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강제 아동노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아동노동 해소와 강제노동 개선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이번 내부 전문가들의 현지방문 활동을 통해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국제노동기구도 우즈베키스탄이 2016년까지 면화 수확 사업의 기계화를 90%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오랜 사업 파트너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과 모사인 포스코는 이번 현지점검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인권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포스코그룹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이 인권문제 개선에 대한 현실인식을 새롭게 하고, 개선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ASE STUDY

해외사업장 인권경영 : 인도 오디샤 일관제철소 사업

포스코는 2005년 오디샤 주정부와 1,2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법적, 행정인허가 절차 지연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실질적인 진척은 없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지난 2년 동안은 거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포스코의 對인도 투자 철학과 투자 계획은 무엇입니까?

인도는 풍부한 자원과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전략적인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포스코는 고유 철강제조 프로세스인 FINEX 기술 등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제철소 건립을 포함해 기술지원 등 철강분야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FINEX 기술을 활용하면 저품위 철광석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급 철강재의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한다는 투자철학으로 일관제철소 프로젝트 뿐만아니라 이미 마하라스트라 및 인도내 다른 주에 도금공장, 가공센터 등 하공정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광산 개발 현황은 어떻습니까?

양해각서에 따라 오디사 주정부는 칸다하르 광산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탐사권을 포스코에 주기로하고 이를 절차에 따라 중앙정부에 추천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탐사권 승인여부를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 2015년 1월 중앙정부는 광권 행정명령을 공표한 후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광권을 얻기 위해서는 경매를 통해야 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환경승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도 중앙정부는 2007년 포스코에 제철공장 환경 인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포스코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중앙정부는 2014년 제철소 환경 인허가를 갱신했습니다.

부지확보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양해각서 체결 이후 약 10년동안 오디사 주정부는 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포스코에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포스코가 당초 요청한 부지, 4,004에이커 중 89%, 즉 3,566에이커는 오디사 주정부 소유이고, 11%에 해당하는 438에이커는 개인 소유입니다. 오디사 주정부가 국유지내에서 경작물을 재배중인 주민들에 대한 설득에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식 임대계약된 부지는 548에이커입니다.

포스코인디아프로젝트에 대한 진행연혁 및 FAQ에 대해서는 2013 지속가능성보고서 page32~33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dn/sustain/customer/2013_SR_kor.pdf

CASE STUDY

해외사업장 인권경영:대우인터내셔널 우즈베키스탄 면화산업

포스코 출자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은 세계 주요 면화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에 2개의 면방법인(Daewoo Textile Fergana, Daewoo Textile Bukhara)을 운영하고 있으며, 1개의 면펄프 생산법인(Global KOMSCO Daewoo, LLC)에 35%의 지분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면화사업은 국가 기간사업으로 파종-재배-수확-판매-유통의 전 과정이 국가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성으로부터 원재료인 면화를 구매하고 이를 면사 및 면직물로 가공하여 우즈베키스탄 현지 및 해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영국 BBC가 우즈베키스탄의 아동 강제노동 관련 보도 이후, 국제NGO 연대인 Cotton Campaign을 비롯한 인권 NGO들이 우즈베키스탄 면화 불매운동을 펼치며 이와 관련된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ILO 가입과 동시에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No. 29)'을 비준하였고, 1997년에는 'Convention concerning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No. 105)'를 비준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에는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No. 182)'과 'Convention concerning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Minimum Age Convention, 1973 (No. 138)'을 비준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강제노동을 근절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구체적 이행을 위해 'National Action Plan'과 'Plan on Additional Measures'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National Action Plan'과 'Plan on Additional Measures'는 아동들에 대한 강제 노동력 동원 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면화 수확기 동안에는 아동의 노동력 사용 실태를 각 권역·지역별로 모니터링하는 전국적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3년 면화 수확기간 동안 국제노동기구(ILO)의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승인하였으며, 2013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ILO 조사단과 협력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ILO는 2달 여간의 모니터링 이후, 2014년 ILO 보고서를 통해 2013년 면화 수확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정부 주도의 조직적인 아동강제노동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ILO는 2014년 4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노력해야 할 노동 분야의 우선순위 의제를 설정하고, ILO는 향후 3년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해당 의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해당 의제의 이행상황을 상시적으로 보고받아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Decent Work Country Programme(DWCP)을 체결하였습니다. DWCP은 면화산업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근로 및 고용 조건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강제노동 실태 파악을 위한 근로감독관 파견 등의 구체적인 이행상황 점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총리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는 2013년 10월 국제 면 섬유 박람회(International Uzbek Cotton and Textile Fair)에서 2016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생산을 90% 이상 기계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면화 수확 기계화 추진 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한국LS엠트론과 우즈베키스탄 국영 농기계 회사인 ASI(Agromash Sanoat Invest)간 총 10억 달러 규모로 목화 수확 전용 트랙터 개발 등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즈베키스탄 이슈를 포함한 인권, 환경 등 CSR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3년 6월 경영지원본부장, 정도경영실 등 유관조직의 최고책임자가 참여하는 CSR위원회를 구성, 분기별 1회 및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CSR위원회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CSR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정부기관과의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인권 개선을 요청하는 등 조직적·전문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포스코와 공동으로 대우 페르가나 면방법인의 인권경영 관련 자체 내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6월 개정된 윤리규범을 바탕으로 10월에는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 정도경영실이 합동으로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 2곳(페르가나, 부하라)을 방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을 포함한 CSR경영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및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우인터내셔널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육 지원, 안질환 의료캠프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SAFETY AND HEALTH

안전 및 보건

SAFETY
안전

포스코의 안전

2014년은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세월호 참사에 이어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까지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11월 국가적 차원에서 대형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각종 안전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포스코 역시 안전재해를 대폭 줄이기 위해 조직과 제도개선, 계층별 맞춤식 교육 등 다양한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굿드라이버 운동과 같이 실질적인 활동에 역점을 기울였으며 더 나아가 자기주도의 안전활동 확산 및 체질화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패밀리 안전보건경영체계

포스코패밀리는 작업현장의 위험요인(Hazard)을 제거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방침을 마련하고 PDCA 사이클(Cycle)을 통한 지속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경영의 핵심인 계층별 역할과 책임, 절차를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포항/광양 제철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sustain/staff/staff_01.jsp

포스코패밀리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성적_재해건수

(단위:건(사망))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영	6(1)	13(1)	13(1)	12(0)	3(1)	10(1)	12(1)
외주사	5(3)	3(0)	1(1)	6(0)	4(1)	4(1)	3(1)
합계	11(4)	16(1)	14(2)	18(0)	7(2)	14(2)	15(2)

안전성적_휴업도수율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영	0.18	0.39	0.38	0.33	0.08	0.26	0.32
외주사	0.12	0.07	0.03	0.15	0.10	0.10	0.08
합계	0.14	0.21	0.19	0.23	0.09	0.18	0.20

*휴업도수율 = (휴업 재해건수/연 근로시간) X 100만 시간

*중대 재해 : ①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2014 연근로시간 : 전체(72,001,436시간), 직영(36,709,887시간), 외주(36,589,256시간)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HSA)에서 정하고 있는 20만 근로시간을 기준 2014년 LTIFR(Lost Time Injury Frequency Rate) : 전체(0.04), 직영(0.06), 외주(0.01)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삭

안전활동:사람 - 교육훈련

포스코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 교육 및 훈련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최소 조직 단위로 실질적인 비상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안전보건방재 교육 안전교육과정을 기존의 4개 분야 16개 과정에서 6개 분야 23개 과정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는 위험요인 일반, 시스템, 특별, 맞춤형, 계층별, 그룹사 분야로 나누어 포스코패밀리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하여 맞춤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솔선수범하는 관리자와 안전하게 일하는 직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1년 10월 건립된 글로벌 안전센터에 4D 영상관, 체험실습실 등을 마련하여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안전센터 : http://safety.posco.co.kr/

안전방재 전문가 양성 현장의 주도적 안전활동 강화와 책임감 부여를 위해 안전방재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철소 안전파트장 및 외주파트너사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1개월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론 등의 이론 교육과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약 500 여명의 현장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안전교육참여인원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누적
정규과정	26,205	22,746	19,163	68,114
정규과정 외	15,068	33,949	24,437	73,454
방문객	32,651	27,906	21,963	82,520
종합	73,924	84,601	65,563	224,088

*정규과정(10개 과정) : 설비안전/ILS, 전기, 가스, 고소/중량물, 심폐 소생술, 소방, 보건관리, 재난관리, 안전수칙,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
*정규과정 외 : 정규과정 이외의 모든 교육과정
*방문객 : 글로벌안전센터 시민·학생 방문객 수

안전활동:사람 - 불안전한 행동 예방활동

자율상호주의 자율상호주의는 직책이 없는 일반직원들이 동료가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현장에서 즉시 불안전한 행동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불안전한 행동 지적 및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지적받은 직원이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도록 하여 상호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료사랑 카드 포스코는 작업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10대 안전철칙을 정해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대 안전철칙이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책보임자가 동료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안전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칭찬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업자가 연 2회 동료사랑 카드를 받으면 부서장 경고, 3회 이상 받으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포스코 직원과 외주파트너사 직원들이 10대 안전철칙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전 Audit 및 Patrol 현장의 불안전한 행동 근절을 위하여 직책보임자 주도의 안전 Audit와 현장 안전관리자들의 자체 Patrol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감사 중에는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불안전한 행동 CCTV 모니터링 제철소 고위험 작업장을 대상으로 CCTV를 활용하여 불안전 행동을 모니터링하여 재해를 적극 예방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부터 고위험 작업장으로 분류된 총 60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불안전한 관행 총 547건을 지적하여 개선완료하였습니다.

포스코패밀리 교육훈련 과정 (6개 분야 23개 과정)

위험요인 일반과정 (10개)	
설비안전/ILS*	협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지중/가동중 ILS
전기안전	전기 감전예방을 위한 전기기구 및 안전대책
가스안전	가스 중독, 결핍 예방을 위한 위험파악 및 대책
고소/중량물 안전	크레인 취급 및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심폐소생술	'4분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소생술 및 조치
소방안전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및 초기진화 교육
산업보건	산업현장의 산업보건 및 MSDS 교육
재난관리	유해물질 관리 등 화재,폭발 관리방법 교육
안전수칙	안전보호구 종류 및 착용 / 10대안전철칙
PSM (공정안전관리)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시스템과정 (3개)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이론,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방법
글로벌안전보건시스템	전산시스템 활용 안전활동, 안전관련 Data 관리
설비안전 엔지니어링	설계단계부터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등 안전사항
특별과정 (3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건설관련 작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방법 등
위험물 교육	유해, 위험물 취급 및 보호구 착용교육
제철소 출입자 교육	제철소 출입을 위한 기본 안전사항
맞춤형과정 (4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안전관리자 양성을 위한 안전관리 사항
PSRS 진단 요원 교육	안전수준 진단방법 및 절차, 평가방법 교육
안전리더십 교육	리더십,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사례, 역할과 책임
특별 Spot 교육	재해발생, 교육 요청 등 Needs 발생시 교육
계층별과정 (1개)	
계층별 교육	각 계층별 안전보건방재 특별교육
그룹사교육 (2개)	
패밀리사 방문 교육	이론 위주의 단순 교육과정
글로벌안전센터 교육	전문 실습장 위주의 체험 교육, 실습

*ILS(Isolation Locking System)

안전활동:사람 - 비상대응훈련

비상대응훈련 포스코는 매뉴얼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불시훈련, 유해화학 물질 누출 방지 훈련 등을 강화하고 대규모 복합, 대형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별 화재진압 프로세스 정립, 상황전파 및 지휘계통 정립 등으로 골든타임내 초기진압 능력을 강화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응훈련주기

훈련명	민관합동 훈련	화재대비 모의훈련	공장 취약개소 자체훈련
주관	소방서	양소 안전방재부	공장
대상	제철소	공장	파트장/주임
주기(포항)	연 1회	분기 1회	수시
주기(광양)	연 2회	반기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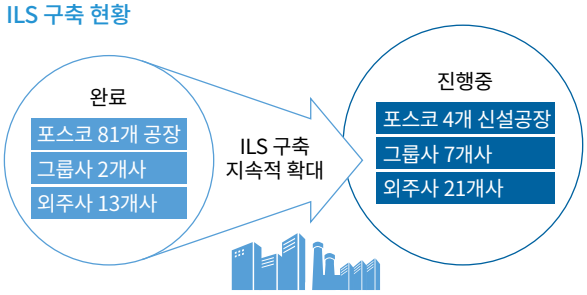
안전활동:설비 - 위험 요소 발굴 및 개선

포스코는 안전한 작업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험요소를 발굴, 개선하고 ILS를 통해 설비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ILS(Isolation Locking System) 포스코는 2008년부터 ILS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에너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동중인 설비의 출입통제 및 관리를 통해 재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ILS는 정지중 ILS와 가동중 ILS로 구분됩니다. 정지중 ILS는 설비의 에너지원을 사전에 차단, 격리 및 잠금을 실시하여 정비 혹은 수리 작업 시 갑작스런 설비의 가동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가동중 ILS는 위험한 정도에 따라 설비를 분류하여 가동중인 설비에 출입하는 작업자를 통제 및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Level 1 설비는 출입문이 열리면 설비가 자동 정지되어 작업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ILS 구축 현황



포스코 뿐만 아니라 그룹사 및 외주파트너사 대상으로도 ILS를 구축하여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회사별 맞춤형 교육과 ILS 운영현황을 진단하여 각 공장 및 회사에 맞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NearMiss 관리 및 보고시스템 포스코는 NearMiss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굴부터 개선, 사례 전파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직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안전보건시스템' 을 마련하여 NearMiss 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모든 안전활동을 데이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NearMiss가 발생하면 체험자는 발생경위, 위험점 등을 신속히 직상 관리감독자(직책보임자)에게 보고 후 '글로벌 안전보건시스템'에 관련사항을 등록합니다.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현장 확인 후, 동일 장소에서 NearMiss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하고 유사 개소 및 설비를 점검한 뒤 소관 직원들에게 NearMiss 사례를 전파합니다. 등록된 NearMiss의 'Sign Off'[1]를 위하여, 안전파트장[2]은 NearMiss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공장장 주관하에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에 개선조치 계획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개선 담당자로 지정된 직원은 기한내 개선조치를 완료하여 시스템에 조치내용을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장은 개선조치 완료 후 1개월 동안 NearMiss 및 잠재위험 개선조치 사항이 작업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었는지에 대한 효과(유사대책에 따른 점검 및 조치결과 포함)를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시스템 'Close off'[3]를 실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는 제철소별 종합분석 및 안전활동 계획에 반영하며, NearMiss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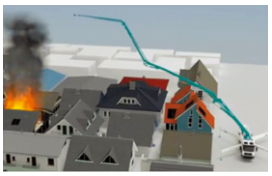
'Sign Off'를 실시할 때, NearMiss의 위험정도(심각도)/작업빈도(발생가능성) Matrix에 따라 4단계(A~D) 등급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A 급은 전 제철소에, B 급은 해당부서에, C 급은 해당 과·공장에, D 급은 해당 파트단위에 전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7,120 건의 NearMiss 사례가 등록되었습니다.

1) Sign Off / 3)Close Off : 'Global 안전보건시스템'에 NearMiss 혹은 잠재위험 등의 사례 등록은 'Sign Off' 와 'Close Off' 과정을 거친 후 완료가 된다. 이 과정은 등록된 위험에 대해 개선대책을 세우고,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먼저, 'Sign Off'는 등록된 사례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위험 등급을 분류하는 과정이고, 다음으로 'Close Off'는 개선결과에 대해 근본적인 위험점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2) 안전파트장 : 법적으로 지정된 안전보건 관리감독자는 아니나, 과/공장별로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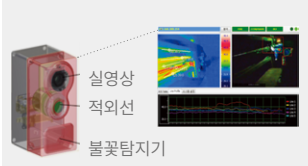
Fatal Hazard Top 5 전, 후 공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재폭발, 대형사고, 중대재해 등을 Fatal Hazard Top5로 선정 후, A~C등급으로 분류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위험도가 높은 A, B 등급의 Fatal Top5 145건 및 핵심 Hazard 2,194건은 경영층의 안전 Audit와 연계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전활동:설비 - 선진 방재장비 도입

선진 방재장비 도입 포스코는 대형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취약개소에 선진 방재기술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인 굴절 소방차를 도입하고 취약개소의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다중영상 기반의 최첨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적용하여 비상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무인굴절소방차(붐 길이: 6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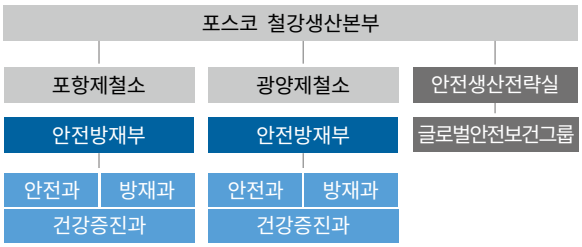
다중영상기반 화재감시시스템

안전활동:시스템 - 조직 및 제도 개선

포스코는 안전보건방재 조직 개선을 통해서 전문역량을 집중하고 포스코패밀리 전체의 무재해 달성을 위해 교육, 시스템, 진단 등을 지원하여 패밀리사의 안전보건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방재 조직 개선 포스코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조직을 신설하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철강생산 전략실을 안전생산 전략실로, 안전보건사무국을 글로벌 안전보건그룹으로 조직명칭을 바꾸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철소에 흩어져 있던 안전과, 방재과, 건강증진과(보건)를 통합, 안전방재부를 신설하여 안전보건방재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조업부서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Master의 직위를 안전파트장으로 높여 안전의 중요성을 현장에 각인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안전보건방재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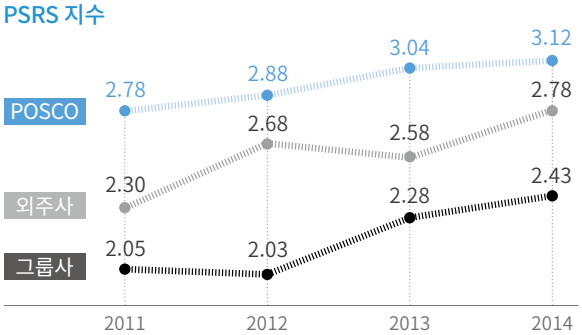
안전활동:시스템 - 진단 및 컨설팅

PSRS 안전진단 컨설팅 POSCO 안전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 부서 및 패밀리사의 안전 리더십·조직·설비·활동 부문의 점검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점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화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안과 체계적인 변화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글로벌 수준의 안전진단 툴인 PS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SRS 절차는 진단 계획수립 및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진단 전 안전활동 자료를 받아 12개 Element 별로 설문, 인터뷰, 현장진단 등을 실시하고 분석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를 Bradley Curve에 대입하여 현 안전수준을 파악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관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재진단하여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PSRS 진단 순서

PSRS 지수



*POSCO(6개 부서) : (포항)열연부 등 2개 부서, (광)제강부 등 4개 부서
*외주사(22개 업체) : (포항)메이트엠 등 8개사, (광)유니테크 등 14개사
*그룹사(6개 업체) : 포스코휴먼스, 부산E&E, 포스코엠텍, 포스코P&S, 포스메이트, 포스코켐텍
*기타 : 안전허브 및 동반성장 중소기업 안전컨설팅 8개사, POSCO-Maharashtra(인도) 등 3개 해외법인

안전활동:시스템 - 그룹사 및 해외법인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지원

경영층이 찾아가는 그룹사 안전컨설팅 경영층이 그룹사의 안전방재 활동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수준에 맞는 맞춤식 컨설팅 및 변화관리를 지원하여 그룹사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월 생산현장과 설비를 보유한 포스코건설 등 17개 그룹사 중 1개사를 방문하여 안전수준 향상 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또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방향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생산법인 안전지원 활동 2014년에는 4개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경영체제 진단 및 구축을 위한 지도활동과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기법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각 법인의 특성에 맞게 구성한 전산시스템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안전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채용인들을 위한 e-Learning 과정을 현지어로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15개 해외생산법인을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에는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교육 및 컨설팅 활동을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5 포스코패밀리 안전보건방재 추진전략

포스코는 2015년을 자율 안전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직원과 회사가 함께 힘을 모아 '일터가 안전하고 삶이 행복한 POSCO the Great 실현'을 비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종전의 회사 주도 방식의 안전관리에서 직원의 자발적인 안전활동 실천화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안전 SSS 활동을 근간으로 직원들의 안전마인드를 고취하여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직원 측면에서는 스스로 느끼고 실천하는 '자기 주도의 안전활동 확산'과 '자발적인 기본의 실천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회사 측면에서는 안전을 지킬 수밖에 없는 강력한 플랫폼(platform) 확립을 위해 '숨은 위험요인(hidden hazard)의 근원적 제거'와 '상호 신뢰 기반의 안전인프라 구축' 등 4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4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심심상인(心心相印) 안전문화를 구축하여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안전활동 참여와 실행을 유도하여 무재해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015년 Vision 및 추진전략

비전: 일터가 안전하고 삶이 행복한 POSCO the Great 실현

목표: 자기 주도의 안전활동 확산(SSS)과 기본의 실천을 바탕으로 Zero Injury 달성

*SSS(Self-directed Safety Spread): 자기 주도의 안전활동 확산

추진전략: 안전 SSS 활동 근간의 포스코패밀리 안전활동 전개

안전을 지킬 수 밖에 없는 플랫폼 구축

회사

心心相印 안전문화 구축

직원

스스로 느끼고 실천하는 포스코인 성장

자기 주도의 안전활동 확산
안전의 중요성을 스스로 체감하고 실천하는 직원

자발적인 기본의 실천문화 정착
사소한 것 하나부터 기본을 준수하는 마인드 형성

숨은 위험요인의 근원적 제거
위험요인의 근본적인 제거를 통한 안전한 작업장 구현

상호 신뢰 기반의 안전 인프라 구축
패밀리사 밀착 지원, 정보공유 채널 확보, 시스템 제공

전략별 Action Plan

1. 자기 주도의 안전활동 확산
2. 최소 조직 단위 주도의 스마트 안전활동
3. 직원 스스로의 안전보건방재 역량 향상
4. 안전보건방재 분야 전문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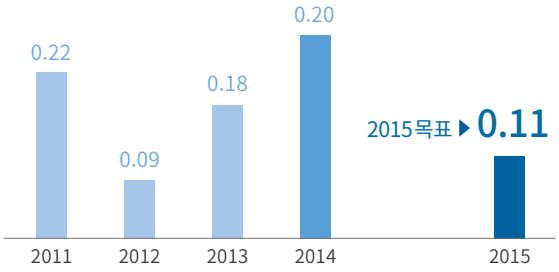
5. 10대 안전철칙 체질화로 불안전 행동 개선
6. 안전 Rule 준수문화 정착
7. 취약작업에 대한 작업절차 준수
8. 안전 Check 기능강화에 의한 기본의 실천 유도
9. 제철소 新 교통안전 문화 정착

10. 중대재해 유발 Fatal Hazard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
11. ILS 구축 확대 및 최적운영 프로세스 정착
12. 선제적 재난 예방활동 및 비상대응 능력 강화
13. 방재설비 선진화로 대형화재 제로화
14. 설비신뢰성 향상을 통한 선순환 안전체계 구축

15. 그룹사 및 해외법인 안전활동 정착을 위한 밀착 지원
16. 포스코패밀리 글로벌 안전보건체계 운영 및 개선
17. 포스코패밀리 특성에 맞는 PSRS 진단 및 컨설팅
18.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선행적 보건활동
19. 안전리더십 향상 및 정보공유 채널 확보

Safety K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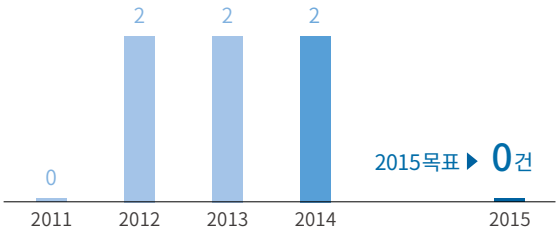
휴업도수율



KPI 정의: 재해의 발생빈도를 표시하는 지수로 연근로 100만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로 산정. 산업재해 통계관리의 대표 지표(건수/근로시간x10^6)

중대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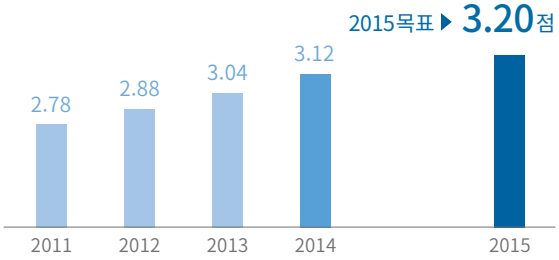
(단위: 건)



KPI 정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
- 중대재해 위험요인(협착 등) 발굴 및 개선(위험성평가)

전사 안전문화 지수

(단위: 점)



KPI 정의: 조직의 PSRS 진단 시 평가하여 점수화
- PSRS 결과 점수를 통해서 안전문화 수준 판단(5점척도)

CASE STUDY

굿 드라이버(Good Driver) 운동

제철소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부터 굿 드라이버(Good Driver)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굿 드라이버 운동의 중점 추진활동은 총 4가지입니다.

첫째 주간 전조등 'On' 활동입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차량을 운행하도록 권장하여 교통사고율을 대폭 낮춘사례가 있는 검증된 활동입니다. 주간에 전조등을 켜 자기 위치를 타인에게 알리면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 자연스레 교통사고도 줄어들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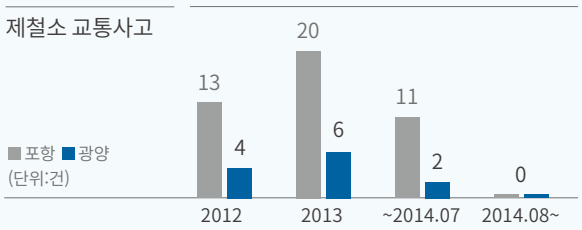
둘째 횡단보도 자전거 '내려걷기' 활동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걷는 것이 기본 안전수칙입니다. 또한 자전거는 법률상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셋째 구내 제한속도 강화 '40 km/h' 활동입니다. 현행 50 km/h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중장비 차량 및 화물차가 많은 제철소 내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지정된 장소에서의 주·정차' 활동입니다. 도로 혹은 갓길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은 교통 흐름에 혼선을 주어 사고를 유발하고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 구급차 등의 통행에도 지장을 줍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를 초래하는 수목을 제거하고 반사경을 청결히 유지하며, 대형차량의 후방에 경보기 및 경광등을 설치하는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지속적인 굿 드라이버 운동을 전개해서 제철소 내 교통사고를 근절할 것입니다.

제철소 교통사고



HEALTH
보건

직원건강관리체계

포스코는 '직원이 건강해야 회사가 건강하다' 라는 이념을 기본으로 직원들의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전 직원 대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직원들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진 결과를 기록하고 누적 관리하는 건강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진 자료에 근거해 산업의학 전문의와 건강상담을 진행하며,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식 식이습관과 운동 방법을 처방합니다. 처방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은 건강 교육과 주기적인 검사를 제공받고 필요에 따라 회사가 운영하는 심리상담실과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합니다. 건강 이상이 발견된 직원을 위해서는 질병 악화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추적·치료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부서별 담당 간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관리 외에도 현재 최대 사망 원인인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자체적으로 암표지자 검사(4종: 간, 췌장, 대장, 갑상선)를 실시하고, 사외 전문병원에 조기 암 검진(12종)을 위한 위탁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직원 배우자에게도 2년마다 종합검진을 지원하여 포스코패밀리 전 직원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체형분석기, 디스크 감압치료기, 디스크 재활치료기 등의 시설을 갖춘 물리치료실을 서울, 포항, 광양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운동

포스코는 직원의 건강이 행복한 일터의 원천이고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믿음으로 금연, 건전 음주, 비만저감, 저염식, 금화(禁火)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래로 전직원 금연을 통해 금연 제철소를 선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포스코패밀리 전체가 직원 건강 증진에 관심을 갖고 직원사랑, 가족사랑의 금연 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최근 재흡연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포스코는 전직원의 금연 운동을 계속적으로 유지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건강과 가족 행복을 위한 건전한 음주 문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술잔 안 돌리기, 음주 강요 안 하기, 123실천[1)]'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광양제철소에서는 2-2-2 운동[2)]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식 문화도 음주 일변도에서 벗어나 맛집 탐방, 체육·문화 행사 관람 등의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생활 8주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강걷기 캠페인, 건강식단 개발, 자전거타기 운동 등 다양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음식문화 특성상 일일 소금 섭취량이 많아 고혈압, 비만 등의 성인병 발병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사내식당 음식의 염분 함유량을 줄이고 저염식습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는 화 발생이 모든 건강을 위협하는 첫번째 요인임을 감안하여 편안한 마음 갖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전문의 상담, 운동처방, 식이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위풍당당 헬스 업 프로그램'을 운영 전 임·직원의 체질을 개선하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123실천: 1주일에 2회, 3잔/회 미만 음주
2) 2-2-2 운동: 술은 1/2만 따르고, 건배제의는 2번만, 회식은 2시간 이내

산업위생관리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업자를 둘러싼 내·외부 작업환경이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직원이 작업 현장에서 착용하는 안전보호구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구 제조사와 협의해 편의와 성능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음 작업환경이 취약한 지역에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산소 농도가 부족한 밀폐공간 지역에서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등의 보건표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기준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제도(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엄격하게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철거 및 배관 교체 작업시에도 사전 석면조사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포스코패밀리 산업위생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작업환경 측정기관 평가'와 '작업환경 측정기관 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포항과 광양제철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환경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2013년에 포스코패밀리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보건통합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80여 개의 포스코그룹 계열사, 외주파트너사의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검진 결과를 데이타베이스화 하여 작업환경 리스크 정보, 직업병 현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포스코 제철소를 시작으로 해외 사업장에도 확대, 현지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글로벌 포스코패밀리의 보건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

포스코 글로벌안전보건그룹은 직원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전 포스코패밀리사 직원을 대상으로 On-Line에서는 '산업보건' e-러닝 강좌를 Off-line으로는 현장 맞춤형 산업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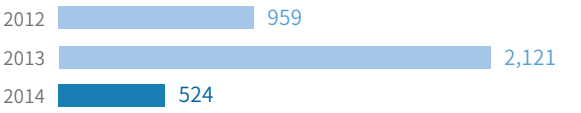
2014년에는 맞춤형 산업보건 교육을 포스코 과장, 공장장 및 파트장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 외주파트너사인 금원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FINEN 공장 직원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방문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 강좌에는 건강증진, 생활습관 개선, 건강진단, 작업환경 관리·개선, 건강장애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On-Line에서 실시하는 e-러닝 강좌인 산업보건 교육은 전 포스코패밀리사 전직원이 수강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항과 광양에 위치한 글로벌 안전보건그룹에서는 정기 산업보건 강좌를 개설하여 직원들이 언제라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교육(e-러닝) 이수 실적

(단위: 명)



2014년 정규 산업보건강좌 이수 실적

포항	광양	2014
917 명 (패밀리 152명 포함)	555 명 (패밀리 72명 포함)	1,472 명 (패밀리 224 포함)

건강증진센터 이용 포스코패밀리 확대

포스코는 사내 의료실인 건강증진센터의 이용 권한을 포스코패밀리로 확대(포항 2011년 9월, 광양 2012년 1월)하고, 인력 충원과 시설 증축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이용 권한 확대로 두 제철소에 출입하는 86개의 포스코패밀리사 직원 모두가 부담 없이 포스코 직원과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이용 현황(2014년)

(단위:건)

구분	직영	포스코패밀리
포항	36,953 (의료실) +7,027(물리치료실)	4,410 (의료실)
광양	25,640 (의료실) +14,024 (물리치료실)	3,151 (의료실) +2,185 (물리치료실)
서울	18,858 (의료실+물리치료실)	1,505 (의료실)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상담

포스코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직원들의 행복과 정신건강 향상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기업내 상담실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포항과 광양제철소는 2005년부터 심리상담사가 상주하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가족은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담기법을 이용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의사의 정밀상담, 사외 정신과 병원의 무상 약물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심리상담사 주관하에 비밀리에 실시됩니다.

서울은 2014년 9월부터 직원들의 심리안정 수준별, 연령별 특징을 반영하여 개인상담, 심리검사, 심리 교육서비스 등 맞춤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점심특강형태로 '조직적응력 향상을 위한 스트레스관리기법', '워킹 맘 앤 대디 케어 프로그램' 등을 개설 운영하여 포스코 전 구성원의 심리 건강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심리상담 내역

구분	2012	2013	2014
포항	1,883명(992건)	1,337명(809건)	1,968명(1,063건)
광양	개인상담 1,331건	개인상담 905건	개인상담 849건
	가족프로그램 241명(26회)	가족프로그램 377명(42회)	가족프로그램 76명(8회)
	집단교육 979명(23회)	집단교육 387명(13회)	집단교육 430명(13회)
서울	-	-	43명(212건) 집단교육 15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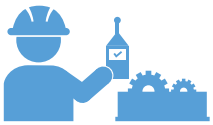
HEALTH

2015년 글로벌 안전보건그룹 보건 중점 추진업무

목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선행적 보건활동

산업보건교육 강화 & 표준 제·개정



포스코 고유 산업보건 진단 Tool 개발 & 진단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
- 사무실 환경기준 설정
- 심리상담을 통한 안전재해 예방활동 등

산업보건 법적 Risk 선제적 대응
- 사전 전수 석면조사
- 밀폐공간관리 철저 등

중점 추진업무

2015년 포항제철소 건강증진과 중점 추진 업무

심리상담 기법을 활용한 '안전의식 강화'
- 안전심리 코칭을 통한 불안전한 행동 예방 (2015.03~)
-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2015.01~)

작업장 내 보건 리스크 발생원 제거
- 포항소 설비·배관 내 '석면조사 방법 개선' (~2015.05)
- 압연지역 '유해 대기오염물질 (HAPs) 발생원' 정밀조사 (~2015.12)

가스중독 예방 보건기준 준수여부 점검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매뉴얼 작성 및 이행 여부 점검
- '공기호흡기 배송 거점장소 운영'으로 시간 손실 최소화 (2015.02)

작업환경 특성을 고려한 직업성 질환 예방 활동

고위험 건강이상 직원 조기 진단 및 관리 강화

2015년 광양제철소 건강증진과 중점 추진 업무

개인별 건강지표 운영을 통한(3항목) 건강주의자 개인 관리 강화
- 개인별 주요 건강지표 분류, 경향관리 → 건강주의자는 간호사 (5명) 1:1 전담 관리
- 개인/등급별 (A,B,C) 프로그램 개설, 운영

자발적인 운동 로드맵 참여 및 체지방률 집중관리
- 건강주의자 체지방률 등급분류 (1회/년) → 운동 패턴, 업무특성 고려 커리큘럼 실행 (1회/분기)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치유 및 업무 몰입도 향상
- 재해직원 PTS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 (5명/월)
- 신입사원 정신건강교육(1회/반기), 가족힐링 프로그램 (1회/반기)

작업환경 시료분석 기기 신규도입(ICP-OES, 유도결합 플라즈마)을 통한 작업환경 측정 신뢰도 향상

자발적인 MSDS 관련 법규 강화에 따른 현장 위험물 게시 방법 일괄개정 및 직원 교육강화
- 리플렛 배포 (10,000장) 및 현장 방문 교육 (2회/월)

제철소 내 사무실 오염물질 평가 프로세스 신설을 통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 작업환경평가 현행 320개소 → 실내 운전실/사무실 추가 (1,200개소) *유해물질 분석 (총 9종), 적정성 판단 (1회/월)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사슬관리

FAIR TRADE

공정거래

공정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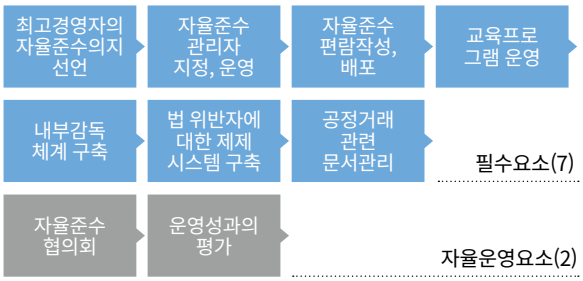
포스코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질서에 부합하기 위해 200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한 이후,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체질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포스코 윤리규범 선포를 통해 최고경영자가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천명했으며, 매년 회사 운영회의, 포스코그룹 사장단 회의 등을 실시하여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는 교육·감사 등 내부 준법체계를 의미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포스코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7대 요소를 기반으로 포스코만의 자율 운영요소 2가지를 추가 도입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주요 CP운영실적

2002.8	포스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2003.4	이사회가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2003.6	CEO의 실천의지 윤리규범 선포
2004.3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2004.4	CP운영 전담조직 신설
2006~2012	4회 연속 CP평가등급 AA취득
2013	동반성장지수평가 최우수등급 획득

포스코는 200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시작으로 2003년 포스코 윤리규범 선포를 통해 CEO가 공정거래준수 의지를 천명한 한편, 2004년에는 이사회 산하의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CP 전담조직인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하고 2012년 그룹으로 승격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CP운영 평가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4회 연속 AA등급을 획득하였고 동반성장위원회의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실적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교육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임직원을 위한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인 e러닝과정 '알기 쉬운 공정거래'와 '공정거래 위반사례'를 통하여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당 e러닝 과정에 2014년 말 기준 17,616명(포스코 8,641명, 계열사 8,97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사내 공정거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온라인 자율점검 및 상담체계를 구축한 이후 임직원이 직접 공정거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 거래와 연관 있는 판매·구매·외주 등 7개 현업부서를 자율점검 필수부서로 지정하여 자율점검체계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웹사이트의 메인 메뉴인 '부서별 자율점검 및 상담체계'는 법 위반 예방을 위한 내부감독체계로, 현업부서가 자율점검 후 상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미리 사내 전문부서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기준 상담실적 : 99건)

포스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활동

- 공정거래 관련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 (2002년 '알기 쉬운 공정거래'과정, 2013년 '공정거래 위반사례'과정 신설: 2014년 기준 17,616명 수강)
- 직급별, 부문별 세분화된 공정거래 집합교육 운영 (2014년 기준 총 104회/5,075명)
- 공장거래 웹사이트 개설을 통한 자율점검 및 체크리스트 기능 제공 (2004년 도입)
- 현업부서 맞춤형 공정거래 상담 및 자문 실시 (2014년 기준 총 99건)
-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2014년 기준 총 2,317명)
- 스마트폰용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어플 개발 및 각종 공정거래 편람 발간을 통한 법 위반 리스크 자율점검 체계 구축 등

아울러 계열사간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포스코는 2004년 4월부터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안건심의에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하였으며 2014년말까지 운영실적은 총 103건입니다. 특히 2014년에는 내부거래가 많은 주요 현업부서가 내부거래 현황 및 리스크 예방방안을 보고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제고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스마트폰용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임직원이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문별 공정거래 편람과 포스코패밀리용 통합편람, 구매·판매부문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리스크를 임직원 스스로 체크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총 104회에 걸쳐 신입사원, 승진자, 판매·구매 등 계층별·부문별 직원들을 비롯한 계열사 직원 5,075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율준수관리자가 주관하는 포스코패밀리 임원 대상 교육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에는 법 위반 리스크가 높은 포스코 계약부서 임직원 2,317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을 실시하여 공정거래 준수의식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외에 현업부서에서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마인드를 제고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리더 이상 부서장들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실천리더, 계열사 공정거래 담당자들의 학습동아리인 FTA(Fair Trade Academy) 등을 통해 정기적인 세미나, 정보교류회,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포스코패밀리 CP 도입 현황

2014년에는 2개 계열사가 CP를 신규 도입하여 현재 포스코그룹에서는 총 32개 회사가 C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CP확산과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P등급평가에 매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 CP등급평가에서는 4개 계열사가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AA :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P&S, A : 포스코A&C, BBB : 포스코TMC) 아울러 포스코에서는 공정거래 교육 지원, 윤리 웹진 기사 게재, 공정거래 주간동향 메일링,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편람 발간 등을 통해 포스코패밀리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의식을 고취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패밀리 CP 도입 현황

~2003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ICT, 포스코특수강	4
2006~2010	포스코강판, 포스코엠텍,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포스코P&S, 포스메이트, 포스코A&C,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엔지니어링, SNNC	10
2011	대우인터내셔널, 엔투비, 포스코AST, 포스코TMC	4
2012	포스화인, 포레카, 포스하이메탈	3
2013	PNR, 뉴알텍, SRDC, SPFC, 포스코휴먼스, 포스코터미널, 포뉴텍, 블루오앤엠, 포스코ESM	9
2014	포스코경영연구소, 포스텍기술투자	2
	총 32개사 도입 (2014년 12월 기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향후계획

2015년 포스코는 포스코패밀리 차원에서 공정거래 문화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와 불공정 하도급 리스크 예방에 역점을 두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SPC(특수목적회사)를 제외한 전 계열사의 CP 도입 확대, CP 제도의 ISO 국제표준화 추세 적극 동참, 담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점검체계 내실화, 각 회사별 자체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과정 심화, 법 위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동반성장활동의 지원 등을 통해 CP 운영을 포스코패밀리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고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해외법인·사무소 등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강화, 각 나라별 법 집행동향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외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ASE STUDY

분쟁광물 관리

DR콩고 등 분쟁 지역의 광산을 반군 무장 세력이 소유, 관리함으로써 광물의 판매 자금이 반군에 유입돼 반인륜적인 분쟁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무장 세력이 관리하는 광산은 채취 과정에서 아동노동, 성폭행 등 인권 유린이 발생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업용 광물을 분쟁광물이라고 합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업들로 하여금 제품 생산 시 DR콩고와 인근 국가에서 나오는 분쟁광물인 금, 텅스텐, 주석, 탄탈룸의 사용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주석과 텅스텐 합금철인 페로텅스텐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사용한 주석과 페로텅스텐은 모두 경쟁입찰을 통해 수입하였으며 주석의 경우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입니다. 스테인레스제품 등에 사용하는 텅스텐 합금철의 원산지는 베트남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공급사와의 거래를 제한한다는 원칙 (p.148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 아래 분쟁 지역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분쟁광물 사용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원료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분쟁 지역의 광물을 사용하는 것이 밝혀질 경우 해당 계약을 즉시 종료하고 추후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는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약관 운용 중)

향후 포스코패밀리 내에서도 분쟁광물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회사에 교육을 실시하고 꾸준히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WIN-WIN GROWTH

동반성장 정책 및 프로그램

동반성장의 비전 및 가치체계

일방적 지원중심의 CSR을 넘어 중소기업과 포스코, 국가경제의 CSV 추구

비전	**Win-Win for the Great** 자립과 상생으로 더 큰 내일을
미션	중소기업과 포스코의 경쟁력을 동반 상승시켜 지속적인 국가경제 발전을 이끈다
핵심가치	가치창출 / 성과공유 / 미래지향
전략 아젠다	1 성과공유제 확대 등 공유가치 창출 2 중소기업 해외판로 및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 3 벤처 및 2-3차 기업으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 4 열린 마음으로 쌍방향 소통강화

*CSR(Corporate Social Resposibility): 기업이 영업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
*CSV(Creating Shared Value): 기업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활동

동반성장 연혁

포스코 창업에서 부터 시작된 동반성장
제철보국을 DNA로 국가의 발전과 산업생태계의 성장을 견인해 옴

도입기 ≫ 공정거래
- 전자상거래 시행(2001)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2002)

성장기 ≫ 상생협력
- 국내최초 성과공유제 도입(2004)
- 국내최초 납품대금 현금결제(2004)
- 테크노파트너십 시행(2006)

정착기 ≫ 동반성장
-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2~3차 중소기업 확대(2010)
- 임원 동반성장지원단 출범(2010)
- 성과공유 자율 협약 포스코 그룹으로 확대(2013)

1999 — 2004 — 2009 — 2012 — 현재

1999-2004

1999.02
- 명절 구매 대금 조기 집행

2003.07
- 철강사 최초로 SRM 시스템 도입

2004.07
- 국내 최초 성과공유제 도입

2004.10
- 네트워크론 시행

2004.12
- 중소기업 구매 대금 전액 현금 결제 시행

2005-2007

2005.07
- 협력기업 지원펀드 조성

2006.07
- 특허상담센터 운영

2006.08
- 보유 특허 기술 이전 사업

2006.09
- 테크노파트너십 시행

2008-2009

2008.07
- 경영닥터제 도입

2008.08
- QSS혁신 활동 지원

2008.11
- 상생협력 특별펀드 협약 체결

2008.12
- 민관 공동 R&D 펀드 협약 체결
- 범포스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2009.03
- Job World 'POSCO 협력기업 채용관'개설

2009.09
- 포스코 패밀리 네트워크론 시행

2010

2010.06
- 테크노파트너십(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지원 활동) 시행

2010.09
- 동반성장 실적 임원평가 반영 시행
- 동반성장프로그램 가이드북 발간

2010.10
- 임원동반성장지원단 출범
- 포스코그룹 2~4차 협의회 발족
- '사이버 신문고' 개설

2011

2011.04
- 협력 중소기업 행동규범 (Code of Conduct) 제정 시행

2011.07
- 임원 동반성장지원단 그룹사 확대

2011.10
- 아이디어마켓 플레이스 개최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협력펀드 협약식

2012

2012.07
- 포스코형 성과공유모델 FOCUS 정립

2012.09
- 동반성장주간 성과공유 우수 대통령 표창

2013

2013.05
- 포스코그룹 성과공유 자율추진 협약체결

2013.06
- 포스코 산업혁신운동3.0 추진 협약체결

2013.10
- 1-2차간 공정거래 지원을 위한 포스코윙크 가동

2014

2014.04
- 임원 동반성장지원단 프로젝트 베이스로 개편

2014.06
- 공급사-포스코 열린 토론회 실시
- 2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획득

2014.10
- 동반성장포털 오픈

2014.11
- 포스코그룹 동반성장 파트너스 데이 개최

동반성장 활동 개요

동반성장 포스코는 Win-Win for the Great를 비전으로 삼아 중소기업의 자립과 상생을 통해 더 큰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진해 온 포스코는 2005년 6월 중소기업 지원 전담 조직이 신설되었으며, 현재는 동반성장그룹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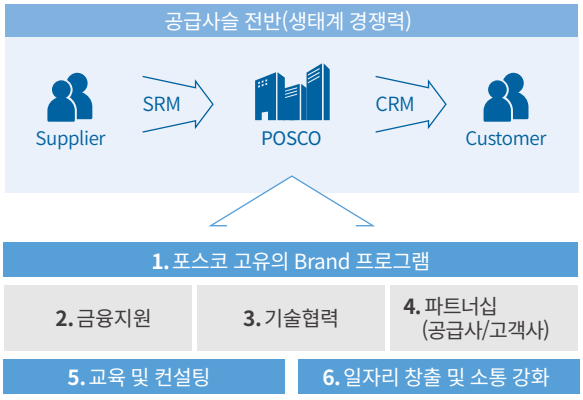
포스코는 현재 포스코 고유의 브랜드 프로그램, 금융지원, 기술협력, 파트너십 강화, 컨설팅 및 교육, 일자리창출·소통강화 등 총 6개 카테고리의 32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영 전 부문에 걸쳐 체계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 발전시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동반성장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 추진 현황

4월	임원 동반성장지원단 프로젝트 베이스로 개편
6월	공급사-포스코 열린토론회 실시
6월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획득(2년 연속)
10월	10월 동반성장 프로그램 개편 (6개부문 32개 프로그램)
11월	11월 동반성장포털 오픈
11월	11월 포스코그룹 동반성장 파트너스데이 개최 - 동반성장비전 'Win-win for the Great' 선포 - 성과공유, 기술협력, 임원 동반성장지원단, QSS 총 4개 부문 22건 포상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

동반성장 프로그램 구성 경영 전부문에 걸친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협력사 뿐만 아니라 고객사까지 아우르는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6개 부문 32개 프로그램)



포스코 고유의 Brand 프로그램

성과공유제 2004년 7월부터 실시한 성과공유제는 공급사와 공동으로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자율적인 체질 개선과 기술개발의 이익을 창출하고 포스코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쟁력 확보와 품질향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된 성과에 대해 3년간 성과 발생 금액의 50%를 보상함은 물론, 장기 계약 체결(3년), 공급사수행으로 평가 시 가점 부여, 공동특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465건의 신규과제를 수행하여 성과측정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 총 544억원의 성과보상을 실시했습니다.

테크노파트너십(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포스코는 2006년 9월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지원 활동을 펼치기 위해 테크노파트너십(Techno Partnership)을 시작, 현재 포스코와 포스텍 등 4개 기관의 박사급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테크노파트너십 참가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선별, 그 기업의 특성에 맞춰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술을 지원합니다.

기술자문단은 매월 한차례 일대일 현장진단, 기술교육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생산공정 또는 제품의 기술적 고민을 함께 해결하게 됩니다. 또한 참여기관별로 보유한 연구설비와 시험분석을 지원하며, 박사급 우수인력과 중소기업이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포스코는 2014년 총 98개사에 대해 기술자문 607건 및 시험분석 41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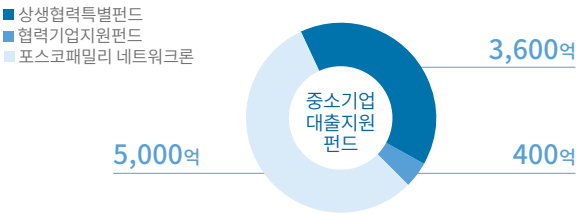
중소기업 구매 대금 전액 현금 지불 포스코는 거래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04년 말 부터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모든 공급사의 결제 금액을 규모에 상관없이 납품 후 3영업일 이내 주2회 조건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명절에는 명절 1주일 전부터 매일 자금을 지급합니다.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포스코는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벤처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동반성장의 또 다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는 아이디어 제안자와 사업화하려는 투자자, 자문역할을 맡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사고 파는 장터를 말합니다. 포스코는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총 39개사에 65.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포스코패밀리 임원 동반성장 지원단 포스코와 그룹사 임원진은 2010년 10월 임원 동반성장 지원단을 결성하여 재능기부의 형태로 솔선수범의 동반성장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동반성장지원단은 1, 2차 협력 중소기업에 경영혁신, 노사 관리 등 경영진의 전문경험과 역량을 전수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왔습니다. 임원 동반성장 지원단은 활동에 참여한 중소기업 및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2014년 대대적인 리뉴얼을 실시했으며 프로젝트 베이스의 활동체계로 재편했습니다. 주요 개선 방향은 △꼭 필요로 하는 기업에 △꼭 맞는 사람이 △스마트하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뚜렷한 니즈가 있고 경영층의 개선 의지가 강한 기업을 선정해 기업 니즈에 적합한 임원을 매칭하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목표 수립 후 체계적 지원을 펼치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편 후 총 51건의 과제를 채택하여 수행했고 2014년 말 기준 15건의 과제가 완료되어 매출액 127억 원, 원가절감 66억 등 포스코와 중소기업 모두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중소기업 대출지원 펀드 포스코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저리 대출 지원을 위해 총 9,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 포스코그룹 협력기업 386개사가 본 제도를 활용하여 4,158억원을 저리 대출하였습니다.



동반성장 투자 펀드 포스코는 신성장 동력이나 핵심기술을 가진 협력 중소기업, 핵심고객사 및 신규사업 등에 지분투자를 하여 지속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KB금융지주, 한화그룹 등과 함께 2,000억원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본 펀드를 통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지분투자가 가능하게 되었고 지분관계에 의한 포스코그룹 생태계가 구축됨으로써 포스코패밀리 내 유대관계 강화 및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2014년 총 4개 중소기업에 48.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재무안정 지원 펀드 포스코는 기업은행 등과 함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우수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유망한 중소기업의 재무안정을 지원하는 1,010억원 규모의 재무안정 지원 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으나 일시적으로 재무적 여건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의 가치제고를 돕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4년 재무안정 지원 펀드를 활용해 총 79.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설비구매 중도금 포스코는 전체 계약 금액의 20% 내에서 시행해 왔던 설비구매 선급금 제도와 함께 2010년부터 설비 구매 중도금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생산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비 구매 중도금 제도는 중소기업이 설비를 제작할 때, 긴 제작기간과 소요 자금의 부담을 줄이고 자금 유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포스코가 중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억원 이상의 계약 금액, 180일 이상의 계약 기간으로 포스코와 계약한 중소기업이며, 중도금은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선급금을 제외한 전체 계약 금액의 30% 이내로 지급됩니다.

R&D 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 협력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이란 포스코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R&D기금을 조성하고 포스코가 구매를 보장한다는 안정적인 조건 하에서 중소기업 R&D 과제의 개발비를 현금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제 성공시 3년이라는 장기계약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2008년에 이어 2011년 12월 중소기업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R&D기금 1,000억 원을 새로 조성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포스코가 지원한 중소기업 과제는 51건에 이릅니다.

중소기업 특허 지원 프로그램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웹사이트(www.steel-N.com)에 공개하여 중소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포스코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특허 출원에 필요한 행정 비용 전액을 포스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스코의 특허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포스코에 납품할 시에는 기술 사용료를 면제하여 비용절감과 특허 활용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허 상담센터'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 노하우와 같은 지적 재산을 대중소기업 협력 재단에 임치함으로써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 탈취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포스코는 2011년 대중소기업 협력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하여 2014년까지 총 162건의 기술임치계약 체결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술자료 임치건수

(단위: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계
기술자료 임치건수	12	50	50	50	162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파트너십 강화

포스코 인증 공급사(PHP) 제도 포스코 인증 공급사 제도는 인증 파트너로 선정된 공급사를 세계적 기술력과 품질을 확보한 전문 품종(소싱그룹) 공급사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포스코는 선정 공급사에 그룹 차원의 다양한 우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년 연속 해당 소싱 그룹 SRM 평가 결과 우수, 일정 금액 이상의 입고 실적)

포스코 인증공급사 현황

(단위: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증 공급사수	25	26	31	38	42	39	41	48	52

중소기업 해외 판로 지원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룹사이자 국내 대표 무역전문 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의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망을 활용해 해외 현지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바이어와 교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 고객사 및 공급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고강도 철강재를 공급하고, 해당 고객사는 이를 제품화하여 신규시장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포스코 해외 제철소의 안정적 조업과 정비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우수 협력사와 동반진출하여 지속적인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출지원을 위한 철강재 최우선 지원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연, 후판, 선재, 냉연, 전기강판 등 2차 제품 수출에 필요한 철강재를 최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56개사에 330천톤을 최우선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고객사 Solution Providing 제도 중소고객사 Solution Providing 제도란 포스코철강재 뿐만 아니라 국내외로부터 소재를 다양하게 구매하는 고객사에게 각 소재별 특성에 맞는 가공기술(특히 성형, 용접, 도장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재 구매로부터 최종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문제점을 포스코와 고객사가 함께 해결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포스코는 보유하고 있는 검사·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고객사의 품질분석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고객사의 제품 프레스 가공 및 용접기술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고객사 101개사가 참여하였으며 과제수행 건수는 299건에 이릅니다.

중소 부품사와 조인트벤처 운영 포스코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소 부품사와 해외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7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인적역량 향상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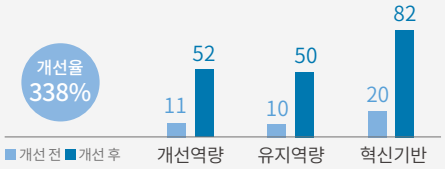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및 중소기업 경영진 토요학습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예정자 양성 및 재직 근로자 육성 프로그램인 직업 훈련 컨소시엄에도 포스코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4년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교육 과정을 수료한 중소기업 관련자들은 그룹 차원으로 총 55,715명입니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매월 1회 외주파트너사와 우수 중소기업 대표 등 경영진에게 대내외 경영환경 이슈 사항과 포스코그룹의 경영 전략을 공유하고 경영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경영진 토요학습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산업혁신운동 3.0 포스코는 정부의 산업혁신운동 3.0에 동참하여 2013년부터 산업계 전반에 대한 혁신 활동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혁신운동 3.0이란 70~80년대의 공장새마을운동(1.0)의 자조정신을 계승하고, 대기업과 1차 중심의 동반성장(2.0)을 2·3차 협력기업까지 확대(3.0)하여 경영혁신, 작업환경 및 생산공정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체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촉구하는 운동입니다. 포스코는 2014년 1,2차 거래기업은 물론 미거래기업까지 총 170여개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업혁신 3.0 우수사례 ▶ 갑산메탈 (대표:김태헌, 경기 김포)

내용 | QSS 혁신역량지수 향상 : 14점 → 61점



핵심과제 성공적 수행
·가공기 품목 교체시간 단축 : 60분 → 25분
·개선률 58%, 재무효과 7천만원/년

성과 | 갑산메탈 대표의 산업혁신 3.0 감사편지

"지저분하고 위험요인 가득했던 열악한 공장이 포스코 QSS활동으로 수억원의 자금지원보다 더 큰 효과를 거뒀음"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취약부분이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포스코 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 지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차 및 2~4차 희망 중소기업과 포스코그룹 추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안전, IT, QSS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45개사에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경영닥터제 포스코는 협력 중소기업, 전경련 경영자문단과 함께 삼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영닥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닥터제란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의 전직 CEO 및 전문 경영인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중소기업 경영 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2014년 상반기에 11개사, 하반기에 4개사 등 총 협력중소기업 15개사가 경영닥터제에 참여하였습니다.

우수사례 ▶ 2014년 1기 경영닥터제

중소기업	광우
참여동기	장기적 성장 기반이 부족하고 사업 확장 전략과 해외 시장 개척 및 해외고객 창출이 필요하나 해외 인프라 및 정보가 부족하여 컨설팅에 참여하게 됨.
추진내용	동남아 실수요업체 조사 및 영업 추진, 일본 수출 실적을 활용해 동종업체 조사 및 공급 추진. 터키,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의 수요업체 조사
기대효과	해외수출증대 195만불(2013) → 300만불(2015) 예상, 나라별 수출마케팅시스템 구축

수출비즈멘토링 2014년 4월 전경련 경영자문단과 함께 품질과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진출 경험이 부족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비즈멘토링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수출비즈멘토링은 해외 진출에 필요한 현지시장 정보 및 수출마케팅 노하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별 전담 자문위원을 1:1로 매칭하여 집중 자문을 실시합니다. 2014년에는 공급사와 고객사, 외주 파트너사 각 1개사 등 총 3개 중소기업이 수출비즈멘토링에 참여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소통강화 프로그램

포스코 협력기업 채용관 운영 포스코는 2009년 3월 대기업으로는 최초로 협력기업 채용관을 개설하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우수 인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포스코그룹 협력기업 24개사에 35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참여 중소기업이 잡월드 사이트를 통해 인재를 채용한 경우 기업은행 수수료 또는 대출이자 감면(채용 1인당 100만원) 혜택을 받으며 잡월드 사이트의 구인 구직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포스코윙크) 포스코는 1차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 활동의 온기가 2차 협력기업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2013년 포스코윙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포스코윙크란 포스코의 동반성장 활동을 1차 협력기업에서 2차협력기업으로 확산하고 1~2차 협력기업간 대금 결제 조건을 개선하여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1,865개사가 1~2차 협력기업 간 공정협약체결 및 대금 지불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포털 구축 2014년 10월 동반성장 포털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동반성장포털은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아 고객사, 공급사, 정부 유관기관 등 동반성장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손쉽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조회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 stop) 서비스제공 사이트입니다. 동반성장 포털은 동반성장 비전·철학, 동반성장 프로그램 안내, 과제신청·우수사례, 소통의 장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중소기업과 포스코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외주 파트너사 의료시설 이용 지원 포스코는 제철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외주파트너사 직원들이 포스코의 의료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람 중심의 동반성장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기, 복통, 가벼운 외상 등 일반 진료는 물론이고 필요 시 물리치료까지 지원합니다.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포스코패밀리사 전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4년에는 6,076명이 포스코 의료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동반성장 활동실적 임원평가에 반영 포스코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동반성장 활동실적을 임원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포스코 및 10개 그룹사가 참여했으며 동반성장·공정거래 협약실적 및 동반성장지원단 활동, 동반성장 우수과제 수 등을 평가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동반성장 추진 계획

포스코는 2015년에도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협력 중소기업, 벤처 및 2~3차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벤처 및 2~3차 중소기업으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 포스코는 개방형 소싱제도 운용으로 2~3차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벤처 창업의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윙크를 활용해 포스코와 1차기업 간의 동반성장의 온기가 2차기업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2013년 도입한 산업혁신운동 3.0 운영을 강화해 포스코 협력기업 뿐만 아니라 미거래 기업의 생산성 향상도 지원해 포스코 고유의 혁신활동인 QSS가 전 산업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 포스코는 2014년 동반성장포털을 구축해 포스코 거래기업 뿐 만 아니라 미거래 기업, 일반인들도 쉽게 포스코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포스코 홈페이지 신문고 내 중소기업 상담센터, e-Procurement 내 열린구매상담실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성과공유제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 포스코 대표 프로그램인 성과공유제에 대해서는 재무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는 등 시혜적 동반성장이 아닌 상호 가치 창출형 동반성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테크노파트너십,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특허지원 및 기술임치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VENTURE SUPPORT PROGRAM 벤처 지원 프로그램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포스코는 2011년 11월부터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IMP: Idea Market Place)로 대표되는 벤처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는 청년 창업 및 초기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와 '엔젤 투자자(Angel Investor)'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우량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엔젤 투자자의 역할은 창업 초기나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라는 벤처 지원 조직을 구성해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 수립, 투자 및 성장관리까지 벤처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의 전주기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 부족으로 벤처기업의 풍부한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펼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아이디어의 공모 및 발굴·심사를 통해 우수한 업체를 선별한 뒤 아이디어 육성캠프, 전문가 멘토링과 같은 고유의 벤처 지원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에서 투자자에게 소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까지 벤처기업의 성공을 위한 단계별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는 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인이 다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재기중소기업 개발원의 힐링캠프와 중소기업청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수료한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멤버십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 제공 및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이와 함께 청년과 여성 CEO 등 투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의 주요실적으로는 포스코와 미래창조과학부, 벤처기업협회와 벤처기업들의 공동 발굴 및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중기청 창업기획사 선정을 통해 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 투자기업들에 대해 정부의 사업운영비 (R&D, 마케팅 비용 등)를 함께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벤처 지원과 포스코 역량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포스코와 포스코패밀리의 신수종 사업과 연관된 벤처기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개최 시 포스코패밀리의 경영진이 참여해 신수종 사업의 가능성이 높거나 우수 기술을 보유한 초기 벤처기업을 발굴, 이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2011년 6월에 열린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으로 제1회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를 2011년 10월 27일 개최했으며, 2012년에는 3회, 2013년 2회, 2014년 3회에 걸쳐 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14년까지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멘토링 지원을 받은 회사는 90개사이며, 총 39개사에 65.2억 원의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외부 2차 연계투자 및 R&D 지원금은 약 200억 원에 달합니다.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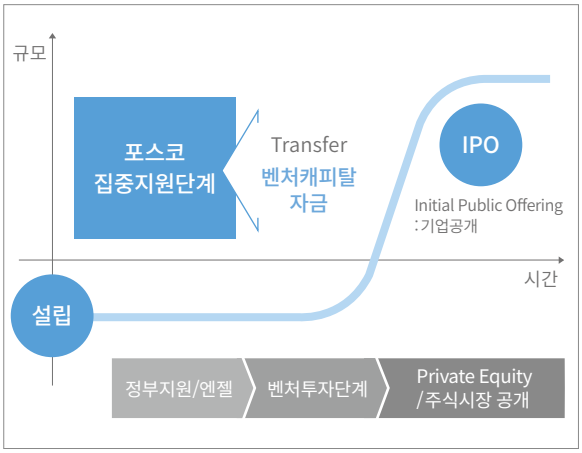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2011년 출범)

추진배경	사업발굴
포스코 Seed 영역 내 핵심사업 후보군 발굴	Seed 사업 연계
우리사회 청년실업 해소와 기업가 정신 제고	
동반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창조경제 활동 강화

포스코 역할

창업초기 스타트업 및 아이디어시드(Seed) 단계에 집중 지원하는 엔젤투자자 역할과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역할 동시 수행

벤처캐피탈 자금의 초기벤처 투자 유도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운영 절차

공모/추천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투자 및 사후지원 하는 Full Package형 프로그램

공모 및 선발	멘토링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투자	사후관리 / 지원
· 연 2회 정기모집 · 전 산업분야 · 서류/합숙심사	· 6~10주 과정 · 사내외 전문가 멘토링 · 비즈니스모델 정립	· 발굴기업 IR · 외부투자자 연계 · 시제품 전시	· 기업가정신,사업성 고려 투자 결정 · 5천만원~5억원투자 (지분율20%미만)	· 현장방문, 실적 점검 · 투자자금 유치지원 · 마케팅 연계 지원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운영 현황

구분	날짜	장소	참여기업	비고
출범식	2011.10.27	포스코센터	-	벤처지원 프로그램 출범식
1회	2012.02.23	포스코센터	7개사	
2회	2012.07.18	포스코센터	6개사	
3회	2012.11.30	포스코센터	12개사	재기중소기업 2사 포함
4회	2013.04.30	포스코센터	13개사	재기중소기업 3사 포함, 청년창업센터 연계 지원

구분	날짜	장소	참여기업	비고
5회	2013.09.24	송도 트라이블	14개사	인천시와 연계 진행, 실전창업리그 연계 진행
6회	2014.01.15	포스코센터	15개사	
7회	2014.06.26	포스코센터	9개사	
8회	2014.11.25	포스코센터	9개사	미래부, 벤처기업협회와 MOU, 창업기획사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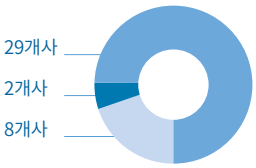
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 투자기업 실적

2011년부터 4년간 39개사 65.2억 원을 지분투자방식으로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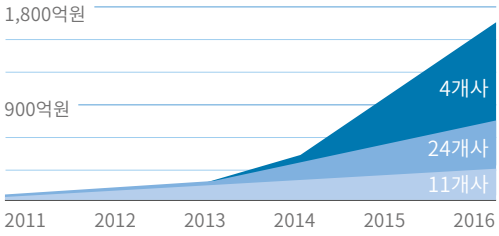
연도별	산업분야별	창업분야별
2012년 11개사 - 31.5억 원 2013년 24개사 - 31.2억 원 2014년 4개사 - 2.5억 원	제조 17개사, ICT 18개사, 의료/바이오 4개사	청년창업 23개사, 여성창업 8개사, 재창업 4개사, 기타 4개사

지원유형별



- CSR - 청년창업, 여성창업, 재창업 지원
- 공유가치창출 - 포스코-벤처기업간 공유가치창출(Win-win)을 위한 지원
- 성장잠재력

매출성장



2014년
2013년
2012년

매출성장율

490% (예상)	215%	194%
109억 (2014년) ▸ 534억 (2015년)	83억 (2013년) ▸ 179억 (2014년)	53억 (2012년) ▸ 103억 (2013년)

SUPPLY CHAIN CSR COMPETITIVENESS

공급사슬 CSR 경쟁력 향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CSR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CSR을 실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이 가진 CSR 역량을 공급사, 외주 파트너사 등의 협력기업에 전파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가 보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협력기업과 함께 사회에 기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공급사슬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공급사의 행동규범을 제정해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패밀리 서플라이 체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급사 평가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CSR 경쟁력을 공급사슬에 전파해 공급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CSR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 제정 (POSCO Group Supplier Code of Conduct)

포스코는 포스코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6월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을 마련했습니다.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은 UN Global Compact가 규정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기본적인 규범에 공정거래, 품질경영, 동반성장 관련 항목 등을 더해 7개 부문 21개 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행동규범은 포스코그룹과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공급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사는 포스코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e-procurement (www.steel-n.com)를 통해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 포스코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SRM 평가지표 소개

포스코는 구매물품의 공급 시장, 물품 특성, 계약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묶고 소싱그룹(Sourcing Group)을 구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와 거래를 희망하는 공급사의 기본적인 재무 능력, 설비 규모 등 기본 요소를 심사해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공급사를 해당 소싱그룹에 등록하고 물품에 대한 입찰 또는 협상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급사의 거래 실적은 소싱그룹별로 분기 단위로 분석, 평가해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공급사 성과평가(SRM: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는 신용, 가격, 품질, 납기, 협조도, 안전/환경 등으로 구성했으며 기타로 가감점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 CSR 요소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부분을 포함합니다.

사회공헌활동은 회사별 봉사시간이 분기 50시간 이상 되는 기업에 100점을 부여합니다. 기부금 역시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해 반영하고, 사회공헌 관련 포상 및 회사 이미지 제고 실적을 가점항목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업이 공급사 성과평가에서 우수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동반성장 정책과 더불어 포스코의 2·3차 공급사도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차 공급사를 독려합니다. 공급사 성과평가 기준에 2·3차 공급사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을 가점항목으로 반영해 포스코패밀리 밸류 체인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 및 환경 분야 역시 공급사 평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KOSHA18001 등과 같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취득 건수를 가점에 반영합니다.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 요약

직원의 기본 인권 존중	자발적 취업, 아동근로 금지, 차별 금지, 근무 시간 요건 준수, 임금관련 법 준수, 인도적 대우
안전 및 보건	안전한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 준수
윤리 및 공정거래	비즈니스 청렴성, 윤리실천 특별약관의 준수, 공정거래 준수, 신뢰 문화 구축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 보호	대외비 정보의 관리와 보호, 지적재산 보호
품질경영	품질관리, 변경관리, 공급사 상호 품질관리
동반성장과 사회공헌	동반성장, 사회공헌

포스코공급사 행동규범 http://www.steel-n.com

또한 안전재해 발생 건수와 제철소 내 수칙 위반 건수를 감점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ISO14001 등의 환경인증 보유, 녹색구매 금액, 친환경 상품 제안, 탄소배출량 관리를 공급사 평가 기준에 반영해 환경친화적인 공급사슬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급사 평가·분석을 통해 분기 및 연간 단위로 보고서를 발간, 공급사에 제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공급사에 제공하는 보고서는 Excellent, Good, Poor 3개 등급으로 평가하는데, 장기적으로 Poor 등급을 기록한 공급사에는 거래 정지 등의 입찰제한 조치를 합니다. 연간 단위 보고서에서 Poor 등급을 기록하면 1년간 거래 정지와 소싱그룹 등록을 취소하므로 그 이후 다시 소싱그룹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규 등록과 동일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Excellent로 평가한 공급사 중 포스코 우수공급사(POSCO Honored Partner)를 별도로 선발해 중요 자재 계약 시 우선협상권, 각종 보증금 납부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렇듯 포스코는 공급사 성과평가를 실시해 각 공급사의 강약점을 피드백함으로써 공급사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공급사를 지원하거나 퇴출하는 기준으로도 활용해 포스코의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사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기준을 두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거나 민원을 야기한 공급사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합니다. 포스코의 윤리 지침을 위반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최고 영구 제재까지 가하는 등 엄중히 제재해 사회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기업이 포스코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급사의 비윤리 행위는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며, 포스코 그룹사에서 비윤리 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 2년간 매 분기평가 시 15점 감점 등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패밀리 SRM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신용	신용등급
가격	투찰가격, 견적신뢰도, 적정투찰률
품질	PosQC 등급, 불량률, 불량금액, 하자율, 하자금액
납기	입고실적금액
협조도	사회봉사실적, 성과공유제 과제 건수, 성과공유제 재무성과 금액, 2~4차 공급사 대금 지급기일, 동반성장협약체결, 자재 사용부서 만족도
환경/안전	친환경품목 납품실적 금액, 친환경마크 인증, ISO 14001 인증 등
가점	금융지원실적 (2~4차): 0.25점/건, 최대 2점
	긴급돌발 지원: 0.25점/건, 최대 2점
	도면 제안: 0.25점/건, 최대 2점
	대금지불모니터링 참여율: 포스윙크로 60일내 지급 (50% 이상/만점: 3점) *연간평가
	안전보건경영 인증: 2점
	CP도입: 0.25점 *연간평가
	대외이미지 제고실적: 최대 1점
감점	정도경영실 지적: 2점/ 건
	안전사고 (중대재해: 3점/건, 일반재해: 1점/건, 안전위반: 0.25점/건)
	CSR저촉행위: 3점/건
	패밀리 비윤리행위 공급사: 매 분기 15점/2년간

ENVIRONMENT

환경

ENVIRONMENT MANAGEMENT 환경경영

포스코는 환경윤리적 관점에서 기업활동을 실행함으로써 진정성있는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글로벌 패밀리 환경경영

포스코는 2010년 12월 '포스코패밀리 글로벌 환경 경영 방침'을 선언한 이래, 해외 사업장을 포함한 출자사, 공급사, 외주 파트너사와 함께 환경경영체제를 구축, 실천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윤리적 관점을 고려해 실행함으로써 지속가능사회의 진정성있는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포스코패밀리 환경경영 비전/전략

비전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경영의 글로벌 스탠더드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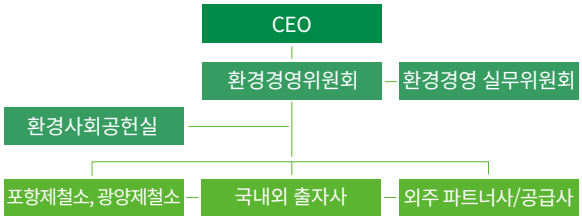
전략

- 통합 환경경영 체제 구축
-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 열린 커뮤니케이션

환경조직

포스코는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국내외 출자사, 외주 파트너사, 공급사 임원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위원회는 포스코패밀리 글로벌 환경경영의 세부 추진계획과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등 포괄적인 환경경영을 점검하며,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국내외 주요 환경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하여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환경·에너지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합니다. 환경·에너지 중장기 경영전략안은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경영위원회에서 전사 중장기 경영전략안과 함께 심의, 의결되며 매월 최고경영자 주재로 열리는 전사 운영회의, 임원회의에 보고됩니다. 또한,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외 정책 및 경영 동향을 분석하고 환경·에너지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위원회 조직도



환경경영위원회 정기회의

구분	환경경영위원회	환경경영실무위원회
개최 시기	1회/년	2회/년
구성	위원장:CEO 위원:패밀리사 CEO	위원장:환경사회공헌실장 위원:패밀리사 환경경영 담당임원

포스코패밀리 환경경영 방침 전문

포스코 패밀리는 환경을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기술 개발 및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환경 건전성을 확보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 ISO 14001을 기반으로 패밀리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다.
-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전 과정을 고려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청정 생산 공정 도입과 최적 방지 기술을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자원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고 생태 효율성을 향상한다.
- 청정 에너지 사용과 녹색기술 적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도한다.
- 환경경영의 성과를 공개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

주요 환경경영 프로그램

환경 교육 실시 포스코는 포스코 및 패밀리사 임직원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환경경영 교육은 외주 파트너사, 공급사 임직원에게도 공개되어 전 임직원이 환경개선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및 외주 파트너사 환경담당자에게 ISO 내부심사 교육을 매년 제공하고 있으며, 패밀리사 환경담당자에게는 ISO 14001 국제심사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환경경영 심사활동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환경정보 교류회 운영 포스코패밀리 환경경영 구현의 일환으로 포스코 및 포스코패밀리 환경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환경기술부회를 개최하여, 포스코패밀리의 환경 이슈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토론, 초청강연 등을 통해 환경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통·화합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밀리 환경경영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패밀리사 환경담당자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대상 시행 포스코는 환경경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환경성과를 거둔 패밀리사를 대상으로 '환경경영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체계 및 운영성과와 환경·에너지분야 개선활동의 혁신성, 활용성 및 노력도를 평가하여, 우수 패밀리사는 환경경영위원회에서 CEO가 포상합니다. 평가단은 재무투자본부장을 평가위원장으로 하여, 환경사회공헌실, 철강기획실,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리스크 대응

환경리스크 관리 포스코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에 의한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외 환경 규제 및 환경 이슈를 기회 요인으로 규명하고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중장기 사업 전략 및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검토, 설계·시공, 운영의 세 단계에서 환경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환경총괄부서와 투자운영부서가 상호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 뒤 각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단계별 환경리스크를 평가·진단하게 됩니다. 이에 2014년부터는 사업 기획·투자·건설 단계에서부터 환경전담부서의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투자규정을 신설하여 신규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 규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정책적, 경제적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코는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잠재적 사업 리스크를 규명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인 정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사업장 진단 포스코는 패밀리 차원의 환경리스크 저감 대책을 강구하고 환경리스크 관리와 화학물질 운영 프로세스를 강화하였습니다. 패밀리사 사업장 환경 진단 체계 강화를 통해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특정 수질·대기 유해물질 등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테마심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사업 특성별 환경영향 및 리스크 정도에 따라 내부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는 환경경영위원회에서 보고되며, 그 결과에 따라 환경전략 및 목표를 수정하여 효율적인 환경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공급망 관리 포스코는 중·소 패밀리사의 자발적 실행과 참여를 기반으로 외주파트너사와 공급사의 환경경영 활동과 환경개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패밀리사를 대상으로 포스코형 환경경영 인증제도인 Green-PCP를 적용하여 2014년까지주요 13개 외주 파트너사 및 공급사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Green-PCP제도를 통해 환경경영을 공급사슬 차원으로 확산하여 포스코패밀리 통합환경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환경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ENVIRONMENTAL PERFORMANCE 환경성과

포스코는 환경경영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환경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포스코는 ERP를 활용한 환경시스템 POEMS (POSCO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에서 더 나아가 웹 및 모바일기반의 통합 환경성과관리 시스템인 '新POEMS'를 구축했습니다. 新POEMS는 대기-수질-부산물-토양지하수-화학물질-경영자 종합정보-환경회계의 7개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전사 환경 데이터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 및 광양제철소에서 측정된 대기, 수질 등 모든 환경 데이터는 TMS (Tele Monitoring System)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청과 환경부에 전송되고 있으며, 주요 환경 지표는 사외 환경 전광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996년 환경경영 국제표준규격인 ISO14001 인증을 획득한 이래, 매년 사외기관으로부터 적합성을 검증 받고 있으며, 매년 2회 이상 환경부서가 주관하는 내부 검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최고 경영층에 보고되며, 그 결과에 따라 환경전략 및 목표를 수정하여 효율적인 환경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주요 환경설비 투자내역 (단위:억 원)

2014년 환경비용

(단위: 십억 원)

	2012	2013	2014
환경설비 운영비/자원화비	921	986	924
감가상각비	146	150	158
일반관리비	35	35	36
환경R&D	13	17	12
에너지회수비	34	33	46
합계	1,149	1,221	1,176

물 관리

포스코는 물 자원 부족이 전세계적으로 리스크임을 인식하여, 재활용과 대체 용수 개발을 통해 물 부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자 합니다.

포항제철소는 용수관리의 최적화와 재활용 확대를 목표로 용수관리체계 및 공정 개선과 재활용 증대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수요증가에 대비해 정수생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취수원을 다각화하는 등 용수 공급의 잠재 리스크를 발굴해 예방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포항시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U/F 및 R/O공법으로 재처리하여 일 8만 톤의 신규 취수원으로 도입하였고, 기존에 공업용수로 공급받던 1일 약17만 톤의 댐수는 8만 톤만큼 계약량을 감축하여 지역 주민이 용수로 이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물 부족 해소에도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도가 낮은 우수, 폐수 및 생활오수는 필요시 적정처리를 거쳐 도로살수 및 공정수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중장기 설비 신규증설 및 생산량 증가에 따른 용수사용량의 급증 및 향후 국가적인 물부족 문제의 사전대응을 위한 용수절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의 시설을 운영하여 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철저한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6천 톤에 달하는 재활용수 사용으로 용수사용량을 감소시키고, 광양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수 방류량 최소화 활동을 지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크스공장 벨트컨베이어 세척수 활용 등 공장별 재활용수의 신규 활용처를 발굴하고, 공장 신증설에 따른 용수 사용량증가를 예상하여 재활용수의 사용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최종방류수의 COD, T-N 등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법기준 대비 20~8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장별로 용수 절감 아이디어를 발굴, 실행하는 등 임직원의 용수 절감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철강협회에서 주관하는 'Water Management Project'(2007~2011)에 참여하고, 세계지속가능 발전기업협의회(WBCSD)의 공급망에 대한 물 관리 가이드라인 'WBCSD Water Tool' 등의 활용을 통해 물 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물 정보공개 프로젝트(CDP Water Disclosure)에 참여해 포스코 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업취수 및 방류량 원단위

(단위: m^3/t-S)

	2012	2013	2014
용수사용량	3.58	3.71	3.67
방류량	1.69	1.61	1.62

최종 방류수 COD 농도

(단위: mg/ℓ)

	2012	2013	2014
배출농도	8	9	9
법기준(광양)	70	70	70
법기준(포항)	90	70	90

최종 방류수 T-N 농도

(단위: mg/ℓ)

	2012	2013	2014
배출농도	15	15	15
법기준	60	60	60

대기 관리

포스코는 제철소와 주변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법 기준보다 낮은 철저한 대기관리를 위해 제철소 부지 경계 및 인근 지역 대기질 측정소와 공장 실내외 먼지측정기를 추가로 운영하고 지자체와 사업장 간의 자발적 환경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광양만권 1단계 자발적 환경협약*(2006~2010년)의 후속으로 환경부, 광양만권 지자체, 광양만권 소재 17개 사업장과 함께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광양만권의 대기오염물질을 2008년 총 배출량(15.4만톤)의 13%인 약2만 톤을 저감하는 2단계 자발적 협약(2012~2016년)을 체결하고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저감을 위해 설비별 목표농도를 부여하여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요 저감시설인 소결배가스 청정설비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살수배관 교체 및 방풍림 지역 확대, 신규 이송시설 밀폐화 등 본격적인 비산먼지 저감활동을 추진하는 등 광양시의 '푸른하늘 녹색도시' 정책에 발 맞추어 '비산먼지저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하역·야적·이송·수송 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단계적으로 저감할 계획입니다.

*1단계 협약: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2003년 총 배출량(9만 1,439톤) 대비 7만 610톤 (2006~2010년 평균)을 배출해 2만 829톤(22.8%)을 감축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단위: kg/t-S)

	2012	2013	2014
먼지	0.11	0.10	0.10
황산화물(SOx)	0.58	0.64	0.56
질소산화물(NOx)	0.88	0.91	0.89

포항제철소는 대기질, 미세먼지와 냄새물질 자동측정기를 운영하고 무선전송 및 스마트폰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환경부서와 조업부서 간에 감시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원료 선형야드(9.5만톤)와 석탄저장용 사일로(18만 톤)를 설치하고, 선강지역을 중심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등 비산먼지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숲속의 친환경 제철소'를 가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ASE STUDY

마그네슘 제련공장 토양 정화작업 진행

포스코는 지난 2013년 6월 강릉 마그네슘 제련공장에서 발생한 토양오염사고의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사고 발생이후 긴급 차단벽을 설치하고, 오염 지하수를 하루 평균 약 300~400톤 양수한 후 전문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여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법규에 따른 지하수오염 정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오염지역 및 주변의 지하수 수위와 수질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부터는 마그네슘공장의 토양세척설비 및 고도 처리공정을 갖춘 수처리설비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 오염 지하수의 처리량을 하루 최대 2,000톤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며, 심하게 오염된 토양도 대부분 굴착하여, 약품으로 세척한 후 검사를 거친 깨끗한 토양으로 다시 되메움 하여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부산물 자원화

자원 관리 철강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을 부산물이라 통칭합니다. 포스코는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부산물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포항과 광양 제철소에서는 총 2,411만 톤의 부산물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고로슬래그 49%, 제강슬래그 28%, 더스트와 슬러지 15%, 기타 부산물이 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부산물의 98.4%는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고로슬래그와 제강슬래그는 발생량 전체를 시멘트 원료나 천연골재의 대체재, 그리고 규산질 비료의 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고로슬래그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모든 고로에 수재슬래그 생산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로슬래그의 79%를 수재슬래그로 생산하여 골재 대체재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강슬래그는 토목공사에 필요한 골재로 활용하는 동시에 해양 생태 복원을 위한 바다숲 조성 등의 새로운 용도를 개발해 수요를 넓히고 있습니다. 슬러지, 더스트, 그리고 기타 부산물은 제철공정에 재활용하고 있으며 활용 용도를 마련하지 못한 부산물은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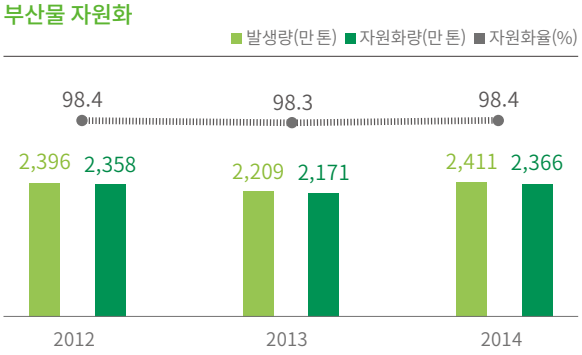
친환경 슬래그 시멘트 활용 고로에서 쇳물과 함께 나오는 용융 상태의 슬래그를 수재 설비에서 물로 분사해 급냉시켜 모래와 같은 형태로 만든 수재슬래그는 시멘트와 유사한 화학 조성을 가지므로 미분쇄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재슬래그를 시멘트 클링커 대체재로 활용하면 석회석과 같은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시멘트 소성에 쓰이는 에너지와 CO_2 발생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시멘트사에서는 시멘트를 제조할 때 중량의 5% 범위에서 슬래그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멘트에 미분쇄한 슬래그를 추가로 혼합한 슬래그시멘트는 내염해성이 우수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열을 저감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어 해양콘크리트, 매스콘크리트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4년 901만톤의 수재슬래그를 시멘트 대체재와 슬래그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여 약707만 톤의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포스코는 단지 시멘트 원료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패밀리사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스코건설, 그리고 포스화인과 함께 친환경 고성능시멘트인 포스멘트(PosMent)를 개발해 건설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스멘트는 기존의 슬래그 시멘트에 비해 슬래그 사용비율을 높이면서도 강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개선한 슬래그시멘트로서 시멘트사와의 협업을 통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대형 구조물이나 해안구조물 등에 적용가능합니다. 포스코는 2014년 137만톤의 포스멘트를 건설 현장에서 활용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용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수재슬래그 및 슬래그파우더 해외 수출 포스코는 2011년 연간계약을 통해 수재슬래그를 수출한 이래 2012년부터는 판매지역을 동남아시아 4개국으로 확대하고 2014년 총 46만 톤을 수출하였습니다. 특히 슬래그파우더 제조 전문 패밀리사인 포스화인을 통하여 연간 16만 톤의 슬래그파우더를 수출함으로써 원료와 제품 모두 수출할 수 있는 판매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수재슬래그의 수출을 통해 국내 슬래그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는 동시에 해외에서의 에너지 절감, CO_2 저감, 천연자원 보존 등 지구환경보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산물 활용기술 개발 포스코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양이 많고 종류가 다양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재활용 용도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스코는 일찍이 부산물을 친환경자원으로 인식하고 최대한 높은 부가가치를 갖도록 하기 위해 2007년부터 패밀리 차원의 부산물 수익성 향상 협력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부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과 유관 산업체와의 협력, 패밀리사와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포스코패밀리 고유의 부산물 활용모델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와 패밀리사의 부산물 활용에만 그치지 않고, 타 업종 산업체로 활동 영역을 넓혀 부산물의 자원순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물 자원화



2014년 부산물 자원화 현황

(단위:만 톤)

고로 슬래그	시멘트용	902
	도로 및 토목용	242
	비료용	35
	기타 활용	1
제강 슬래그	도로 및 토목용	425
	제철 원료	181
	벽돌, 골재	11
	시멘트, 기타	48
더스트 슬러지	사내 활용	220
	사외 활용	108
기타부산물		193

에너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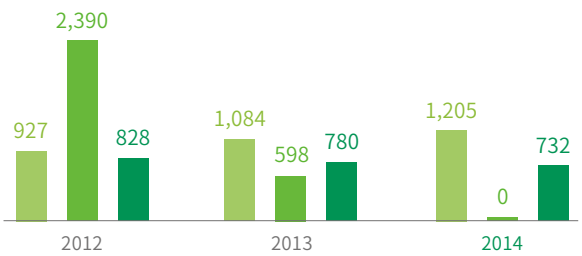
에너지 사용 개선 포스코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으로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강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에 여유가 있고, 단가가 비교적 낮은 심야전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압연 조업스케줄을 조정해 국가 전력사용의 균형과 회사의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철소의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에너지절감 TFT 활동을 통해 제철소 에너지 낭비요소를 찾고, 성공적인 과제의 확산을 통해 에너지사용 개선 및 효율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에너지공급에서 수요관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발 맞추어 에너지사용효율 향상을 위해 공장 및 건물에 1.5MW 급 ESS(Energy Storage System)를 설치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시운전중입니다.

국가 전력정책 이행 최악의 국가 전력수급 위기였던 2013년 하절기에 두 제철소와 포스코특수강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기로 조업중단, 조업스케줄 조정과 같은 극단적인 전력사용관리와 임직원의 100W 절전운동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사용량의 50% 인 약 39만kW의 전력사용을 줄였으며, 이는 약 10만 가구의 한 달간 사용량에 해당합니다. 국가 기본 에너지계획에 따른 분산전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는 이미 국내 최초로 14년 자가발전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가발전 증대,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절감 프로세스 및 기술 개발 2012년 포스코는 아시아 철강업계 최초로 ISO 50001 국제규격 인증을 받아, 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2013년 에너지절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PDCA의 체계적인 에너지절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및 포스코 ICT와 함께 제철소 산소공장에 적용을 완료한 스마트 인더스트리(Smart Industry)* 사업을 타 제조공정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철공정 중 발생하는 폐열의 최대회수를 위해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의 중저온 폐열 회수설비를 제선, 제강, 열연 등 각 공정에 적용하여 실증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인더스트리: 산업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비롯해 가스·열 등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의 흐름과 사용 현황을 관리해 에너지 절감 및 CO_2 배출을 감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에너지 사용량



* 중유사용 Zero 화로 2014년 중유사용 없음.

화학물질 관리

화학물질 운영 프로세스 강화 포스코는 화학물질이 지역사회의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 제철소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 차원의 유해화학물질 운영 프로세스를 강화했습니다.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근원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하거나 취급량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부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늘리고 유해화학물질 비상대응반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설에 화학물질 누출 감지시스템을 설치, 실효성을 파악한 후 제철소 전체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단위: 톤)

	2004	2012	2013	2014
포항	140	32	32	41
광양	80	41	37	51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대응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EU에서 발표하는 위험물질 사용지침과 SVHC[1] 후보 물질의 최신 목록을 참조해 모든 소재별로 MSDS[2], REACH[3], RoHS[4], PFOS[5] 등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포스코 전자거래시스템(www.steel-n.com)에 등록해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 고위험성 우려물질. 1톤 이상 제조/수입되고 신고 대상 물질 목록에 포함된 완제품 내 고위험성 우려 물질(SVHC)이 중량 기준 0.1%를 초과한다면 완제품 제조자/수입자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신고해야 함.
2)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 물질 안전보건 자료 프로그램
3)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 EU의 신화학물질 관리 제도
4)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EU에서 발표한 특정 위험물질 사용 제한 지침
5) PFOS(Perfluorooctanoic Sulfonate)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인 포말형 소화약제

BIODIVERSITY POLICY & ACTIVITIES

생물 다양성 정책 및 활동

생물다양성 정책

포스코의 생물다양성정책은 포스코 윤리규범(Code of Conduct) 실천지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코 생물다양성정책 ▶ 윤리규범 실천지침

5.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① 환경경영체계 구축
- 환경경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성과 및 이슈를 공유하고 환경보존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 거래회사와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거래회사가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한편, 지역사회 환경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②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친환경생산 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③ 기후변화 대응
- 화석연·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④ 환경과 생태계 보호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company/ethics/s91a3000070c.jsp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해양생태계 보전 포스코는 철강슬래그를 활용하여 해양생태계 복원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갯녹음 해역을 복원하는데 사용되는 '트리톤(Triton)' 제품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해조류와 어패류 등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재료인 철강슬래그는 해양생태계에 유용한 칼슘과 철 등의 미네랄 함량이 높아 해조류의 성장 및 광합성을 촉진시키고 오염된 퇴적물과 수질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트리톤으로 조성된 바다숲은 슬래그 탄산화 및 해조류 광합성에 의해 CO_2를 고정하는 특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해양수산부와 2007년 해양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10년 바다숲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맺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과 협력하여 바다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수심형 신규 바다숲 모델 개발, 기존 바다숲 관리 및 효과 조사 등 수산 자원 조성을 위해 정부, 민간(어촌계), 학계 등과 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트리톤 바다숲 조성

2010년	여수엑스포 바다숲
2011년	경남 통영 및 경북 울진
2012년	강원도 삼척, 경북 구룡포
2013년	경북 포항시 구만리
2014년	영덕군 바다숲

*트리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뿔고동 나팔을 불어 물고기와 돌고래를 부르고, 바다숲을 원래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철강슬래그를 골재로 사용한 저탄소형 어초 브랜드이기도 하다.

글로벌 포스코 생물다양성 활동 포스코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및 비정부기구,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국내외 사업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산림정비 및 잡초제거로 '걷고 싶은 숲'을 만드는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중국 청도 지역에 위치한 설가도 관광휴양지에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녹화 사업을 추진, '포스코 동산'을 만들어 시민 및 관광객에게 푸른 녹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지역 고유의 수종보호를 위한 생태 식물 보존 화단 복원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브라질 CSP에서는 90종에 달하는 야생동물 및 식물군을 구조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멕시코에서도 포스코 공장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멸종 위기의 동식물들을 보다 적합한 환경으로 이전하는 등 포스코는 전세계에서 동식물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도서 발간 포스코는 국내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멸종 위기종 생물을 대상으로 도서 발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라져가는 위기에 처한 생물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활동으로, 2014년 첫 번째 대상으로 수리부엉이를 선정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 도서 발간 '수리부엉이, 사람에게 날아오다'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가해 그 동안의 경험과 에피소드를 소개한 도서 발간을 통해 생물종과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앞으로도 환경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COMMUNICATION ON ENVIRONMENT

환경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환경대담 환경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 및 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국제적 환경 이슈 및 국내 환경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스코는 '환경대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학계 및 환경단체 등의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하여 포스코의 사업 및 활동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더 나아가 정부 정책과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환경복지와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환경복지'의 의미와 각계의 기대,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환경대담에서 토의된 내용은 포스코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 포스코는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자발적인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 각층으로 인식 전환 확산을 시도하여, 기업과 사회가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중립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2009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동아리, 시민단체,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국내외 기업 최초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아이디어를 제안한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탄소중립에 관한 지식과 의견을 직접 나눌 수도 있습니다.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carbonzero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oscoCarbonzero

그린워크 '그린워크' 캠페인은 2011년부터 포스코패밀리 임직원과 가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실천하는 포스코의 대표 환경 운동입니다. '걷기, 끄기, 줄이기, 모으기'로 대표되는 그린액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뉴스와 전문가 칼럼, 그린포토, 그린에세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시민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참여범위를 사외로 확대하고, 임직원의 활동을 통해 적립된 그린코인을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국내외 협력활동

포스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국내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녹색성장 선도기업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국철강협회 환경정책협의회** 환경정책 변화 대응 및 자발적 환경개선 도모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현안 논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대응 및 교류
	해양수산부 '바다녹화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상호협력' 체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그린워크 프로그램 협력
	환경운동연합 생물다양성 도서 발간 프로젝트 협력
국외	**세계철강협회 환경정책협의회** 세계 철강사와 환경, 기후변화 정책 대응 및 정보교류
	동남아철강협회 환경정책분과위 동남아 철강사와 환경, 기후변화 정책 및 기술공유

환경정보 공개 및 수상실적

포스코는 1995년도 최초 환경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현재 지속가능성보고서, 홈페이지, 포스코신문 등을 통해 환경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2010년부터는 탄소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지속적인 환경경영의 노력을 평가 받아 환경부문에서는 2년 연속 철강업계 최고점을 기록하며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인 로베코샘 다우존스지수에 10년 연속 우수기업 및 Global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CLIMATE CHANGE

기후변화

CARBON MANAGEMENT 탄소경영

탄소경영 리스크 & 기회 관리

관점·접근방법 기후변화는 사회 각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메가트렌드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경쟁우위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기후변화대응과 탄소경영활동이 중대한 리스크인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회 요인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를 긍정적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프로세스 포스코는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요인을 시의적으로 규명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를 위해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명한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은 전사 리스크 관리규정에 따라 전사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다각도로 분석되며, 그 결과는 포스코 중장기 전략에 반영됩니다. 또한 투자사업 의사결정시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리스크가 예상되는 사업은 관련 전문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포스코 투자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 대책활동 결과는 CEO 주재로 년 1회 포스코패밀리 환경경영위원회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 전사 CO_2 및 에너지 관련 지표는 매월 전사 운영회의를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코의 탄소경영 리스크 및 기회관리 정보는 제3자 검증을 받은 지속가능성보고서와 사업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주요 리스크 요인 기후변화와 탄소경영 활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은 크게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요인, 국내외 탄소규제에 따른 정책적 요인, 기업 평판 등 기타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폭우, 폭염, 폭설, 한파 등과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이상 기후로 인해 설비, 시설 등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원료 수급 차질, 전력 및 용수 확보 곤란, 물류비용 증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양 제철소 풍수해 상황실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유관기관 및 기구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 매뉴얼, 자연재난 관리지침 등의 사내 표준을 통하여 전사차원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을 비롯한 해외 유수 기관들은 기후변화가 인간의 산업 활동 결과물인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UN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참여하는 글로벌 탄소규제 정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11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을 통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병행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기업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포스코는 2014년까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규제를 이행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허용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직접적인 재무부담이 발생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탄소집약업종인 철강산업의 제조원가 상승이나 생산량 감소 등 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적 리스크입니다. 또한 해외의 탄소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포스코 및 패밀리사의 해외 진출에 따른 정책적 리스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코는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잠재적 사업 리스크를 규명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인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구축으로 효과

적인 정책 대응 및 경영층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개발 및 고기능 철강재 개발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정책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늘어나고 이에 부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기업 평판이 훼손되는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경영 현황과 관련하여 CDP, SAM DJSI(Dow Jones Sustainablility Indexes) 등 외부평가에 참여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 등을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책임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주요 기회 요인 기후변화와 탄소경영 활동에 따른 기회 요인도 크게 물리적 요인과 국내외 탄소규제에 따른 정책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와 폭염, 한파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증가 등은 새로운 신사업의 기회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포스코는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갯녹음 해역 복원을 위해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트리톤[1)]' 제품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일반어초로 승인받아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바다숲·바다목장화 등 관련사업에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00여 종의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포스코 그린빌딩을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모델로 활용해 향후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탄소규제를 이행 위해 개발한 저탄소 기술과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량화를 통해 연비개선이 가능한 고장력 자동차강판, 친환경시멘트 대체소재 원료로 공급되는 고로슬래그 등은 이미 포스코의 새로운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환경규제 심화에 따라 일부 철강업체는 포스코의 독자적인 친환경기술인 파이넥스 공법을 구입하여 현재 착공을 준비중이며 다른 철강사도 포스코의 환경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어 향후 환경 및 에너지절감 관련 기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정부 정책에 따라 포스코패밀리의 Smart Industry[2)] 실증사업, 연료전지 및 태양광 발전사업, ESS[3)] 및 Microgrid[4)]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트리톤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뿔고동 나팔을 불어 물고기와 돌고래를 부르고, 바다숲을 원래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철강슬래그를 골재로 사용한 저탄소형 어초 브랜드이기도 하다.
2) Smart Industry : 제철소의 다양한 에너지와 첨단 IT기술을 조합하여 에너지효율 향상, 원가 절감, 설비안정화 등을 실현
3) ESS(Energy Storage System) : 발전소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저장장치
4) Microgrid :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독립형 전력망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융·복합된 차세대 전력 체계

탄소경영 리스크 & 기회 관리 프로세스

1 리스크 및 기회 요인 파악
- 리스크 요인 파악
  - ·물리적 규제적 리스크 요인 파악
  - ·위험수준 및 재무적 영향평가
- 기회 요인 발굴
  - ·탄소시장 및 녹색사업 기회 파악
  - ·추이 판단 및 위험 관리 강화

2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구축
- ·POSCO Carbon Management System 구축(2006)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관리 및 외부검증
- ·탄소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2013)
- ·탄소회계 관리시스템 설계중(2014~2015)

3 기후변화 대책활동 추진
- ·전사 리스크관리와 연계
- ·투자사업 의사결정시 기후변화 리스크 협의
- ·온실가스 감축기술 중장기 기술전략 반영

4 기후변화 대책활동 점검
- ·온실가스 감축활동 추진현황 주기적 모니터링
- ·기후변화 관련규제 및 정적대응 현황 점검
- ·포스코패밀리 녹색 신사업 추진 현황 점검

5 경영층 보고
- ·포스코패밀리 환경경영위원회 보고(년 1회)
- ·CO_2 및 에너지 지표 관련 전사 운영회의 보고 (월 1회)

포스코 탄소경영 리스크 & 기회요인

RISK 리스크 요인	
S	폭설,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설비손실, 원료 및 용수 확보 곤란, 물류비용 증가
S	국내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탄소비용 증가 및 가격 경쟁력 약화
S B	해외시장 진출시 진출국가의 탄소규제 강화
S P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시 철강 및 전·후방산업 산업경쟁력 저하
S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

OPPORTUNITY 기회 요인	
S B	에너지 고효율 철강재 판매를 통한 신규 수입원 창출, 그린빌딩, 슬래그 바다숲 등 신규 시장 개발
B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탄소시장 등 신사업 참여
S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L P	외부 평가 및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인식 제고

S Green Steel B Green Business L Green Life P Green Partnership

기후변화 대응체계

포스코는 주주, 이사회, CEO 지배구조 내 기후변화대응을 신속하게 의사 결정하기 위한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실무조직의 의견수렴과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의 이슈논의, 추진방향 제시를 바탕으로 의사결정기구에서 전사적 비전 및 안건을 의결하고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CEO 주재로 기후변화대응을 포함한 이슈사항을 논의하는 절차로 매월 개최하는 전사 운영회의와 매월 또는 필요 시 개최하는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포스코는 재무투자 본부장 산하 환경사회공헌실의 기후에너지그룹이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이슈를, 환경자원그룹이 환경 및 부산물 자원화 등의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사회공헌실은 회사의 환경·에너지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전사 차원의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에너지 관리체제를 구축·실행하며, 자원 및 부산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수익창출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일관 제철소 운영에 따른 글로벌 환경경영체제 수립과 국내외 탄소규제 심화 및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른 환경에너지 정책대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직은 2015년 2월 조직개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는 제철소 CO_2 저감 및 에너지효율 향상, 환경 및 보건 이슈를 담당하는 에너지부와 환경자원그룹이 있습니다. 이들 부서는 본사 기후에너지그룹 및 환경자원그룹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사의 환경경영 및 탄소·에너지 관리체제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계획에 반영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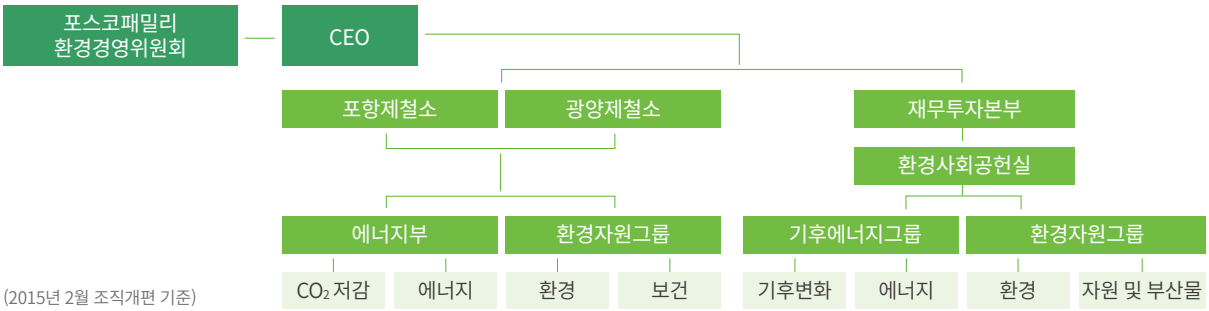
포스코는 CEO 주재로 패밀리사 대표들이 참여하여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경영 등의 이슈를 논의하는 포스코패밀리 환경경영위원회를 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위원회는 기존의 환경에너지실장 주재의 환경에너지위원회를 2011년부터 CEO 주재로 전환하여 글로벌 사업장과 패밀리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포스코와 패밀리사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검토하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포스코패밀리 환경경영위원회는 CEO 및 주요 패밀리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포스코패밀리가 펼쳐온 환경경영활동을 돌아보고 다음 해 활동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특히 패밀리사 사업장별 화학물질 사용 등에 기초해 사업장의 환경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리스크 발생 시 가동할 비상대응체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향후 더욱 세심한 환경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규사업 추진 검토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비전 및 감축목표

포스코는 화목경영(One POSCO), 창의경영(Creative POSCO), 일류경영(Top POSCO) 3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POSCO the Great'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은 3대 경영이념에 기반한 '혁신 포스코 1.0'의 4가지 혁신 아젠다이며, 이는 철강산업의 본원경쟁력 강화, 신성장 사업의 선택과 집중,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경영인프라 쇄신입니다. 포스코는 경영이념과 핵심아젠다를 통해 'POSCO the Great'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가치 증대, 신용등급 회복, 메가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포스코가 되고자 합니다.

포스코패밀리의 저탄소 녹색성장도 'POSCO the Great' 비전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Green Steel, Green Business, Green Life, Green Partnership 4개 추진분야를 기반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 CO_2 저감 철강 프로세스 개발 등 저탄소 혁신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에너지 고효율 철강재 개발 및 보급확대로 Green Steel 기반을 강화하여 철강산업의 본원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밀리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용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과 함께 리튬 소재개발, 스마트그리드 등 Green Business 분야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포스코 신성

기후변화대응 관련 지배구조



(2015년 2월 조직개편 기준)

장 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패밀리 임직원과 가족들이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그린워크 캠페인,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통하여 Green Life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내외 탄소정책 협력, 저탄소 사회를 위한 기업활동 강화로 Green Partnership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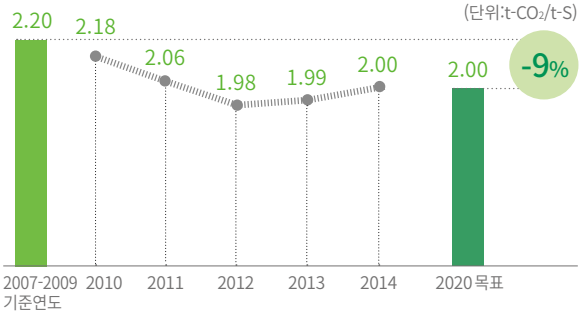
2020 포스코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 2015년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에 따라 집계하였던 포스코 탄소 목표 및 실적을 정부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맞추었습니다. 배출량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부생가스 배출계수 등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배출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0년 2월 대통령 주재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조강 1톤 당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CO_2 원단위를 2020년까지 2007~2009년의 평균 대비 9% 감축하는 2020 포스코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를 대외적으로 선언하였는데, 금번 배출량 산정 기준 변경에 따라 2007-2009년의 평균 2.18 t-CO_2/t-S 과 2020년 목표 1.98 t-CO_2/t-S 은 각각 2.20과 2.00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그간의 CO_2원단위 (t-CO_2/t-S) 실적도 2010년 2.13, 2011년 2.10, 2012년 2.03, 2013년 2.05에서 각각 2.18, 2.06, 1.98, 1.99로 재산정되었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자율적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원료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미래 CO_2 감축혁신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감축활동 이외에도 자동차 연비를 개선시키는 고장력 자동차강판, 모터 및 변압기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고급 전기강판 등을 개발 보급하고, 친환경 시멘트 소재로 대체 가능한 고로 수재슬래그를 공급 확대하는 등의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령에 따라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를 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4년 목표관리 대상은 827개 업체입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포함하는 총 13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의 검증을 받아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온실가스 감축노력 결과,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2014년 배출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포스코는 2015년부터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로 전환되어 이에 따른 감축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CO_2 배출원단위 감축목표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포스코 배출량 산정기준을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대신 정부가 2011년 3월 고시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으로 2014년부터 변경 적용함. 이 기준에 따라 당사 자율적 감축목표를 포함한 원단위 실적을 모두 재산정하였음.

*산정범위는 기존과 동일하나 부생가스 배출계수 등의 차이에 따라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함

- 부생가스 배출계수 기준은 열량에서 화학적탄소함량으로 변경
  - 본 보고서에서 공개하는 수치는 포항 및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제출 명세서 (포항 및 광양제철소 등 모든 사업장 포함)와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2013년까지의 포스코 산정 기준

- 산정범위: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
- IPCC Guideline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WBCSD/WRI Greenhouse Gas Protocol, World Steel Association Guidelines, ISO TC 17/SC draft Calculation method of CO_2 emissions intensity from Iron and Steel production (2010.8.27)을 참조하여 철강산업에 적합한 포스코 온실가스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년까지 배출량을 산정 및 공개하였음.

CASE STUDY

배출권거래제 이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1월 국내 배출권거래제[1)]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포스코는 2014년 10월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으며, 11월에 1차 계획기간 (2015~2017년)에 대한 배출권을 할당받았습니다.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 모니터링(측정)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배출권 과부족량을 재무수익 또는 비용으로 반영하고, 배출량의 측정, 보고, 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리스크 관리를 위해 회사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운영해온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배출권 수급예측과 제조원가 반영을 지원하는 탄소회계 관리시스템을 2015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목표로 구축중에 있습니다.

1) 배출권거래제는 정부에서 할당대상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들은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유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기준 12.5만톤 이상 또는 사업장 기준2.5만톤 이상에 해당인 경우 규제 대상이 되며, 2014년 기준 할당대상업체는 총 525개입니다.

탄소관리시스템

온실가스-에너지 통합 정보시스템 포스코는 제철소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관리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PCC[1] WBSCD[2]/WRI[3], Worldsteel Association ISO 14404[4] 등을 기반으로 고유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월별 회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는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를 비롯하여 포스코센터, 송도 글로벌 R&D센터 등 총 13개의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원료 사용량(석탄, 석회석, 천연가스 등), 전력 구입량, 제품 생산량 및 부산물 판매량 등을 포함한 주요 물질의 해당 물질별 탄소배출계수를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조강톤당 CO_2 배출원단위(tCO_2/t-S)를 회사의 핵심 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ex) 중 하나로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의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에 부합하는 글로벌 기준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통합 정보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과 저비용 조업을 위한 에너지절감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관리 프로세스의 시스템화 등을 통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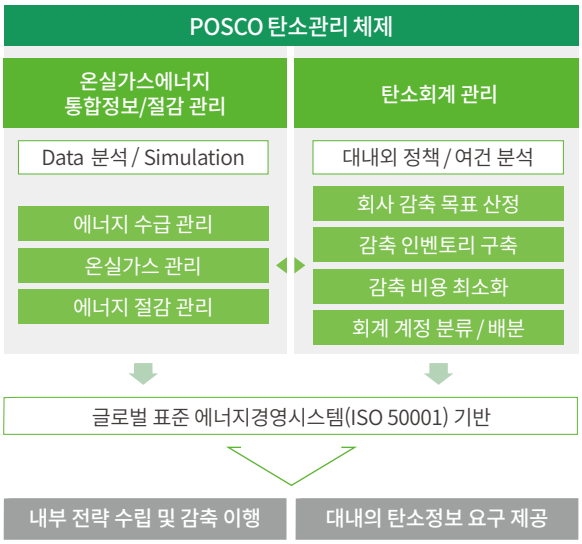
1)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 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3) WRI: World Resources Institute
4) ISO 14404: Calculation method of carbon dioxide emission intensity from iron and steel production

탄소회계 관리시스템 탄소회계는 전과정에 걸친 탄소경영활동을 재무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탄소회계의 목적은 시장여건, 정부규제, 온실가스 감축량 및 비용 등을 고려한 감축수단 발굴·분석을 통해 내부 전략수립 및 대내외 정보 공개 요구 대응에 활용함으로써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포스코의 지속가능한 탄소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조업 현장의 온실가스 배출관리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연원료 및 에너지 사용량-CO_2 배출량-배출권 거래를 연계한 실시간 자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제철소 조업부서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성과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 제철소 이외의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조업 최소 단위부터 사업장 단위까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할당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사내 목표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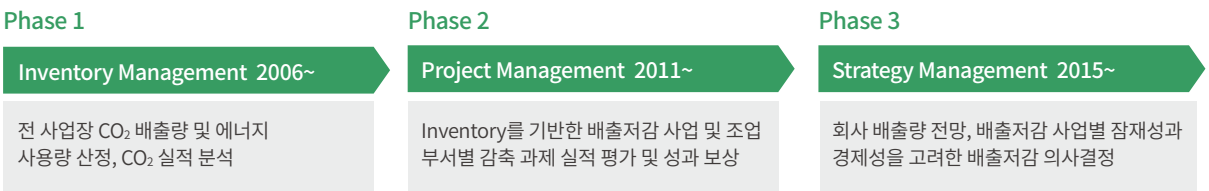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하여 포스코는 2012년 포스코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시장여건, 정부규제, 온실가스 감축량과 비용 등을 고려한 감축수단을 발굴하고 관련 분석툴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킨 탄소회계관리시스템을 2015년부터 설계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배출권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 사업장 및 공장단위의 제조원가에 반영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SO 50001 인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탄소·에너지 저감 요구와 대내외 탄소·에너지 규제의 본격화 및 에너지효율 인증 무역장벽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포스코는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던 ISO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이 2011년 6월 확정됨에 따라 포스코는 2012년 1월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하여 같은 해 9월, ISO50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매년 4월, 인증 재심사를 통해 인증을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에너지 경영시스템(ISO50001)기반 탄소관리 메카니즘



온실가스관리시스템



탄소실적

생산활동에 의한 공정 온실가스 배출량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CO_2입니다. 2014년 CO_2배출량은 7,524만 톤으로 2013년 7,239만 톤에 대비 약 3.9% 증가하였고, 2014년 조강생산량은 3,765만톤으로 2013년 3,642만 톤 대비 약 3.3%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강 1톤 생산 시 배출되는 CO_2원단위도 2013년 1.99 t-CO_2/t-S에서 2014년 2.00 t-CO_2/t-S로 약 0.5%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FINEX, 제강공정 등의 신설에 따른 초기 가동영향에 따라 원단위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CO_2원단위는 당사의 지속적인 에너지절감 노력으로 기준연도(2007~2009년 평균 2.20 t-CO_2/t-S) 대비 2013년 1.99 t-CO_2/t-S, 2014년 2.00 t-CO_2/t-S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자율적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해 포스코 배출량 산정기준을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직접배출(scope1)은 2012년 1.94, 2013년 1.94 에서 2012년 1.88, 2013년 1.87로, 간접배출(scope2)은 2012년 0.09, 2013년 0.11 에서 2012년 0.10, 2013년 0.12로, 총 배출 원단위는 2012년 2.03, 2013년 2.05 에서 2012년 1.98, 2013년 1.99로 재산정되었습니다.

CO_2 배출 원단위

(단위:t-CO_2/t-S)

구분	2012	2013	2014
직접배출(scope1)	1.88	1.87	1.87
간접배출(scope2)	0.10	0.12	0.13
총 배출 원단위	1.98	1.99	2.00

*원단위 실적은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적용. 상기 수치는 포항 및 광양제철소만을 산정범위로 하며, 이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제출 명세서 값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자동차 경량화에 따라 연비개선이 가능한 고장력 자동차 강판, 모터 및 변압기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에너지 저철손 전기강판 등의 고효율 철강재의 보급에 따른 사회적 CO_2감축효과는 2014년도 약 569만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중 하나인 고로수재슬래그는 친환경 시멘트 대체 소재로 공급되어 2014년 한 해 사회적으로 약 708만 톤의 CO_2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위:천 t-CO_2)

구분	2012	2013	2014
고장력 자동차강판[1)]	2,538	2,669	2,940
저철손 전기강판[2)]	2,510	2,415	2,752
수재슬래그[3)]	6,290	6,704	7,075
합계	11,338	11,788	12,767

1) 고장력 자동차강판은 340MPa 이상의 장력을 가진 HSS(High-Strength Steel)과 AHSS(Advanced High-Strength Steel)을 의미함. 이 강판을 A사 승용차(2,000cc급)에 적용시 차체 중량감소로 인한 연비개선 효과를 가정하여 산정.

고장력 자동차강판 1톤당 CO_2 배출량 저감효과 : 0.81 t-CO_2/년(차량 중량감소 (연료절감 86L/년·대)×고장력강 1톤당 생산 자동차 대수(4.4대)×도로수송 CO_2 배출계수(0.0693 kgCO_2/MJ, IPCC 가이드라인, 휘발유 기준)×발열량 전환계수(31.0 MJ/L, 에너지기본법시행규칙)÷1,000).

2) 저철손 전기강판은 0.98 W/kg이하의 철손을 가진 방향성 전기강판과 4.7 W/kg 이하의 철손을 가진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의미함. 이 강판을 모터와 변압기에 적용시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인한 효과를 가정하여 산정.

저철손 전기강판 1톤당 CO_2 배출량 저감효과 : 방향성 전기강판 1.02 t-CO_2/년, 무방향성 전기강판 10.75 t-CO_2/년(방향성 전기강판 1톤당 전력사용저감량(2.29kWh/년)×수전전력 온실가스 배출계수(0.4448 kgCO_2/kWH, 에너지관리공단), 무방향성 전기강판 1톤당 전력사용저감량(24.18kWh/년)×수전전력 온실가스 배출계수(0.4448 kgCO_2/kWH, 에너지관리공단)).

3) IPCC Guideline 기준을 적용하여 고로 수재슬래그 1톤을 시멘트 클링커 1톤으로 대체 시 CO_2 감축효과를 0.785 t-CO_2/t-Clinker로 가정하여 산정.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 제철공정에 필요한 원료이송, 임직원의 출퇴근, 국내외 출장 등 2014년 기타 CO_2배출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CO_2 배출량[4)](Scope3)

(단위:천-tCO_2)

구분	2012	2013	2014
구입원료 이송[5)]	1,022	948	1,036
임직원 출퇴근[6)]	6	6	6
임직원 국내외 출장[7)]	1	2	2
구매한 제품&서비스[8)]	-	3,214	2,928
다운스트림 임대자산[9)]	-	1,994	1,986
투자[10)]	-	12,353	13,113

4) WBCSD/WRI Greenhouse Gas Protocol 참고하여 산정.

5) 구입원료 총 중량은 9,327만 톤 (구입원료 중 비중이 큰 석탄, 철광석, 석회석 대상) 2014년부터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을 정부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내 물류이동 및 업스트림 임대자산 관련 배출량은 Scope1에 포함하여 산정.

6) 2014년 말 기준 임직원은 17,877명이나 Scope1&2 범위(포항 및 광양제철소)의 13,843명에 대해 산정.

7) Scope 1&2 산정범위 외에 포스코센터(서울) 근무 직원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산정.

8) 구매한 제품&서비스 중 주요 구입원료 공급사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9) 다운스트림 임대자산 중 포스코켐텍에 임대한 석회소성 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10) 포스코 출자사 중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Scope1&2 배출량, 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산출.

온실가스 감축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2014년에 완료된 주요 설비 및 기계 장비의 투자는 총 40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포항제철소 STS공장 연속 소둔로 도입, 소결공장 외 4개소 고효율 인버터 설치 등 새로운 에너지 절감시설 및 장치의 신설에 따른 비용은 184억 원입니다. 공정상 열효율 향상 시설 및 설비 보완·교체 등에는 80억 원, 공정 개선 등에는 137억 원의 비용이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공정상의 현열을 회수하거나, 부생가스 중 CO_2를 회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4년도에 착수한 총 연구개발 프로젝트 규모는 770억 원입니다.

Posco Carbon Flow

제철소 온실가스 배출 철강공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고로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석탄원료에 기인한 CO_2가 대부분이며, 환원반응이 이루어지는 제선공정에서 배출되는 CO_2가 전체 철강공정 배출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포스코는 주요 사업장인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CO_2뿐만 아니라, 원료 이송, 임직원 출퇴근 및 출장, 업스트림·다운스트림 임대자산 등 가치사슬 상에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인 CO_2 배출량까지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제품의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CO_2를 고려하여 포스코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기존 제품을사용하였을 때와 대비하여 사회적으로 줄일 수 있는 CO_2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POSCO Carbon Flow는 포스코의 제조공정 및 일련의 생산활동에서의 CO_2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철 공정에 적용된 주요 저탄소·에너지 고효율 기술 및 설비를 보여줍니다.

*2014년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사업장 경계, 공정도, 주요물질 수지, CO_2 배출 및 원료이송과 제품·부산물 사용단계의 CO_2 배출 및 감축효과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였습니다. 수록된 CO_2 배출량은 정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나, 공정별 배출비중은 회사 내부 산정방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Inp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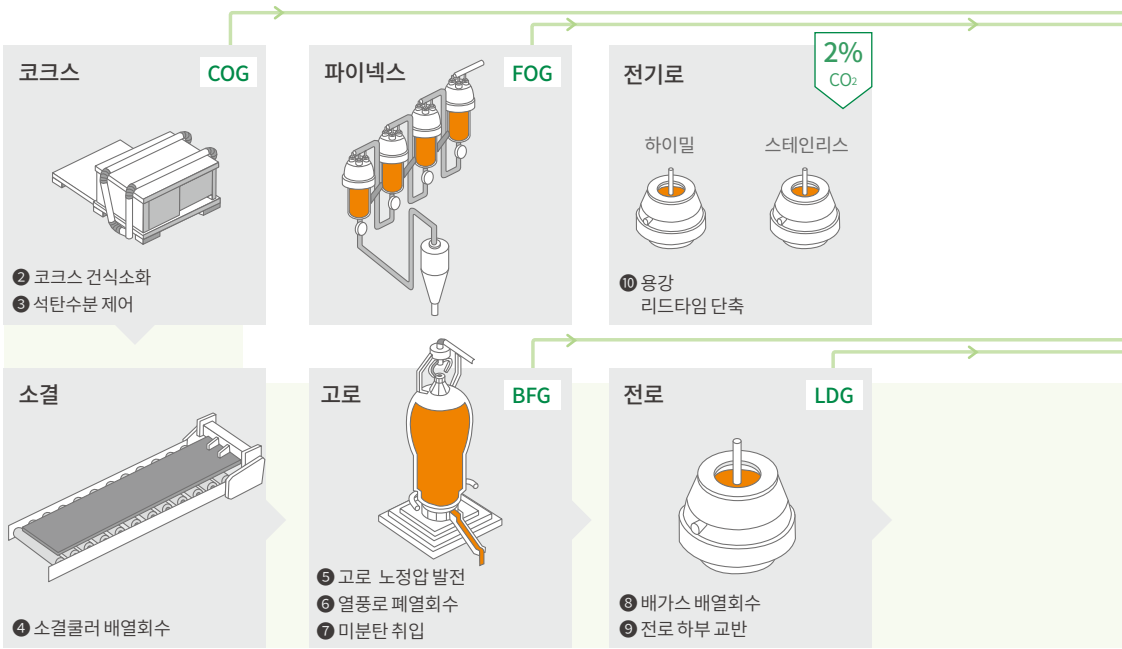
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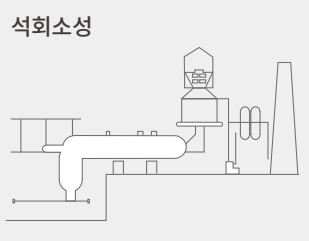
철광석	54 백만톤
원료탄	26 백만톤
석회석	7 백만톤

에너지

전력	1,205 MW
LNG	791 MNm³

에너지 열량원 단위* 5,094Mcal/t-S
*포스코 내부산정기준에 따라 조강 1톤 생산시 에너지사용량(열량 기준)





제선공정 82% CO_2

쇳물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

철광석과 원료탄을 고로 상부에 넣고 아래에서 열풍을 불어넣어 철광석을 환원시킨 후 쇳물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

제강공정 7% CO_2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강철을 만드는 공정

고로에서 생산된 쇳물은 탄소, 인, 황 등의 불순물이 많으므로 산소를 불어넣어 탄소, 인, 황 등을 제거하는 정련과정

CO_2 감축 가용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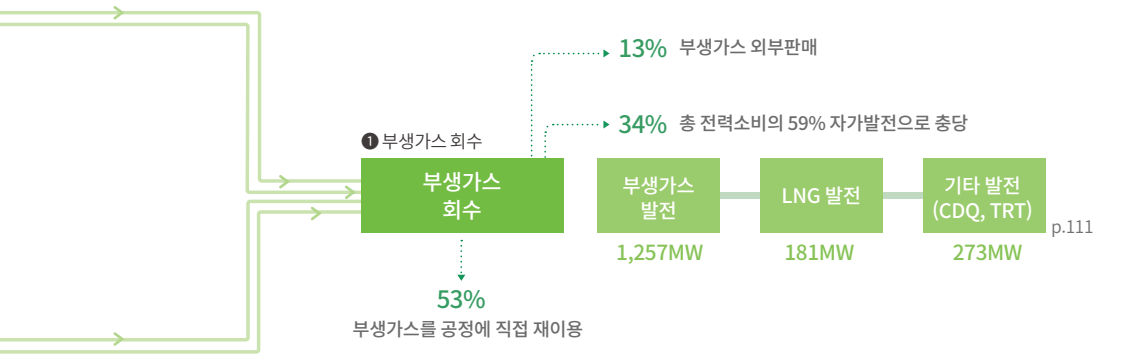
기술설명	에너지 회수			
	전력	스팀	온수	기타
❶ 고로, 파이넥스, 코크스로, 전로 부생가스를 포집하여 정제 후 연료로 재이용				●
❷ 적열 코크스를 냉각 가스와 열교환하여 현열 회수	●	●		
❸ 코크스 오븐에 장입하는 석탄의 수분 조절로 코크스 강도 개선 및 이로 인한 고로 효율 개선				●
❹ 소결광 냉각공정의 현열 회수		●	●	
❺ 고로에서 배출되는 부생가스의 압력을 활용하여 발전	●			
❻ 열풍로 배가스의 현열 회수				●
❼ 코크스대신 석탄을 고로에 직접 취입				●
❽ 공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포 함된 현열 회수		●		
❾ 전로 하부에 아르곤 가스 주입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
❿ 출강 및 후공정 이송시간 단축으로 에너지 손실 최소화				●
⓫ 고온 슬라브 직접 장입으로 재가열 에너지 절약				●
⓬ 가열로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현열 회수		●	●	
⓭ 저온조업으로 산세공정 가열에너지 절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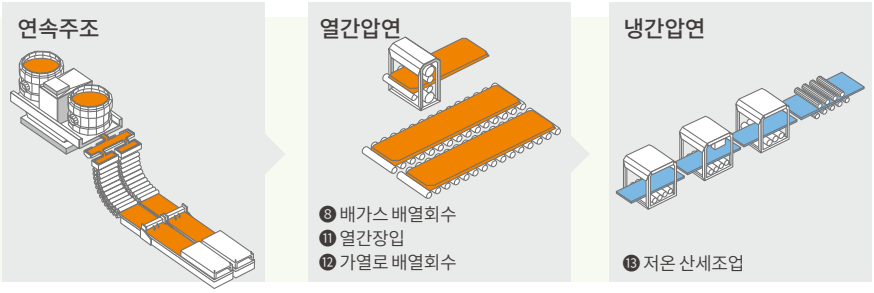
● 개발중인 CO_2 혁신기술 p.112

Scope1 : 연소 및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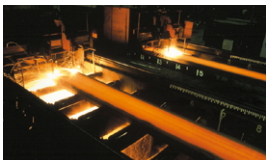
Scope 2 : 전력, 스팀 등의 생산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

Scope 3 : 가치사슬 상 발생하는 간접배출





연주공정



액체 상태의 철을 고체로 만드는 공정

불순물이 제거된 쇳물을 주형에 넣은 후 연속 주조하여 슬라브, 블룸, 빌릿 등의 중간 소재를 만드는 공정

열연공정 / 냉연공정

6% CO_2 2% CO_2

철을 강판이나 선재로 만드는 공정

슬라브, 블룸, 빌릿 등을 회전하는 롤 사이로 통과시켜 늘이거나 얇게 만드는 과정으로 크게 열간압연과 냉간압연으로 구분

Output

조강생산량

38 백만 톤

CO_2 배출량(Scope1, Scope2)

75 백만 톤

CO_2 감축효과

고장력 자동차 강판
차체경량화 연비개선
2,940 천 톤

저철손 전기강판
모터&변압기 효율향상
2,752 천 톤

고로&파이넥스 슬래그
시멘트 대체 소재로 공급
7,075 천 톤

기타 CO_2 배출

구입원료 이송 등 기타 간접 CO_2 배출량 (Scope3)
19 백만 톤

스팀회수 공급

지역난방 & 연관산업용
175 천 톤

CLIMATE CHANGE RESPONSE ACTIVITIES

기후변화 대응활동

에너지 효율향상 로드맵 및 실적

1기 (1999년~2008년)

정부와 맺은 1, 2차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여 협약 기간인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FINEX 부생가스 복합발전, 제강공정 배열회수, CDQ설비 투자 등 총 2,100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에너지설비에 1조 4,30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회수설비의 도입률은 97%에 이르렀으며, 총 291만 TOE의 에너지를 절약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조업기술을 축적한 에너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와 에너지 진단관리 기술을 확산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기 (2009년~2015년)

2008년을 기점으로 대형 에너지회수설비의 투자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2009년부터 중소형 규모의 에너지효율화 투자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융합기술을 접목한 에너지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신설된 광양 3제강공장에 배열회수설비를 설치하였고, 2011년에는 신설 5코크스공장과 5소결공장에 코크스 건식소화설비 및 배열회수설비를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광양제철소의 증산에 따른 고로 부생가스 잉여량을 회수하기 위해 복합발전설비 2기가 운영사인 포스코에너지의 투자로 2010년 12월 준공 후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생산설비 중소형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으로는 2009년부터 제철소 전역 고압전동기에 대한 에너지절감을 위해 인버터 투자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의 모든 공장이 에너지절감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에너지절감 TFT 활동을 통해 2014년 한해 330 천TOE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IT와 제철소 조업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인더스트리 실증사업도 광양 산소공장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제철소 공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1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2012년 9월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에너지 목표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한 에너지 정책방향이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포스코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공장 및 건물에 1.5MW급 ESS(Energy Storage System)를 설치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시운전 중입니다.

3기 (2016년~2020년)

현존하는 기술로는 추가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중장기적인 에너지 혁신기술개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기존에 연구해 왔던 Kalina 발전, Vacuum 엔진, 열전발전기술 등을 토대로 에너지 효율개선 로드맵을 완성하여 폐열회수 및 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의 중장기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할 것이며, 2020년 내 포스코 고유 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에너지 효율향상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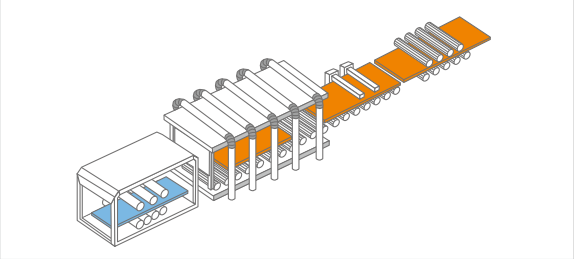
1기 (1999년~2008년)	2기 (2009년~2015년)	3기 (2016년~2020년)
대형 에너지회수설비 투자 에너지절약 조업기술축적	중소형 에너지효율화 투자 Smart Industry 기술구현	에너지 고유혁신기술 상용화
에너지 설비투자 1조 4,300억 원	추가투자 7,500억 원 예정 (2010~2020)	

에너지 효율 개선 활동

공정 부생가스 활용 철강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BFG, COG, LDG, FOG)의 대부분을 공정 에너지원으로 회수하여 사용하거나 자가발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코크스 건식 소화설비(CDQ: Coke Dry Quenching), 고로 노정압발전(TRT: Top Gas Pressure Recovery Turbines) 등 에너지 회수설비와 LNG복합발전설비를 통해 사용전력 중 약 60%를 자체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생가스를 활용한 복합발전 포스코는 부생가스 잉여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복합발전설비를 운영사인 포스코에너지의 투자를 받아 2010년 8월과 12월 광양제철소에 차례로 준공하였으며, 포항제철소에도 2013년 9월과 2014년 3월에 부생가스 복합발전설비를 차례로 완공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복합발전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연료 공급조건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포스코는 저열량의 부생가스(BFG)를 복합발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열량인 코크스 부생가스(COG) 또는 파이넥스 부생가스(FOG)를 보조연료로 혼합한 뒤 일정 열량을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단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가열로 연소효율 향상 활동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는 2011년부터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하여 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철소 가열로 전체를 대상으로 연소효율 증대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 이후 이를 정식 조직으로 승격하여 배관막힘 청소, 구조 개선 후 관리의 표준화, 열방산 최소화, 조업 제어 향상을 위한 장입대 Curtain 장치 개발, 부생가스 내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복합식 정제설비 적용 그리고 순산소 Lancing 연소기술 개발 등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가열로 연소효율 향상 프로젝트를 통해 가열로 노체진단, 연소최적화, 열교환기 효율증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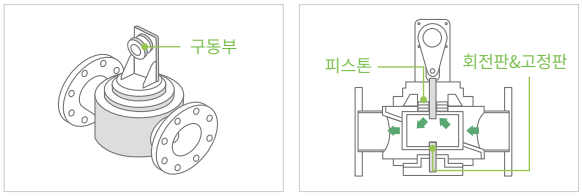
가열로 도식도

스마트 인더스트리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포스코는 2010년부터 광양제철소 산소공장을 대상으로 제철소의 다양한 에너지와 첨단 IT기술을 조합하여 에너지효율 향상, 원가 절감, 설비 안정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부문에 특화하여 적용한 '스마트 인더스트리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인더스트리 실증사업을 통해 에너지효율 파악을 위한 계량기 인프라 구축, 설비단위 효율 분석과 최적 가이던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1년 해당 공장의 전력 사용량을 2010년 대비 2% 절감하였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전사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로드맵을 검토하였으며, 2013년 12월부터 포항제철소 열연공장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실증사업을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철소 조명전력 절감 (자연채광창 활용 및 LED 적용추진) 인공조명을 대체하는 자연채광창 및 관련 조명 회로장치를 설치한 공장을 대상으로 필요 시간 동안만 공장조명을 자동으로 점소등하는 제어시스템(원격 타이머)을 구축하여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선재공장 등에 설치하고, 연간 9억 원 이상 절약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채광창 활용 외에도 기존 백열전구와 형광등을 높은 효율과 긴 수명을 가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2011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현재까지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공장 및 사무실의 9만 5천여 개의 전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으며, 2015년에도 약 5만여 개의 LED조명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연채광창을 설치하기 전 80 Lx의 밝기가 설치 후 500 Lx로 밝아진 모습(주간기준)

직접가열방식 버너용 맥동연소 기술개발 포스코는 2012년부터 제철소 연소설비에서 배출되는 NOx생성을 억제하고 연소효율 향상을 위하여 맥동연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료 공급배관에 일정한 맥동 주기와 진폭으로 연료를 공급하여 열전달 및 열효율을 높여주는 기술로서, 이를 통해 연료 사용을 기존 대비 3% 이상 절감하고 NOx 생성은 30%이상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강 및 제선공장에 적용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2015년에는 선재공장 가열로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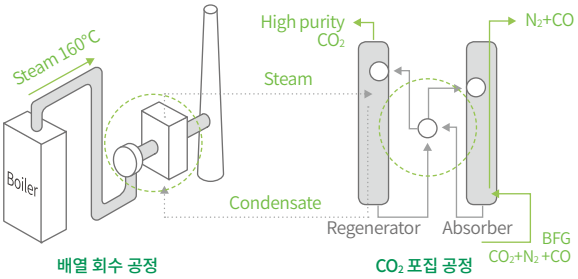


맥동제어밸브

고유 혁신기술 개발

암모니아수를 활용한 부생가스 CO_2 분리 기술 암모니아수를 이용하여 고로 부생가스(BFG: Blast Furnace Gas)에서 CO_2를 흡수, 분리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버려지는 중저온 배열을 회수하여 CO_2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CO_2 분리가 가능합니다. 2006년부터 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2008년 12월부터 고로가스 50Nm³/hr 규모의 1단계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90% 이상의 CO_2 포집 효율과 95% 이상의 CO_2 순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파일럿 플랜트는 1,000Nm³/hr 규모로 2010년 착수하여 2011년 7월 포항제철소에 준공하였으며 2012년에는 회수된 CO_2를 저장하는 액화설비를 건설하였습니다. 현재 공정 최적화 및 상용설비 설계를 추진 중이며 2015년까지 상용화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설비 가동 시 연간 30만 톤의 CO_2 포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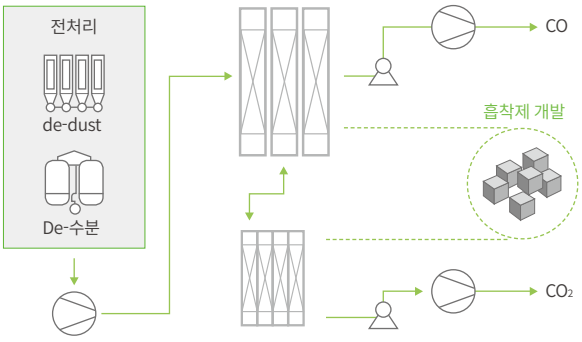
암모니아수를 활용한 부생가스 CO_2 분리 기술 개요



PSA*기법을 이용한 부생가스 CO 및 CO_2 분리 기술 철강산업이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제선 공정개발 및 부생가스 활용방안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PSA*기법을 이용하여 부생가스에서 CO 및 CO_2를 분리하기 위한 최적분리 공정 및 흡착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Nm³/hr용량의 1단계 Lab 장치를 구축하여 99%이상의 CO 순도를 달성하였으며, 2014년에는 pilot 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PSA (Pressure Swing Adsorption) : 압력 변동 흡착

제철 부생가스용 가스분리 PSA 공정 최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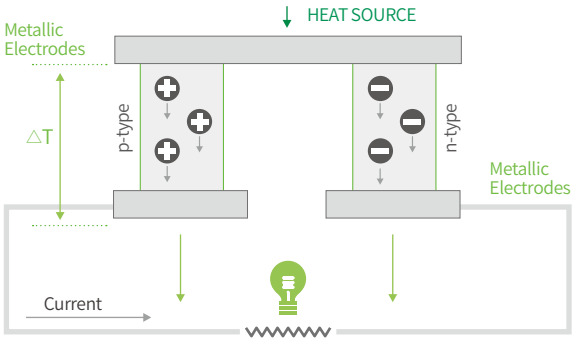
부생가스를 이용한 CO_2 자원화 기술 철강 부생가스의 CO_2 분리기술을 통해 포집된 CO_2를 철강공정 내에서 직접 자원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크스로 부생가스(COG: Coke Oven Gas)에 포함된 메탄 성분을 CO_2, 스팀과 반응시켜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며, 생성된 가스는 유동로나 고로의 환원가스로 활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2012년부터 50Nm³/hr 규모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2014년까지 90% 이상의 CO_2 전환율과 생성가스의 H_2/CO 비율 2.0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COG 혼합 개질용 촉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연간 45톤의 CO_2를 처리할 수 있는 파일럿 검증을 마쳤습니다. 현재 공정 최적화 및 기본설계를 수행 중이며 향후 추가 검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중저장까지 고려한 CCS* 기술의 경우, CO_2 처리비용이 톤당 최대 $2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부생가스를 이용한 CO_2 자원화 기술이 CCS 기술 대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CS (Carbon Capture & Sequestration) : 탄소 분리 및 격리

배열회수 열전발전 제철소 가열로 등에서 발생하는 열원은 많은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으나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중저온 배열을 회수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는 Seebeck 효과*를 이용하여 열에너지를 전력으로 직접 변환하는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무소음과 장수명 그리고 유지비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폐열원에 적용 가능합니다. 2014년 5kW급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고 2015년에는 열연 가열로에 적용하여 현장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Seebeck 효과: 두 종류의 금속 또는 반도체를 접합한 양단에 가해진 온도차(△T)에 비례하여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

Seebeck 효과 원리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활동

고장력 자동차강판 자동차의 연비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여러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이 차량의 경량화입니다. 차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자동차의 중량을 10% 감소시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8% 저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장력 자동차강판[1]은 얇은 두께로 두꺼운 일반 강판과 같은 강도를 얻을 수 있어 가벼운 차량 제작이 가능해지며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장력 강판으로 제조된 승용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1만 9,000km로 가정[2]하고 10년간 운행할 경우, 차량 1대당 간접적으로 약 1.8톤에 달하는 CO_2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연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동차사들은 경량화를 위한 초고장력강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 고장력 자동차강판의 판매량은 365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2-2013년 판매증가율 5% 대비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포스코에서는 이러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자동차사와 기술 협업 등을 통해 보다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동차 생산을 위한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고장력 자동차강판은 340MPa 이상의 장력을 가진 HSS(High-Strength Steel)과 AHSS(Advanced High-Strengh Steel)을 의미함. 2014년 고장력 기준 재설정에 따라 최근 5년간의 수치를 재산정하였음.
2) 승용차 연간 주행거리 (교통안전연구원, 2006)

에너지 고효율 전기강판 발전기, 송배전 변압기, 전력을 동력으로 전환하는 모터 등에 주로 쓰이는 전기강판은 청정에너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강판은 자기 특성에 따라 크게 방향성 전기강판과 무방향성 전기강판으로 나뉩니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특수한 공정을 거쳐 자화가 쉬운 철의 결정방향을 압연방향으로 배열시킴으로 자기적 특성이 대폭 향상된 연자성 재료입니다.[3] 이러한 방향성 전기강판은 변압기,변류기, 정류기와 같은 정지기의 코아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압연방향과 기타방향에 균일한 자기특성을 나타내며 대형발전기로부터 소형 정밀 전동기까지 회전기기의 철심소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소형변압기에도 좋은 특성을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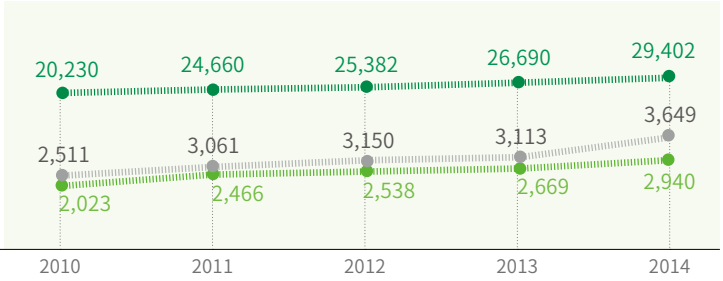
에너지 고효율 전기강판은 일반 전기강판에 비해 압연방향으로 배향성이 높아 저철손과 고자속밀도의 특성이 있어 최종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2014년 공급한 에너지 고효율 전기강판은 47만 톤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2-2013년 판매증가율 -4% 대비 대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3) 전기의 저항과 같은 개념으로 자화시 철손(Core Loss)이 발생하며, 철손이 낮은 소재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함.

고장력 자동차 강판에 의한 사회적 CO_2감축효과[4]

● 제품수명기준 CO_2 감축(천 t-CO_2)[5]
● 연간 CO_2 감축 효과(천 t-CO_2)
● 판매량(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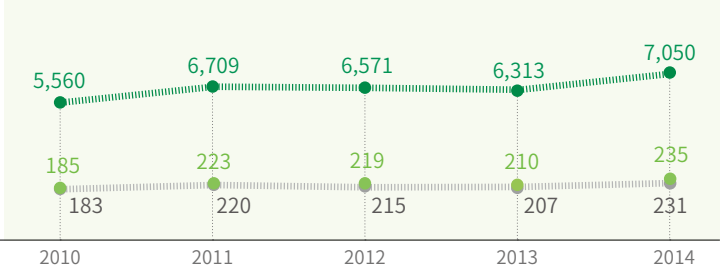
4) 고장력 자동차 강판을 국내 A사 승용차(2천cc급)에 적용 시 차체 중량감소로 인한 연비 개선효과로부터 산정
5) 최종제품(자동차)를 10년 동안 사용할 경우



에너지 고효율 방향성 전기강판[6]에 의한 CO_2감축효과

● 제품수명기준 CO_2 감축(천 t-CO_2)[7]
● 연간 CO_2 감축 효과(천 t-CO_2)
● 판매량(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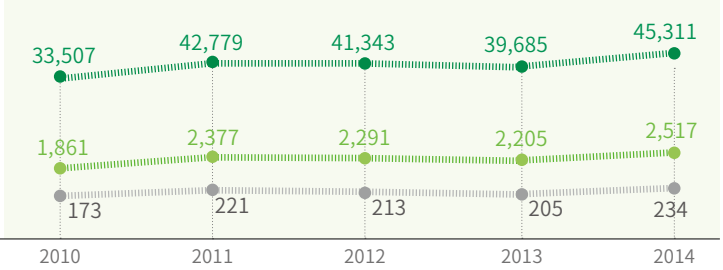
6) 에너지 고효율 방향성 전기강판은 1.05 W/kg 이하의 철손을 가진 제품을 의미함.
7) 최종제품(변압기)를 30년 동안 사용할 경우



에너지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8]에 의한 CO_2감축효과

● 제품수명기준 CO_2 감축(천 t-CO_2)[9]
● 연간 CO_2 감축 효과(천 t-CO_2)
● 판매량(천 톤)

8) 에너지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4.70 W/kg 이하의 철손을 가진 제품을 의미함.
9) 최종제품(전동기)를 18년 동안 사용할 경우



포스코 전기자동차 경량차체 개발 자동차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전기자동차와 같은 진보된 구동방식과 초경량 차체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17개 철강사는 국제철강협회 자동차분과위원회 (WorldAutoSteel)의 미래철강차체(FSV: Future Steel Vehicle)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전기자동차용 경량차체를 개발, 그 결과를 2011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전기자동차용 철강차체 PBC-EV(POSCO Body Concept-Electric Vehicle)를 자체 개발하고 2011년 12월 시험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PBC-EV는 초고강도강 (Ultra High Strength Steel)을 40% 이상 적용하고 열간프레스성형(Hot Press Forming), 가변롤성형 (Pos Roll Form) 등 최첨단 공법을 활용하여 기존 차체보다 26% 가볍습니다. (열간프레스성형공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경량화율은 30%까지 증가합니다.) PBC-EV는 이러한 경량화를 통해서 LCA(Life Cycle Assessment) 측면에서도 기존 차량 대비 약 50%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슬래그 시멘트

슬래그는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하나로, 선철을 제조하는 제선공정에서 생기는 고로슬래그와 강을 제조하는 제강공정에서 생기는 제강슬래그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슬래그는 시멘트 원료, 골재, 비료 원료와 같은 자원으로 모두 활용됩니다. 이중 제선공정에서 발생된 용융상태의 고로슬래그에 물을 분사해 급냉시켜 모래 상태로 만든 수재슬래그는 시멘트와 유사한 화학 조성을 가지므로 이를 분말화하여 시멘트 생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재슬래그를 시멘트 클링커[1] 대체재로 활용하면 석회석과 같은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시멘트 소성에 쓰이는 에너지와 이때 발생하는 CO_2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사에서는 시멘트를 제조할 때 중량의 5% 범위에서 슬래그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멘트에 미분쇄한 슬래그를 추가로 혼합한 슬래그시멘트는 내염해성이 우수하고 수화열을 저감시키므로 매스콘크리트, 해양콘크리트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2014년에 901만 톤의 수재슬래그를 시멘트 대체재와 슬래그시멘트 원료로 활용하여 707만 톤에 달하는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클링커: 석회석 등의 시멘트 원료를 고온 소성한 것으로 이를 미분쇄하면 시멘트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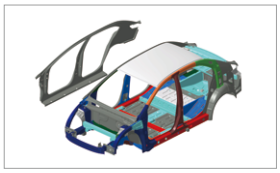
포스멘트 개발 포스코는 RIST, 포스코건설과 함께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고성능 시멘트 포스멘트(PosMent)를 개발하여 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멘트는 기존의 슬래그시멘트에 비해 슬래그 함량을 높이고, 압축강도 등 물리적 성질을 개선한 시멘트로 CO_2 발생을 기존 시멘트 대비 6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대형 구조물과 해안구조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증시험을 거친 포스멘트는 2014년 건설현장에서 137만 톤을 활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활용량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수재슬래그 및 슬래그파우더 해외수출 포스코는 지난 2011년 연간 계약을 맺고 최초로 수재슬래그를 해외 수출한 이래, 2012년부터는 수출 판로를 동남아시아 4개국으로 확대하였으며 2014년에는 총 46만 톤의 수재슬래그를 수출하였습니다. 특히, 전문 제조 패밀리사인 포스화인과 함께 부가가치를 높인 슬래그파우더를 연간 16만 톤 수출하며 원료와 제품의 해외 판매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재슬래그 수출을 통해 국내 슬래그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고, 전 지구적 에너지 절감과 CO_2 저감, 천연자원 보존 등과 같은 친환경 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전기자동차 경량차체 개발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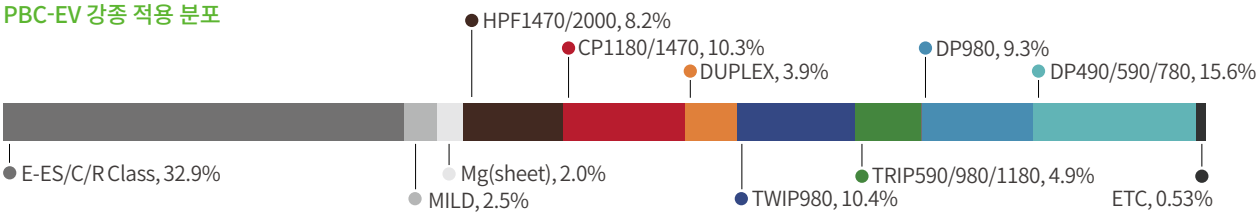
프로젝트	WorldAutoSteel FSV	POSCO Body Concept - Electric Vehicle
차체중량	소형자동차 35% 감소	준중형자동차 26% 감소
온실가스 배출	70% 감축	50% 감축
개발단계	콘셉트	프로토타입

PBC-EV를 적용한 자동차의 이미지(가상)



PBC-EV 차체

PBC-EV 강종 적용 분포



탄소마켓

온실가스 레지스트리 포스코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시행된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참여하였습니다. 제철소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전력 생산 증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5년간 358만 톤의 크레디트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사업 인증실적

사업명	CO_2감축량(천톤)
FINEX 부생가스(Off-gas) 복합발전 신설 사업	486.0
제철소 미활용 부생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설비 신설 사업	1,501.9
포항 코크스건식소화(CDQ)설비 설치로 적열코크스 폐열회수 전력 생산사업	207.8
발전보일러 통풍장치에 전력절감장치 설치로 자가소비전력 절약 사업	41.1
광양제철소 1MW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의한 온실가스(CO_2) 감축사업	2.9
포항제철소 1MW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의한 온실가스(CO_2) 감축사업	2.1
포항 형산 11호 발전설비 배가스열 회수 연료예열장치 설치로 전력생산 증대 온실가스(CO_2) 배출 감축사업	18.1
포항 형산 12호 발전설비 배가스열 회수 연료예열장치 설치로 전력생산 증대 온실가스(CO_2) 배출 감축사업	8.0
전로 배가스폐열보일러 설치에 의한 연료절감사업	36.5
고로 노정압발전기(TRT) 폐에너지 추가 회수에 의한 전력 생산사업	93.2
CDQ설비(3기, 4기) 코크스 냉각폐열 이용 전력 생산사업	1,169.1
열연공장 디스케일링시스템 유체커플링 채용 펌프 설치 전력 절감사업	0.5
기력발전 보일러 보조연료 B-C유에서 LNG 전환에 따른 CO_2 배출 감축사업	14.7
광양제철소 2,3 열연공장 롤(roll) 냉각수펌프에 유체커플링 설치 전력 절감사업	0.5
합계	3,582.4

탄소펀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 포스코는 아시아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CDM 사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 구입을 목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운용중인 Future Carbon Fund에 2009년부터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여 국내외 CDM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을 확보하는 탄소배출권펀드에 2007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2008년 7월 광양 소수력발전을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CDM 사업으로 승인 받아 향후 10년간 2만6천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며 현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탄소펀드와 CDM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배출권을 정부의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린 비즈니스

태양광발전 포스코에너지는 2014년 8월 전라남도 신안군 폐염전 부지를 활용한 7.5MW 규모의 3차 태양광발전단지를 준공하였습니다. 이번 3차 준공으로 2012년부터 1차로 가동하고 있는 2MW 발전 단지와 2013년 7월 준공한 5MW 발전단지를 포함하여 총 23만m^2 부지에 14.5MW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했습니다. 신안 태양광 발전단지는 연간 2만MWh의 전력을 생산해 향후 20년간 해마다 약 5천 가구가 소비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9천여 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어, 매년 소나무 26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버려진 폐염전을 건설 부지로 채택해 환경 훼손 없이 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염전 부지의 장점인 많은 일조량을 통해 이용률(태양광의 전기변환율)을 국내 평균 수치(15%)보다 높은 16.2%까지 올렸습니다.

ESS 및 Microgrid 포스코ICT는 2014년 2월부터 신안 태양광 발전단지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을 공급하고 이를 태양광 발전과 연계하여 독립전력망(Microgrid)을 구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SS 설비 공급용량은 1MW급으로 신안 팔금도 전체 가구인 33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또한 12월에는 포항 본사에 전용면적 2,215m^2의 ESS 전용 시험센터를 완공하였습니다. 시험센터에서는 ESS를 현장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뿐만 아니라 모듈단위로 입고되는 단위부품들을 활용해 대용량 ESS로 제작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연간 144MW 용량의 ESS 제작과 시험이 가능해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ICT는 2009년 12월부터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과제를 통해 2MW급 ESS를 개발하였고, LG화학 오창공장과 포스코센터에 ESS를 적용한 바 있으며 향후 섬·도시·산업단지 등에 적용 가능한 독립전력망 구축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료전지 포스코에너지는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고덕차량기지에 2.8MW급 연료전지 7대를 공급하였고, 10월부터 약 20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연료전지는 연간 4만가구가 사용 가능한 16만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 외에 배출되는 열을 이용해 9천 가구에 난방열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총 20MW 규모의 마포구 상암동 소재 노을 연료전지발전사업에도 포스코에너지가 참여할 예정이며, 2014년 5월 발전사업 주주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7월에는 경기도 등과 2018년까지 360MW급 평택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포스코에너지는 2014년부터 가동중인 경기도 화성의 60MW급 발전소에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연달아 건립하는 명실상부한 연료전지 마켓리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에너지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2014년 6월 도쿄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연료전지사업의 핵심기술인 셀(Cell)을 연간 70MW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공장을 포항 연료전지 단지에 2012년 말 착공하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포스코에너지가 공급한 120MW이상의 연료전지가 가동 중이며 2015년 셀 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최초로 연료전지 생산 전 공정 국산화와 수직계열화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고속 리튬 추출기술 포스코는 2014년 12월 아르헨티나 북부 카우차리 염호 인근에서 리튬 직접 추출을 위한 연간 200톤 규모의 대형 파일럿 플랜트를 준공하였습니다. 이후 정상 가동을 통해 자체 개발한 리튬 직접 추출기술의 최종 검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전의 자연증발식 리튬 추출 생산 시간은 최소 12개월이었지만 포스코가 개발한 고유기술을 이용하면 최단 8시간, 길어도 1개월 이내에 추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기술은 기후조건과는 무관하게 화학반응에 의한 리튬 추출이 이뤄져 효율성이 높으며, 생산원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리튬 회수율도 최대 50% 수준의 종전 방식에서 최소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경제성도 향상되었습니다. 더불어 염수에 함유된 마그네슘, 칼슘 등은 기존 방식에서 불순물 형태로 남아 리튬 추출에 걸림돌이 됐으나, 포스코의 신기술을 활용하면 리튬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및 칼륨 등도 분리, 추출할 수 있어 리튬 이외의 원소도 자원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포스코는 리튬 추출 주요 기술 30여 건을 국내외에 특허출원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높여 왔습니다.

트리톤 바다숲 포스코는 해양수산부와 2007년 해양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10년 바다숲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맺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과 협력하여 바다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숲 조성에는 해수온 상승에 따른 갯녹음 해역을 복원하는 데 효과가 있는 '트리톤(Triton)'* 제품이 활용되며 트리톤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해조류와 어패류 등 수산자원을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트리톤의 주재료인 철강슬래그는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해양생태계에 유용한 칼슘과 철 등의 미네랄 함량이 일반 골재보다 높아 해조류의 성장 및 광합성을 촉진시키고 오염된 퇴적물과 수질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트리톤으로 조성된 바다숲은 슬래그 탄산화 및 해조류 광합성에 의해 CO_2를 고정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1년 여수엑스포 앞바다인 거문도에 1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한 데 이어 2012년 경남 통영시 사량도와 경북 울진군에 바다숲 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경북 포항시 구만리 마을어장에 바다숲 설계 및 시설을 조성하였으며, 기존에 조성된 바다숲에 대한 효과 조사, 식해동물 구제, 해면 제거, 해조 이식 등의 관리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 5월 트리톤 인공어초 3종(A형·T형·강재복합형)이 해양수산부의 일반어초로 승인됨에 따라 트리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바다숲·바다목장화 등 관련사업에 공식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울릉(사동)항 2단계 동방파제 사업에서 포스코건설과 함께 트리톤을 활용한 항내측 해양생태 정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연안 생태복원과 바다녹화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트리톤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을 말하며 뿔고둥 나팔을 불어 물고기와 돌고래를 부르고, 바다숲을 원래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능력을 보유했다. 철강슬래그를 골재로 사용한 저탄소형 어초의 브랜드이기도 하다.

포스코에너지 전남 신안군 태양광발전 단지 3차(7.5MW) 조성사업 조감도

포스코ICT 포항 ESS 시험센터 (144MW)

포스코에너지 평택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MOU 체결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추출 파일럿 플랜트(연간 200톤)

CLIMATE CHANGE PARTNERSHIPS

기후변화 파트너십 활동

포스코 탄소중립프로그램

'포스코 탄소중립프로그램'은 기후변화와 환경에 열정적인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학생들이 기획한 탄소배출 저감 아이디어를 통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단 1g의 온실가스라도 직접 줄이는 활동을 실천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 처음 시작한 탄소중립프로그램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동아리, 시민단체,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기업 최초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후 2010년부터는 가장 열정적이고 참여도가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탄소중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대학생들을 선발, 일정 기간 동안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자발적인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 각층으로 인식 전환 확산을 시도하여 기업과 사회가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014년 6기를 맞이한 탄소중립프로그램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일으킬만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고 5명씩 6개 팀, 총 30명의 대학생을 선정했습니다. 전국에서 선정된 각 대학생 팀들은 '탄소지움 자전거 원정대', '에코 그린 투어', 'Carbon Zero Shop' 등 3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여 탄소중립 인식 확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활동단 내에서 선정된 기자단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 본 탄소중립에 대한 모습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의 생생한 활동은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carbonzero)와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PoscoCarbonzer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곳에서 탄소중립에 관한 지식과 의견을 직접 나눌 수도 있습니다.

6기 공모 광고

탄소중립프로그램 6기 주요 활동

1차 프로젝트 탄소지움 자전거 원정대

포스코 탄소중립프로그램 6기의 첫번째 프로젝트로, 한강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자전거 생활화를 통한 탄소발생 저감 효과를 홍보하고 탄소중립 인식 확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6기 활동단들은 원정대 출발지인 탄천 한강변에서 자전거 페달을 돌려 믹서기를 작동시키는 자전거 발전기 체험활동을 펼쳤고, 한강변을 자전거로 투어하며 시민대상 탄소중립관련 OX퀴즈 대결, 지구를 살리는 스피드퀴즈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분리수거 제대로 하기'를 통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배우고, 탄소중립 보물 만들기 활동으로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의 전자제품 사용없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는 부채 만들기,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세제 만들기 등의 미션 수행을 통하여 환경보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로 1시간 이동(80km)시 14kg의 CO_2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00명의 시민이 자전거로 이동하게 되면 약 500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자전거 발전기 체험 3. 탄소중립 OX퀴즈
2. 분리수거 체험

2차 프로젝트 에코 그린 투어

탄소중립프로그램 6기 활동단의 2차 프로젝트는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에코아일랜드, 연대도에서 이뤄졌습니다.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진 체험센터(방문자센터)가 설립된 연대도는 섬 전체 '탄소 제로 아일랜드'를 목표로 에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섬입니다. 6기 활동단은 이 연대도를 방문하여, 탄소중립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 설비 등을 배우고, 섬 도민들을 대상으로 인체에 무해하고 세정력도 뛰어난 친환경 세제로 빨래 봉사활동을 하는 등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통영 관광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6기 활동단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프로모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탄소중립 OX퀴즈, Yes or No 등의 게임이 진행되었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기 전력 발생량 맞추기, 탄소발자국 계산하기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텀블러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대표적인 실천 방법 6가지를 소개하는 등의 탄소중립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 친환경 빨래 봉사활동
2. 탄소중립 홍보활동

3차 프로젝트 Carbon Zero Shop (친환경/탄소중립 체험의 장)

Carbon Zero Shop은 탄소중립프로그램 6기 활동단이 직접 기획, 구성하고 활동한 마지막 단체 미션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탄소중립의 개념을 알리고 무분별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쉽게 사용하고 버려지는 종이(A4, 쇼핑백 등)를 활용하여 지갑, 인형을 만드는 페이퍼 크래프트(Paper Craft) 활동, 1년에 평균 약 11만 3,925개씩 사용되는 일회용 컵을 활용하여 친환경 화분을 만드는 테이크아웃 가든(Takeout Garden) 활동, 너무 빠른 패션 유행 주기로 인해 1년에 1천 여억원 가량씩 버려지는 헌옷들로 패셔너블한 에코백을 만드는 백 투 더 네이쳐(Bag to the Nature) 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두 무심코 버려질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하는 친환경 활동으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체험 행사였습니다.

이외에 발전 기계를 돌려야만 노래할 수 있는 자가발전 노래방(Sing Sing 노래방), 더 이상 나에겐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겐 필요할 수 있는 기부물품들로 구성한 럭키박스 이벤트 등을 통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1. 에코백 만들기
2. 페이퍼 크래프트
3. 자가발전 노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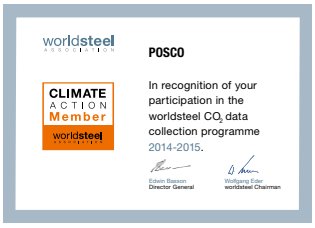
기후변화 파트너십

탄소정보 공개 포스코는 탄소보고서와 지속가능성보고서, 홈페이지를 통해 기후변화 대책활동과 CO_2배출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샘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SAM-DJSI: SAM-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등에 참여하여 회사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외부로부터 평가 받고 있습니다.

샘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는 스위스의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로베코샘(RobecoSAM)과 미국 금융정보 제공기관 다우존스가 협력해 개발한 지속가능성 평가지수로 매출액 기준 상위 2,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업종별 상위 10% 기업을 매년 선정해 발표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2005년부터 10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최우수 철강기업'을 비롯해 산업계 1% 리더들로 구성된 '골드 클래스', 전년 대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Industry Mover' 등 3개 부문에 걸쳐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 스톡익스체인지(FTSE)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CDP 평가에서는 2010년, 탄소정보공개 리더십지수 (CDLI: Carbon Disclosure Leadership Index) 및 감축성과 리더십지수(CPLI: Carbon Performance Leadership Index)에 세계 철강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업으로 꼽혔고 2012년부터 2년 연속 탄소정보공개 리더십지수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CDP 한국위원회 평가에서는 2009년부터 6년 연속 원자재 분야에서 리더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제철강협회 기후변화 대책협력 포스코는 국제철강협회(Worldsteel Association)가 주관하는 세계 철강산업 기후변화 대책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이산화탄소 감축 혁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Worldsteel CO_2 Breakthrough Programme'에 최초연도인 2003년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철강공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을 개발하였습니다. 산정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Worldsteel Climate Change Policy Group' 및 'Worldsteel CO_2 Data Collection Project'에는 활동 원년인 2007년 과 2009년부터 각각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2015
Climate Action Logo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관련표준 제정[1]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포스코는 국제철강협회의 기후변화 대책활동에 기여한 결과로 'Worldsteel Climate Action Member'에 제도 원년인 2008-2009년부터 6년 연속 편입되었습니다.

1) ISO TC17/WG21, Calculation method of CO_2 emissions intensity from Iron and Steel production - Part 1: Steel plant with blast furnace (ISO/CD 14404-1) Calculation method of CO_2 emission intensity from iron and steel production - Part 2: Steel plant with EAF (ISO/ CD 14404-2)

에너지효율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

2010년 7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EM, Clean Energy Ministerial) 당시 출범한 '에너지효율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SEP, Global Superior Energy Performance Partnership)'은 산업공정과 상업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전, 시멘트 등 6개 워킹그룹[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스코는 철강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6개 워킹그룹: 발전, 철강, 시멘트, 열병합발전, 차열지붕 및 도로포장, 에너지효율 인증

GSEP 철강 워킹그룹 활동목표

- 제철소 에너지경영체계 개발 및 이행
- 성과지표를 활용, 개선, 검증할 수 있는 기법개발 및 이행
- 에너지 절약에 의한 철강 CO_2 감축 상용기술 및 혁신기술의 파악과 확산
- 철강산업의 환경부하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정보 확산
- 철강 탄소정책과 기술확산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정보교류

국내외 철강사 환경에너지 기술교류 포스코는 국내외 철강사들과 환경에너지 및 기후 분야의 현안을 공유하고 철강사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술교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일본 NSSMC사와 철강슬래그 활용 확대를 위한 주요 현안을 교환하였으며, 6월과 9월에는 대만 CSC사와 중국 Baosteel사가 각각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환경에너지 관리 현황, 에너지 절감 및 자원순환 등의 기술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의 12.5 규획에 따른 중국 내 철강사들의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감에 대한 관심 증대로 사강, 안산강철 등이 포스코의 환경경영활동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였습니다.

SOCIAL RESPONSIBILITY

사회공헌

포스코는 창립 초기부터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를 기업의 사명으로 여기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 포스코패밀리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전략방향 및 중점영역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3가지 전략 및 5가지 중점영역을 설정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비전

for a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전략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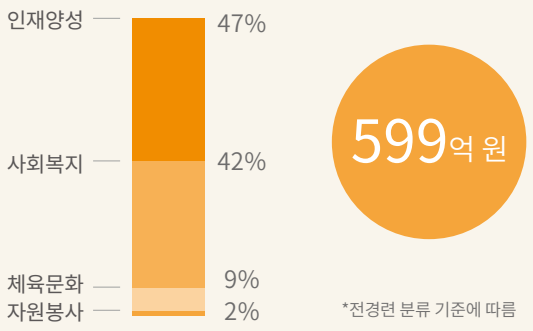
Collaboration	Business Oriented	Big Difference
정부·전문NGO·언론기관 등과 협동 강화	포스코패밀리 회사별 핵심 역량 및사업의 특성과 연계성 강화	타 회사,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는 명품 브랜드 프로그램화

중점영역

지역사회 | 글로벌인재 | 지구환경 | 다문화 | 문화유산

2014년 사회공헌 실적

2014년 사회공헌 총 지출 비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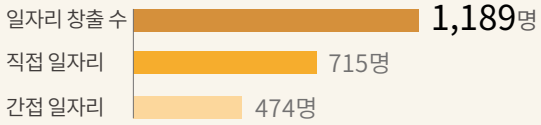
*전경련 분류 기준에 따름

5대 영역 사회공헌 비용 (단위: 억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기탁금
(누계 1059.5억 원)
100억 원

임직원 자원봉사
인당 연평균 봉사시간 29.5시간
자매결연 수 211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수



*직접 일자리: 포스코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채용하는 인력
*간접 일자리: 포스코가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의 고용 창출
(금전적인 지원도 인력으로 환산하여 계산)

LOCAL COMMUNITY
지역사회

철강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포스코에게 지역사회는 직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포스코는 창립초기부터 제철소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국내 지역사회 활동

포스코는 창업 초기부터 포항, 광양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와 체육, 문화,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통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자매마을

포스코는 1988년 광양 하광마을을 시작으로 '1부서 1자매마을'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포항, 광양의 총 211개 마을과 학교, 단체를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터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복지시설에서의 벽화봉사

자매결연지역 환경정화 봉사

자매결연 현황 (2014년 12월 기준)

구분	마을	학교	단체	계
포항	121	-	6	127
광양	71	3	10	84
계	192	3	16	211

포항시 인구:519,368명/광양시 인구:152,097명(2014년 12월말 기준)

임직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나눔의 토요일'

포스코는 월1회 지역사회와 연계한 임직원 봉사의 날, '나눔의 토요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 및 가족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외 강사료 기탁

포스코는 2007년부터 임직원이 외부에서 받은 사외 강사료를 사회로 환원하는 '사외 강사료 기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기부한 강사료는 매년 교육·의료 지원, 불우이웃 돕기, 저개발국 백신 지원, 아프리카 아동후원 등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임직원 사외강사료 기부 금액 (단위:백만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계
120	66	46	44	36	53	55	97	517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포스코는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설립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포스코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포스위드를 시작으로 2008년 12월 포항 포스에코하우징, 광양 포스플레이트, 인천 송도SE를 각각 설립했으며, 2013년 1월에는 포스위드와 포스에코하우징을 합병하여 포스코휴먼스를 출범시켰습니다. 포스코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이어받은 '포스코형'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에 앞장서며 높은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사 1사회적기업 지원'활동을 통해 포스코패밀리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제품과 용역의 우선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항과 광양에서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간병인 지원사업 통해 지역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휴먼스 www.poscohumans.com

설립일 2013. 01. 04
(포스위드, 포스에코하우징 합병)

사업 내용
사무지원, 세탁서비스업, IT서비스업 및 친환경 스틸하우스 건축, 자재 제조

위드플러스 부문(구.포스위드)
인원 현황 총 367명/장애인 195명(53.1%)
장애인 표준사업장인증 2008. 04.24

스틸하우스 부문(구.포스에코하우징)
인원 현황 총 65명/취약계층 31명(47.7%)
사회적기업 인증 2010. 10. 19

포스플레이트 www.posplate.com

설립일
2010. 01. 22

사업 내용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의 시편가공 및 제품창고 관리 작업 수행, 포스하이메탈 조업 지원 외주작업

인원 현황
총 173명/취약계층 86명(49.7%)

사회적기업 인증
2011. 05. 27

송도SE www.songdose.co.kr

설립일
2010. 04. 29

사업 내용
포스코건설 신사옥 및 포스코 글로벌 R&D센터 청소, 주차관리

인원 현황
총 126명/취약계층 91명(72.2%)

사회적기업 인증
2010. 12. 21

독거노인 간병인 지원사업 지원현황

간병인 지원	기간: 1년 (1년 연장 가능)
	방법: 지역별 공개모집 및 면접심사
	급여: 주 10시간/일급 4만 원(월 1백만 원 수준),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
수혜자 지원	선발: 지자체 및 유관단체 추천, 심사
	지원: 간병인 1개조(2명) 1가구 당 주1회 / 4시간 간병 및 가사서비스, 3개월 단위(최대 2년간)

독거노인 간병인 지원사업 수혜자

(단위:명)

구분	2006-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수혜자	3,684	663	657	590	534	538	6,666

봉사단 운영:14년 재능봉사단 확대 운영

포스코는 2004년부터 운영해 온 봉사단을 2014년 직원의 역량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재능봉사단 활동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능기부 활성화를 통해 임직원의 활동 만족도를 높이고, 수혜자에게 필요한 봉사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포스코 및 그룹사의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고, 1%나눔실천에 참여하는 임직원에게 감사를 나누기 위해 '2014 포스코패밀리 나눔대상'을 신설, 시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코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jsp/news/posco/s91fnews003v.jsp?menuCatId=0911&idx=281407

포스코 윤리규범 실천지침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성실한 세금납부 내용 포함)

포스코는 2014년 6월 윤리규범을 개정하였습니다. 실천 지침중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을 보면,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자세 및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성실한 세금납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①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자세
- 현지국의 법규와 규정,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국가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국가사회와 관련이 있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의사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거래회사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②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 회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의무를 다한다.
-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등 각 분야에서의 공익활동을 전개한다.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리규범 링크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html/company/ethics/s91a3000040c.jsp

포스코 재능봉사단

재능봉사단	주요활동 내역	지역
클린오션 봉사단	포스코패밀리 사업장이 위치한 각 지역의 바다에서 해양 폐기물과 불가사리수거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	전국
영어 봉사단	영어 재능을 가진 임직원이 인근 복지관 방과후 교실에서 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주1회 영어교육 지도	서울
문화재가꿈이 봉사단	문화재 전문 교육을 가미한 서울지역 문화재 보존 활동을 위한 문화재 해설사 양성	서울
트리즈 창의봉사단	트리즈 기법을 활용한 청소년 공감/소통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6개 중학교에서 교육	서울
꿈 봉사단	직원들의 다양한 전공, 직무경험을 바탕으로 중학생들에게 꿈과 직업에 대한 멘토링 진행	서울
아동행복지킴이 봉사단	지역 초/중학생 대상으로 취약과목 학습지도, 진로지도 및 문화체험 지원, 일대일 멘토-멘티결연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성장지원	포항
리폼 봉사단	독거노인 거주 노후 주택 및 취약계층 가정의 도배, 창호, 도장, 조명 등의 주거환경 개선	포항
섬김이 봉사단	홀몸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말벗 봉사 및 집안일 돕기를 주 2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노인의 정서 안정을 지원	포항
프렌즈 봉사단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농가 일손 돕기, 한국문화 교육 및 다문화 가정부모 초청행사 등 2003년부터 다문화 지원에 특화된 전문 봉사단	광양
엔지니어 학습 봉사단	엔지니어들의 영어, 수학, 과학 재능을 활용한 지역아동센터 아동 맞춤형 교육지도 봉사	광양
농기계 수리봉사단	철공 및 정비역량을 갖춘 설비기술부 임직원이 인근 농촌지역 농기계 정기 수리 및 정비, 주택 대문, 철구조물 수리 및 용접 등 진행	광양
도배 봉사단	도배 기능사과정을 이수한 전문 재능 직원들이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소외계층의 주거공간 도배 및 장판교체 실시	광양

해외 활동

포스코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해외 진출국과 저개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포스코는 개발도상국 현지 주민들의 니즈(Needs)를 반영하여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확고한 자립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새마을 농업훈련원 운영 모잠비크 새마을 농업훈련원(Nova Villa)에서 1년 과정의 새마을 정신교육, 각종 농기계 실습과 농장·양계장 운영, 이론교육 등을 실시하여 매년 30명의 영농지도자(남·녀 각 15명)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새마을 조성 에티오피아 한도데, 데베소, 아둘랄라 마을에 포스코·그룹사 퇴직 직원과 직원자녀를 봉사단원으로 파견하여, 현지 주민들과 함께 시범마을 조성을 통해 자립기반을 만들어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몽골 영농지도자 양성 몽골 현지 영농인을 위한 선진 농업기술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고, 교육 수료생 중심의 마을 소득 창출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마을의 변화와 영농인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포스코 어린이집·모잠비크 갈대학교 운영
포스코 및 그룹사 임직원 676명이 매월 정기후원을 통해 짐바브웨 포스코 어린이집 및 모잠비크 갈대학교 운영을 지원, 아프리카의 미래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포스코 어린이집에는 3~5세반 90명의 아이들이 급식 및 기초교육을 받고 있으며, 모잠비크 갈대학교에서는 1~6학년 총 400여명의 아동이 학용품과 급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1. 몽골 영농지도자 양성 2. 에티오피아 새마을 조성 3. 짐바브웨 포스코 어린이집

취약계층 주거문화 개선:베트남 포스코빌리지 조성

포스코는 2011년부터 포스코베트남이 위치한 바리어붕타우성에서 현지 주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과 주민센터, IT교육센터 등으로 구성된 포스코빌리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2013년까지 총 36세대의 주택을 건설해 현지 주민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2014년에는 베트남 붕타우성 지역정부와 함께 베트남 포스코빌리지 조성사업을 통해 새로운 CSV(공유가치창출)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포스코는 물론 포스코A&C, 포스코ICT 등 그룹사의 업의 특성을 반영한 빌리지 설계 및 건축공법, IT 교육센터 등을 통하여 주거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5년 연말까지 총 85세대 주택을 건설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철강 수요를 창출하는 CSV 사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POSCO Village,
베트남 붕따우성 빈민대상 85세대 주택 건축

사업비	총 7억원(2014년 3.5억, 2015년 3.5억)
사업 파트너	해비타트
건축기간	2014년 9월 ~ 2016년 2월 (18개월)
부지조성	떤딴현에서 인프라 구축 후 부지 제공
주택설계	포스코A&C가 재능기부로 설계 참여
건축봉사 (2015년 2월)	베트남내 포스코그룹사 임직원, 포스코대학생 봉사단(120명), 그룹사 임직원(10명)

입주자 소감

Le Thi Naoc Huong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밤에 편히 잘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앞으로는 새집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Nguyen Thi Diem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해요. 짧은 기간 동안 함께 했지만 떠난다고 하니 너무 슬퍼요. 제가 말을 많이 못하다 보니 고마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모두 잘되길 바랄게요. 이렇게 찾아와 봉사해 줘서 감사합니다!

FUTURE GENERATION

글로벌 인재

포스코는 인재양성이 미래에 대한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설립 운영부터 대학생 봉사단 운영,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비욘드(Beyond)'

차세대 주인공인 대학생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2007년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비욘드(Beyond)'를 창단하였습니다. 포스코는 매년 100명의 대학생을 선발, 국내외에서 사랑의 집짓기, 성금 모금,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나눔의 진정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베트남 현지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된 베트남 비욘드 2기 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이 공동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국경을 넘은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해외 활동

2008	인도 델리 빈민마을 바와나마을에서 주택 10세대 집짓기 봉사
2009	태국 촌부리 태국 현지 임직원들의 봉사동참과 POSCO-TBPC 견학
2010	인도네시아 반둥 지진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주택10세대 집짓기 봉사
2011	인도네시아 보고르 인니 크라카타우 임직원 집짓기 봉사활동 참여
2012	베트남 티엔장성/붕타우성 포스코 베트남과 연계해 집짓기 봉사,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포스코빌리지 프로젝트 시작
2013	인도 델리 바와나마을 2차 주택 10세대 건축. 사립명문대학인 TMU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교류
2014	베트남 붕타우성 떤딴현 지역에서 주택 10세대 건축, 현지 대학생으로 구성된 베트남 비욘드 1기 창단, 공동 봉사

학교폭력 예방사업:우리 학교는 '친친와이파이존'

건강한 학교문화를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과 학생들의 소통증진을 위해 2012년부터 한국YWCA와 함께 '우리 학교는 친친와이파이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즐기는 와이파이존처럼 학생들 모두가 친한 친구가 되어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 임직원의 재능을 활용한 '트리즈 창의 봉사단', '공간바꾸기 봉사단', '꿈 봉사단'을 창단하여 학교 현장을 방문·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친친와이파이존 운영 현황

주요 프로그램	교사워크숍, 학부모강연, 공감프로그램, 공간바꾸기, 꿈멘토링, 트리즈 창의 수업
참가 인원	학생 2,285명, 교사 195명, 학부모 24명
참가 학교	서울(대신중), 대전(대성여중), 파주(문산북중), 충주(중원중), 포항(송도중), 광양(광영중)
수상 실적	포스코 - 한국 YWCA,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 교육부장관상 수상 (2014년 7월 4일)

1. 공간바꾸기 봉사단
2. 트리즈 창의봉사단
3. 꿈 봉사단

청소년 꿈 지원 사업:친친 무지개 프로젝트

무지개처럼 다양한 배경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 및 탈북 청소년들에게 친한 친구가 되어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프로젝트입니다.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는 검정고시 학습을 지원하고 예체능, 네일, 미용, 자동차 정비 등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기술 교육을 지원하여 맞춤형 꿈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로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는 교육재단과 청암재단을 통해 학교 운영과 장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국내외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 1971년에 출범한 포스코교육재단은 포항, 광양 지역에 총 13개의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교사를 적극 유치하고 교과 교육과 특기 적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인 교육을 실현하여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청암재단 1971년 제철장학회에서 시작한 포스코청암재단은 포스코청암상, 포스코아시아펠로십, 청암Science펠로십, 지역사회장학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운영하여 국내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 주요 활동 현황

학교 운영
유치원 2, 초등학교 5, 중학교 2
공고 1, 자율형 사립고 3
13개

기부금 출연 (1976~2014)
교육비 및 시설비 8,582억 원
수익사업기금 688억 원
근로복지기금 44억 원
9,314억

포스코 교육재단

포스코청암재단 주요 사업

포스코청암상

창업자의 업적을 기념하고, 포스코 창업정신의 기본인 창의존중, 인재중시, 봉사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시상

2006년 제정하여 8년간 8회에 걸쳐 26명의 수상자 시상

2014년 수상자 (2014.3.26 제8회 포스코청암상 시상식)
· 과학상: 김범식(고등과학원 수학부 교수)
· 교육상: 가나안농군학교(하남,원주)
· 봉사상: (사)무지개공동회(대표 천노엘 신부)

청암Science펠로십

국내에서 연구하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분야의 박사과정, Post-doc(박사 후 연구원), 신진교수급 과학자가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하도록 매년 30명을 선발해 2~3년 간 지원하는 사업

· 2009년 11월 시작하여 6기까지 총 181명 지원

포스코아시아펠로십

아시아의 상호 이해 증진과 한국 및 포스코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학술 · 문화 교류 사업

주요 사업
· 아시아학생 한국유학 장학 - 2005년부터 28개국 268명 선발 (아프리카 학생 4명 포함)
· 아시아 지역전문가 양성 - 2006년부터 20개국 78명 선발
· 아시아 인문사회 연구 지원 - 2005년부터 14개국 211과제 (국내 151과제, 해외 60과제) 지원
· 아시아 우수대학 장학 - 2005년부터 13개국 39개 대학 3,219명 지원
· 문예 계간지 'ASIA' 발간 지원 - 2005년 5월 창간하여 분기 1회 총 35호 발행

지역사회장학

주요 사업
· 포스코샛별장학
포항, 광양지역 우수 고등학생을 선발해 고등학교 장학금 및 대학 입학 시 특별 격려금을 지원하는 우수 인재 장학사업 (2006년부터 595명 선발)

· 포스코비전장학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올바른 품성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하는 지역사회 불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는 장학 (2006년부터 288명 선발)

GREEN PLANET

지구환경

임해제철소를 운영하는 포스코는 지역어민들과 함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해양보호에 앞장서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직원들로 구성된 클린오션 봉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보호활동을 펼쳐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클린오션 봉사단

지역사회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9년에 스킨스쿠버 동호회원으로 구성된 클린오션 봉사단을 출범하였습니다. 포항, 광양, 서울, 인천, 창원 등 포스코그룹사 사업장이 위치한 각 지역의 바다에서 700여 명의 회원들이 해양 폐기물과 불가사리 수거 등 활발한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린 일터

포스코패밀리 그린워크 캠페인 포스코패밀리 그린워크캠페인은 포스코패밀리 임직원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발적 그린라이프 실천 캠페인으로, '지구를 위한 녹색발걸음'을 의미합니다.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녹색생활의 습관화를 위한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전사적인 캠페인입니다. '걷기, 끄기, 줄이기, 모으기'로 대표되는 그린액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활동들을 그린워크 홈페이지에서 그린포토, 그린에세이 코너 등에 소개하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뉴스와 전문가 칼럼, 이벤트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세대가 녹색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임직원과 가족에게는 활동 내용에 따라 그린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이는 친환경 LED 전등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부 적립금으로 전환되어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기증되는 사회공헌 사업인 밝은빛나눔 활동으로 연계 운영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시민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2014년 12월 31일 현재, 13,429 가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린워크캠페인과 연계된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클린오션 봉사단 현황

			봉사단(명)	활동 횟수	참여 인원	수거실적(톤)
포스코	포항		470	214	10,977	495
	광양		124	62	3,188	469
	서울		71	27	787	45
소계			665	303	14,952	1,009
포스코 그룹사	경기	ICT	24	10	66	3
	인천	건설	35	16	645	33
		에너지	19			
		엔지니어링	16			
		AST	8			
	창원	특수강	22	9	565	15
소계			124	35	1,276	51
총계			789	338	16,228	1,060

POSCO FAMILY GREENWALK

로고

길과 푸른 잎을 형상화한 로고는 포스코의 녹색 발걸음이 지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운동이 되리라는 바람을 표현합니다.

슬로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천하던 환경 운동을 포스코 패밀리 차원에서 전개함으로써, 우리의 유일한 삶터인 지구를 위한 포스코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발전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국내 대표 기업에서 지구 공동체 가운데 하나로 자연과 함께, 사람과 같이 걸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린워크 캠페인 그린액션 4

		CO_2 저감
걷기	4층이하 계단 이용하기	13g
	가까운 거리 자전거 타거나 걷기	2.3kg
	대중교통 30분 이용하기	7kg
	자가용 함께 타기	7kg
끄기	점심시간/외출 시 전등 끄기	54g
	3분 이상 정차 시 자동차 시동 끄기	126g
	1시간 이상 외출시 멀티탭 끄기	15g
	창가자리 조명 끄기	13g
줄이기	수돗물 사용 1분 줄이기	19g
	종이컵/종이타월 사용 1회 줄이기	7g
	음식물 남기지 않고 먹기	17g
	냉난방 1도씩 줄이기	260g
모으기	이면지 재활용하기	3g
	헌 옷 모으기	10kg
	그린 아이디어 모으기	-
	분리수거(종이, 플라스틱 등) 하기	-

포스코 밝은빛나눔 사회공헌 활동 포스코는 그린워크 캠페인을 통해 모은 그린기부금으로 서울지역 저소득 가정 1,000가구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친환경 고효율 LED등 제품을 교체해 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린기부금은 포스코패밀리 그린워크 회원들이 적립한 그린마일리지를 기부하는 것으로 임직원이 모금활동부터 LED등 교체 봉사활동까지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밝은빛나눔 활동을 통하여 에너지빈곤층(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에너지 수요 감축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큰 기여를 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밝은빛나눔' 활동을 통한 LED등 교체 활동에서 에너지빈곤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회공헌 사업 '그린홈'으로 확대 운영하여, 포스코그룹 임직원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집수리 및 LED교체 임직원 봉사

전통시장 LED등 교체 봉사활동

숲체험 캠프

포스코는 소외계층,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릉에서 숲체험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캠프는 풀잎-꽃잎을 활용한 친환경 염색 손수건 만들기, 숲 속 재료를 활용한 볼링 게임, 나무 조각으로 만드는 놀이기구 만들기 등의 환경 체험 프로그램 뿐 아니라 팀원들끼리 합심해 꼬인 줄을 풀을 푸는 생태계놀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사회성 및 자립심을 키우고 희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모습의 친구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숲체험 캠프 중 진행된 나무볼링 게임

DIVERSE SOCIETY
다문화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 환경속에서 다문화는 국민 대통합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인식개선 등의 단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카페 '카페 오아시아' 지원

카페 오아시아(Cafe OAsia)는 포스코와 사회적기업네트워크(세스넷)과 함께 설립한 고용노동부 인증 제1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소규모 카페가 조합을 이뤄 만든 소셜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카페 오아시아는 결혼 이주 여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여성들의 자립 기회를 마련하고 한국에서의 적응을 돕습니다. 공동구매와 마케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수익은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과 창업지원 사업에 활용합니다. 또한 각 지역의 카페가 다문화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 관련 문화 행사와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카페 사회적 협동조합 '카페 오아시아 '
· 고용노동부 사회적 협동조합 제1호 인증 : 2013. 1. 15
· 2014년 12월 기준 27개 지점에서 65명의 취약계층 (다문화여성 포함) 근무 중

다문화 가정 여성 창업지원사업

다문화 여성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자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네트워크(세스넷)와 함께 매년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창업교육은 2010년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을 거쳐 누적 40개팀이 컨설팅을 받았고, 최종 34개팀이 창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외 전통 인형제작, 외국어 교육, 다문화 음식 레스토랑, 다문화 교육, 관광통역 등 다문화 여성의 재능과 사회의 필요한 니즈를 접목한 창업 팀들은 현재 각자의 분야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CULTURAL HERITAGE
문화유산

고유한 전통 문화의 계승과 세계화에 앞장서고 민족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메세나활동을 펼쳐 문화예술의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포스코센터 음악회

1999년 12월에 시작된 국내 유일의 정기 사옥음악회로 지난 12년간 총 142회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도심 속 음악회로 자리잡았습니다. 국악, K-pop, 클래식,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분기별 한 번씩 총 4회의 음악회를 열어 연간 2,550명의 관객과 함께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문화재가꿈이 봉사단

포스코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문화재가꿈이 봉사단을 통해 우리의 문화 가치를 보존해 나가고자 합니다. 봉사단은 문화재 모니터링, 환경 정화, 개보수 작업 뿐 아니라 문화유산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번역하는 등 문화재 알림이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임직원 217명이 선정릉, 보신각, 운현궁, 성균관 등의 문화재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창호지 교체 봉사활동

CASE STUDY

1% 나눔으로 더해가는 희망의 온도, 포스코1%나눔재단

포스코 임직원들의 작은 나눔이 '포스코1%나눔재단'을 통해 세상 속으로 따뜻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포스코패밀리의 임원과 부장이 먼저 시작해온 월급여 1% 기부활동이 점차 일반 직원과 외주 파트너사까지 확대되어 이제는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나눔운동'이 되었습니다. 매월 1% 나눔을 실천하는 임직원들의 소중한 마음에 보답하고, 기부 성금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 2013년 11월에 '포스코1%나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포스코그룹 임직원 및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 임원들이 포스코1%나눔재단에 기부한 51억 원에, 회사가 매칭그랜트로 35억 원을 기부해 총 86억여 원을 모았습니다. 총 33개의 포스코 그룹사, 105개의 외주 파트너사가 동참하는 포스코1%나눔재단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1%의 나눔'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다양한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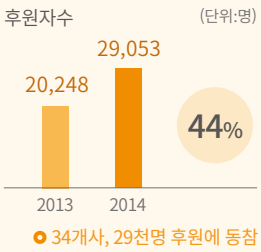
포스코 1% 나눔재단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1% 나눔 확산'이라는 비전 아래 포스코그룹에 내재되어 있는 나눔과 공익의 DNA를 살려 스틸하우스를 통한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 다문화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친친무지개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통해 이웃에게 따뜻한 1%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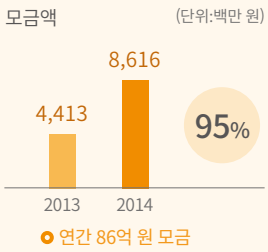
또한 포스코그룹이 진출한 글로벌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베트남 빈민층을 위한 집짓기(POSCO Village), 인도네시아 사회적기업 설립,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가족봉사단 파견 등 '지역사회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해외 저개발국 자립을 지원했습니다. 국민기업의 정체성과 업의 특성을 살려 단절 위기 금속 무형문화재를 지원하고, 국악 분야의 신진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등 '문화 유산 보존계승'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 나눔 기금은 포스코그룹사 및 임직원들이 보유한 역량 및 업무와 연계하여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포스코건설 등 8개 그룹사가 자체적으로 1% 기금을 활용하여 총 33개의 나눔활동을 실행하였으며,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7개 재능봉사단 및 임직원 봉사처 연계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사업 12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모금실적

· 후원자수: 20,248명(2013년) → 29,053명(2014년)/8,805명 증가
- 재단사업 홍보를 통한 임직원 기부참여 확대, 그룹사 임원 중심 기부에서 직원으로 확산

· 모금액: 4,413백만 원(2013년) → 8,616백만 원(2014년)/4,203백만 원 증가
- 기부자 증가, 임직원 기부에 매칭하는 출자사 증가(18개사, 35억 원), 2013년은 9개월 모금액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코1%나눔재단 홈페이지(www.poscofoundation.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Financial Statements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30
연결재무상태표 131
연결포괄손익계산서 132
연결자본변동표 133
연결현금흐름표 134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포스코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주식회사 포스코와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연결재무제표는 2014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포스코와 그 종속기업의 2014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우리는 주식회사 포스코와 그 종속기업의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종전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10층)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연결재무상태표

주식회사 포스코와 그 종속기업

제 47 기 2014년 12월 31일
제 46 기 2013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목	제 47(당)기		제 46(전)기	
자산				
Ⅰ. 유동자산		32,627,381,901,973		31,666,211,065,894
1. 현금및현금성자산	3,811,202,466,001		4,208,561,993,803	
2. 매출채권	11,786,054,664,174		11,492,600,900,137	
3. 기타채권	1,956,216,208,418		1,890,423,399,461	
4. 기타금융자산	1,462,920,042,851		2,970,664,931,851	
5. 재고자산	10,471,329,728,465		9,798,380,584,353	
6. 당기법인세자산	36,146,696,172		32,416,754,698	
7. 매각예정자산	2,127,087,286,790		2,494,487,388	
8. 기타유동자산	976,424,809,102		1,270,668,014,203	
Ⅱ. 비유동자산		52,624,790,710,813		52,789,195,619,264
1. 장기매출채권	79,336,021,876		96,999,655,115	
2. 기타채권	1,144,160,256,397		797,454,881,764	
3. 기타금융자산	2,455,899,595,252		4,465,729,732,069	
4.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4,060,506,727,682		3,808,693,156,349	
5. 투자부동산	1,055,591,734,266		425,228,677,246	
6. 유형자산	35,241,195,101,871		35,760,118,644,438	
7. 영업권 및 기타무형자산	6,884,989,204,136		5,929,839,649,270	
8. 이연법인세자산	1,195,562,583,558		1,139,932,101,097	
9. 기타비유동자산	507,549,485,775		365,199,121,916	
자산총계		85,252,172,612,786		84,455,406,685,158
부채				
Ⅰ. 유동부채		21,877,008,744,704		20,241,158,836,394
1. 매입채무	3,950,786,068,579		4,231,322,292,089	
2. 차입금	12,195,484,381,191		10,713,645,983,268	
3. 기타채무	2,194,712,800,605		2,128,853,961,141	
4. 기타금융부채	111,636,703,330		135,903,767,078	
5. 당기법인세부채	453,613,364,234		358,929,826,332	
6. 매각예정자산에 직접 관련된 부채	590,982,303,177		-	
7. 충당부채	150,029,602,618		107,329,339,718	
8. 기타유동부채	2,229,763,520,970		2,565,173,666,768	
Ⅱ. 비유동부채		18,083,799,690,447		18,392,217,818,433
1. 매입채무	88,469,261,204		558,676,585	
2. 장기차입금	15,232,773,366,861		15,532,958,670,807	
3. 기타채무	169,986,352,310		206,633,797,676	
4. 기타금융부채	91,094,899,244		260,020,506,940	
5. 순확정급여부채	290,324,629,675		273,159,775,832	
6. 이연법인세부채	1,832,260,001,851		1,711,762,697,905	
7. 충당부채	223,239,315,229		146,272,008,194	
8. 기타비유동부채	155,651,864,073		260,851,684,494	
부채총계		39,960,808,435,151		38,633,376,654,827
자본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1,587,367,803,977		42,046,037,070,032
1. 자본금	482,403,125,000		482,403,125,000	
2. 자본잉여금	1,083,718,170,645		1,078,265,531,088	
3. 신종자본증권	996,919,000,000		996,919,000,000	
4. 적립금	(408,773,032,313)		(23,075,788,087)	
5. 자기주식	(1,534,457,084,906)		(1,579,123,583,357)	
6. 이익잉여금	40,967,557,625,551		41,090,648,785,388	
Ⅱ. 비지배지분		3,703,996,373,658		3,775,992,960,299
자본총계		45,291,364,177,635		45,822,030,030,331
부채와 자본총계		85,252,172,612,786		84,455,406,685,158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주식회사 포스코와 그 종속기업

제 47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46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목	제 47(당)기		제 46(전)기	
Ⅰ. 매출액		65,098,445,304,159		61,864,649,858,923
Ⅱ. 매출원가		(57,815,040,907,666)		(55,004,590,605,293)
Ⅲ. 매출총이익		7,283,404,396,493		6,860,059,253,630
Ⅳ. 관리비및판매비		(4,069,874,130,280)		(3,863,925,389,658)
1. 일반관리비	(2,309,756,265,474)		(2,231,804,528,313)	
2. 판매및물류비	(1,760,117,864,806)		(1,632,120,861,345)	
Ⅴ. 영업이익		3,213,530,266,213		2,996,133,863,972
Ⅵ. 지분법손익		(299,893,318,634)		(179,809,378,692)
Ⅶ. 금융손익		(825,225,613,178)		(448,415,099,823)
1. 금융수익	2,396,761,681,082		2,380,838,128,437	
2. 금융비용	(3,221,987,294,260)		(2,829,253,228,260)	
Ⅷ. 기타영업외손익		(710,267,002,004)		(421,732,545,938)
1. 기타영업외수익	269,407,380,058		229,073,248,718	
2. 기타영업외비용	(979,674,382,062)		(650,805,794,656)	
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78,144,332,397		1,946,176,839,519
Ⅹ. 법인세비용		(821,485,186,440)		(590,996,501,855)
Ⅺ. 당기순이익		556,659,145,957		1,355,180,337,664
Ⅻ. 기타포괄손익		(455,582,031,761)		14,269,808,667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75,100,712,595)		6,224,422,997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1) 지분법자본변동	(45,753,863,187)		(183,836,305,079)	
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33,891,246,610)		412,346,289,291	
3) 해외사업환산손익	(836,209,369)		(220,464,598,542)	
XIII. 총포괄이익		101,077,114,196		1,369,450,146,331
XIV. 당기순이익의 귀속		556,659,145,957		1,355,180,337,664
1.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626,099,302,937		1,376,396,068,069	
2. 비지배지분	(69,440,156,980)		(21,215,730,405)	
XV. 총포괄이익의 귀속		101,077,114,196		1,369,450,146,331
1.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74,918,552,163		1,444,261,936,715	
2. 비지배지분	(73,841,437,967)		(74,811,790,384)	
XVI. 주당이익		7,432		17,409
1. 기본주당순이익	7,432		17,409	
2. 희석주당순이익	7,432		17,409	

연결자본변동표

주식회사 포스코와 그 종속기업

제 47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46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목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비지배지분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신종자본증권	적립금	자기주식	이익잉여금	소계		
2013.1.1(전기초)	482,403,125,000	1,104,814,139,734	-	(88,149,568,821)	(2,391,406,055,168)	40,346,480,815,491	39,454,142,456,236	2,975,275,958,545	42,429,418,414,781
연결총포괄이익:									
연결당기순이익	-	-	-	-	-	1,376,396,068,069	1,376,396,068,069	(21,215,730,405)	1,355,180,337,664
기타포괄손익									
지분법자본변동	-	-	-	(166,787,157,119)	-	-	(166,787,157,119)	(17,049,147,960)	(183,836,305,079)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	412,453,110,395	-	-	412,453,110,395	(106,821,104)	412,346,289,291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80,839,443,388)	-	-	(180,839,443,388)	(39,625,155,154)	(220,464,598,54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3,039,358,758	3,039,358,758	3,185,064,239	6,224,422,997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 배당금	-	-	-	-	-	(463,466,664,000)	(463,466,664,000)	(30,544,067,773)	(494,010,731,773)
중간 배당금	-	-	-	-	-	(154,489,810,000)	(154,489,810,000)	-	(154,489,810,000)
연결대상기업 변동으로 인한 변동	-	-	-	-	-	-	-	40,505,875,034	40,505,875,034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변동	-	(31,416,726,451)	-	-	-	-	(31,416,726,451)	373,962,620,431	342,545,893,980
신종자본증권 발행	-	-	996,919,000,000	996,919,000,000	-	(24,160,837,138)	996,919,000,000	498,468,200,000	1,495,387,200,000
신종자본증권 이자	-	-	-	-	-	-	(24,160,837,138)	(6,228,450,693)	(30,389,287,831)
자기주식의 처분	-	5,347,757,593	-	-	812,282,471,811	-	817,630,229,404	-	817,630,229,404
기타	-	(479,639,788)	-	247,270,846	-	6,849,854,208	6,617,485,266	(635,384,861)	5,982,100,405
2013.12.31(전기말)	482,403,125,000	1,078,265,531,088	996,919,000,000	(23,075,788,087)	(1,579,123,583,357)	41,090,648,785,388	42,046,037,070,032	3,775,992,960,299	45,822,030,030,331
2014.1.1(당기초)	482,403,125,000	1,078,265,531,088	996,919,000,000	(23,075,788,087)	(1,579,123,583,357)	41,090,648,785,388	42,046,037,070,032	3,775,992,960,299	45,822,030,030,331
연결총포괄이익:									
연결당기순이익	-	-	-	-	-	626,099,302,937	626,099,302,937	(21,215,730,405)	556,659,145,957
기타포괄손익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50,919,861,888)	-	-	(50,919,861,888)	5,165,998,701	(45,753,863,187)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	(335,626,308,290)	-	-	(335,626,308,290)	1,735,061,680	(333,891,246,610)
해외사업환산손익	-	-	-	516,990,134	-	-	516,990,134	(1,353,199,503)	(836,209,36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65,151,570,730)	(65,151,570,730)	(9,949,141,865)	(75,100,712,595)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 배당금	-	-	-	-	-	(478,701,744,000)	(478,701,744,000)	(32,887,157,508)	(511,588,901,508)
중간 배당금	-	-	-	-	-	(159,568,476,000)	(159,568,476,000)	(76,853,830,896)	(236,422,306,896)
연결대상기업 변동으로 인한 변동	-	-	-	-	-	-	-	91,551,108,148	91,551,108,148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변동	-	(9,401,123,176)	-	-	-	-	(9,401,123,176)	44,265,532,441	34,864,409,265
신종자본증권 이자	-	-	-	-	-	(43,599,999,996)	(43,599,999,996)	(26,175,502,721)	(69,775,502,717)
자기주식의 처분	-	14,575,959,521	-	-	44,666,498,451	-	59,242,457,972	-	59,242,457,972
기타	-	277,803,212	-	331,935,818	-	(2,168,672,048)	(1,558,933,018)	1,944,701,862	385,768,844
2014.12.31(당기말)	482,403,125,000	1,083,718,170,645	996,919,000,000	(408,773,032,313)	(1,534,457,084,906)	40,967,557,625,551	41,587,367,803,977	3,703,996,373,658	45,291,364,177,635

연결현금흐름표

주식회사 포스코와 그 종속기업

제 47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46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목	제 47(당)기		제 46(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412,099,309,521		4,858,135,043,053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4,738,095,877,846		6,051,365,642,501	
가. 연결당기순이익	556,659,145,957		1,355,180,337,664	
나. 조정	6,095,408,991,227		4,812,617,182,138	
감가상각비	2,894,609,275,283		2,505,536,478,899	
무형자산상각비	343,940,278,085		180,013,751,435	
금융수익	(1,046,717,789,489)		(1,012,280,688,213)	
금융비용	1,801,014,966,849		1,585,777,519,444	
법인세비용	821,485,186,440		590,996,501,855	
유형자산처분이익	(15,039,202,226)		(14,177,093,735)	
유형자산처분 손실	50,006,292,603		121,132,834,522	
유형자산손상차손	64,833,477,214		9,742,271,904	
지분법손실	299,893,318,634		179,809,378,692	
퇴직급여	237,886,499,418		247,747,969,471	
충당부채전입액	245,469,794,403		111,364,113,830	
대손상각비	205,306,076,328		201,184,700,375	
재고자산평가손실	41,712,977,941		49,172,304,394	
무형자산손상차손	55,220,484,245		125,316,459,048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48,231,159,561)		(101,611,037,516)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	17,204,834,280		1,814,437,219	
기타비용	126,813,680,780		31,077,280,514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913,972,259,338)		(116,431,877,301)	
2. 이자의 수취	238,817,129,350		227,988,794,415	
3. 이자의 지급	(882,182,897,765)		(797,316,113,951)	
4. 배당금의 수취	114,693,557,165		193,008,458,202	
5. 법인세 부담액	(797,324,357,075)		(816,911,738,114)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45,181,888,255)		(8,751,669,531,705)
1.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096,601,586,388)		(4,449,312,164,435)	
2.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4,635,119,847,710		3,901,527,305,204	
3. 대여금의 지급	(361,671,210,096)		(575,342,767,239)	
4. 대여금의 회수	76,717,159,932		417,971,246,523	
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75,581,576,527)		(309,468,867,166)	
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252,055,834,581		269,363,239,363	
7.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702,988,667,295)		(1,076,763,086,291)	
8.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21,359,336,419		89,532,685,394	
9. 유형자산의 취득	(3,505,549,177,647)		(6,569,612,822,102)	
10. 유형자산의 처분	62,829,370,890		82,151,466,069	
11. 투자부동산의 취득	(406,602,949,302)		(20,944,844,081)	
12. 투자부동산의 처분	43,167,088,069		8,463,637,631	
13. 무형자산의 취득	(343,804,311,160)		(543,665,728,601)	
14. 무형자산의 처분	9,042,541,197		5,429,147,514	
15. 연결실체 변동으로 인한 순자산 취득	(388,577,919,973)		5,728,791,380	
16. 연결실체 변동으로 인한 순자산 처분	48,949,091,746		5,961,716,669	
17. 기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입액	(13,044,760,411)		7,311,512,463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5,111,807,963		135,111,807,963
1. 사채 및 장기차입금의 차입	2,522,494,931,096		5,098,702,228,156	
2. 사채 및 장기차입금의 상환	(2,802,149,760,653)		(2,845,957,033,088)	
3. 단기차입금의 순차입	1,037,912,368,468		86,474,735,228	
4. 배당금의 지급	(677,000,008,488)		(648,579,538,851)	
5.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1,495,387,200,000	
6.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	(69,713,116,414)		(26,087,935,625)	
7. 자기주식의 처분	43,187,875,600		14,018,712,180	
8. 기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입액	80,379,518,354		358,377,336,101	
Ⅳ.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11,545,728,608		(110,765,614,635)
Ⅴ. 현금의 감소 (Ⅰ+Ⅱ+Ⅲ+Ⅳ)		(186,425,042,163)		(471,964,399,186)
Ⅵ.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현금		(210,934,485,639)		-
Ⅶ. 기초의 현금		4,208,561,993,803		4,680,526,392,989
Ⅷ. 기말의 현금		3,811,202,466,001		4,208,561,993,803

05 Assurance Report

독립된 검증인의 검증보고서 136
독립된 검증인의 탄소보고서 검증보고서 138

pwc

RESPECTED TRUSTED PROFESSIONAL SAMIL

독립된 검증인의 검증보고서

주식회사 포스코 경영자 귀중

본 검증인은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회사")의 POSCO REPORT 2014(이하 "보고서")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 검증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검증범위 및 검증대상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정보에 대해 제한적 확신을 제공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AA1000 AccountAbility Principles Standard 2008 (이하 "AA1000APS")의 3가지 원칙, 즉 포괄성·중요성·대응성 적용 여부
- 보고서 '통합지속가능성 성과지표'(11페이지), 'PERFORMANCE HIGHLIGHTS (POSCO ONLY)'(19에서 20페이지)에 수록된 검증 대상 비재무정보(이하 "지속가능경영 데이터")가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가이드라인, 국제통합보고위원회의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Framework, ISO 26000 그리고 UN Global Compact 원칙을 참고한 포스코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본 검증인은 보고서에 포함된 다른 정보들이, 검증대상정보와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검토하였으며, 보고서에서 명백한 오류나 중요한 불일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 사항이 검증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검증 대상 이외의 다른 정보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수행한 검증 업무

본 검증인은 ISAE 3000[1]과 AA1000AS[2]에 근거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ISAE 3000의 제한적 검증은 AA1000AS(2008)에서 정의된 검증의 중간수준(Moderate level)과 일치합니다. 본 검증인의 검증업무는 AA1000AS(2008)에서 Type2로 정의된 검증업무입니다.

본 검증인의 업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AA1000APS의 3가지 원칙, 즉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에 대한 접근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내부 보고 및 데이터 집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자 인터뷰
2. 포항 본사, 포항제철소, 서울사무소 및 통합지속가능성 성과지표 대상 포스코패밀리사 사업장 8곳을 직접 방문하여 지속가능경영데이터를 관리하고 보고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이해
3. 위험평가 프로세스의 결과,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책 및 기준, 지속가능경영 중요성 평가 매트릭스, 이해관계자 참여활동 등과 관련된 문서 검토
4. 보고기간의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관리 및 보고를 위한 주요 프로세스와 통제활동의 설계 및 운영의 적합성 평가
5. 질문과 분석적 검토를 기본으로 검증대상 데이터에 대한 제한된 검증 수행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인터뷰 수행

경영진과 검증인의 책임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산출 및 AA1000APS 3가지 원칙의 준수를 위한 작성 기준의 설정, 동 작성 기준에 따른 성과측정 및 이를 보고서에 보고하는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본 검증인의 책임은 수행한 검증절차에 따라 경영진에게 결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검증보고서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성과 및 활동에 대한 경영진의 보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한도 안에서, 본 검증인은 수행한 업무 또는 검증보고서에 대해 경영진 이외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되지 않는 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검증의 고유한계

비재무적 성과 정보는 재무적 정보 보다 검증 대상의 성격과 정보의 결정에 대한 산출 방법에서 기인하는 더 많은 고유 한계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관련성, 중요성 그리고 정확성에 대한 질적인 해석은 경영진이 적용한 추정과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SAE 3000에 따르면 제한적 확신의 업무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검증업무와 비교하여 검증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검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가 합리적 확신의 검증업무보다 낮은 확신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 본 검증인은 이해관계자 참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회사의 담당자와 인터뷰한 내용 및 회사가 제공한 관련문서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검증업무의 범위는 2014년 성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 데이터는 본 검증인의 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000 –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or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 issued by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2) AA1000 Assurance Standard(2008), issued by AccountAbility

검증인의 의견

이 검증보고서에 기술된 본 검증인의 수행업무와 제시된 작성 기준에 따라, 본 검증인의 검증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AA1000APS 원칙 적용에 대한 검증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괄성**
  - 회사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고객 및 고객사, 협력사, 주주, 지역사회와 임직원의 주요 관심 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본 검증인은 회사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이슈를 수렴하는 절차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중요성**
  - 회사는 이슈 도출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를 확정하였습니다.
  - 본 검증인은 회사의 이슈 도출 프로세스상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대응성**
  - 회사는 이슈 도출 프로세스를 통해 파악된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활동 및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 본 검증인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고서상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활동 및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대응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검증인은 2014년 검증대상 데이터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가이드라인, 국제통합보고위원회의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Framework, ISO 26000 그리고 UN Global Compact 원칙을 참고한 포스코 보고서 작성 기준을 위배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검증인의 권고사항

검증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동 검증보고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검증절차를 수행한 결과, 본 검증인은 하기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부문의 다양한 지속가능성 성과지표가 회사의 사업모델 및 가치창출 활동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성과 관리 및 보고 수준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회사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 보고서가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보의 공개 수준과 회사의 입장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전무 정세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2015년 4월

독립된 검증인의 탄소보고 검증보고서

주식회사 포스코 경영자 귀중

본 검증인은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회사")의 POSCO REPORT 2014 (이하 "보고서") 102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의 탄소보고 부분(이하 "탄소보고")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 검증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검증범위 및 검증대상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정보에 대해 확신을 제공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서 107페이지에 수록된 회사의 CO_2 배출 원단위 도표에 포함되어 있는 2014년 조강 톤당 직접(Scope 1) 및 간접(Scope 2) 배출량 (합리적 확신 검증대상)
- 보고서 107페이지에 수록된 회사의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기타 CO_2 배출량 도표에 포함되어 있는 2014년 데이터와 탄소보고 중 "온실가스 감축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2014년 완료된 온실가스 감축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설비투자금액과 2014년도에 착수한 총 연구개발 프로젝트 금액 (제한적 확신 검증대상)

본 검증인은 보고서에 포함된 다른 정보들이, 검증대상정보와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명백한 오류나 중요한 불일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 사항이 검증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검증 대상 이외의 다른 정보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수행한 검증 업무

본 검증인은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에서 승인한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000 –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or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이하 "ISAE 3000")과 직접(Scope 1) 및 간접(Scope 2) 배출량에 대해서는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410 – 'Assurance Engagements on Greenhouse Gas Statements'(이하 "ISAE 3410")에 근거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합리적 확신 검증 대상에 대한 검증은 검증 대상과 관련된 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증은 검증 대상에 대해 경영진이 적용한 유의적 추정과 판단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검증인은 검증 의견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설명을 얻을 수 있도록 검증을 계획하고 실시하였습니다.

제한적 확신 검증 대상에 대한 검증은 주로 검증 대상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검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검증인은 검증 대상이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증을 계획하고 실시하였습니다.

경영진과 검증인의 책임

포스코 온실가스 산정 가이드라인과 포스코 탄소보고 작성 절차의 제정과 동 가이드라인 및 절차에 따라 검증대상 데이터를 산정할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본 검증인의 책임은 수행한 검증절차에 따라 경영진에게 결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검증보고서는 회사의 탄소배출 성과 및 활동에 대한 경영진의 보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검증인은 수행한 업무 또는 검증보고서에 대해 경영진 이외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되지 않는 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검증의 고유한계

비재무적 성과 정보는 재무적 정보 보다 검증 대상의 성격과 정보의 결정에 대한 산출 방법에서 기인하는 더 많은 고유 한계가 있습니다. 인용할 수 있는 확립된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적용 가능한 다른 측정 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측정결과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측정 방법의 정확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기준 및 그 정확도뿐 만 아니라 검증 대상의 성격과 그 측정 방법은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증 대상 정보는 회사의 온실가스 산정 가이드라인 및 탄소보고 작성 절차와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ISAE 3000에 따르면 제한적 확신의 업무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검증업무와 비교하여 검증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검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가 합리적 확신의 검증업무보다 낮은 확신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탄소배출량 산출을 위한 물질의 환산 계수 중 일부는 외부 제3자로부터 산출된 정보와 계수를 적용하였으며 본 검증인의 검증 업무는 이들 제3자 정보 및 계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증인의 의견

이 검증보고서에 기술된 본 검증인의 수행업무와 제시된 작성 기준에 따라, 본 검증인의 검증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검증인은 의견으로는 회사의 2014년 조강 톤당 직접(Scope 1) 및 간접(Scope 2) 배출량은 포스코 온실가스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 회사의 2014년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타 CO_2 배출량 데이터 및 탄소보고 중 "온실가스 감축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2014년 완료된 온실가스 감축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설비투자금액과 2014년도에 착수한 총 연구개발 프로젝트 금액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포스코 탄소보고 작성 절차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전무 정세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2015년 4월

06 Appendix

GRI Index 140
UN Global Compact Index 143
포스코 윤리규범 144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 148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150
기업지배구조헌장 157
사외이사윤리강령 159
이사회운영규정 160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164

GRI INDEX

GRI G4	No.	지표명	ISO 26000	보고수준	페이지 등
전략 및 분석	G4-1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조직, 전략에 관한 최고의사결정자의 선언	4.7, 6.2,7.4.2	●	4-5
조직 프로필	G4-3	기업명	6.3.10, 6.4.1-6.4.5, 6.8.5, 7.8	●	11
	G4-4	주요 브랜드, 제품, 서비스		●	12-18, 38
	G4-5	본사/본부 소재지		●	11
	G4-6	주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거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수와 국가명		●	12-18
	G4-7	소유권의 성격과 법적 형태		●	11
	G4-8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지리적 분포, 산업 분야, 고객 및 수혜자 형태 등 포함)		●	12-18
	G4-9	조직 규모(종업원, 순매출, 총자본, 제품과 서비스 등)		●	11
	G4-10	형태별 근로자 수(계약형태 및 성별, 고용형태 및 성별, 지역 및 성별 등), 고용 근로자 수의 중대한 변화		●	59
	G4-11	단체협상결과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비율		●	모든 종업원이 단체협상 결과의 적용을 받음
	G4-12	조직의 공급망		●	81~93
	G4-13	보고기간동안 규모, 구조, 소유구조, 공급망(supply chain) 등의 주요변화		●	9 ~ 10
	G4-14	조직의 사전예방방침 및 원칙		●	50~51
	G4-15	자발적인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헌장과 일련의 원칙들,또는 이니셔티브 중 참여하고 있는 내용		●	24, 101
	G4-16	주요 협회 가입현황		●	101
중대이슈 및 보고 경계도출	G4-17	조직의 재무제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에 포함되는 모든 기업 리스트 또는 조직의 재무제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에 포함되나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리스트	5.2, 7.3.2-7.3.4	●	공시된 사업보고서 참조
	G4-18	보고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및 보고 내용을 정의하기 위해 시행된 보고 원칙		●	About This Report
	G4-19	중대성 평가 결과 도출된 중대 이슈 리스트		●	26~27
	G4-20	조직 내 중대 이슈별 보고 범위		●	About This Report
	G4-21	조직 외 중대 이슈별 보고 범위		●	About This Report
	G4-22	이전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의 재인용 효과, 재인용 이유		●	About This Report
	G4-23	이전 보고서에 제공한 정보의 재조정		●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자 참여	G4-24	참여 이해관계자 리스트	5.3	●	28~35
	G4-25	주요 이해관계자 파악과 선정에 대한 근거		●	
	G4-26	형태별, 이해관계자 그룹별 빈도로 본 이해관계자 협의에 대한 접근 방식과 보고서 준비를 위한 참여 프로세스		●	
	G4-27	보고서 발간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되어 온 중대 이슈 대응 방법 및 결과(이해관계자별 주요 이슈)		●	
보고서 프로필	G4-28	보고기간	7.5.3, 7.6.2	●	About This Report
	G4-29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	About This Report
	G4-30	보고주기		●	About This Report
	G4-31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에 관한 문의처		●	About This Report
	G4-32	GRI 인덱스(선택 옵션, GRI Content Index, 제 3자 검증 보고서)		●	About This Report
	G4-33	외부검증 관련 정책 및 활동, 검증 범위 및 기준, 보고 조직과 검증기관과의 관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의 역할	-	●	About This Report
지배구조	G4-34	위원회를 포함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 조직도 경제·사회·환경 주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리스트(위원회별 대표 주제 명시)	6.2, 7.4.3		6~8
윤리 및 청렴도	G4-56	기업의 행동강령 또는 윤리강령	7.7.5, 4.4, 6.6.3	●	
성과관리 체계 (DMA)	G4-DMA	중대 이슈로 선정된 이유 및 영향, 중대 이슈에 대한 관리 방법, 관리체계 평가 방법	6, 7.3.1, 7.4.3, 7.7.3, 7.7.5	●	26~27
경제성과	G4-DMA	경영접근 방식	5.3	●	22~23
	G4-EC1	경제가치 창출과 분배		●	12
	G4-EC2	기후변화로 인한 조직의 재무적 영향 및 기회 또는 위험		●	102~103
	G4-EC3	연금제도에서 사측부담 범위		●	20, 57
시장현황	G4-DMA	경영접근 방식	6.3.7, 6.3.10 6.4.3-6.4.46.8.1-6.8.2	●	22~23
	G4-EC5	주요 사업지역에 대해서 현지의 최저임금과 비교한 신입사원의 임금		●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나 신입사원 임금은 내부정책상 공개하지 않음
간접경제효과	G4-EC7	공공이익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 제공	6.3.9, 6.8.1-6.8.2, 6.8.7, 6.8.9	●	121~123
	G4-EC8	간접 경제 영향	6.3.9, 6.6.6-6.6.7, 6.7.8, 6.8.1-6.8.2, 6.8.5, 6.8.7, 6.8.9	●	

GRI G4	No.	지표명	ISO 26000	보고수준	페이지 등
원료	G4-EN1	사용자원의 총 무게나 부피	6.5.4	●	108
	G4-EN2	재활용 자원 이용 비율		●	97~98
에너지	G4-DMA	경영접근 방식	6.5.4	●	99
	G4-EN3	조직 내 직접 에너지 소비		●	
	G4-EN4	조직 외 에너지 소비		●	107
	G4-EN5	에너지 원단위		●	20, 99
	G4-EN6	에너지 사용 절감량	6.5.4-5	●	99
	G4-EN7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감축량		●	39, 107
수자원	G4-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6.5.4	●	20, 97
	G4-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	96
	G4-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	
생물다양성	G4-EN11	생태계보호지역 및 주변지역에 관리하는 소유, 임대, 관리하는 토지	6.5.6	●	100
	G4-EN12	보호대상 생물이 있는 서식지 및 보호지역 내에서의 사업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한 중요한 영향		●	100
	G4-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	100
배출	G4-DMA	경영접근 방식	6.5.5	●	102~105
	G4-EN15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	20, 107
	G4-EN16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	
	G4-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	107
	G4-EN18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	20, 107
	G4-EN19	온실가스 감축		●	107
	G4-EN20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	6.5.3, 6.5.5	●	97
	G4-EN21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6.5.3	●	
폐수 및 폐기물	G4-EN22	최종 배출지별 폐수 배출량 및 수질	6.5.3-4	●	97
	G4-EN23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6.5.3	●	11
	G4-EN26	폐수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 명칭, 규모, 보호대상 및 생물다양성 가치		●	96
제품 및 서비스	G4-EN27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6.5.3,5.4, 6.5.5, 6.7.5	●	39
	G4-EN28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6.5.3, 6.5.4, 6.7.5	●	
물류	G4-EN30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자원 이동의 중대한 환경 영향	6.5.4, 6.6.6	●	107
종합	G4-EN31	형태별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6.5.1-6.5.2	●	107
공급망 환경 평가	G4-EN32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신규 공급업체 비율	6.3.5, 6.6.6, 7.3.1	●	11
	G4-EN33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가진것으로 확인된 공급업체 비율 및 대응방법		●	93
사원	G4-DMA	경영접근 방식	6.4.3	●	53
	G4-LA1	신규 채용 및 이직자 수 및 비율		●	19
	G4-LA2	상근직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6.4.4,6.8.7	●	57
	G4-LA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후 복귀 비율	6.4.4	●	11, 59
작업장 보건안전	G4-DMA	경영접근 방식	6.4.6	●	72
	G4-LA5	보건과 안전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을 돕는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 및 보건위원회로 대표되는 인력의 비율		●	54
	G4-LA6	지역별 및 성별 부상, 질병, 결근률과 작업관련 사상자수	6.4.6, 6.8.8	●	11, 20, 72
	G4-LA7	보직상 높은 사고 및 질병발생 위험을 가진 직원수		●	54
훈련 및 교육	G4-LA9	종업원 유형별, 성별 1인당 한해 평균 훈련 시간	6.4.7	●	11, 20, 64
	G4-LA10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및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및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6.4.7, 6.8.5	●	64
	G4-LA11	정기적 성과 및 경력개발 리뷰를 받은 종업원의 비율(성별, 종업원 유형별)	6.4.7	●	57
다양성 및 차별금지	G4-DMA	경영접근 방식	6.2.3, 6.3.7, 6.3.10, 6.4.3	●	69~70
	G4-LA12	성별, 나이, 소수자 등 다양성 지표에 따른 종업원과 지배기구의 구성 및 기타 다양성 관련 지표		●	59
평등한 보상	G4-LA13	종업원 유형별 남녀의 평균 임금 비율	6.3.7, 6.3.10, 6.4.3, 6.4.4	●	57
공급망 노동 관행평가	G4-LA14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신규 공급업체 비율	6.3.5, 6.4.3, 6.6.6, 7.3.1	●	11
	G4-LA15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노동관행 영향을 가진것으로 확인된 공급업체 비율 및 대응방법		●	93
투자	G4-DMA	경영접근 방식	6.3.3, 6.3.5, 6.6.6	●	69~70
	G4-HR2	인권 정책 또는 운영과 관련된 인권 지표 고려 절차에 대한 사원 총 교육 시간 (교육받은 직원 비율 포함)	6.3.5	●	11, 66
차별금지	G4-DMA	경영접근 방식	6.3.6, 6.3.7, 6.3.10, 6.4.3	●	69~70

GRI G4	No.	지표명	ISO 26000	보고수준	페이지 등
단체교섭의 자유 및 단결권	G4-DMA	경영접근 방식	6.3.3, 6.3.4, 6.3.5, 6.3.8, 6.3.10, 6.4.5, 6.6.6	●	69~70
	G4-HR4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 및 예방 조치		●	
아동노동	G4-DMA	경영접근 방식	6.3.3, 6.3.4, 6.3.5, 6.3.7, 6.3.10, 6.6.6, 6.8.4	●	69~70
	G4-HR5	아동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 및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	70
강제노동	G4-DMA	경영접근 방식	6.3.3, 6.3.4, 6.3.5, 6.3.10, 6.6.6	●	69~70
	G4-HR6	강제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 및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	70
지역주민 권리	G4-DMA	경영접근 방식	6.3.4, 6.3.6, 6.3.7, 6.3.8, 6.6.7, 6.8.3	●	69~70
	G4-HR8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	
평가	G4-DMA	경영접근 방식	6.3.3, 6.3.4, 6.3.5	●	69~70
	G4-HR9	인권관련 점검 및 평가를 받는 사업장 수 및 비율		●	
공급망 인권평가	G4-DMA	경영접근 방식	6.3.3-6.3.6	●	69~70
	G4-HR10	인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신규 공급업체 비율		●	11
	G4-HR11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가진것으로 확인된 공급업체 비율 및 대응방법		●	70
인권 고충처리 매커니즘	G4-DMA	경영접근 방식	6.3.6	●	69~70
	G4-HR12	인권영향에 따른 불만 수 및 공식적인 불만처리 매커니즘을 통해 해결된 수		●	
지역사회	G4-SO1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한 사업의 비율	6.3.9, 6.5.1-6.5.3, 6.8	●	121
반부패	G4-DMA	경영접근 방식	6.6.1-6.6.3	●	66
	G4-SO4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6.6.1-6.6.3, 6.6.6	●	
	G4-SO5	부패사건에 대한 조치	6.6.1-6.6.3	●	
공급망 사회 성과평가	G4-SO9	사회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신규 공급업체 비율	6.3.5, 6.6.1-6.6.2, 6.6.6, 6.8.1-6.8.2, 7.3.1	●	11
고객 보건안전	G4-PR1	개선을 위해 보건안전 영향 평가를 고려하는 특정 제품 및 서비스 카테고리 비율	6.7.1-6.7.2, 6.7.4-6.7.5, 6.8.8	●	39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G4-PR3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 및 라벨링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 유형과 이러한 정보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카테고리의 비율	6.7.1-6.7.5, 6.7.9	●	39
	G4-PR5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3.7.1-6.7.2, 6.7.6	●	19, 37
고객 정보보호	G4-PR8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6.7.1-6.7.2, 6.7.7	●	37

UN GLOBAL COMPACT INDEX

구분	원칙	보고서관련내용	페이지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정책	24
		기업윤리	66
	원칙 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글로벌인권경영	69
		포스코윤리규범	144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원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글로벌인권경영	69
	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하며,	공급사슬책임	81
	원칙 5 : 아동 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공급사슬 CSR 경쟁력 향상	92
	원칙 6 :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포스코윤리규범	144
환경 (Environment)	원칙 7 : 기업은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환경	94-101
	원칙 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탄소보고	102-117
	원칙 9 : 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 기업은 부당 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반대한다	기업윤리	66
		포스코윤리규범	144

지역별 연결 재무현황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한국	외부매출액	45,805,167	45,953,826	47,692,025
	총매출액	71,065,893	70,607,949	74,876,183
	부문간내부매출액	-25,260,726	-24,654,123	-27,184,158
	영업손익	3,175,318	2,925,926	3,552,728
	법인세비용	790,584	557,867	995,158
	자산	64,000,252	65,344,119	62,060,485
일본	외부매출액	2,047,686	1,920,253	2,380,651
	총매출액	2,710,336	2,476,493	2,994,402
	부문간내부매출액	-662,650	-556,240	-613,751
	영업손익	11,467	20,312	37,752
	법인세비용	6,965	10,353	11,559
	자산	899,313	985,012	1,163,333
중국	외부매출액	6,319,101	6,493,119	6,022,875
	총매출액	11,110,443	9,997,909	9,190,146
	부문간내부매출액	-4,791,342	-3,504,790	-3,167,271
	영업손익	54,200	14,420	-34,247
	법인세비용	16,685	17,848	8,374
	자산	4,931,596	4,572,967	4,296,975
기타 아시아	외부매출액	5,055,373	3,011,980	3,157,469
	총매출액	6,054,727	3,988,693	4,000,057
	부문간내부매출액	-999,354	-976,713	-842,588
	영업손익	-123,017	-14,596	-67,436
	법인세비용	17,910	19,355	17,299
	자산	7,778,814	6,910,001	5,053,826
북미	외부매출액	2,199,418	1,720,895	1,792,706
	총매출액	2,626,163	2,094,638	2,224,676
	부문간내부매출액	-426,745	-373,743	-431,970
	영업손익	59,840	81,351	139,764
	법인세비용	22,480	25,676	37,217
	자산	1,627,366	1,294,404	1,230,897
기타 지역	외부매출액	3,671,700	2,764,577	2,558,425
	총매출액	4,660,356	3,443,778	3,303,774
	부문간내부매출액	-988,656	-679,201	-745,349
	영업손익	35,722	-31,279	24,547
	법인세비용	17,555	24,237	-14,374
	자산	6,014,832	5,348,904	5,460,333

* 출처: 2014 포스코사업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포스코 윤리규범

I.기본원칙

1. 고객존중
고객의 신뢰와 성공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여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을 이해하며 고객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한다.

2. 투자자 보호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투자자가치를 극대화한다.

3. 행복일터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추구하며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의 정착을 통해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를 조성한다.

4. 상생경영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5. 환경경영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친환경경영을 수행한다.

6. 기업시민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7. 인권경영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국제기준을 지지하며 자유, 안전,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한다.

8. 정도경영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활동을 통해 법과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한다.

·부칙(2003.08.13 제정): (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6 개정): (시행일) 이 본문은 2007년 10월 16일부로 시행한다.
·부칙(2012.06.02 개정): (시행일) 이 본문은 2012년 06월 02일부로 시행한다.
·부칙(2014.06.02 개정): (시행일) 이 본문은 2014년 06월 02일부로 시행한다.

II.행동준칙

1. 고객존중
① 고객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한다.
②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으로 고객가치를 창출한다.
③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고객정보의 보호를 통해 신뢰를 구축한다.

2. 투자자 보호
①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전략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
② 주주 및 투자가의 권리와 투자수익을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③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의사를 존중한다.

3. 행복일터
①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제공한다.
② 정당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성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회사와 임직원의 신뢰와 소통을 통하여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한다.
④ 임직원과 그 가족이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과 현지국 법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고용조건을 제공한다.

4. 상생경영
① 거래회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존중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거래회사와 상호 이익과 공동의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동반자적 관계로 성장한다.
③ 거래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의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5. 환경경영
① 회사는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한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한다.
②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원료의 투입, 제품의 사용, 폐기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③ 청정생산 공정 도입과 최적 환경오염 방지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④ 천연자원, 부산물 등의 적절한 활용으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생태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⑤ 청정에너지 사용과 녹색기술 적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⑥ 환경경영 성과를 공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

6. 기업시민
① 지역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 사회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에 기여한다.
② 지역사회의 법,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함으로써 조화로운 화합을 추구한다.
③ 지역사회 발전 차원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7. 인권경영
① 인간의 기본권리인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을 지지한다.
② 인권을 존중하는 진정성있는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실사의무(Due Diligence)를 다한다.
③ 국제기준과 현지국 법규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 노동권을 존중한다.
④ 회사에 제기된 인권과 관련된 불만과 피해를 적시에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정도경영
① 회사는 인권, 노동, 환경, 문화, 경제 등과 관련한 국제기준과 현지국 법규를 준수한다.
②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④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⑤ 탈세, 회계부정,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가 있는 회사와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⑥ 회사의 직위와 직무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⑦ 임직원은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⑧ 국제적 반부패법령을 포함한 제반 법규의 준수를 위해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2003.08.13 제정): (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6 개정): (시행일) 이 본문은 2007년 10월 16일부로 시행한다.
·부칙(2009.06.24 개정): (시행일) 이 본문은 2009년 06월 24일부로 시행한다.
·부칙(2011.01.03 개정): (시행일) 이 본문은 2011년 01월 03일부로 시행한다.
·부칙(2012.06.02 개정): (시행일) 이 본문은 2012년 06월 02일부로 시행한다.
·부칙(2014.06.02 개정): (시행일) 이 본문은 2014년 06월 02일부로 시행한다.

III. 실천지침

1. 고객가치 창출과 신뢰확보

① 고객만족 실현
-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② 고객가치 창출
-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응한다.
- 임직원은 국내외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고객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한다.

③ 고객신뢰 확보
-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2.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

① 주주가치 증대추구
-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한다.

② 투자정보의 공정한 제공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투자자에게만 제공하거나, 내용을 선별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직접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③ 투명한 재무정보 산출 및 제공
- 재무정보는 정확한 거래사실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통해 산출되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보고를 작성한다.
- 투자자들이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3. 임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

① 일과 삶의 균형 추구
- 임직원의 생활여건 안정에 도움이 되는 복리후생 제공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임직원이 개인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과 성장의 기회 제공
-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제도를 마련한다
- 임직원이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최고의 역량을 지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역량향상과 자기개발 교육을 지원한다.

③ 공정한 평가 및 보상
-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임직원은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개방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 임직원은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4. 거래회사와 상생관계 구축

① 상호신뢰 구축
- 거래회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거래회사와의 거래에서 입수한 정보를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한다.
- 거래회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②거래회사와의 동반성장 추진
- 거래회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 거래회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거래회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거래회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③거래회사의 지속적 발전지원
- 거래회사에 대한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한다.
- 기업 생태계의 전체적인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거래회사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5.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① 환경경영체계 구축
- 환경경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성과 및 이슈를 공유하고 환경보존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 거래회사와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거래회사가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한편, 지역사회 환경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②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친환경생산 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③ 기후변화 대응
- 화석연·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④ 환경과 생태계 보호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6.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①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자세
- 현지국의 법규와 규정,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국가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국가사회와 관련이 있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거래회사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②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 회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의무를 다한다.
-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등 각 분야에서의 공익활동을 전개한다.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인권의 보호와 존중

① 인권관련 국제기준의 존중
-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명확한 인권보호 정책과 체계를 확립하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거래회사가 인권관련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인권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지원한다.

② 인권존중을 위한 실사의무(Due Diligence)
-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하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필요시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실사 결과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 인권과 관련된 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한다.

③ 임직원 보호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 정신적·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최저 노동의 연령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조치를 취한다.

④ 존중과 평등
-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한다.
-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 근로환경을 유지한다.

⑤ 적법하고 인간적인 고용조건 보장
- 임직원이 제기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로시간 유지 등 고용조건을 보장한다.

⑥ 지역사회의 인권 존중 노력
-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윤리실천과 준법

① 금품
- 금품은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1]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접대
- 접대는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
-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해야 한다. 단,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편의
- 편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뜻한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경조금
-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 경조사 게시란을 이용하고, 개별 사내메일 및 안내장(청첩장 및 부고장) 발송 등에 의한 안내를 금한다. 경조사 안내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인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로 제한한다.
- 직원 간 경조금[2]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반환하거나 정도경영실에 기탁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정도경영실이 요구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조금의 반환실적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해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특급호텔 등에서의 사치성 혼례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인사청탁
- 자신의 승진, 보직, 해외근무 등에 대해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인사청탁을 하지 않는다.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청탁하지 않는다.

⑥ 금전거래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행사찬조
-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경비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⑨ 정보 및 자산의 보호
-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 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⑩ 공정거래
-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않으며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고객과 거래회사에게 하지 않는다.
-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한다.

<부칙> 윤리규범의 관리와 운영

① 윤리규범의 준수
- 윤리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윤리규범의 제반 관리업무는 정도경영실로 하고, 세부 운영은 분야별 관리책임부서[3]에서 한다.
-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부서장의 책임
-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정도경영실은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비윤리 행위 신고 및 보상에 대한 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다.

④ 포상 및 징계
- 회사는 윤리규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회사는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 회사는 윤리규범을 위반하여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출입 및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 운영
- 회사는 윤리관련 중요 안건의 보고, 심의, 의결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다.

⑥ 해석
-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윤리규범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 정도경영실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⑦ 개정
- 정도경영실은 필요한 경우 윤리규범을 개정하되, 정도경영실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개정한다.

1) 이해관계자: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고객사, 거래회사, 계열사, 외주파트너사, 국내외 공무원, 제단체
2) 경조금: 사업장이 위치한 글로벌 지역에 따라 경조금의 기준은 현지문화와 관행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관리책임부서: 윤리규범을 실행함에 있어 8개의 분야별로 리스크 관리, 보고 및 평가 등의 책임을 지는 부서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은 주식회사 포스코와 그 계열회사, 합작회사 등 '포스코그룹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사와 그 하도급사'(이하 '공급사')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범에 포함된 모든 조항은 각각 동등하게 중요하며 공급사가 지켜야 할 직원의기본 인권 존중, 안전 및 보건, 환경, 윤리,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 보호, 품질경영, 동반성장과 사회공헌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직원의 기본 인권 존중
공급사는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① 자발적 취업
모든 근무와 작업은 자발적이며 직원은 합리적인 수준의 이직 통보를 한 후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사는 직원에게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허가증의 양도를 강요할 수 없다.

② 아동근로 금지
공급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38호 최저연령협약 및 자국의 최저고용연령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즉, 공급사는 15세 (국제노동기구(ILO) 제138호 최저연령협약의 예외 대상인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14세) 미만이거나 자국 법령상 규정된 최저고용연령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 작업장 견습생 제도 이용에 있어서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8 세 미만 연령의 근로자들은 안전과 보건 면에서 위험한 일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차별금지
고용과 승진, 보상, 연수기회와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성적취향, 나이, 건강상태, 정치적 견해, 국적, 민족, 결혼여부에 근거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④ 근무시간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를 포함하여 법이 정한 근무시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시간외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적절한 수준에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

⑤ 임금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인도적 대우
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협박도 있어서는 안 된다.

2. 안전 및 보건
공급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작업환경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안전한 작업절차를 통해 직원들이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추락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제공해야 한다.

3. 환경
공급사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조공정에 있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한편, 지역사회 환경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① 유해물질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화학 및 기타 물질을 확실히 파악해야 하고, 안전한 취급, 이동, 저장,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과 확실한 폐기를 보증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폐수, 고형폐기물 및 대기오염
설비가동, 산업공정 및 위생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고형폐기물,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 연무제, 부식제, 미립분말, 오존층 파괴물질 및 공정에서 생긴 연소부산물은 배출하거나 폐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특성을 파악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어 및 처리해야 한다.

③ 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생산, 유지 및 설비 공정의 변경, 원료 대체, 보존, 재료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폐수와 폐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제거해야 한다.

4. 윤리 및 공정거래

사회적 책임을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포스코그룹과 공급사는 아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비즈니스 청렴성

모든 형태의 거래에 있어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패, 강요, 공갈, 횡령 등 부적절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② 윤리실천 특별약관의 준수

공급사는 포스코그룹의 '윤리실천 특별약관'의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 약관 및 계약 관련 규정에 의거 제재를 받게 된다.

③ 공정거래 준수

공급사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뢰문화 구축

공급사는 포스코그룹 구성원, 경쟁사 등 이해관계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 혹은 타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포스코그룹 공급망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 보호

공급사는 포스코그룹과의 거래에서 취득한 각종 기술자료, 정보 및 지적재산을 포스코그룹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대외비 정보의 관리와 보호

포스코그룹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 정보 및 지적재산은 포스코그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② 지적재산 보호

포스코그룹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타인의 특허,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적재산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 품질경영

공급사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포스코그룹에 제공함으로써 World Best Supply Chain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① 품질관리

공급사는 포스코그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검증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변경관리

공급사는 설비, 재료, 작업방법의 변경 등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생시 포스코그룹에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불량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 상호간 품질관리 공급사는 자신과 거래 중인 다른 공급사에 대한 기술 및 품질지원을 통해 당해 공급사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확보에 이바지 한다.

7. 동반성장과 사회공헌

공급사는 동반성장 및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제 활동을 수행하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동반성장

건전한 기업생태계의 조성을 위하여 동반성장 활동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공급사와 거래하는 업체까지 동반성장을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사회공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수행한다.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MARCH 16, 2012

제정 1968. 3. 6	개정 1968. 7.10	개정 1969. 2.20
개정 1969. 3.20	개정 1969. 6.16	개정 1970. 2. 7
개정 1971. 2. 6	개정 1971. 11.23	개정 1972. 2. 4
개정 1972. 11.29	개정 1973. 2.12	개정 1974. 2. 5
개정 1975. 2. 8	개정 1976. 2. 6	개정 1977. 2. 8
개정 1978. 2.25	개정 1979. 2.24	개정 1981. 2.28
개정 1982. 2.23	개정 1984. 2.18	개정 1985. 2. 5
개정 1986. 2.26	개정 1987. 3. 7	개정 1988. 2.27
개정 1989. 3.15	개정 1990. 3. 6	개정 1991. 3.14
개정 1992. 3. 7	개정 1992. 10.13	개정 1993. 3. 8
개정 1994. 4.15	개정 1995. 3.15	개정 1996. 3.15
개정 1997. 3.14	개정 1998. 3.17	개정 1998. 8.20
개정 1999. 3.16	개정 2000. 3.17	개정 2001. 3.16
개정 2002. 3.15	개정 2003. 3.14	개정 2004. 3.12
개정 2006. 2.24	개정 2007. 2. 23	개정 2009. 2.27
개정 2010. 2.26	개정 2011. 2. 25	개정 2012. 3.16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포스코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POSCO라고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
2. 항만하역업, 운수업, 창고업
3. 전문직업 경기단체 운영
4. 도시가스사업, 발전사업 및 자원개발사업
5. 부동산 임대업 및 유통업
6. 지역난방사업
7. 광물의 국내외 해상수송 및 가공, 판매
8. 교육서비스업 및 사업관련 서비스업
9. 비철금속의 제조, 가공, 판매
10. 각호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 소재지)
본 회사는 본점을 경상북도 포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osc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 대구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 및 광주광역시에서 발행되는 광주일보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억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주식 및 주권의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주권은 주주의 청구에 따라 1주권, 3주권, 4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종별로 발행한다.

제7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②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9%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배당 가능액이 우선주식에 대한 최소배당총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배당을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는 설립 시에 4만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9조 (주권 불소지)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 (주식의 전자등록)
①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지정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권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주권의 전자등록제도의 도입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법령과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한다. 다만, 우선주 소유주주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작계약, 전략적 제휴 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내외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본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 방법 등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배정한 신주의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생긴 실권주 및 신주 배정 시에 생긴 단주는 이사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외에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 배정할 수 있다.

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일반공모증자 등)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본 회사가 제10조 제2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액면총액은 1천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 (명의개서 등)

① 본 회사의 주식 및 사채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신탁의 표시, 주권의 재교부 및 이에 관련된 업무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 그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관계법령 및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하는 업무규정에 의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전자주주명부)

본 회사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 (주식사무의 수수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할 경우 및 주주가 재무제표 기타 서류의 열람, 등사청구 등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받게 할 수 있다.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채

제16조 (사채의 발행)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조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합작계약, 전략적 제휴 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내외 법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1조 3천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7천억 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조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7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1조 3천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7천억 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채권의 전자등록)

본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 혹은 대표이사에게 발행권한이 위임된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해 채권을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사채권의 발행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의2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9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 이를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의 목적인 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③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소집한다.

④ 주주총회는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사장 또는 부사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 대구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 및 광주광역시에서 발행되는 광주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 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사내이사 중 사장, 부사장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의장의 총회 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대리인은 총회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인 주주는 소속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의 정족수와 의결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3.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5. 회사의 합병계약(소규모합병의 경우는 제외)
6. 이사회가 회사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7. 기타 법령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제25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5장 이사 및 이사회

제27조 (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하로 하며, 이 중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28조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 중 약간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써 사내이사에게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하여 각 조별로 집중투표를 적용한다.

제29조 (대표이사 회장의 선임)

① 대표이사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CEO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사내이사 후보가 대표이사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이사회는 CEO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해당 후보 1인을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그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경우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한다.

③ CEO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9조의2 (대표이사 회장 이외의 사내이사 후보의 추천)

대표이사 회장 이외의 사내이사 후보는 제45조 제1항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가 추천한다.

제29조의3 (사내이사 후보의 자격)

① 사내이사는 본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자 중에서 경영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사실이 있는 자,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정지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고 유예기간 중 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회사의 사내이사가 될 수 없다.

제30조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 후보는 제45조 제1항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제31조의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추천한다.

② 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관계 법령에 의한 주주제안권 행사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제안할 수 있다.

③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산업계, 금융계, 학계, 법조계, 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32조 (대표이사의 임무)

①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회사 업무 전반을 통괄하며, 모든 이사가 최근의 경영상태와 회사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대표이사 및 기타 이사간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 회장이 정한다.

제33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이사회 참석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만료할 때에는 그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35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을 한다. 그러나, 법정원수에 달하고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는 때에는 보결선임을 보류 또는 차회 정기주주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보수와 성과금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며, 세부운영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사내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사외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의 보상)

본 회사는 이사가 본 회사 이사의 자격으로 어떠한 소송, 제소, 변론의 당사자가 되어 본 회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 손실 및 채무에 대하여 상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본 회사가 이를 보상 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가 의안으로 제출한 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은 다른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정기이사회를 소집할 때 또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이사회의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 회장 후보의 선정과 관련된 이사회의 결의요건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제42조 (이사회의 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각 이사가 제안한다. 각 이사가 의안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회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긴급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 회장이 다른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차기 이사회에 그 경위와 집행사항을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 (전문위원회)

① 이사회 산하에 다음 각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평가보상위원회
3. 재정및운영위원회
4. 경영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내부거래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권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6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비등기임원)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정사항 및 경영상 중요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비등기임원을 둔다.

② 비등기임원은 대표이사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 직책에 비등기임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등기임원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로 구분하며, 그 보수와 성과금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이 정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퇴직금규정의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퇴직금 기준에 준한다.

④ 비등기임원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 회장이 정한다.

⑤ 비등기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 단서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47조 (고문 및 촉탁)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의 명으로 임원대우의 고문과 촉탁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8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원 사외이사로 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시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49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하였음에도 지체없이 이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보고 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회의전말을 기록한 의사록과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0조 (감사위원회의 의결방법)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제51조 (외부감사인 선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본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

제52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 승인, 공고)

①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제계정을 결산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의 회일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로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서류
4. 연결재무제표
5. 영업보고서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일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하며, 영업보고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4항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삭제)

제55조 (잉여금의 처분)

본 회사의 잉여금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로써 다음 각호 이외에도 처분할 수 있다.

1. 이익준비금 : 금전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주주에 대한 배당금
4. 임원퇴직공로금

5. 임의적립금
6. 배당평균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 처분액
7.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56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본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 이익을 중간배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7조 (이익소각)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부칙 (2012. 3. 16)

본 개정 정관 중 제27조는 제44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나머지 조항은 2012.4.15부터 각 시행한다.

부칙 (2011. 2. 25)

본 개정 정관은 제43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6)

본 개정 정관은 제42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 27)

본 개정 정관은 제41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3)

본 개정 정관은 제39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24)

본 개정 정관은 제38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3. 12)

본 개정 정관은 제36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14)

본 개정 정관은 제35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15)

본 개정 정관은 제34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16)

본 개정 정관은 제33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17)

본 개정 정관은 제32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16)

본 개정 정관은 제31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8. 20)

본 개정 정관은 제31기 사업연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3. 17)

본 개정 정관은 제30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 14)

본 개정 정관은 제29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15)

본 개정 정관은 제28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3. 15)

본 개정 정관은 제27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4. 15)

본 개정 정관은 제27기 사업연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3. 8)

본 개정 정관은 제25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0. 13)

본 개정 정관은 제25기 사업연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3. 7)

본 개정 정관은 제24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3. 14)
본 개정 정관은 제23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 6)
본 개정 정관은 제22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5)
본 개정 정관은 제21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2.27)
본 개정 정관은 제20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3. 7)
본 개정 정관은 제19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2. 26)
본 개정 정관은 제18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2. 5)
본 개정 정관은 제17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18)
본 개정 정관은 제16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23)
본 개정 정관은 제14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2. 28)
본 개정 정관은 제13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2. 24)
본 개정 정관은 제11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2. 25)
본 개정 정관은 제10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2. 8)
본 개정 정관은 제9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2. 6)
본 개정 정관은 제8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2. 8)
본 개정 정관은 제7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2. 5)
본 개정 정관은 제6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2. 12)
본 개정 정관은 제5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11. 29)
본 개정 정관은 제5기 사업연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2. 4)
본 개정 정관은 제4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1. 23)
본 개정 정관은 제4기 사업연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2. 6)
본 개정 정관은 제3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 2. 7)
본 개정 정관은 제2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 6. 16)
본 개정 정관은 제2기 사업연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 3. 20)
본 개정 정관은 제2기 사업연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 2. 20)
본 개정 정관은 제1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8. 7. 10)
본 개정 정관은 제1기 사업연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8. 3. 6)
본 정관은 196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기업지배구조헌장

전 문

포스코는 사회기반이 되는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강하고 좋은 글로벌 우량기업을 지향한다.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은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성실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초석이 되며, 글로벌 우량기업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한다. 포스코는 본 헌장에 따라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전문경영진의 투명·정도·책임경영을 고양함으로써 주주, 고객,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균형있는 권익증진에 노력한다.

Ⅰ. 총 칙

① 포스코의 사업은 주주의 장기적인 가치 증진을 목표로 최고 경영자를 정점으로 하는 전 임직원에 의해 수행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며, 경영진의 주주가치 증진 노력을 확인하고 감독한다.

② 포스코는 주주 가치의 증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와 전문경영진간 견제와 균형이 조화된 글로벌 전문경영체제를 정착·발전시킨다.

③ 포스코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경영상의 주요사항과 재무제표 등을 신속·정확하게 공개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기구를 통해 재무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Ⅱ. 주 주

2-1.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포스코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이익 분배 참여권
-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 이사 후보자 등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② 합병·정관의 변경·자본의 감소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③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의 자유 의사에 따라 편리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회사는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서면에 의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2-2.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① 회사는 보유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의 다과에 따라 그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②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③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체주주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장되며, 회사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소수주주권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

2-3. 주주의 책임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여야 한다.

② 대주주는 회사와 다른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Ⅲ. 이사회

3-1.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기관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핵심 경영목표와 기본 경영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 경영목표 및 핵심 경영전략의 수립
- 경영진의 임면, 감독, 평가 및 보상정책 결정
- 경영성과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 중요한 투자사업, 대규모 자금차입,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2. 이사회의 구성

① 회사는 다양한 의견의 효과적인 논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3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중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에는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둔다.

③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3-3. 이사의 자격

① 이사는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모든 주주의 장기적인 가치 증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사내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고위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산업계·금융계·학계·법조계·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경영진과 특정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4.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② 대표이사 회장 선임의 경우 CEO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친 해당 후보 1인을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추천하여 동 후보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한다.

③ 대표이사 이외의 사내이사 후보는 사외이사 3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④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 3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잔여임기 1년 이상인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 후보자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 중 약간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써 사내이사에게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3-5. 사외이사의 역할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하는 동시에 건설적인 조언을 통해 경영진을 지원한다.

②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③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 의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회의를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사외이사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내이사 또는 비등기임원도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3-6. 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충실 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위해 직무에 임해야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사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포스코 윤리규범』 및 『사외이사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윤리규범에 명시된 행동 준칙의 준수를 감독한다.

③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적절한 절차와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⑤ 회사와 이사간의 이해 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해 이사는 사직하여야 하며, 이사는 자신의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론이나 결정에는 스스로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

3-7. 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 결정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특정기능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이사회 내에 이사후보추천위원회·평가보상위원회·재정및운영위원회·경영위원회·감사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를 둔다.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평가보상위원회·감사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년 7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한다.

3-8. 경영진 평가 및 보상

① 이사회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진 평가 보상체계를설계·운영한다. 경영진의 경영활동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보상과 재선임에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연계된다.

②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 구성된 평가보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립한 평가기준과 경영목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경영진의 활동내용을 평가한다.

IV. 감사기구

4-1.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관한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 경영진의 업무활동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재무활동에 대한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과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
- 기타 법령 및 정관, 감사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③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 이사·비등기임원 또는 관련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2. 외부감사인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 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되며, 외부 감사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V. 이해관계자

① 회사는 직원·고객·채권자·공급자·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을 성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②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에 노력한다.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VI. 공시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②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사외이사 윤리강령

우리 포스코의 사외이사 일동은 회사의 윤리경영을 선도하며 정착하는 데에 솔선수범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회사의 경영관리를 전문경영인에게 위임하고 있는 포스코 주주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임 임원들로서 회사의 이익과주주의 공익을 위해 공정하고 명료한 자세로 모든 업무에 임한다.

2

우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중시하며 능력과 성과 위주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속적으로 승계 발전 시키기 위하여 각자의 전문적 판단력을 최대로 발현한다.

3

우리는 포스코가 회사의 역사성과 제철보국이라는 창업 정신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우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호 협력하는 기업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을 다한다.

5

우리는 사외이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인사와 영업에 부적절히 개입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6

우리는 포스코의 윤리규범을 존중하며 다른 임직원과 함께 이를 준수하고 적극 실천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기업문화의 창달에 앞장선다.

2010년 12월
(주)포스코 사외이사 일동

이사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장)
①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중 선임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를 둔다.

제3장 회의

제7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1월, 2월, 3월, 5월, 8월, 11월,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8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 이외의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소집절차)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의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위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0조(제안 및 의안설명 등)
① 이사회의 의제는 각 이사가 발의하며, 각 이사가 이사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의장과 대표이사 회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부서는 이사회 부의요청서와 부의안건 내용을 간사를 통하여 의장과 대표이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의된 의안의 설명은 당해 의안의 주관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제11조(성립과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연임의사를 표명한 현직 대표이사 회장에 대한 CEO후보추천 위원회의 자격심사 대상여부
나.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에 따른 사전승인
다. 이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이사 등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그 자회사)과 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사전승인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 및 보고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긴급사항)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 회장이 다른 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거 긴급 조치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관계인의 참석)
의장은 필요시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이사회 의사록 작성업무는 이사회에 의안을 부의한 부서장이 담당한다.
④ 이사회 의사록 원본은 이사회 주관부서에서, 사본은 당해 업무 소관부서에서 보관하되, 10년간 보존한다.

제4장 전문위원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 중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은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삭제
③ 평가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한다.
④ 재정및운영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과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한다.
⑤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⑥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한다.

제1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사외이사중 호선한다. 다만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③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회장 또는 소속 위원은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에의 재부의)

위원회는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 부의사항)

① 삭제

② 평가보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 재정및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④ 경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⑤ 내부거래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단, 다른 위원회와 부의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하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100억 원 이상 투자안건(신규출자,증자,지분 처분 등)의 경우 경영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각 이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해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준용)

위원회의 소집절차, 제안 및 의안설명, 성립과 의결, 관계인의 참석,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전문가 조력)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24조(사외이사 회의)

① 이사회 의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회의를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는 필요시 공통 의제에 대해서는 의장이, 특정 부문 의제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사외이사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내이사 또는 비등기임원이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간담회)

① 중장기 경영방침,계획 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이사 및 주요 비등기임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필요 시 임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제26조(승계 Council)

이사회는 CEO 후보 발굴을 위하여 승계 Council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이사회 평가)

이사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사회, 전문위원회 및 개별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주관은 평가보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28조(사외이사 경비)

사외이사에게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업무관련 자료 및 정보조사 비용, 참석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7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이사회 부의 및 보고사항

[이사회 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매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연결재무제표의 승인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주식의 소각

(6)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경영목표 및 핵심경영전략 수립(중장기 경영방침·계획, 연도 운영목표, 경영합리화 계획 등)

(2) 중요한 CI 제정 및 변경(기업이념, 사기, 배지 등)

(3) 그룹차원의 구조조정 계획

(4) 매기의 사업계획 및 예산

(5) 이사회 의장 선임

(6) 사내이사 후보 추천

(7) 대표이사 회장 선임,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 선임 및 사내이사 직위부여

(8) 삭제

(9) 경영승계 및 경영자 육성계획

(10) 경영진 평가, 보상계획

(11) 이사회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결정

(12)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3) CEO후보추천위원회와 승계 Council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다음 각호 사규의 제정 및 개폐

가. 이사회·이사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나. 내부회계관리규정

3. 투자 및 재무에 관한 사항

(1) 사외 신규출자, 출자회사 증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자본금의 10% 초과)

(2) 사내투자계획(1,000억원 이상 Project성 투자중 신증설 사업)

(3) 유·무형 고정자산 및 중요한 투자 자산의 취득 및 처분(자본금의 10% 초과, 유·무형 고정자산 및 중요한 투자 자산 단위당 장 부가액기준)

(4) 결손처분(100억원 초과)

(5) 이익잉여금 처분의 결정

(6)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7) 실권주, 단주 처리

(8) 이익 소각

(9) 자사주 매입 및 처분결정

(10) 준비금의 자본전입

(11) 사채모집 및 중요한 자금차입(1,000억 원 초과 신규 장기차입)

(12) 전환사채의 발행

(1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4) 기부찬조(10억 원 초과)

4. 기타

(1) 재무에 미치는 효과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화해를 하는 경우 및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화해를 하는 경우(단, 제반사정상 재무에 미치는 효과가 10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2) 상법이 정한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 단일거래 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거래

나. 당해 사업연도 중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거래(단,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등으로 거래총액을 승인 받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제외)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위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100억 원 이상)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100억 원 이상)

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100억 원 이상)

(4)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

(5) 주식사무수수료의 수수방법 등의 결정

(6)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7)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8)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가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

(9) 준법지원인 임면,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개정

[이사회 보고사항]

1. 전문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출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보고

(별표2) 삭제

(별표3) 평가보상위원회 부의사항
1. 경영승계 및 경영자 육성계획 수립
2. 경영진 평가, 보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사전심의

(별표4) 재정및운영위원회 부의사항
1. 회사 내부의 가치·재무적 건전성에 관한 발전적 정책입안
2.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의 의제 개발 및 운영기준 설정
3.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및 폐지 사전심의
4. 이사회산하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결정 사전심의
5. 재무에 미치는 효과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화해를 하는 경우 및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화해를 하는 경우의 사전심의(단, 제반사정상 재무에 미치는 효과가 10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6. 사외투자에 관한 사항
(1) 사외 신규출자, 출자회사 증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중 비철강 부문 사전심의(자본금의 10% 초과) 단, 내부거래위원회 심의사항은 제외
(2) 사외 신규출자, 출자회사 증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중 비철강 부문 승인(50억 원 초과, 자본금의 10% 이하) 단, 내부거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제외

7.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기부찬조 심의·의결 및 10억 원 초과 기부찬조 사전심의 (단, 내부거래위원회 심의사항은 제외)
8. 사채모집 및 중요한 자금차입 심의·의결(1,000억 원 초과 차환 차입 포함)
9. 사채모집 및 중요한 자금차입 사전심의(1,000억 원 초과 신규 장기 차입)
10. 비유동자산 담보제공 심의·의결
11. 출자회사 담보·보증 등 채무부담 인수 심의·의결 (단, 내부거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제외)

(별표5) 경영위원회 부의사항
1. 경영에 관한 사항
(1) 직급체계, 인력개발 및 조정에 관한 중요사항
(2) 근무제도 및 복리후생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3) 석좌교수 신규개설계획
(4) 주택정책수립(주택자금 지원 기준, 주택건립 기본계획)
(5) 주주명부 폐쇄결정

2. 재무에 관한 사항
(1) 사내투자계획 사전심의
- 1,000억 원 이상 Project성 투자 중 신증설 사업
(2) 사내투자계획 승인
- 1,000억 원 이상 Project성 투자 중 신증설 이외의 사업
-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미만 Project성 투자
- 100억 원 이하 Project성 투자 중 신증설 사업
- 100억 원 초과 정비성투자
- 50억 원 초과 경상투자
(3) 사외 신규출자, 출자회사 증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중 철강 부문 사전심의(자본금의 10% 초과), 단, 내부거래위원회 심의사항은 제외
(4) 사외 신규출자, 출자회사 증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중 철강 부문 승인(50억 원 초과 자본금의 10% 이하), 단, 내부거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제외
(5) 50억원 초과 자본금의 10% 이하의 유·무형 고정자산 및 중요한 투자자산의 취득·처분(유·무형 고정자 산 및 중요한 투자 자산 단위당 장부가액기준), 단, 내부거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제외
(6) 5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결손처분 승인
(7) U$ 100만 초과 기술도입 및 기술판매계약 승인
(8) 내부거래 사전심의 안건 중 100억 원 이상 투자안건(신규출자,증자,지분처분 등)의 사전심의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

(별표6) 내부거래위원회 부의사항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내부거래(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관련사항

가. 내부거래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대책 검토
나. 내부거래 사전심의 (거래금액 100억 원 이상)
다. 내부거래 심의·의결 (거래금액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정하여 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와 1인의 사내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사외이사 중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선임일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선임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4조(권한)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의 주주제안권에 의하여 후보가 적법하게 추천된 경우, 해당 후보를 포함시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내이사 후보의 사전 자격 심사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을 위해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을 운영한다.

제5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3조 제4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자격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
2.사내이사 후보의 사전검토 및 자격심사
3.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사전심의
4.사내이사 중 대표이사 회장 이외의 대표이사 선임 사전심의
5.삭제
6.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제8조(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0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www.posco.com

본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괴동동)
서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대치동)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2(동촌동)
광양 전라남도 광양시 폭포사랑길 20-26(금호동)

Design 레드닷브랜딩(주)
Photographer 안종익, 김중호

본 보고서는 FSC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에 콩기름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FSC MIX Paper from responsible sources FSC™ C010565
www.fsc.org

PRINTED WITH SOY INK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posco